

2013. 경기 전통여성문화 발굴 및 활용



살림문화프로젝트 기본연구:
빙허각 이씨로부터 불러내는 희망

2014. 2

살림문화프로젝트 기본연구:
빙허각 이씨로부터 불러내는 희망

연구책임자 : 이해경

공동연구자 : 김명우

김정희

김지옥

신지영

정해은

제 출 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본 연구물을
「경기 전통여성문화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 2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목차

I. 살림문화프로젝트를 열면서	1
1. 연구의 배경	2
2. 왜 살림문화인가?	4
3. 연구의 입장과 방법	10
II. 경기도의 전통 여성인물 소개	14
1. 머리말	15
2. 경기도의 전통 여성인물 소개	17
3. 맺음말	34
III. 빙허각 이씨의 삶에서 불러오는 ‘살림여성주의’	36
1. 머리말	37
2. 빙허각 이씨의 삶: 목가적인 삶의 쓰라림	39
3. 『규합총서』는 어떤 책인가?	46
4. 『규합총서』에 담긴 살림/살이	50
5. 맺음말-‘살림여성주의’에 대한 전망	58
IV. 여성 노래놀이의 상징성과 놀이전승	60
1. 머리말	61
2. 노래놀이의 유형과 사례	62
3. 여성 노래놀이의 연행과 상징	83
4. 맺음말	85
V. 살림의 전문가들: 바느질과 음식	86
1. 들어가며: ‘살림’을 묻는다	87
2. 살림 교육으로 길러지는 여성	89
3. 바느질의 명인들	91
4. 자수공예와 한국근현대미술	94
5. 자수가의 한	98
6. 자수공예와 미술	102

7. 살림의 또다른 명인: 장과 김치의 명인	106
8. 나가며: 살림과 여성의 역사를 위하여-힐데가르트의 예	109
참고도판	113
 VI. 빙허각의 딸들이 만들어 가는 살림 공공화: 현실과 전망	118
1. 들어가는 말: 살림 공공화(公共化=)마을 살림의 배경	119
2. 육아·교육의 공공화	123
3. 먹을거리 살림의 공공화	131
4. 옷·거주 살림의 공공화	136
5. 생태마을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마을살림	142
6. 살림 공공화의 심화·확산을 위하여: 거버넌스	152
 VII. 살림문화 사업 추진방안	158
1. 살림문화 사업을 제안하면서	159
2. 살림문화의 개념과 범주	160
3. 살림문화 사업의 단계(2014~2015)	162
4. 사업의 필요성	164
5. 살림문화 사업의 계획과 추진	166
 VIII. 참고문헌	176

I. 살림문화프로젝트1)를 열면서

이혜경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1. 연구의 배경
2. 왜 살림문화인가?
3. 연구의 입장과 방법

1) 내가 개인적으로 빙허각 이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04년 경기도 실학축제 중에서 여성실학 축제에 관여하면서부터이다. 그때 처음 빙허각 이씨의 규합총서를 접하면서 깨끗한 공기, 정갈한 장독대, 정성 어린 음식들, 무공해의 삶이 상상이 되며 새삼 마음 깊이 파고들었다. 빙허각 이씨의 삶에도 고단함이 없을 리는 없겠나만서도 오늘날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빙허각 이씨를 처음 접했을 때 구체적 일상에서의 경험부터 출발하는 반복되는 노동으로부터 창출된 전문성, 삶의 지혜, 지식들에 매료되면서 오늘날 우리의 여성들의 삶, 나아가 이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해온 여성운동, 여성학의 노력들, 특히 내가 관여해온 여성문화예술운동 전반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큰 딸아이의 결혼 이후, 그 사는 모습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공부를 많이 한 나의 사랑하는 딸이 바깥일과 집안일을 함께 치뤄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한 손자 손녀의 출생과 그들을 길러내는 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현대의 삶 속에 우리가 이룬 것과 잃어버린 것에 대해 새삼 생각이 많아지게 되었다. 여자들의 바깥일에 대해서, 살림살이에 대해서.

1. 연구의 배경

21세기가 시작되는 즈음부터 전지구적 신자유주의가 지구상의 모든 시스템에, 일상생활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사회를 관통하는 지배적인 경제체제, 지배적인 세계관, 지배적인 문화가 지구 전체를 파괴하는 추진력이 되고 있다. 1997년 즈음 시작된 대한민국의 IMF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연동되어 있었고 2007,8년경 뉴욕 월스트리트로부터 시작된 세계금융위기는 전세계를 불안에 떨게 했다.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 유럽도, 아시아도, 그 어느 곳도 자유롭지 못했다. 각국은 서둘러 금융구제정책을 펼치지만 그것은 일시적 미봉책이라는 불안과 위기의식을 떨쳐버릴 수는 없다. 가장 안전한 곳이라 믿었던 은행, 신용을 내세우는 은행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자식 교육비든, 노후대책이든 나의 노동의 결과로 모아놓은 돈을 더 이상 믿고 맡기기 힘들게 된 것이다. 거대한 글로벌 경제 시스템, 거대한 우산, 거대한 도미노, 거대한 쓰나미. 신 자유주의 지구화는 금융과 경제위기뿐 아니라 환경위기, 기후위기, 식량과 농업의 위기 등과 같은 복합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즉 삶 전체를 뒤흔드는 문명의 위기인 것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경제란 자본주의 경제인데, 이는 다음과 같다.

- 더 많은 임금을 원하는 노동자
- 더 많은 이윤, 더 적은 비용(특히 임금비용)을 원하는 경영자
-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물건들을 원하는 소비자
- 사적재산으로부터 더 많은 이득을 얻기를 원하는 재산가
- 금융투자로부터 더 많은 이득을 얻기를 원하는 투자자²⁾

우선 나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서로서로 경쟁해야 한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기본원리이다. 생존의 기본법칙은 나를 위해서 남을 짓밟기이다. 여기서 ‘남’이란 인간뿐 아니라 자연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을 위한 자연착취, 남성을 위한 여성착취, 제1세계를 위한 제3세계 자원 침탈하기, 우리민족 우리국가를 위하여 남의 나라 침략하기³⁾, 우리 가족, 내 새끼를 위해 남의 것을 빼앗고 짓밟으라고 가르치기, 나

2) 캐더린 김슨, 「경제를 반환하라: 공동체 구성을 위한 윤리와 방법들」, 『시장사회를 넘어: 공동체 경제와 젠더』, 이화여자대학교. 2013, 27쪽(김옥길 기념강좌운영위원회).

3) “월러스타인(1974)이 지적한 것처럼, 자본주의 경제는 초기부터 주변국가와 농업의 주변화 및 착취에

를 위하여 남을 죽이는(killing), 죽임의 경제, 죽임의 문화인 것이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끊임없이 경쟁에서 살아남아 남보다 더 부자가 되길 원하고 더 성공하길 원하며 더 권력을 잡길 원한다. 그래서 일 중독, 권력 중독, 성공 중독에 빠져 있다. 이로 인한 피로감은 술과 오락, 소비로 해소하려 하지만 이 또한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등을 유발하면서 다양한 병리적 상태에서 허우적거리는 셈이 되어버렸다. 결국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스템은 모든 나라, 모든 지역의 삶을 식민화하고 있다. 점점 일상으로, 내부로, 몸과 마음까지!

사회의 가장 기초단위로 여겨져 왔던 가족도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⁴⁾ 글로벌 경제체제 속에서 기업의 이전도 글로벌해 지면서 남편은 두바이, 아내는 수원, 아내는 서울, 남편은 전주, 각기 직장에 따라 거주하며 헤어져 지내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고 주말에나 상봉하는 주말 부부들도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미국이나 영국, 호주, 싱가포르, 인도 등 다양하게 경제적 수준에 따라 해외에서 교육받는 일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가족이 친밀성의 관계를 유지하는 공동체로서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적 단위라는 인식은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신자유주의 글로벌 경제는 개별화를 급격히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경쟁사회에서 제각각 살아남기 위해 가족은 더 이상 반드시 함께 생활해야 하는 기초단위가 아닌 것이다.

가족의 해체와 개별화된 개인의 증가⁵⁾는 이미 익숙해져 버린 새로운 사회적 현상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정서적 교감과 친밀성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는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신자유주의 글로벌 경제체제의 세계적 지배는 우리들 일상에 깊숙이 영향을 주고 있다. 취업자체가 어려운 청년들, 대학생들은 교양과 취미활동을 통해 폭넓게 세계를 배우고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연습을 하기보다는 스펙 쌓기나 취업 준비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여성들의 취업은 더욱 불리한 여건 속에서 비정규직, 계약직의 비율이 점점 더 늘고 있다. 결혼한 여성의 육아문제 또한 오랜 기간의 여성운동 속에서의 여성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해결은 되지 못해 여전히 미해결의 사회적 문제이다. 결혼한 여성들의 직장으로서의 복귀 또한 쉽지 않아 경력단절의 문제, 일과 가정 양립의 문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성들은 결혼 후에는 갑자기 슈퍼우먼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피로감과 고단함으로 온몸이 얼얼하고 감각이 마비될 정도로 직장일과 가사노동을 동시에

기반을 둔 세계적 체제였다. 이 식민주의적 구조는 18, 19세기에 ‘자유무역’이라고 알려져 왔던 것의 기반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마리아 미즈 배로니카 벤홀트-통젠 저·꿈지모 번역, 『힐러리에게 암소를.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 동연, 2013, 69쪽.

4) 올리히 벡·엘리자베트 벡 저, 한상진·심영희 번역, 『위험한 세계와 가족의 미래』, 새물결, 2010.

5) 올리히 벡·엘리자베트 벡, 위의 책, 2010.

해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어려움은 내색도 하지 않아야 세련되고 능력 있는 여성으로 평가된다. 여성들에 대한 백래쉬 또한 만만치 않다. 경제가 어렵고 취업이 어려울수록 이 모든 문제가 공적 영역으로 진출한 여성들 때문인 양 다시 보수적 이데올로기가 득세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 여성들에게는 더욱 더 불리하게 뒷걸음치는 상황이다.

이에 여성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은 없을까 하는 문제의식과 함께 본 연구는 출발한다.

2. 연구의 취지: 왜 살림문화인가?

자본주의 경제의 전 지구적, 전일적 지배 속에서도 비자본주의적 경제와 문화는 언제나 있어왔다.⁶⁾ 그 대표적인 것이 여성들의 살림살이 경제/문화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노동의 대가는 화폐로 지불되지만 여성들의 살림살이 노동은 그 대가가 화폐로 지불되지 않는 부불노동, 무보수 노동이다. 필요할 때만 여성들의 희생과 사랑의 숭고함을 칭송하는 것만이 그 유일한 대가였다.

실제 여성들의 가사노동인 살림살이 노동은 자본주의 경제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커다란 부분이다.

산업화, 근대화와 더불어 남성 뿐 아니라 여성들은 공적영역으로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동원되거나 뛰어들었고 공적영역에서의 평등한 임금을 보장받는 것이 여성 노동운동의 주요과제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가정살림과 바깥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일은 여성들의 삶을 더욱 억압적으로 구조화하여왔다. 안팎으로의 노동, 이중 삼중의 노동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하는가 하면 아이를 낳고 가르는 일, 누군가를 돌보며 살려내는 일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을 달래고 어르는데 필요한 슈퍼우먼의 신화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슈퍼우먼이어야 하는 고단한 삶의 현실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은 자신의 삶 뿐 만이 아니라 자식들이 살아남기를 바라면서 자본주의적 생존원리에 따라 경쟁의 법칙, 정글의 법칙에 순응한다.

살림을 사는 일: 이는 아이를 낳고 기르며 교육하고, 가족들의 의식주를 관장하는 일이며 가정의 대소사는 물론 한 가정과 관계되는 사람들-친인척, 마을 사람들과의

6) 형무소에서 노동, 전 세계의 섹스산업, 가내 서비스산업의 착취적 형태 뿐 아니라 비착취적 형태로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부를 전유하고 분배하는 수많은 자영업자, 혹은 독립 생산업자들, 자급경제 집단들, 회원집단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잉여를 함께 공유하고 분배하는 수많은 공동체와 협동조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관계-도 챙기는 일이다. 또한 그들을 정서적으로 돌볼 뿐 아니라 경제적 경영도 책임지는 일로서, 이는 본래 생명을 살리는 일이자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도 책임지는 일이다. 이러한 일을 역사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여성들이 담당하여 왔다. 하지만 여성들의 일, 여성들의 경험과 지식, 여성들의 지혜와 재능은 그 중요성에 비해 역사적으로 그 가치와 의미가 폄하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가부장문화가 강화되어 올수록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나누는 성 역할분리는 강화되어 왔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남녀 간의 역할을 고착화 윤리화 하는 주자학 이데올로기 속에서 남녀 간의 내외문화는 더욱 강화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서면서 남성중심의 공적 영역에서의 노동은 임금이 지불되는 반면, 자본과 기업이 개입되지 않는, 이윤 창출의 직접적 형태가 아닌, 사적 영역에서의 가사노동은 점차 살림살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여성들에게 억압과 희생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변화하여 왔다. 즉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와서는, 이 살림노동은 더욱더 여성들에게는 억압적 방식으로 구조화 되었고, 살림은 단순히 가사노동으로 그 가치와 의미가 축소되고 왜소화 되었으며 도구화되기에 이르렀다.

살림 사는 일은 현재 구조화된 핵가족이 감당하기에는, 즉 여성이 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전방위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의·식·주의 많은 부분을, 정서적 건강이나 행복감을 포기하고서라도 현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이들의 교육에, 즉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이들의 교육에 주부의 역할이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입시를 목전에 둔 아이를 상전 모시듯 조심조심하고, 엄마는 아이들을 학원에 모시고 가는 운전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수발하는 매니저 같은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가족들의 식생활, 휴식, 유대, 문화적 소양과 사람으로서 해야 할 바에 대한 교육, 교양은 뒷전이 되었다. 경쟁사회에서 살아남는 자녀교육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아빠는 돈 버는 기계, 아이는 공부하는 기계, 엄마는 수발드는 기계로 서로가 서로를 도구화하는 관계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살림이 살림이 아니며, 살림의 정신에 입각한 살림문화를 일구어 내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회가 만들어내는 죽음의 문화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적, 식민적 삶의 방식에 저항하여, 살림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율적 경제, 살림의 문화를 만들어간 사례는 참으로 많다. 일례를 들자면 아프리카 케냐의 마라구아의 여성들이 있다.⁷⁾ 아프리카 케냐의 마라구아에는 커피 재배농장이 많다. 남성들은 대체로 작은 커피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나 여성들은 법적으로 땅

7) 마리아 미즈 배로니카 벤홀트-툼젠 저·꿈지모 역, 앞의 책, 『힐러리에게 암소를,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에서 요약.

을 소유하지 않는다. 커피는 소농들에게는 괜찮은 수입이었으며 전보다 많은 외화 수입을 국가에 안겨 주었다. 그런데 수출생산에 중요한 몫의 노동을 하는 여성들이 더 이상 커피생산에 협력하기를 거부했다. 여성들과 그녀의 아이들이 그 커피농장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결국 남편으로부터 거의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남편들은 도시 술집에서 수입을 술값으로 탕진하며 시간을 보냈고 아내와 아이들에 의해 그 커피가 수확되고 있음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결국 케냐의 커피 생산량은 떨어졌고 이에 1986년 세계은행과 IMF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처방했고 정부는 더 높은 가격을 남성들에게 제시하여 남편들이 자신의 아내로 하여금 다시 커피를 수확하게 하도록 장려했다. 국제개발 전문가들은 여성들이 다시 남편의 밭에서 무보수 노동을 계속하도록 설득하였다. 그러나 마라구아 여성들은 커피나무 사이에 콩을 심기 시작했다. 물론 몰래 한 일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녀들은 자신들과 아이들을 더 잘 먹일 수 있었다. 마라구아의 여성들은 남편도, 정부도 자신들의 식량과 안정적인 현금 수입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여성들은 커피나무를 뽑아서 그것을 땀감으로 사용했다. 커피나무를 뽑는 행위는 몇 년간 감옥에 가야하는 중죄로 처벌되었지만, 여성들은 이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경찰은 우리가 커피농장에서 한 일에 돈을 지불하라”고 주장했고, 이는 커다란 운동으로 동 아프리카 곳곳에 퍼져갔다. 생존을 되찾기 위한 저항이 여러 형태로 번져간 것이었다.

여성들의 투쟁은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세 단계의 여성착취, 즉 남편에 의한 착취, 국가에 의한 착취, 국제적 커피 무역,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자본에 의한 착취에 대항하여 이루어졌다. 여성들은 투쟁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자급기반을 만들었고, 이 때문에 투쟁에서 승리했다. 자급의 기반인 땅을 다시 얻으면서 남편에 의한 통제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국가에 묶이게 한 장기간에 걸친 부채의 악순환을 깨뜨렸다. 집에서 재배한 과일과 야채를 가지고 스스로 지역시장을 만들었다. 여성들은 국제적인 커피 기업으로부터, 그리고 초국적 자본에 의한 통제로부터 해방되었다. 남성들은 1980년대 말에서야 비로소 지역시장을 위해 과일을 생산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투쟁하기 시작했다. 남성들은 여성들의 저항이 정부가 강요해오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경제 기반인 땅을 지키는 투쟁임을 깨달았다. (Brownhill, Kaara and Tunner 1997a. 42)

이어서 이 책에서는 케냐여성들의 저항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을 말한다.⁸⁾

여성들은..... 독립적인 자급생산을 개발함으로써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기 일에 대한 임금을 위해 싸우지 않았고, 땅, 물과 같은 기본적인 자원을 자기통제 아래 가져왔다. 그들은 이를 조용하면서 직접적인 집단적 행동으로 이루어냈다. ‘정치적으로’ 행동하려고 전략적으로 조직화한 것도 아니었다. 남편이나 국가와는 다른 차원의 정치를 실천했다. 여성들은 지역시장으로 자급사회를 만들었다.

여성들은 자신을 착취하는 모든 권력들, 즉 남편과 국가와 초국적 자본에 동시에 맞서 투쟁했다. 이러한 권력들은 서로 긴밀히 얽혀있다. 정부는 여성을 무보수 노동력으로 유연화하려는 행위자로서 남편을 몹시 필요로 했다. 글로벌 가부장제의 우두머리인 국제자본과 그 기관들은 막대한 수출 생산과 부채의 늪을 통해 남편을 통제하고 조정했다.

여성들은 지배체제 안에서 ‘가정주부화 된’ 개인으로 서려고 하지 않고, 전통적이고 집단적인 여성의 조직을 고수했다. 그들은 정부가 통제하는 시장 밖에서 이 조직을 다시 풍성한 지역생산과 시장체제로 만들고 확장시켰다.

이렇게 해서 여성들은 스스로 지역의 독립적인 자급기반을 만들었고, 자신의 노동력을 남편과 정부 그리고 초국적 기업에서 되찾았다. 결과적으로 남성들은 남은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여성을 지원하고 여성의 권위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여성을 반대해서 정부, 자본과 함께 그들을 공격할 것인지 말이다.

이렇듯 거대한 전 지구적 세계경제가 여성들의 일상에 폭력적으로 침투하고 식민화 하는 것에 대한 저항 사례가 이제는 제법 많이 늘고 있다. 세상 속에서 오랫동안 길들여진 자신들의 존재양식과 자아의식을 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성, 행복감, 경제능력, 삶의 방식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내 온 몸에 아로새겨지는 한과 좌절, 고단함과 분노, 그것까지 포함하며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삶의 방향, 새로운 역사를 바로 지금 이 공간, 삶의 현장에서 감각하며 느끼며, 생각하는 여성들의 몸뚱이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주체의 정치’라 부르는 것이다. (Gibson - Graham, 2006)

여성을 타자화하고 지구를 타자화하는 현재의 경제체제 속에서 캐서린 김슨은 새로운 사유로 새 판 짜기를 제안한다.⁹⁾ 그것은 “세계를 개조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새판을 짠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키는 것이자 동시에 차이에 다시 초점을 두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녀에게 있어서 지난 100년간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새 판 짜기는 페미니즘운동이 가져온 것 이었다 라 하면서

8) 마리아 미즈 배로니카 벤홀트-툼젠, 앞 책, 2013.

9) 캐더린 김슨, 「경제를 반환하라: 공동체 구성을 위한 윤리와 방법들」, 『시장사회를 넘어: 공동체 경제와 젠더』, 이화여자대학교. 2013, 27쪽(김옥길 기념강좌운영위원회).

“페미니즘은 여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른 담론을 생산했다
페미니즘은 비가시화 되었던 남성의 역사/여성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했다
페미니즘은 여성들이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해방시켰다
페미니즘은 세계를 다른 방식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했다
돌봄과 생명, 상호연결성을 무대의 중심에 올려놓았다 ”고 한다.

이러한 여성주의적 사유를 통해 그녀는 경제를 재사유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우리 스스로의 이해를 변화시키는 것이 곧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라 하면서 우리가 책임감 있게 미래를 대면하는 길 위에 서있고,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새로운 방식 즉 덜 파괴적인 방식으로 배울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과거로부터 진행되어온 여성들의 살림살이, 살림의 문화를 새롭게 사유하고자 한다.

한국사회 안에서 ‘살림’이란 용어를 새롭게 사유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진보적 기독교 중심의 신학계에서나, 동학과 동양사상을 기반으로 한 일군의 움직임이 그것인데, 이들은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의 죽임의 문화를 비판하면서 ‘살림’이란 용어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1989년 한살림 창립총회에서 한살림선언¹⁰⁾이 발표되었다. 그것은 장일순 선생을 중심으로 김지하, 박재일, 최혜성 등이 공부모임을 통하여 모아진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쓰여진 것이었다.

그들은 오늘날의 문명세계가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준 반면 인류의 생존기반이 되는 지구의 생태적 질서를 훼손하고 파괴하고 있음을 염려하면서 선언을 시작한다. 핵 위험의 공포, 자연환경의 파괴, 자원 고갈과 인구 폭발, 문명병의 만연과 정신분열적 사회현상, 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악순환, 중앙집권화된 기술관료체제에 의한 통제와 지배, 낡은 기계론적 세계관을 비판하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동학의 생명사상에서 사회적, 윤리적, 생태적 기초를 발견하며 한 살림의 정신을 선언하였다.

즉 한 살림은 생명에 대한 우주적 각성이며, 자연에 대한 생태적 각성이고, 한 살림은 사회에 대한 공동체적 각성이며, 새로운 의식, 가치, 양식을 지향하는 생활문화운동이자, 생명의 질서를 실현하는 ‘사회실천활동’이자, 자아실현을 위한 생활수양 활동,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생명의 통일운동’임을 주장한다.

또한 진보적 기독교계에서 일어난 에큐메니칼운동에서도 80년대 초부터 ‘살림’에 대한 자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개신교의 역사는 교파의 분열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10) 『한살림선언』, 한살림창립총회 문건, 1989.

아닌데, 바로 그 안에서 교회의 일치운동이 일어난다. 에큐메니칼 운동(ecumenicalism)이 그것인데 에큐메니아의 어원은 라틴어의 oicus이며 이는 원래 house(집)나 household(가정일, 살림살이)를 뜻하는 말로서 economy(경제), ecology(생태)의 어원이 되는 말이기도 하다. 그들은 에큐메니칼의 어원을 분석하면서 교회의 일치, 생명의 하나됨,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살림'이란 용어에 주목한다. 안병무 박사의 한국신학연구소에서는 한 때 '살림'이란 제목의 잡지가 출간되기도 하였다.

또한 남성경제학자인 홍기빈은 그의 저서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에서 “지금까지 약 300년 간 존재해온 경제학을 근본적으로 대체할 새로운 경제학을 찾고자” 하면서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지난 300년 동안 인류의 의식을 지배했던 시장만능주의 경제사상이 모든 이들로부터 근본적인 회의를 사고 있는 지금이” 살림/살이 경제학을 “최소한 토해내기라도 해야 할 최적의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특히 한국 사람들이라면 배웠든 못 배웠든 누구나 단번에 그 핵심을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언어로 생각을 전달하고 싶어서” 쓴다고 하면서 경제하면 바로 '돈벌이 경제학'에 찌든 사고방식을 성찰케하고 남을 살리고 또 자신도 살아야 하는, 즉 살림/살이를 해야 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하는 경제학을 말하고 싶었다 한다. 그는 자신이 '살림살이 경제학'이라는 이름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칼 폴라니의 유저 「인간의 살림살이(The Livelihood of Man)」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경제학을 살림/살이 경제학이라고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생각해 볼수록 우리말 살림살이는 재미난 말이었다. 비록 모두 너무나 일상적이고 범상하게 여겨 깊이 생각하지 않는 말이지만, 살림살이는 어떻게 보면 동어반복으로 구성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살림과 살이는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같은 것이라면 어째서 똑같은 뜻의 말을 두 번 겹쳐서 쓰고 있는 것일까? 다른 것이라면 결국 '(남을) 살린다'와 '(내가) 산다'는 두 뜻을 겹쳐 놓은 것이 될 터인데, 어째서 상당히 성격이 상이한 두 개의 동작을 마치 하나의 동작인 것처럼 합쳐놓은 것일까? 결국 가능한 대답은, 이 말을 만든 이들은 살린다는 것과 산다는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말이 될 것이다. 즉 산다는 것은 본래 그 자체가 '함께 산다'는 것이 될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남을 살리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불가분으로 엮여 있다는 말이 될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 민족의 깊은 의식 속에서 면면히 전해지는 홍익인간의 정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살림살이라는 단어가 너무 친숙한 나머지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범범하게 넘기고 있는 이러한 의미를 되새김질하기 위해 빗금을 그어 살림/살이라고 쓰기로 한 것이다.”

사실 돈벌이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살림살이를 영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않겠

는가?

이와 같이 남성지식인들의 ‘살림’에 대한 관심이 ‘머리’로부터 시작된 ‘말’임에 반해 실제 여성들의 일, 살림은 매우 경험적이고 구체적이다. 그것은 몸으로 비롯하는 경험이고 지혜이다. 살림의 재언어화를 시도하는 남성들은 ‘말’과 ‘머리’로 시작한다. 성경에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시작하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라’ 하고 있다. 아마 여성적 시각으로 쓰여진 경전이 있었다면 ‘태초에 생명이 있었다’ 혹은 ‘태초에 잉태가 있었다’ 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머리와 말로부터 시작하였을지라도 ‘살림’의 의미를 재평가하고 ‘살림’을 도모하며 살림/살이 경제를 옹호하는 그러한 남성들이 있음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3. 연구의 입장과 방법

살림을 새롭게 의미화하고 운동화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입장은 여성적 관점에서의 연구이다. 그것은 신체적 여성주의¹¹⁾로부터 출발하여 생태적 여성주의와 맥을 같이한다. 더 정확하게는 살림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연구라 이름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살림의 관점에서 여성의 일상, 여성의 몸을 둘러싼 사회관계들에 대한 새로운 언어와 의미화가 필요하며 새로운 문화적 실천이 필요하다.

이 살림문화연구 프로젝트는 몇 가지 핵심적 요소를 지향한다.

첫째, 살림문화연구는 새로운 실천을 위한 것으로서 새롭고도 다양한 여성들의

11) 케더린 김슨은 샤론 마커스의 강간에 대한 논문(Marcus, S. (1992) Fighting bodies, fighting words: A Theory and politics of rape prevention)을 통해 지구화의 위력과 폭력성을 처음으로 압축했다고 한다. 침투(Penetration)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구화와 강간은 유사하다. 마커스는 강간에 대한 언어는 “강간은 항상 이미 벌어진 일이고, 여성은 항상 이미 강간당했거나 혹은 강간당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는데 이것은 “여성들에게 공포와 복종의 정치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한다. “남성들은 본질적으로 여자보다 힘이 세며, 그들은 생물학적으로 강간을 자행할만한 완력을 부여받았다. 이런 젠더화된 폭력의 문법에 따르면 남성은 폭력과 공격의 주체이다. 그들의 몸은 단단하고 딱딱한 발사체같다. 여성은 본질적으로 남성보다 약하다. 여성은 강간을 피하기 위해 감정에 호소하거나 묵인, 설득하는 전략을 펼 수는 있지만, 물리적으로 강간을 멈출 수는 없다. 젠더화된 폭력의 문법 안에서 여성은 두려움의 주체이고 여성의 몸은 보들보들 텅 비어있고 약하고 열려있다고 주장되며, 여성의 몸은 약하고 더러워지기 쉬운, 침투당하고 상처입는 것”으로 묘사된다(Marcus, 1992. 398p). 강간의 언어와 자본주의적 지구화의 언어 사이엔 명백한 연결고리들이 많다. 발전주의 이론의 남근중심성을 주목하면, ‘침투’, ‘침략’, ‘처녀지’같은 용어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커스는 그런 식의 서사를 우리 내부로부터 변화시키며, 희생자 역할을 거부하고 새로운 주체되기를 요구한다. 김슨도 새로운 주체로 지구화된 경제체제를 넘어 여성들의 삶의 공간에서부터 주체되기를 하자고 한다.

언어와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을 지향한다. 요즈음 애를 낳고도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¹²⁾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시대에 뒤떨어지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낙오하는 것아 대한 두려움 속에 성급히 아이들을 시설에 맡기고 그 시간에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러 다니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여러 엄마들이 아이를 함께 돌보며 이를 사회적 행동으로 의미화하고 “국가가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을 경력으로 인정케 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¹³⁾ 새로운 실천집단을 만들어 내고 영향력 있는 사회적 언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 더 여성적 원리에 입각한 실천이다. 여성주의 원리란 기본적으로 경쟁과 죽임이 아니라 상생과 돌봄의 원리이다.

“나는 절대로 힘없고 주눅들어 있는, 희생하는 바보같은 여자,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라고 다짐하는 딸들은, 엄마가 되어가는 두려움, 공포심 앞에서 아빠를 닮아가고 있다.¹⁴⁾ 남자를 흉내내고 있는 것이다. 여성들에게 여성임을 긍정하게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언어와 문화를 만들어가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여성문화, 살림문화를 도모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여성의 일이었고, 지금도 여성의 일인 살림살이 노동, 소위 돌봄노동이나 여성의 일들이 사회적으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획득하고 다르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인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새로운 살림문화의 주체로 키워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살림의 공간들을 간절히 꿈꾸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할 역군들 말이다. 이는 바로 새로운 여성주의의 윤리적 정치, 상생의 문화의 공간을 말한다. 다양한 개인과 집단 주체들은 생계와 새로운 삶의 방식, 상호의존성의 문제를 서로 논의하며,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바로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장소에서 감각하고 느끼며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우리의 몸뚱이를 통해 새로운 역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시대의 정치적·윤리적·사회적·철학적 문제는 개인을 경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이 경제에 연결되어있는 개별화, 이 두 가지 모두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수세기동안 우리를 짓눌러왔던 이런 식의 개별성을 거부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주체성을 촉진시켜야 한다.”¹⁵⁾ 이것은 우리 자신을 바꾸어가는 과정이며 단순히 새로운 생각과 정서를 하루아침에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 생각과 정서들을 하나씩 둘씩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함께 만들어가기: 살림살이 조직과 공간이 구체적인 장소에서부터 싹틀 수

12) 『한겨레』, ‘한겨레가 만난 사람: 정년퇴임하는 조한혜정 연세대 교수’, 2014년 2월 25일.

13) 『한겨레』, 위의 글.

14) 『한겨레』, 위의 글.

15) 미셸 푸코, 『주체의 해석학』, 동문선, 2007.

있도록 공동으로 협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의 공동연구자 신지영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 자수공예, 자수 예술의 문제를 보자. 구체적 살림살이의 실용성에서 비롯되었다 하여 자수는 예술로 인정받지 못해왔다. 그것은 공예일 뿐, 손재주일 뿐이라는 것이다. 자수의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예술로 인정 받아가는 과정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재 의미화 하고 언어화 하며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외화시키며 널리 공유하는 가운데 변화가 가능한 과정인 것이다.

김정희 연구자의 ‘살림의 공공화’에 대한 실천은 말할 것도 없다. 핵가족 이데올로기 속에서 개별 가족단위에 갇혀 개별·고립·분산된 방식으로 살림을 살아왔던 여성들의 살림살이 노동, 살림 문화를 여성, 남성이 함께 공유하고 한 가정, 한 가정 이 모여 함께 지역 속에서 열어놓고 횡단하며 함께 풀어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지역(Community)이라 함은 반드시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역 혹은 공동체라는 용어를 맥락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 있는데 아주 폭넓고 분산된 형태의 집단행동, 혹은 함께하기도 포함된다. 반드시 고정된 공간, 장소 안에서의 함께하기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헤쳐 모여 헤쳐 모여를 반복하며 따로 또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상호연계와 열린 가능성들을 북돋우기 위한 매우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의 함께하기를 포함한다. 다른 이들, 다름, 이질적인 것이 모여 이루어내는 힘과 감동의 확장이며, 새롭게 생성하는 다양한 바꾸어내기의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요소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살림문화는 새로운 형태의 정체성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여성 자신과 지역(공동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살림문화 프로젝트의 연구 방법은 조각보식 연구 방법이다. 말하자면 ‘따로 또 같이’ 방법으로 진행하였는데 각자의 전공과 관심에 따라 제각기 쓰여진 것으로 공동의 결론을 미리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번의 토론 과정을 거쳤고 공동의 필독서¹⁶⁾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사학과 한국학을 전공한 정혜은 연구자는 이 연구의 원천인 빙허각 이씨의 삶과 규합총서를 소개하였다. 빙허각 이씨의 규합총서는 여성들의 살림살이의 경험과 기술을 기록한 것으로 이를 기록함으로써 지식화된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살림 경험과 기술, 지식을 많은 여성들과 공유하기 위해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빙허각 이씨의 이 규합총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매우 개별적이고 분산된 방식의, 그리고 기껏해야 자신의 어머니 혹은 할머니

16) ① 빙허각 이씨, 『규합총서』.

② JK김순·그레엄 저, 엄은희·이현재 역, 『그따위 자본주의는 벌써 끝났다』, 알트, 2013.

③ 마리아 미즈·베로니카 벤홀트-툼젠 저, 꿈지모 역, 『힐러리에게 암소를.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 동연, 2013.

④ 김정희, 『불교 여성 살림』, 모시는 사람들, 2011.

⑤ 홍기빈,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 지식의 날개, 2012.

니로부터의 전수 이상의 살림 지식을 얻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녀가 동시대의 여성, 그리고 후대의 여성들과 공유하기 위해 남긴 이 책이 과거로부터 온,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희망의 원천이 될 줄을 그녀인들 알았을까?

신지영 연구자는 여성학과 미술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특히 여성들이 일상에서 베개나 침구, 옷, 가구 등에 놓았던 ‘자수’에 관심을 갖는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Personal is political)’라는 여성주의, 혹은 여성운동의 핵심 모토에 기반한 개인 자수공예가 혹은 자수 예술가들에 대한 연구는 실천적 전시 프로젝트로 연결되면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또한 그녀는 빙헨의 힐데가르트 사례는 여성적 지식과 삶의 모델로, 이태리를 중심으로 한 Terra Madre 운동은 여성적 방식의 살림축제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례로 첨가하였다.

김정희 연구자는 여성학과 사회학을 전공하였고 현재 도시와 농촌을 잇는 문화·경제 공동체 가배울 대표로 실천적 활동을 하고 있다. 공동 육아의 실천을 일찍이 1990년대부터 시작한 김정희는 학문과 실천을 병행하며 살림정신과 살림에 대한 모색을 하여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살림의 공공화를 실천하는 여성들의 사례를 보여주며 살림문화운동이 가족의 경계를 넘어 공공의 영역에서 새롭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학 연구소의 김지옥은 민속학 연구자로 전통사회 여성들의 놀이를 소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통의 계승과 더불어 새로운 살림문화놀이에 대한 중요한 참고자료를 얻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경기학 연구소의 김명우 연구자는 경기도의 여성인물을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과거의 여성인물들로부터 배우고 전승해야 할 것을 생각하고 오늘의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술사회학과 문화이론을 공부한 이해경은 동시에 여성문화예술운동가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실천의 영역에서 여성적 관점에서 문화예술관을 조직하고 기획하고 연출해 온 사람으로서 실천적 프로그램을 모아서 정리하는 일과 제안하는 일, 특히 축제 부분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앞 부분을 담당하였고 전체 연구를 총괄,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

빙허각 이씨, 과거로부터 불러온 살림에 대한 지식이 낡고 폐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전환적으로 열어갈 희망이 되길 바란다. 이 살림에 대한 연구에 뒤이어 다양한 실천들이 계속되기를 소망하면서!

Ⅱ. 경기도의 전통 여성인물 소개

김명우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책임연구원)

1. 머리말
2. 경기도의 전통여성 인물 소개
3. 맺음말

1. 머리말

전통시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삶이 소외된 채 충분히 기록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를 통해 주목받았던 여성인물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선덕(善德)·진덕(眞德)·진성(眞聖) 등 신라의 여왕, 대학자 율곡(栗谷)의 어머니로 현모양처의 전형이 된 사임당 신씨(師任堂 申氏), 기생으로서 많은 시조와 일화를 남긴 황진이(黃眞伊), 개항에 이은 서구열강의 침략기에 탁월한 정치력을 보였던 명성황후(明成皇后),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羅蕙錫), 3·1만세운동의 상징 유관순(柳寬順), 한말 최초의 여성의병장이자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윤희순(尹喜順) 등을 들 수 있다.

오랫동안 역사·문화의 중심무대였던 경기도에서도 뛰어난 여성인물이 많이 배출되었다. 2000년 들어 경기도에서는 여성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숨은 여성인물을 발굴하여 여성사를 재조명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역사적 여성인물 발굴사업을 실시한 것이다. 그 결과 2001~2002년에 『경기 여성인물을 찾아서 -그대의 맑은 향기 사라지지 않으리-』 ①②권을 발간하였다. 책자는 인물의 활동무대 및 행적 등을 관련 유적지와 함께 약도까지 첨부하여 지역문화와 관광지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21세기 여성활동 방향 및 정체성(正體性)을 확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록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표 1> 제①권

인 물	제 목	비 고
허난설헌	재능이 불행의 굴레가 된 천재 시인	허균의 누이
해평 윤씨	시련 속에서도 참교육을 편 자모(慈母)의 표상	김만중의 어머니
안정 나씨	여섯 아들 모두를 학자로 길러낸 교육자	김창집의 어머니
여흥 민씨	높은 선비의 풍모를 갖춘 현명한 어머니	민유중의 딸. 이재의 어머니
전주 이씨	높은 견식과 바른 행실로 자녀를 이끈 어머니	안정복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	당쟁의 핵심에 있었던 『한중록(閑中錄)』의 저자	사도세자비. 정조의 어머니
이사주당	철학을 담은 태고의 소증함을 가르친 참어머니	유희의 어머니
서영수합	탁월한 문장가이자 수학자였던 현모양처	홍석주의 어머니

이병허각	가정실학의 금자탑을 쌓은 여중군자(女中君子)	이사주당의 조카
강정일당	성인(聖人)이 되고자 했던 주체성 강한 실학자	강재수의 딸
바우덕이	예술혼으로 여성의 잠재성을 일깨운 남사당패의 꼭두쇠	김암덕(金岩德) 또는 박우덕
명성황후	조선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긴 풍운의 여걸	고종황제비
나혜석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서양화가, 여권운동의 선구자	
이선경	죽음으로 독립을 부르짖은 경기도의 유관순	
최용신	농촌계몽에 젊음을 바친 인간 상록수	

<표 2> 제②권

인 물	제 목	비 고
염경애	이름 석 자를 역사에 온전히 남긴 고려 여성	최루백의 부인
-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여성들	
공주 이씨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 최초 순절자	윤선거의 부인
유한당 권씨	여성 수신서 『유한당언행실록』의 저자	이벽의 부인
윤점혜·윤운혜	천주를 믿는다는 것, 여성으로 산다는 것	천주교 순교자
-	안성 장터동 부인들의 국채보상운동	
-	3·1만세운동에 나선 수원 기생들	
차미리사	고통 받는 여성들의 큰 스승	덕성여대 설립
이현경	잊혀진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수원 출신. 근우회 활동
박자혜	독립운동가·혁명가의 아내	신채호의 부인
오회영	한국광복군의 당당한 여군	오광선의 딸
강덕경	오욕의 세월을 그린 위안부 출신 화가	일본에서 ‘할머니 그림전’ 전시

제①권이 비교적 많이 알려진 여성인물에 대한 조명이었다면, 제②권은 일반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인물을 새롭게 조명한 것이다. 특히 제②권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이름을 남기지 않았지만 중요한 역사 현장에 있었던 이른바 ‘익명의 여성들’을 조사하여 수록하기도 하였다. 즉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행주대첩의 숨은 주인공, 국운이 기울어가던 시기에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던 안성 장터동 부인들의 활동, 3·1만세운동에 앞장섰던 수원 기생들의 활약 등을 다루었다.

한편 제②권의 부록에는 「유형별로 본 역사 속의 경기여성」이라는 제목으로 460명의 경기도관련 인물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을 유형별로 구분한 것을 보면 교육가(10), 독립운동가(11), 성리학자(1), 실학자(3), 실학자·수학자·예술가(1), 열녀(341), 열부(7), 예술가·실학자(1), 예술가(7), 효녀(7), 효부(71) 등이다. 이 가운데

열녀·열부·효녀·효부가 전체의 92.6%를 차지한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효열을 권장하고 정려(旌閭)를 내려 표창하거나 관찬사서·읍지류 등의 「인물」조에 효열자를 다수 기록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 경기도의 전통여성 인물소개

경기도 전통 여성인물 중에서 특이하거나 일반에 주목받을 만한 삶을 살았던 인물 몇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염경애

‘효자’ 하면 쉽게 최루백(崔婁伯)을 떠올리게 된다. 아버지를 잡아먹은 호랑이를 찾아가 원수를 갚은 이야기가 『고려사(高麗史)』 열전은 물론, 조선시대 충효교육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에 실려 있다. 지금도 수원 최씨의 집성촌인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에는 최루백의 효자각이 있으며, 그 일대를 효자골이라고 부르고 있다.

염경애(廉瓊愛)는 효자 최루백의 부인이다. 그가 살았던 고려시대에는 일반 여성은 이름을 가지지 못하였다. 즉 ○○○부인 ×씨, □□□의 딸 □씨 등과 같이 남편의 봉작호를 사용하거나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 표시하였다. 그런데 염경애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남편 최루백이 지은 부인의 묘지(墓誌; 죽은 자의 행적을 기록해 무덤에 함께 묻는 돌·접시 따위나 또는 그 글) 때문이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고려시대 여성의 묘지석은 30여 개 되는데, 그 중 남편이 묘지명을 지은 것은 염경애의 경우가 유일하다. 최루백은 묘지명에서 “아내는 사람됨이 조심스럽고 정숙했으며, 문자를 알아 대의(大義)에 밝았고, 말씨나 행동거지가 남보다 뛰어났다.”고 기록하였다. 또한 아내를 화장(火葬)한 뒤 뼈를 사찰에 봉안하였다가 3년 후 개성에 있는 친정아버지 묘 옆에 묻어주었다.



<사진 1> 최루백 효자각(화성)

2) 사임당 신씨

사임당 신씨(師任堂 申氏)는 조선 중기 대학자이자 정치가인 율곡 이이(李珥)의 어머니로 유명하다. 본관은 평산(平山)이며, 강릉에서 태어났다. 19세에 이원수(李元秀)와 혼인하였으나 외동딸인 관계로 남편의 동의를 얻어 시집에 가지 않고 친정에 머물렀다. 셋째 아들인 율곡도 강릉에서 낳았으며, 38세에 이르러 서울의 시집으로 완전히 옮겨왔다. 그 뒤 시집인 파주 율곡리와 강원도 평창, 서울 등지에서 기거하였다. 현재 묘역은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에 있다.

사임당은 7세 때 이미 안건(安堅)의 그림을 스스로 배우고 익힐 정도로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으며, 뛰어난 통찰력과 판단력으로 일찍이 예술가로서 대성할 가능성을 보였다. 그림·글씨·시에도 뛰어났으며, 특히 그림은 풀벌레·포도·화조(花鳥)·어죽(魚竹)·매화·난초·산수 등을 주로 그렸다. 그의 예술성을 짐작할 수 있는 예로 풀벌레 그림을 마당에서 벌에 말리려 했을 때 닭이 그림 속의 풀벌레를 쪼았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후세 사람들이 그의 작품에 한결같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패관잡기』에서는 “사임당의 포도와 산수 그림은 절묘하여 안건 다음”이라고 할 정도로 높이 평가하였다.

사임당은 예술가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속에서 아내·어머니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였기에 후세에 소위 ‘현모양처’의 대명사로 추앙되고 있다. 그러나 사임당은 가부장제 질서에 종속된 ‘현모양처’가 아니라 당시대 여성으로서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온 여성이다. 그것은 사임당이 무남독녀로서 출가 후에도 친정어머니로부터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 남편 이원수가 유교사회의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사임당은 7남매를 훌륭히 길러낼 수 있었던 것이다. 아들 율곡은 어머

니의 행장(行狀)에서 그의 예술적 기능, 우아한 천성, 정결한 지조, 순효(純孝)한 성품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표상이 되는 사임당의 얼굴 기리고 후손들에게 널리 선양하고자 1975년에 ‘신사임당상’이 제정되었다. 이는 어진 인품과 부덕(婦德)을 갖춘 훌륭한 어머니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여 모든 여성의 귀감이 된 인물에게 수여하고 있다. 또한 2009년 5만원권 지폐가 발행되었을 때 사임당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인물로서 그 모델로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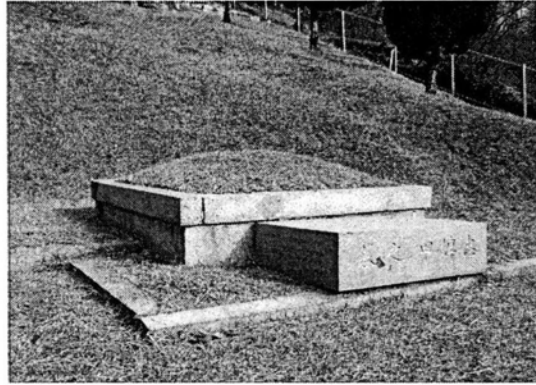
<사진 2> 지폐 속의 사임당
영정과 그림

3) 갑이

신분제사회에서 노비는 ‘사람’으로 취급을 못 받았다. 전답(田畓)이나 우마(牛馬)와 같은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의 대상이 되었으며, 매매 뒤 15일 이내에 물릴 수 있는 ‘물건’이었다. 고려시대 말 1필은 노비 2~3명의 값에 해당하였고, 조선 전기에 이르러 1:1의 비율로 거래되었다. 심지어 노비는 자신의 주인을 때리거나 욕을 했을 때 죽음의 형벌까지 받아야 하는 존재였다. 따라서 노비가 죽더라도 그 무덤이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 개나 말의 무덤이 있듯이 노비의 무덤도 매우 희소하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안산시 단원구 와동 할미골의 문화 유씨 묘역에는 충비(忠婢) 갑이(甲伊)의 무덤이 있다. 갑이는 조선중기 좌의정을 지낸 유관(柳灌)의 여종이다. 유관은 과거에 급제한 뒤 강원도관찰사·이조판서·우의정 등을 지냈으나, 1545년에 일어난 을사사화(乙巳士禍)로 죽음을 당했다. 이때 유관의 재산과 노비는 몰수되어 정순봉(鄭順朋)에게 내려졌는데, 갑이는 새 주인에게 정성을 다하는 척하고 모셨다. 그러던 중 갑이는 한 사내종에게 질병으로 죽은 시체의 팔을 잘라오도록 하여 그것을 정순봉의

배개에 넣어두자 오래지 않아 정순봉이 죽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정순봉의 집에서 갑이를 다그치자 갑이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내 주인을 죽였으니 곧 나의 원수이며, 나는 이제 원수를 갚았기에 죽어도 좋다.” 1746년(영조 22)에 이르러 갑이는 열녀 표창을 받았고, 문화 유씨 가문에서는 수백 년 동안 그의 묘에 제물을 차려 냈을 달래주고 있다.



<사진 3> 갑이의 묘(안산)

4) 허난설헌

‘조선 제일의 여류 시인’으로 일컬어지는 허난설헌(許蘭雪軒)은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허초희(許楚姬), 자는 경변(景樊)이다. 조선 후기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소설 『홍길동전(洪吉童傳)』을 지은 허균(許筠)의 누나이기도 하다.

허난설헌은 8세 때 광한전 백옥루 상량문을 지어 신동으로 불렸으며, 15세 때 김성립(金誠立)과 혼인하였다. 이후 그의 일생은 불운으로 점철되었다. 시집살이와 남편의 무관심, 부친상, 오빠 허봉의 유배, 모친상 등 불행한 나날을 보내다 1589년 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는 ‘조선에서 여자로 태어난 것’을 평생 한으로 여겼는데, 자신이 죽으면 시를 모두 불태워 다시는 조선 땅에 태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였다. 묘역은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안동 김씨 선영에 있고, 용인시 원삼면 맹리 능안마을 양천 허씨 선영 입구에 그의 시비(詩碑)가 세워졌다.

허난설헌의 시(詩) 세계는 조선보다 중국에서 먼저 알려졌다. 1606년 허균은 중국 사신에게 누이의 남은 시를 전달하였고, 마침내 중국에서 『난설헌집』이 간행되었다. 당시 시집은 불티나게 팔렸고, 책을 인쇄하느라 명나라의 종이 가격이 오르는 사태를 초래했다니 이 책이 얼마나 베스트셀러였는지 짐작할 만하다. 후에 『난설

헌집』은 조선에 유입되어 유행하였으나, 허균이 반역죄로 처형되면서 누이의 시집도 매장되었다. 1692년 부산에서 재출판된 『난설헌집』은 무역상에 의해 일본으로 전달된 후 일본에서도 간행되었다. 즉 허난설헌과 시집 『난설헌집』은 당시 중국(명)·한국(조선)·일본 3국에서 인기를 끌었는데, 이는 20세기를 전후하여 불어닥친 이른바 한류(韓流) 열풍의 원조(元祖)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사진 4> 허난설헌 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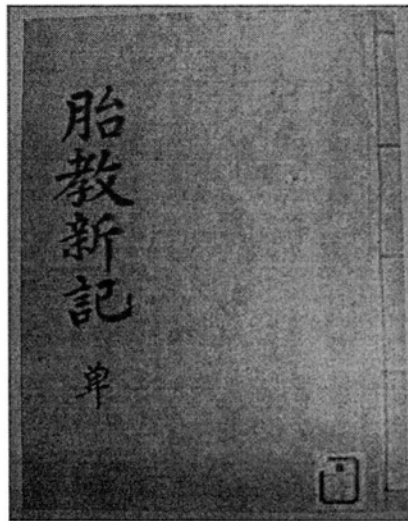
5) 사주당 이씨

사주당 이씨(師朱堂 李氏)는 세종의 사부인 경녕군(敬寧君) 이비(李裨)의 12세손으로 목천현감 유한규(柳漢圭)의 부인이다. 『언문지(言文志)』를 펴낸 유희(柳僖)의 어머니이며, 『규합총서(閨閣叢書)』를 지은 여성 실학자 빙허각 이씨(憑虛閣 李氏)의 외숙모이기도 하다.

사주당은 충청도 청주에서 태어났으며, 25세 때 유한규의 네 번째 부인이 되면서 남편을 따라 용인에서 생활하였다. 유한규가 세상을 떠난 뒤 아들을 따라 충청도 단양으로 옮겨 살기도 했으나 1819년 용인으로 다시 돌아왔다.

율곡의 어머니 사임당(師任堂)이 주나라 문왕(文王)의 어머니인 태임(太任)을 본받고자 당호를 사임당으로 했듯이 사주당은 송대 성리학자 주자(朱子)를 본받고자 당호를 사주당(師朱堂)이라 하였다. 즉 당호에서 이미 사임당은 현모양처를 꿈꾸었다면 사주당은 주자와 같은 학자를 꿈꾸었다고 할 수 있다.

사주당은 주 문왕과 같은 성인이 태어난 것은 어머니 태임의 태교가 절대적이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당시 태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귀중한 태교의 법을 후세에 전하는 저술이 없는 점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리하여 여러 문헌에 나와 있는 태교법과 민간에 전하는 태교 등을 수집하고 자신의 체험한 바를 추가하여 『태교신기(胎敎新記)』를 저술하였다. 책자에는 태교의 이치·효과·중요성·방법은 물론 선현이 이미 행했던 일, 남편에게도 태교를 권할 것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태교에 관한 이론과 실재를 체계화한 세계 최초의 선구적 저술로 평가되고 있다.



<사진 5> 사주당의 저서
『태교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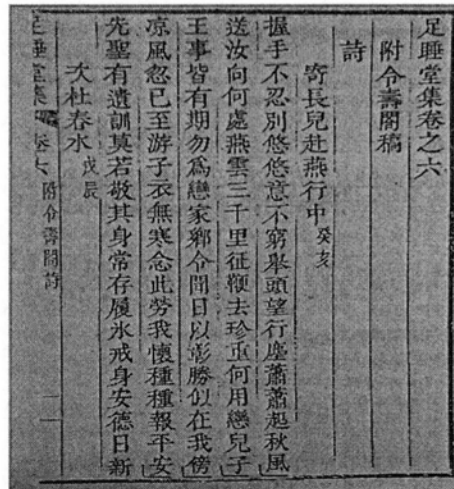
6) 영수합 서씨

영수합 서씨(令壽閣 徐氏)는 본관이 달성(達城)이고, 아버지는 강원도관찰사를 지낸 서형수(徐迥修)이며 어머니는 김창협(金昌協)의 증손녀이다. 여자가 글을 알면 박명하다는 할머니의 만류로 글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형제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서 외워야만 하였다. 그런데도 15세 이전에 여러 경전을 섭렵할 정도로 총명함을 타고 났다. 승지 홍인모(洪仁謨)와 혼인하여 3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 홍석주(洪奭周)·홍길주(洪吉周)·홍현주(洪顯周)와 딸 홍원주(洪原周)에게 직접 글을 가르쳐 당대의 문장가로 키웠다.

영수합은 평소 자녀들에게 부귀영화는 화를 부른다고 하며 항상 성실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라고 가르쳤다. 특히 정조(正祖)의 사위가 된 셋째 아들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까 염려하여 대궐에서 내린 비단옷을 집에서는 아예 입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자녀들이 크게 아파 생명이 위태로울 때에도 곱을 하지 않을 정도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었다.

영수합 서씨는 시문(詩文)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어려운 수학 공식을 간편히 푸는 방식을 스스로 고안하여 덧셈, 뺄셈, 나눗셈, 분수 계산, 제곱근 구하는 방식 등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등 수학자로서의 재능도 발휘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영수합이 혼인한 뒤 10년 동안 글을 아는 내색을 하지 않았으므로 남편조차 그의 수준을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 나중에 홍석주 형제가 아버지의 시문집인 『족수당집(足睡堂集)』을 펴낼 때 어머니의 시도 모아 ‘영수합고(令壽閣稿)’라는 이름으로 함께 실었다. 여기에는 영수합이 지은 시 192수와 사(辭) 1편이 있으며, 부록으로 영수합의 묘표(墓表)와 행장(行狀) 등이 수록되어 있다.



<사진 6> 『영수합고』(令壽閣稿)

7) 빙허각 이씨

빙허각 이씨(憑虛閣 李氏)는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15세 때 서유본(徐有本)과 혼인한 이후 경기도 장단에서 생활하였다. 조선후기 최대 농업백과로 평가되는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의 저자 서유구(徐有渠)는 빙허각의 시동생이 된다. 남편의 집안은 소론으로서 당대 최고의 영예를 누린 가문이었으며, 학문적으로는 이용후생(利用厚生)을 강조하는 북학과(北學派)와 교유하였다. 그러나 1806년 서유본의 숙부 서형수(徐滢修)와 동생 서유구가 옥사에 연루되어 유배 길에 오르면서 한 순간에 몰락하게 되었다.

이처럼 빙허각은 남편의 집안이 몰락하고 가산이 기울어지자 손수 차 밭을 경영하며 생계를 꾸려나갔는데, 이러한 자신의 생활체험을 바탕으로 1809년에 『규합총서(閨閣叢書)』를 저술하였다. 책자에는 “시골 살림살이에 요긴하지 않은 것이 없고, 특히 초목·새·짐승의 성미가 상세하게 적혀있다”고 해서 남편이 붙여준 것이다. 즉 ‘규합’은 여자가 머무는 거처를 뜻하므로, 규합총서는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총망라한 ‘생활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다.

『규합총서』는 술을 담그고 음식 만드는 법, 옷 만들고 수를 놓거나 누에치기, 농작·원예·가축 기르기, 태교·육아·응급처치법, 길흉·부적 및 귀신 쫓는 법 등 다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80여 종에 달하는 참고문헌을 인용하였으며, 한글로 상세히 써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 조선 최고의 실용서로 평가된다. 서유구가 지은 빙허각 이씨의 묘비명에 따르면, 빙허각은 『규합총서』 외에도 『빙허각시집(憑虛閣詩集)』과 『청규박물지(淸閨博物誌)』 등을 저술하였으나 현재 전하지는 않는다.



<사진 7> 『규합총서』

8) 정일당 강씨

‘제2의 신사임당’으로 불리는 정일당 강씨(靜一堂 姜氏)는 시문(詩文)에 밝은 여류 문인이자 서화(書畵)에도 능한 예술가이다. 글씨는 해서(楷書)를 잘 썼고, 재덕(才德)을 겸비한 비범한 여성으로 평가된다.

정일당은 충북 제천에서 가난한 선비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났으며, 유별나게 총명하면서 효성이 지극하였다. 20세 때 윤광연(尹光演)과 혼인한 뒤에는 가정에서 여인

의 직분을 다하면서도 심오한 학문을 닦아 성인(聖人)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학문이 출중하였으며, 특히 시어머니인 지일당 전씨(只一堂 全氏)와 시문(詩文) 화답을 한 일화가 유명하다. 일생 동안 10여 권의 저서를 지었으나 모두 소실되고 사후에 글을 모아 만든 『정일당유고(靜一堂遺稿)』가 전할 뿐이다. 유고에 남겨진 40여 편의 한시(漢詩)는 한결같이 교훈적 내용이 강조된 서정시들이며, 상당수의 발문·묘지명·행장·제문 등은 남편을 대신하여 지은 글이라는 것이 흥미롭다.

이러한 정일당을 가리켜 권우인(權愚仁)은 “우리나라에 사임당 신씨(師任堂 申氏)와 윤지당 임씨(允摯堂 任氏) 두 부인의 덕행이 있었는데 사임당은 시(詩)를 잘하고 윤지당은 문(文)을 잘해서 이름난 분들이다. 정일당은 시문만 잘 한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잘했다.”라고 하였다. 또한 정일당을 추도하는 글을 보면 ‘덕행·학문으로는 어찌 군자라고 아니하겠는가?’, ‘시와 학문, 문장과 도학 모든 면에서 훌륭하였던 어른’ 등의 칭송을 얻고 있다.

현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청계산 자락에 그의 묘와 사당이 있는데, 사당은 1996년 성남시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되었다. 또 2005년 7월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하는 ‘이달의 문화인물’에 뽑혀 추모시 낭송회, 글짓기, 유적지 답사, 문화달력 및 책자 발간 등 정일당 강씨를 위한 각종 사업이 펼쳐지기도 하였다. 한편 성남시문화원에서는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8년부터 ‘강정일당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사진 8> 정일당 강씨 사당(성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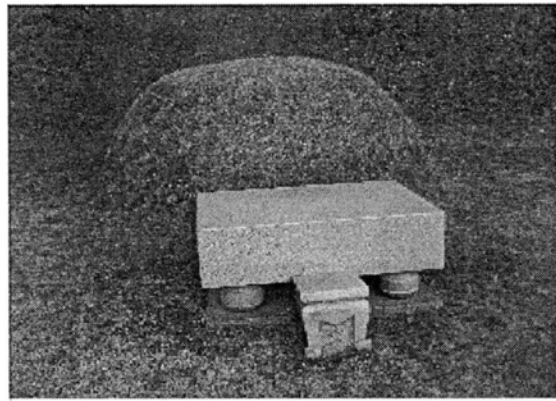
9) 바우덕이

우리나라 남사당패의 상징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바우덕이의 본명은 ‘박우덕’이라고도 하고, 김암덕(金岩德)의 이름을 우리말로 풀어서 그렇게 불렀다는 이야기도 전

한다. 지금의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 불당골에서 생활하였으며, 묘역도 청룡리 산1-1에 조성되었다.

바우덕이는 노래와 춤뿐 아니라 풍물놀이·버나(접시돌리기)·살판(재주넘기)·어름(줄타기)·덧뵈기(탈춤)·덜미(꼭두각시놀음)에도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여 15세의 어린 나이에 남사당패(男寺黨牌)의 꼭두쇠(우두머리)가 되었다. 특히 1865년(고종 2)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할 때 인부들 사기를 돋우기 위한 위로공연을 펼쳐 옥관자(玉貫子; 망건의 줄을 꿰게 만든 작은 고리)를 상으로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전국을 돌며 뛰어난 기량을 펼치던 바우덕이는 결국 21세의 어린 나이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바우덕이는 오늘날 안성시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1982년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보존회’가 설립되었고, 1989년에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또한 1997년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되었으며, 2001년부터 개최된 ‘안성 남사당바우덕이축제’는 안성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었다.



<사진 9> 바우덕이 묘(안성)

10) 명성황후

명성황후(明成皇后)는 19세기 말 뛰어난 정치적 재능을 발휘하여 ‘실세 왕비’의 역할을 톡톡히 했던 여장부이다. 이름은 민자영(閔紫英)이며, 조선왕조 명문가의 하나인 여흥 민씨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아버지 민치록(閔致綠)한테서 한학을 배웠는데, 매우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았으며 책 읽는 것을 좋아하였다고 한다. 당시 세도정치 세력을 견제하고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려는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하여 왕비로 책봉될 수 있었다. 민자영의 나이 16세 때였다.

왕비는 외국 사신이나 대신들을 직접 인견하였으며, 각종 인사나 정책 결정에 관

여하였다. 새로운 문물과 외부 사정에 관심이 많음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도 남달랐다. 당시 계속되는 주변 열강의 침략 속에서 왕비는 ‘한 세력을 이용하여 다른 세력을 견제’하는 이른바 이이제이(以夷制夷) 정책으로 대처하는 정치적 탁월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조선을 병합하고자 혈안이 되어있던 일본은 명성황후를 ‘걸림돌’로 인식하고 참혹하게 시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된다. 왕비는 한때 서인(庶人)으로 강등되었다가 1897년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명성황후로 추존되었다.

여주시 명성로(능현리)에 위치한 명성황후 생가는 황후의 직계 6대조인 민유중(閔維重)의 묘를 지키기 위해 지어진 집이다. 황후는 여덟 살까지 이곳에서 살다가 아버지를 잃은 뒤 생가를 떠나 서울 안국동에 있는 감고당(監考堂)으로 이사하였다. 현재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6호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명성황후 생가는 1970년대 이후 당시까지 남아있던 안채를 중수하고, 행랑·사랑·별당 등이 복원되어 조선중기 살림집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생가 정면 오른쪽에는 ‘명성황후탄강구리비(明成皇后誕降舊里碑)’가 있는데, 여기는 황후가 어렸을 때 글을 읽고 공부하던 방이 있었던 곳이다. 생가 왼편에는 황후가 상경하여 왕비로 간택되기 전까지 생활했던 감고당 건물이 복원되어 자리하고 있다. 감고당은 숙종비인 인현왕후(仁顯王后)가 장희빈(張禧嬪)의 모함을 받아 폐위된 후 5년 동안 머물던 집이기도 하다. 한편 생가 맞은편에 위치한 명성황후기념관에는 황후의 친필 편지 등 관련 유물과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사진 10> 명성황후 영정
(명성황후기념관)

11) 박자혜

박자혜(朴慈惠)는 1895년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수유리(현 서울 도봉구 수유리)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집은 끼니를 제대로 이을 수 없는 정도로 매우 가난했다. 그리하여 일곱 살 되던 해에 궁여지책으로 경복궁의 애기나인(궁녀 중 지위가 가장 낮은 직책)으로 들어가 궁녀의 법도를 익히게 되었다. 1910년 박자혜는 순종비(순정효황후)의 경제적 도움으로 궁궐을 나와 독립할 수 있었고, 곧바로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기예과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배웠다. 학교를 졸업하고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1919년에는 동료들과 간우회(看友會)를 조직하고 국공립 병원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 사건으로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기도 했던 박자혜는 더욱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펼치고자 중국 망명을 단행하였다. 그는 북경에서 역사학자이자 민족운동가인 신채호(申采浩)를 만나 15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혼인하게 된다. 하지만 망명지에서의 궁핍한 생활이 계속된 데다 고대사 연구와 집필에 몰두하던 남편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어린 아들과 함께 귀국길에 올랐다.

박자혜는 간호사로 재직했던 경험을 살려 조산원을 차렸지만, 일제의 탄압과 감시로 인해 찾는 이가 거의 없었다. 1928년 12월 12일자 신문에 ‘30일 동안 아홉 끼니 밖에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에 찌들어있는’ 박자혜의 상황이 실리는가 하면, 심지어 갓 태어난 딸을 영양실조로 잃는 최악의 경우를 맞아야 했다. 이런 와중에서도 박자혜는 나석주(羅錫疇) 의사의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植株式會社) 폭탄투척 사건을 배후에서 돕는 등 투철한 민족혼을 발휘하였다.

박자혜는 1938년 남편이 이국 땅 여순(旅順) 감옥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데 이어 1942년에는 둘째 아들마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는 등 연속되는 불행 속에 삶의 의욕을 상실하였고, 1943년 10월 16일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는 셋방에서 쓸쓸하게 최후를 맞이하였다. 조국의 독립과 혁명을 꿈꾼 신채호의 아내로, 세 아이의 어머니로, 한 집안의 가장으로 곳곳하게 살았던 박자혜의 마지막은 화장된 채 한강에 뿌려졌다.



<사진 11> 『동아일보』에 실린 박자혜와 조산원

12) 나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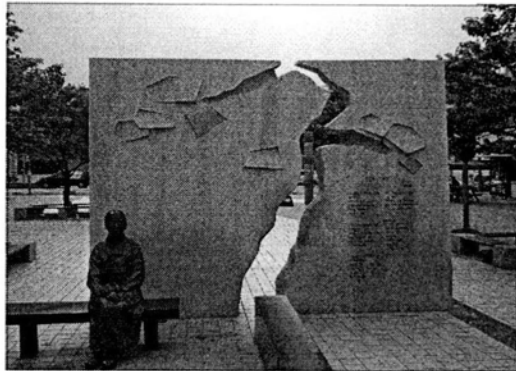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인 나혜석(羅蕙錫)은 1896년 지금의 수원시 신풍동에서 태어났다. 삼일여학교 1회 졸업생이며,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뒤 도쿄여자미술전문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였다. 서양화 전공은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네 번째이자 여성으로서는 처음이었다. 1918년 귀국해서는 모교(진명여학교)에서 교사로 일했고, 3·1운동에 적극 참여했다가 투옥되기도 하였다.

1921년 3월 19일 서울 전시장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근대 미술사에서 '최초의 여성 유화 개인전'이라는 이정표 같은 사건이었다. 1927년에는 남편 김우영(金雨英)과 함께 유럽 여행길에 올랐다가 파리에 머물며 그림공부를 계속하였다. 이때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최린(崔麟)을 만나 염문을 뿌린 것이 화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이혼을 강요당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나혜석은 당당하였다. 그는 「이혼고백서」에서 “정조(貞操)는 도덕도 법률도 아무 것도 아니요, 오직 취미이다.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떡 먹고 싶을 때 떡 먹는 것과 같이 임의용지로 할 것이지, 결코 마음의 구속을 받을 것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표출하였다.

나혜석은 이미 1930년에 '시험결혼'의 개념을 사용할 정도로 시대를 앞서갔다. 그는 '이혼을 예방하기 위해 시험결혼이 필요하며, 그 기간 동안에는 산아 제한을 해야 한다'는 진보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다. 이처럼 나혜석은 가부장적 이념과 사회적 인습에 저항했지만 상대적으로 일반 대중의 그에 대한 비난만 높일 뿐이었다. 결국 나혜석은 1938년 「해인사의 풍경」 발표를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행려병자로 떠돌

아다니다가 1948년 용산의 시립병원 무연고자 병실에서 사망하였다.

소설과 시, 칼럼, 그림 등 작품을 통하여 여성의 권익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던 나혜석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라는 이름보다는 ‘여권 운동의 선구자’ 또는 ‘신여성’이라는 표현이 더욱 적절할 듯하다.



<사진 12> ‘나혜석 거리’에 있는 동상과
시비(수원)

13) 김향화

1919년의 삼일운동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거족적으로 일어난 항일운동이었다. 수원 지역의 만세운동은 3월 16일 서장대·동장대에서 수백 명이 만세를 부르며 종로를 향해 행진한 것이 처음이다. 이어 23일에 수원역 근처에서 700여 명이 만세시위를 벌였고, 25일에는 시장에서 수십 명의 청년·학생·노동자들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27일에는 수원의 40%에 달하는 상점이 문을 닫는 첩시(撤市) 투쟁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3월 29일 오전 11시경에는 수원 한복판에서 여성들의 날카로운 ‘대한독립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쪽진 머리에 한복을 입은 젊은 여인들이 만세를 외치며 자혜병원을 향하여 행진하였다. 이들은 수원기생조합에 소속된 기생이었으며, 이 날은 한 달에 두 번 받도록 된 검진일이었다. 기생 일행은 수원경찰서 앞에서 만세를 불렀고, 병원에 도착하여 다시 한 번 만세를 불렀다. 이후 군중이 다수 합세한 이날 만세시위는 밤까지 계속되었으나 수원소방조합 소방수까지 동원한 일제의 탄압으로 해산하였다.

이날의 기생 만세운동을 진두지휘하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투옥된 인물이 김향화(金香花)이다. 본명은 순이(順伊)로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15세 때 집안이 가난하여 기생이 되었다. 당시 전국 각지의 기생을 소개한 『조

선미인보감(朝鮮美人寶鑑)』(조선연구회, 1918)을 통해서 김향화에 대한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사진집은 한 면에 두 명씩 기생의 이름, 나이, 사진, 출신지, 현주소, 특기 및 기생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적어놓았는데, 수원기생조합의 기생 33명의 이름도 수록되어 있다. 김향화는 22세이며, 검무·승무·가사·경성잡가·서도소리·양금치기를 잘하였다고 적혀있다. 또한 인상 및 평가 부분을 보면 “가름한 듯 그 얼굴에 주근깨가 운치 있고 탁성인 듯 그 목청은 애원성이 구슬프며, 맵시 동동 중등 키요, 성질 순화 귀엽다.”고 되어있다. 사진은 한 쪽 팔을 의자에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이다.

김향화는 기생 신분으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가 옥고를 치른 공로가 인정되어 2009년에 국가로부터 대통령표창을 받고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사진 13> 『조선미인보감』에 실린 김향화

14) 최용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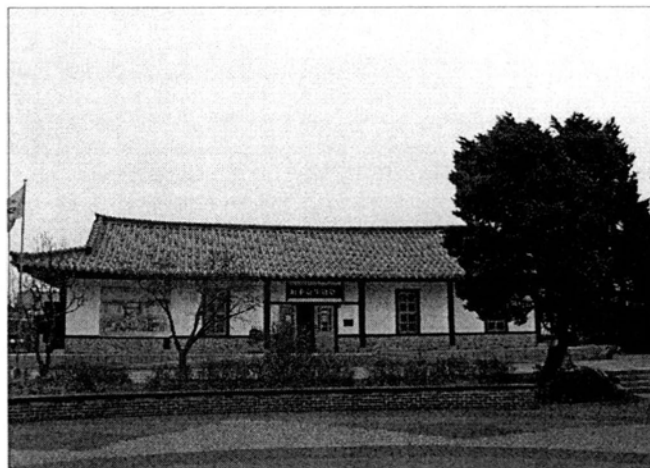
최용신(崔容信)은 함경남도 덕원군에서 태어나 주로 원산과 서울에서 살았지만 오늘날 그의 자취는 대체로 안산시에서 찾을 수 있다. 상록구·상록수역·상록수공원·최용신봉사상·최용신기념관·최용신거리 등이 그것이다. 최용신이 안산에서 생활한 것이 2년 6개월에 불과한 것을 감안한다면 그가 남긴 족적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최용신은 원산의 루씨(Lucy)여자보통학교와 루씨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협성신학교(지금의 감리교신학대)에 진학하였다. 이때 만난 황에스더(黃愛施德) 교수로부터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민족의 밑거름이 되라는 가르침을 받고 농

촌계몽운동을 통한 독립운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1931년 졸업을 앞둔 최용신은 YWCA 농촌지도원 자격으로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의 샘골강습소에 파견되었다. 샘골에 도착한 그는 마을 주민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농촌계몽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하는 한편 좁은 예배당을 대신할 학원건물 신축을 추진하였다. 3개월 만에 샘골학원이 지어지자 최용신은 낮에는 아이들에게 한글·산술·재봉·수예·가사·노래·성서 등을 가르치고, 밤에는 마을 부인·할머니·청년들의 문맹 퇴치를 위한 강습을 실시했다. 그러다가 1934년에 새로운 농촌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끝에 일본의 고베여자신학교로 유학(留學)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 하지만 최용신은 다리가 부어 걸을 수 없도록 각기병(脚氣病)이 악화되어 학업을 중단하고 유학 6개월 만에 결국 샘골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1935년 1월 수원도립병원에서 장중첩증(腸重疊症)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한 채 26년의 짧은 생을 마쳤다.

나라를 빼앗긴 암울한 시기에 온몸을 바쳐 농촌계몽운동을 펼쳤던 최용신의 활동은 소설과 영화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1935년 동아일보사에서 농촌계몽소설 공모에 최용신을 모델로 한 심훈(沈熏)의 『상록수(常綠樹)』가 당선되었고, 1961년(감독 신상옥)과 1978년(감독 임권택)에는 영화로 만들어졌다. 소설에서 최용신은 채영신(蔡永信)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였고, 영화에서는 배우 최은희·한혜숙이 주인공을 맡았다.



<사진 14> 최용신기념관(안산)

15) 나사균

나사균(羅似均)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인 나혜석(羅蕙錫)과 5촌 사이로 그의 조카(종질)이 된다. 1934년 동덕여고보를 졸업하고 1937년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 자수과를 졸업하였다. 당시는 고모인 나혜석이 신여성으로서 ‘전통여성’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기에 집안 어른들이 유학을 심하게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그리하여 나사균은 친구 몇 명과 함께 3일 동안 배를 타고 도망치다시피 하여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찍이 시대를 앞서간 나혜석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비참한 행로를 걸은 것은 마땅히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안방살림’에 충실하지 않은 신여성이 얼마나 불행해질 수 있는가를 나혜석의 예로 터득한 사회였기에 여성의 신교육·신문화 수용이 전통사회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나혜석이 일부러 ‘특이하고 희소가치가 있는’ 서양화를 전공한 것과는 달리 나사균은 대다수의 여자 유학생처럼 자수(刺繡)를 선택하였다. 여자로서 순종적인 덕을 갖추는 길만이 강조되었던 시대에 자수는 신교육을 갈망하던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수는 전통적으로 부덕(婦德)의 상징이었고,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여성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나사균은 “자수과를 나오면 여학교 선생을 할 수 있으니까 여자미술학교로 물렀다”는 자신의 회고대로 귀국 후 호수돈여고에서 교사로 일하였다. 1938년과 1939년에 개최된 조선미술전람회(朝鮮美術展覽會)에 출품하여 입선하였고, 1975년에 제정된 신사임당상(申師任堂賞)을 세 번째로 수상하기도 하였다.



<사진 15> 나사균의 병풍
자수(1938년작)

위 인물 중 염경애는 고려시대 여성으로 드물게 이름 석 자를 남겼다는 점, 갑이는 노비인데도 무덤이 존재한다는 점, 김향화는 당시 천대받던 기생의 신분으로서 조국의 독립을 외쳤다는 점 등 매우 특이한 사례로 소개하였다. 그 외의 인물들은 대체로 정치·문학·예술·민족운동 등 각 분야에서 활동이 돋보이거나 뛰어난 업적을 남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경기 여성인물을 찾아서』 ①권에 수록된 해평 윤씨, 안정 나씨, 여흥 민씨, 전주 이씨 등도 특별하거나 후세에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다.

해평 윤씨(海平 尹氏)는 영의정 윤두수(尹斗壽)의 현손(玄孫)이자 소설 『구운몽(九雲夢)』의 저자 김만중(金萬重)의 어머니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어려운 살림에도 두 아들을 대제학으로 길러냈다.

안정 나씨(安定 羅氏)는 “아이들을 온전히 키워달라”는 남편 김수항(金壽恒)의 유서를 평생 몸에 지닌 채 아들 김창집(金昌集)·김창협(金昌協)·김창흠(金昌翕)·김창업(金昌業)·김창즙(金昌緝) 등을 모두 훌륭한 학자로 키웠다.

여흥 민씨(驪興 閔氏)는 민유중(閔維重)의 딸이자 숙종비 인현왕후(仁顯王后)의 언니로서 아들 이재(李穡)를 대제학으로 키웠을 뿐 아니라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고 평생 배 짜고 길쌈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전주 이씨(全州 李氏)는 효령대군의 후손으로 어려서부터 길쌈이나 바느질에 정교하고 우월한 솜씨를 자랑하였으며, 출가 후에는 태도가 바르고 예의에 어긋남이 없어 시아버지 안서우(安瑞羽)가 크고 작은 집안일을 항상 머느리와 의논하였다고 한다. 아들 셋과 딸 넷을 두었는데, 큰아들이 조선후기 실학의 대가로 『동사강목(東史綱目)』을 저술한 안정복(安鼎福)이다.

3. 맺음말

전통시대 대다수의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살림’을 하였다. 살림은 ‘한 집안이나 국가·단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일’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위에서 살핀 명성황후는 ‘나라 살림’을 주도하였고, 바우덕이와 최용신은 각각 남사당패·강습소 살림을 맡아 운영하였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들이 ‘살림’과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체로 여성과 살림을 연계할 때는 ‘한 가정’을 경영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가정살림이란 ‘어른 잘 모시고, 남편 공경하고, 아이 잘 키우고, 가족의 의식주를 관리하는 것’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과거 ‘살림’은 여성으로서 당연

히 이행해야 하는 전유물이자 부덕(婦德)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인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여성들이 오로지 살림살이에 전념하여 한 가정을 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세상살이’를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단지 기록이 되지 않았을 뿐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여성인물들은 분명 보통의 삶을 산 경우는 아니다. 즉 안방살림에 충실하며 남편의 출세를 위해 내조하는 전형적인 규수(閨秀)의 이미지가 아니라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열정을 가지고 진취성을 발휘한, 이른바 커리어우먼(Career Woman)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전통적인 가정에서의 ‘살림문화’를 등한시했다거나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다. ‘여성 실학자’로 불리는 사주당 이씨나 병허각 이씨, 정일당 강씨도 ‘살림’을 잘 꾸려가는 가운데 자녀교육에 힘쓰거나 학문을 닦아 저술도 남긴 것인데 살림을 잘한 면은 그다지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어떤 여성인물이 후세에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부각되는 것은 ‘자녀 교육’이라는 측면이 우선시된 것으로 보인다. 즉 자식이 높은 벼슬을 하거나 훌륭한 학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로서 빛나는 형식이다. 이제는 여성인물도 이런 외적 요인이 아닌 한 개인으로서 업적과 사상 등이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경기도의 전통여성문화를 발굴하고 활용하고자 기획된 ‘살림문화프로젝트’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태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태교신기』를 지은 사주당 이씨, 살림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규합총서』에 기록한 병허각 이씨, 전통사회와 근대사회를 막론하고 규방예술의 상징인 자수(刺繡)를 전공했던 나사균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Ⅲ. 병허각 이씨의 삶에서 불러오는 ‘살림여성주의’

정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1. 머리말
2. 병허각 이씨의 삶 : 목가적인 삶의 쓰라림
3. 『규합총서』는 어떤 책인가?
4. 『규합총서』에 담긴 살림/살이
5. 맺음말-‘살림여성주의’에 대한 전망

1. 머리말

“만년에 집안이 기울어 선조들의 발을 거의 다 팔게 되니, 힘써 부지런히 일을 하느라 고생하셨다.”

위 글은 빙허각 이씨(憑虛閣 李氏, 1759~1824)의 시동생 서유구가 쓴 묘지명 중 한 구절이다. 빙허각은 『규합총서』라는 살림전문서를 저술한 여성이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지식인이었다는 뜻이다. 19세기 초 유럽에서는 이 무렵 많은 여성들이 저작활동에 뛰어 들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의 분야에서 전문서를 낸 여성은 흔치 않다. 대부분이 소설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규합총서』는 세계사적으로 볼 때 대단히 기념비적인 저술이라 할 만하다.

다른 한편으로 빙허각은 생활인이었다. 빙허각이 현실경제에 눈을 뜬 계기는 1806년 남편 숙부인 서형수가 정치 사건에 연루되어 온 집안이 몰락하면서부터였다. 한양을 떠나 외곽지역으로 집을 옮긴 빙허각은 집안 살림과 가정 경제를 책임졌다. 그러면서 빙허각은 이때의 지식과 경험을 허투루 넘기지 않고 기록으로 남겨 집안 여성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였다.

나이 51세인 1809년에 완성한 『규합총서』는 생활 경제의 담당자로서 자신이 처한 사회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얻어낸 연구 결과물이자 경험의 산물이었다. 빙허각은 서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것들이 다 건강에 주의하는 첫 일이요, 집안을 다스리는 중요한 법이라, 진실로 일용에 없지 못할 것이요 부녀가 마땅히 연구할 바다”

남편 서유본은 빙허각의 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평하였다. 이 논평은 서유본이 지은 시 가운데에 “내 아내가 곤충이며 물고기를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시골살림을 해나가는 방편 또한 소략하지 않다...”라는 구절에 붙어있는 설명이다.

나의 아내가 여러 책에서 줄거리를 뽑아 모아서 항목별로 나누었다. 시골 살림살이에 요긴하지 않은 것이 없고 특히 초목·새·짐승의 성미가 상세하게 적혀있다. 이에 내가 책 이름을 규합총서라고 하였다.¹⁷⁾

17) 徐有本, 『左蘇山人文集』 卷1, 江居雜詠(栖碧外史海外蒐佚本叢書 27, 1992년).

무엇보다도 여성으로서 빙허각의 문제의식을 알 수 있는 대목은 살림/살이하는 여성의 눈으로 관찰하고 분석해 '한글'로 기록을 남겼다는 점이다. “...마침내 이로써 서문을 삼아 집안의 여자들에게 준다.”고 했듯이 남성들이 한자(漢字)로 쓴 방대한 지식을 일상생활의 담당자인 여성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려는 의도였다. 그야말로 실용의 학문을 추구한 것이다. 『규합총서』가 빙허각이 살아있을 때부터 필사되고, 『간본 규합총서』(1869)나 『부인필지(夫人必知)』(1915년) 등으로 간행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페미니즘은 여성을 사적 공간에서 공적 공간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과 노동(집안 노동에서 집밖 노동으로의 이동)을 분리하기 위해 부단히 투쟁하면서 여러 방안을 모색해왔다.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페미니즘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자 화두였다. 한편으론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대한 대안으로 가사노동을 화폐가치로 계산하여 가사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통적 가족, 즉 남편은 밖에 나가 일을 하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머무르는 가족은 결코 전통적인 것이 아니다. 노동 세계와 가정생활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오늘날 가정의 모습은 가내수공업의 쇠락과 급여노동의 발달을 전제로 한 19세기의 창조물이다.¹⁸⁾ 이런 측면에서 조선시대 가족의 생활공간은 생산과 노동이 함께 집약되어 있던 노동 공간이었다. 현대처럼 가정이 사회적 노동에서 분리되지 않고 생활경제가 꿈틀대는 살아 숨 쉬는 공간이었다.

또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노동만이 가치 있는 노동인가하는 문제로 짚어봐야 한다. 화폐경제를 우월하고 보편적인 경제 형태이자 역사적인 경제 발전의 최종 목적지로 상정하면서 화폐경제 이전에 행한 각종 노동을 폄하하였다. 그래서 화폐경제가 아닌 인간의 살림살이 속에 묻어 들어있는 수많은 고려와 지혜는 비과학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논의의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다.¹⁹⁾

이 글은 빙허각의 삶과 『규합총서』를 통해서 살림/살이에 대한 전망을 풀어보고자 한다. 오늘날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부여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살림/살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살펴보면서 빙허각에 주목하였다. 조선후기 한 여성의 삶의 방식을 들여다보면서 오늘날 여성 노동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발굴해보고자 한다.

18) 크리스토퍼 래쉬 지음/엘리자베스 래쉬 쿨 역음·오정화 옮김, 『여성과 일상생활』, 문학과지성사, 2004, 128쪽.

19) 홍기빈,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 지식의날개, 2012.

각이 사주당과 친밀한 교류를 통해 학문적 영향을 받았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빙허각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아버지가 무릎에 앉혀놓고 『시경』이나 『소학』을 읽어주면 그 뜻을 곧바로 깨쳤다고 한다. 이러한 총명함으로 빙허각은 부모에게 아들과 같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다. 커서도 기억력이 뛰어났으며 공부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여러 책을 섭렵하였다. 그리고 시(詩)나 여러 가지 글을 잘 지어 성인이 되기도 전에 주위 사람들에게 여사(女士)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였다.

성격은 불같고 강해서 남에게 지는 것을 싫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화 하나를 소개하면 빙허각이 간니가 날 무렵 자기 또래의 아이들이 이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작은 망치로 아랫니와 윗니를 뽑아내어 피를 철철 흘리게 되었다. 아버지 이창수가 이를 보고 빙허각의 강인한 성격에 기뻐했지만 고집이 세어질까 염려하여 “여자는 시집가서 남편을 따를 사람이다. 매사에 거슬림이 없게 한다면 괜찮지만 만일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자기 손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하고 타일렀다고 한다.

2) 혼인과 남편 집안의 학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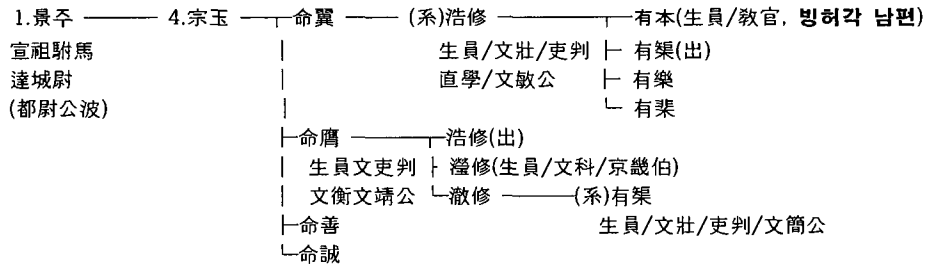
빙허각 이씨는 15세에 서유본(徐有本, 1762~1822)과 혼인하였다.²²⁾ 두 집안 모두 소론 집안으로서 아버지 이창수의 첫째부인이 서씨이듯이 3대에 걸쳐서 교분이 깊은 사이였다. 자녀들이 훌륭하다는 소문을 듣고 중매 없이 곧바로 혼인을 맺었다고 한다.

남편 서유본의 집안은 선조(宣祖)의 부마이던 달성위 서경주에 이르러 문벌로 성장하였다. 할아버지 서명웅(1716~1787)은 영조의 탕평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노론(老論)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서명웅의 동생 서명선(1728~1791)은 영조 말년에 정조를 제거하려 했던 홍인한과 정조 즉위 초 세도가인 홍국영을 몰아내는데 공헌함으로써 영의정까지 올랐다.

이처럼 서유본의 집안은 소론으로서 당대 최고의 영예를 누리면서 생부 서호수(1736~1799)와 숙부 서형수(1749~1824), 동생 서유구(1764~1845)까지 성세가 지속되었다.²³⁾

22) 서유본의 號는 ‘左蘇’이다. 좌소는 서유구가 쓴 묘지에 따르면 경기도 장단의 옛이름(“左蘇湍州古名”)이며 서유본 집안의 선산도 장단에 있었다. 그리고 서유본의 동생 서유구도 1806년 향촌에 유배되었을 때 장단 지역의 금화나 帶湖 등에 살았다.

23) 유봉학, 「서유구의 학문과 농업정책론」, 『燕巖一派 北學思想 研究』, 일조각, 1995, 190쪽.



<표 4> 빙허각 이씨의 남편 서유본 가계²⁴⁾

서유본 집안의 학풍²⁵⁾은 이용후생(利用厚生)을 위한 학문을 강조하는 실학 집안으로 박지원·박제가·이덕무 등 북학과(北學派)와 교유하였다. 특히 기용(器用)·금석·물·불·별·달·해·초목·금수 등 같은 객관적 사물을 탐구하는 ‘박물(博物)’ 즉 명물학(名物學)에 특장을 보였으며 그 일환으로서 농학에 관한 연구 성과를 내놓았다.

서유본의 할아버지 서명응이 지은 『보만재총서(保晩齋叢書)』는 수리·천문·농학·악률(樂律)·행정제도 등을 총서 체계로 집대성한 책이다. 농가경제서인 『고사신서(攷事新書)』(1771년)는 이 총서의 일부분이다. 생부 서호수는 천문·산수·악률 등의 분야에서 당대 이름을 날렸고 역시 농학 연구서인 『해동농서(海東農書)』(1799년)를 저술하였다.

서유본의 학문 경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박지원과 교유한 사실²⁶⁾로 미루어 집안의 학문 분위기와 비슷했던 것 같다. 그리고 박지원과 교유하면서 당시 정통 성리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던 금문(今文)으로 경도를 보였다.²⁷⁾

그런데 서유본의 문집인 『좌소산인문집(左蘇山人文集)』에는 빙허각의 학문과 시가 학풍의 연관성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글이 남아 있다.

나의 아내가 여러 책에서 줄거리를 뽑아 모아서 항목별로 나누었다. 시골 살림살이에 요긴하지 않은 것이 없고 특히 초목·새·짐승의 성미가 상세하게 적혀있다. 이에 내가 책 이름을 규합총서라고 하였다.²⁸⁾

24) 『만성대동보』(1931年本), 명문당, 1983 참조.

25) 서유본 집안의 학풍은 유봉학, 위의 책에서 주로 참조하였다.

26) 박지원, 『연암집』 권3, 「贈左蘇山人」

27) 徐有渠, 「伯氏左蘇山人墓誌銘」, 『知非集』 卷7(영인본 『楓石全集』에 수록).

28) 『左蘇山人文集』, 卷1, 詩, <江居雜詠>(栖碧外史海外蒐佚本叢書 27, 1992년). “余內子, 抄輯羣書, 各分門目, 無非山居日用之要, 而尤詳於草木鳥獸之性味, 余爲命其名曰閨閣叢書”

이 글은 서유본이 지은 <강거잡영 15수(江居雜詠十五首)> 중에 “내 아내가 곤충이며 물고기를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시골살림을 해나가는 방편 또한 소략하지 않다.”라는 구절에 붙어있는 설명이다. 이 설명에 의하면 빙허각은 초목이나 짐승 등 시가의 학풍이라 할 수 있는 명물학에 많은 관심을 갖고 탐구하였다. 『빙허각 전서』 가운데 『청규박물지』가 들어있어 빙허각이 이 방면에 해박한 지식이 있었음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따라서 서유본을 포함한 시가 학풍은 빙허각의 학문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빙허각이 『규합총서』에서 인용한 서적에 시아버지 서호수의 『해동농서』가 들어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빙허각은 시가의 학풍에 영향을 받으면서 학문의 외연을 넓혀 나갔고, 그 결과 실생활에 유용한 지식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초목이나 금수 등의 명물학을 탐구할 수 있었다. 또 시아버지 서호수는 중국대륙에서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희귀 서책을 소유했으며,²⁹⁾ 시동생 서유구도 당대에 서적 8천권 정도를 소장한 유명한 장서가라고 한다. 그러므로 빙허각이 각종 서적을 접하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한편 빙허각이 혼인했을 때 시할아버지 서명응이 “네가 『소학』을 즐겨 읽었다고 들었는데 어느 구절이 본받을 만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빙허각이 “‘말을 행동보다 먼저 해서는 안된다.’는 구절입니다.”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서명응이 “참으로 겸손하면서도 재질이 있구나. 누가 이 사람을 여자라고 하겠느냐?”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손자며느리에게 부덕보다는 『소학』 구절에 대해서 묻고 그 재질을 인정할 줄 알았던 서명응의 도량이나 여자의 학문적 자질을 중시한 서씨 집안의 분위기, 그리고 이같이 답할 수 있던 빙허각의 평소의 수신(修身)과 곧은 의지는 빙허각이 혼인한 후에 계속 공부하면서 『규합총서』를 저술하는 밑바탕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3) 부부 사이

서유본이 빙허각과 혼인한 나이는 12살이다. 당시 빙허각보다 3살 아래였다. 서유본은 어릴 때부터 행동이 침착하고 과묵했으며 재주가 뛰어났다고 한다. 글을 잘하였고 특히 홍문관이나 예문관에서 지어 올리는 관각체(館閣體)에 능하여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초고를 맡기면 더 이상 손볼 곳이 없을 정도였다.

서유본은 22세에 생원시에 합격한 후 대과(大科)인 문과 공부에 정진했으나 문과에 급제하지 못하였다. 36세(1798년)에 성균관 태학생에게 보인 시험에서 우수한 성

29) 이규경, 『五洲衍文長箋散稿』 人事篇, 技藝類, 算數, <幾何原本辨證說>.

적으로 큰 상을 받았으나 이듬해인 1779년 아버지 서호수가 작고하자 집에 돌아와 삼년상을 치렀다.

당시 국왕 정조(正祖)가 숙부 서형수를 통해 아버지 삼년상이 끝나면 경전 암송[明經科]으로 급제를 내려 등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나, 1800년 정조가 서거하자 이마저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후에도 학업에 몰두하여 과거시험에 응시했으나 계속 낙방하였다. 1805년 나이 43세에 동생 서유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종9품 벼슬인 동몽교관으로 처음 벼슬길에 올랐다.

그러나 다음 해인 1806년 숙부 서형수가 옥사에 연루되어 유배길에 오르면서 집안은 일거에 몰락하였다. 당시 홍문관 부제학이던 동생 서유구도 향리에 유배되었으며 서유본도 더 이상 관직에 나갈 수 없었다. 이 때 빙허각의 나이 47세였다.

서유본은 평상시 문 밖 출입은 별로 하지 않고 독서에 몰두한 편이었다. 더구나 1809년(순조 9)에 거처를 동호(東湖)³⁰⁾ 행정(杏亭)으로 옮기고 난 이후로 오로지 독서와 저술로만 세월을 보냈다. 행정은 오늘날 서울 마포지역이다.³¹⁾

서유본은 관직운이 없어 평생 재야 생활을 한 셈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내 빙허각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함께 경서에 대해 토론하고 시(詩)를 주고받으며 지우(知友)같은 사이로 지낼 수 있었다. 빙허각은 『규합총서』 서문에서 이 시절을 이렇게 회고하였다.

1809년 가을에 내가 삼호 행정에 집을 정하고 집안일 하는 틈틈이 남편이 있는 곳[사랑]에 나가서 옛 글이 일상생활에 절실한 것과 산야에 묻힌 모든 글을 구해보고 오직 문건을 넓히고 적적함을 위로하였다.

서유본의 재야 생활은 본인에게는 불행일 수 있지만 이 때문에 빙허각은 자신의 학문을 넓힐 수 있는 튼튼한 받침목을 가질 수 있었다. 『규합총서』라는 서명도 서유본이 붙여주었다. 이 점은 부부 사이의 학문적 친화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서유본이 아내 빙허각의 학문에 관심과 애정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한편 서유본이 지은 시 가운데 “아내가 해마다 누에치고 길쌈하며 온갖 꽃을 따다가 술을 빚어서 준다.”³²⁾는 내용도 담고 있어 부부에 역시 깊었음을 느끼게 한다. 이 백화주(百花酒)는 『규합총서』에 담는 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끝에 ‘스스로

30) 永平寺本에는 ‘三湖’로 나온다.

31) 李圭景은 본인이 마포에 살 때에 귀한 서책인 『明本釋』을 서유본에게 빌려서 봤다고 한다. 그러면서 서유본에 대해 소개하기를 “字는 준원이며, 관직은 교관이다. 尙書 서호수의 장남이다. 일찍이 마포 행정에 살면서 학문을 연구하였다.”고 썼다.(이규경,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 經史雜類, 其他典籍, <明本釋辨證說>)

32) 『左蘇山人文集』 卷1, 詩, <百花酒新熟 喜而賦長句>.

지어서 새롭게 덧붙임[自製新增]'이라 밝혔으므로 빙허각이 새로 개발한 술이다.

4) 빙허각의 죽음

빙허각과 서유본은 집안이 몰락하고 가산마저 기울자 거처를 삼호 행정으로 옮겼다. 이 때부터 빙허각은 손수 차(茶) 밭을 경영하면서 생계를 거의 혼자 힘으로 꾸려나갔다. 시동생인 서유구도 옥사에 연루되어 1823년(순조 23)까지 벼슬길에 나가지 못한 채 무려 6번이나 주거지를 옮기면서 농사를 경영하였으므로 경제적 도움을 줄 형편이 아니었다. 따라서 가게를 직접 경영하던 1809년(나이 51세)에 완성된 『규합총서』는 이 당시의 생활 체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1822년(순조 22) 남편 서유본이 갑자기 앓아눕게 되자 빙허각은 음식도 끊은 채, 남편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사당 앞에서 빌기도 하고 손가락을 잘라 남편에게 피를 먹이기도 하였다. 남편이 죽자 빙허각은 절명사(絶命詞)를 짓고 일상생활을 폐기한 채 누워 지내다가 1824년 2월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평소 애뜻한 부부애나 평생知己처럼 지낸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빙허각의 이러한 행동은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린 시절 부터 심지가 곧아 여자같지 않다는 말을 들었던 빙허각도 남편의 죽음 앞에서는 전형적인 열부(烈婦)의 모습을 보여준 셈이다. 이는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부덕이 강요되었던 조선시대에 여자로서 살았던 빙허각의 한계이자 시대적 제약이었다고 여겨진다.³³⁾

빙허각은 슬하에 모두 4남 7녀를 두었는데 8명은 일찍 죽고 아들 1명과 딸 2명만 살아남았다. 장남 민보(民輔) 역시 후사를 잇지 못하고 일찍 죽어 친족의 아들 풍순(豐淳)을 후사로 삼았다. 두 딸은 각각 심능학(沈能學), 윤치대(尹致大)와 혼인했으며 외손은 6명이었다.

5) 빙허각의 저술

서유구가 쓴 묘지명에 의하면 빙허각의 저술로는 『빙허각시집』(1권), 『규합총서』(8권), 『청규박물지』(5권)가 있다. 1939년 황해도 장단군 진서(津西)에 있는 서씨 후손의 집에서 발굴한 전서(全書)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전해준다.

33) 빙허각의 증조 할아버지 이언강의 아내 권씨(權氏)는 남편이 죽자 지나치게 슬퍼하다가 병을 얻어 죽어 정표(旌表)를 받았다.(『영조실록』 권42, 12년 12월 병인) 숙부 이창의의 아내 윤씨(尹氏)도 음식을 먹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시할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정표를 받았다.(『영조실록』 권119, 48년 10월 갑신) 빙허각의 죽음도 이러한 친정 집안 영향을 받았다고 여겨진다.

당시 발굴한 빙허각의 전서는 총 3부 11책이며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다. 발견 당시 빙허각의 전서 내용과 생애가 간략하게나마 1939년 1월 31일자 동아일보를 통해 알려졌다.³⁴⁾ 그 때 소개된 ‘빙허각전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 규합총서(閩閩叢書): 주식(酒食), 봉임(縫紉), 산업(産業), 의복(醫卜)
- 청규박물지(淸閩博物志): 천문, 지리, 세시(歲時), 초목(草木) · 금수(禽獸), 충어(蟲魚) · 복식, 음식
- 빙허각고략(憑虛閣稿略): 자작시(自作詩), 한문대역(漢文對譯), 태교신기발(胎敎新記跋), 부문헌공묘표(父文獻公墓表)

동아일보의 내용과 서유구가 쓴 묘지명을 비교해보면 『빙허각고략』과 『빙허각시집』만 다르고 『규합총서』와 『청규박물지』는 일치한다. 『청규박물지』는 그 서문에 “내 이미 규합총서 5편을 이루매 산해경 등을 읽고 다시 청규박물지를 지으니...”³⁵⁾ 라고 하여 『규합총서』를 쓴 이후의 저술이다.

<표 5> 빙허각 이씨의 저술

빙허각 묘지명	동아일보
『규합총서』 8권	『규합총서』 5책
『청규박물지』 5권	『청규박물지』 4책
『빙허각시집』 1권	『빙허각고략』 2책

『빙허각고략』은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빙허각시집』과 거의 유사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빙허각이 남긴 저술은 1939년까지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제시대와 1945년 이후 격동기를 거치면서 『규합총서』와 『청규박물지』만 남아있고 나머지 저술은 오늘날 찾아볼 길이 없다.

참고로 『청규박물지』는 그동안 행방을 알 수 없다가 2004년에 일본 도서관에서 발굴되었다.

‘청규박물지’는 일제시대 말기 일반에 알려지자마자 분실돼 안타깝게도 이름만 전해져 왔다. 바로 그 ‘청규박물지’가 최근 일본 도쿄대 문학부 도서관 ‘오쿠라(小倉) 문고’에서 발견됐다. 이 대학에 교환 교수로 가 있던 서울대 국문과 권두환 교수 팀이 찾아

34) 『동아일보』 1939년 1월 31일자.

35) 『동아일보』 1939년 1월 31일자에 실린 『청규박물지』 序文 사진 참조.

올린 개가다. 오쿠라 문고를 만든 오쿠라 신페이(小倉進平·1882~1944)는 경성제대와 도쿄제대 교수를 역임했고 향가 연구의 문을 연 인물. 수 천 권에 이르는 그의 장서는 그가 죽은 후 도쿄대 도서관에 기증됐다. 이번에 찾아낸 ‘청규박물지’는 제1권 천문·지리, 제2권 역시(曆時)·초목(草木), 제3권 금수(禽獸)·충어(蟲魚), 제4권 복식·음식으로 이루어졌다. 일월(日月)·해(海)·조석(潮汐)·곤충·주(酒)·서화(書畫)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각종 자료에서 뽑은 관련 지식을 한글로 상세히 기록했다.(『조선일보』 2004년 2월 3일)

3. 『규합총서』는 어떤 책인가?

1) 『규합총서』의 구성

『규합총서(閨閣叢書)』은 빙허각 이씨의 저서다. ‘규합’은 여자가 머무는 거처를 의미하므로 『규합총서』를 요즘말로 바꾸면 ‘가정학총서’가 된다.

내용은 총서라는 제목에 걸맞게 다섯 편으로 나누어 술·음식만들기[酒食議], 옷만들기·물들이기·길쌈하기·수놓기·누에치기[縫紉則], 밭일·꽃심기·가축기르기[山家樂], 태교·육아법·응급처치법[靑囊訣], 방향선택·길흉·부적·귀신쫓는법·재난방지법[術數略] 등 다양한 생활 경제를 담고 있다.

『규합총서』는 주사의(酒食議), 봉임측(縫紉則), 산가락(山家樂), 청낭결(靑囊訣), 술수략(術數略) 등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5장의 제목에서 보듯이 빙허각은 삶을 ‘의’ ‘측’ ‘낙’ ‘결’ ‘약’으로 이해하였다. 이 단어들은 법도, 준칙 또는 본받음, 즐거움, 비결, 간략하게 다스림 등과 같은 의미이므로, 당시의 생활을 일정하게 양식화된 내용으로 전승하려 했다고 보인다.

빙허각은 “음식과 의복에 대해 말하려는 것뿐입니다.”고 하였지만 실은 책 여기저기에 그 이상의 내용을 담아냈다. 그래서 이 책은 여성의 사회 활동의 범위가 확산되는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서 읽는다면 행간에 숨겨진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책이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조선후기에 의식주에 대한 학문적 탐구가 여성이기 때문에 갖는 관심이라기보다는 공리공담의 성리학을 비판하고 실용적 학문을 추구한 ‘실학’의 탐구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지봉유설』, 『산림경제』, 『임원경제지』 등에 조리는 물론 가정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상당수 수록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표 6> 『규합총서』의 구성과 내용

권수	제목	주제	내용
권1	주사의 (酒食議)	식(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과 음식에 대한 총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예절 -술과 술잔 이름, 주론(酒論), 술 마시는 이야기 -약주의 종류와 품평 ○ 술과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초(醕) 담그기, 술 빚기 -김치담그기, 생선·고기·평 등을 이용한 반찬만들기 -차(茶)에 대한 품평 ○ 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떡, 면, 과자 만들기 -과일과 채소 오래 보관하기 -기름짜기
권2	봉입측 (縫紉則)	의(衣) 기타 상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느질, 길쌈, 수선, 염색, 다듬이법, 빨래 ○ 여성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녀전, 몸단장, 화장 ○ 기타 상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방, 그릇, 향 만드는 법, 불 밝히는 법 -돈 이름과 돈의 역사, 방구들 놓는 법 -누에치기, 뽕 기르기 -서양 문물의 소개
권3	산가락 (山家樂)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골 살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밭 갈기 좋은 날, 과일 따는 법, 꽃제배, 꽃품평 -새시기, 날씨 점치기, 가축 기르기, 양봉
권4	청낭결 (靑囊訣)	건강/의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교와 육아, 구급처방, 경험방 -여러 가지 물린 데 닦게 하는 법, 벌레 없애기 ○ 우리나라 팔도 물산 ○ 잡저(雜著) <ul style="list-style-type: none"> -힘세지는 법, 잠 안오는 법, 얼굴을 트지 않게 하는 법 <p style="text-align: right;">등등</p>
권5	술수략 (術數略)	민간풍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향 선택 ○ 길흉·부적·귀신 쫓는법 ○ 재난방지법

2) 병허각의 연구방법

『규합총서』에는 조선후기 새로운 학풍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이 책에서 인용한 한국과 중국의 서적만 80여 종에 달한다. “인용한 책이름을 각각 작은 글씨로 모든 조항아래 나타내고 내 소견이 있으면 신증(新增)이라 썼다.”고 했듯이 인용한 출처를 밝히는 연구 방법은 실학자들의 전형적인 학문 태도로서 청대 고증학의 영향이었다.

『규합총서』의 사상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규합총서』에 영향을 미쳤던 저서들에 주목해야 한다. 『규합총서』는 『본초강목』을 비롯한 각종 중국책에서부터 『지봉유설』·『산림경제』·『성호사설』·『동의보감』 등 우리나라 책을 다양하게

인용하고 있다.³⁶⁾

이 가운데 『규합총서』의 체제나 내용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책은 『산림경제』(1715년경)라고 여겨진다. 『산림경제』는 그 목차를 보면 복거(卜居:집터 선정과 집짓기), 섭생(攝生:건강), 치농(治農:곡식이나 특용작물 경작법), 치포(治圃:채소·화초·약초류 재배법), 종수(種樹:과수와 임목 육성법), 양화(養花:화초나 정원수 재배법), 양잠(養蠶:누에치기), 목양(牧養:가축·물고기 양식), 치선(治膳:조리나 식품 저장법), 구급(救急:응급처치법), 벽온(辟瘟:전염병 퇴치법), 벽충(辟蟲:각종 벌레 퇴치법), 치약(治藥:약 조제법), 선택(選擇:길흉일과 방향 선택), 잡방(雜方:그림·글씨·도자기·악기 등의 손질법) 등으로 농촌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일종의 종합 생활경제서이다.

『산림경제』는 이후 유중림의 『증보산림경제』(1766년)나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일명 『임원십육지』, 1827년)의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빙허각의 시할아버지 서명응이 편찬한 『고사신서』(1771년)와 시아버지 서호수의 『해동농서』(1799년)는 『산림경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았으니 이 책이 후대에 미친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규합총서』의 목차를 『산림경제』 목차와 비교해보면 『규합총서』의 내용과 체제가 이 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얼핏보면 태교나 육아법 등이 『규합총서』에만 있는 항목처럼 보이지만 『산림경제』 「구급」편에도 태루(胎漏)·태동(胎動)·난산(難産)·산후병(産後病)·소아급병(小兒急病) 등 육아와 부인과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

이처럼 『규합총서』가 조선후기 농가경제서의 원조가 된 『산림경제』의 체제나 내용과 유사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규합총서』가 17세기 이후 백과전서파로 불리면서 경세치용을 추구한 학풍인 실학의 영향을 받고 저술되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나아가 『규합총서』가 『산림경제』를 밑바탕으로 저술된 『증보산림경제』나 『임원십육지』 등의 실학서와 학문 경향을 같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규합총서』는 중국 고사를 지나치게 많이 실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³⁷⁾ 그렇지만 “『물류상감』과 『잡저』가 심히 허탄하여, 책에 있는 말을 다 믿는다면 책이 없는 것만 못하지만 그 가운데 요긴한 말도 있기에 가려적이다.”(『청낭결』:386쪽)고

36) 인용 서적 가운데 우리나라 책은 內局方.東醫寶鑑.林下筆記.山林經濟.星湖僿說.藥泉集.輿地勝覽.芝峰類說.海東農書 등이다. 중국책은 史記.禮記.楞嚴經.孟子.墨子要錄.書傳.呂氏春秋.周易.周禮.漢書.한비자.感應志.乾坤必錄.雞林志.古今注.관요(管窺要覽).禽經.農政全書.童子長壽經.博學記.本草綱目.說郛.萬法歸宗.萬病回春.文房圖譜.文房寶節.物類相感志.博物志.事文類聚.山海經.三才圖會.攝生願覽.續博物志.獸經.搜神記.壽養叢書.拾遊記.食療本草.養生記.養生書.養蠶書.酉陽雜俎.醫學入門.占書.地經.天機大要.天寶遺事.清異錄.通志.抱朴子.荊楚歲時記.黃帝書 등이다. 서명이 정확하지 않은 책은 자서.장광필공사.몽세필담.미재잡언.미공비급.밀수집.백씨금찬.소대총서.쇄금록.십일중비서.야선사설.우초신지.유원총보.주창야설.태을통독 등이다. 이 가운데 인용 빈도가 가장 많은 책은 『본초강목』과 『박물지』이다.

37) 이성우, 「조선시대의 고조리서」, 『조선시대 조리서의 분석적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19쪽.

하여 당시 실정에 맞는 내용만을 채용하였다. 간략하게나마 사례를 보도록 하자.

<유황배(硫黃盃) 만드는 법을 덧붙임> 이 방문이 『본초강목』 총서에 실려 있었으나 시험해 본 사람이 없었다. 우연히 장난삼아 만들어보니 과연 그대로되 병에 유익한 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그릇이 곱기가 꽃잔보다 낫다.……다만 본방에 포도를 넣으면 푸르다 하였으되 포도즙을 시험하였으나 되지 아니하니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다.……더운 것을 부으면 터지니 본방에 뜨거운 술을 부으라 한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주식의』 : 31쪽)

학은 서로 발자취를 밟아 알을 배고 『금경』과 『본초강목』에는 다 선학(仙鶴)은 알을 낳지 않고 태생(胎生)하며 평범한 학은 혹 상하풍에 울고 발자취를 밟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르는 학을 보니 못 새들과 다름이 없어 誤傳이다.(『청낭결』 : 378쪽)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빙허각은 중국 문물과 지식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여러 문헌을 비교 검토한 고증 결과나 본인이 실생활에서 직접 실험하여 얻은 결과만을 수록하였다.

『규합총서』의 고증학적 서술 방법을 좀 더 검토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 전하는 조리서 중 가장 오래된 책이자 여성(안동 장씨)이 한글로 쓴 저서인 『음식디미방』(일명 『閨壺是議方』, 1670년경)의 서술 체제를 보도록 하자.

밤은 많고 적고를 문제삼지 말고 그날에 말려서 찢어 체로 쳐 세분하여 참쌀가루를 더 넣어 섞어 꿀물에 반죽하여 윤케하여 켜는 송이편 켜같이하여 쓰라.
(『음식디미방』 밤설기편)³⁸⁾

유밀과(油蜜果)를 약과(藥果)라 하는 것은 밀은 사시정기(四時精氣)요 꿀은 온갖 약의 으뜸이요 기름은 벌레를 죽이고 해독하기 때문에 이르는 말이다.
(『규합총서』 「주사의」 : 99쪽)

이 사례들은 두 책에서 임의적으로 뽑았지만 두 책의 서술 체제를 대조적으로 나타내준다. 사례에서 보듯이 『음식디미방』은 음식만드는 법만을 적은 말 그대로 조리책이다. 반면 『규합총서』는 음식 조리법은 물론 음식이나 재료 이름의 어원, 효능 등을 고증하여 서술하였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고증학적 방법에 기초한 빙허각의 이같은 저술 태도는 여성이 쓴 생활 경제서의 커다란 진전을 보여줌과 동시에 『규합총서』가 실학적 학문 방법에 힘입어 저술된 실학서임을 증명하고 있다.

38) 손정자, 『자료 음식디미방』, 『아세아여성연구』 5, 숙명여자대학교, 1966. 254쪽.

그렇다면 빙허각은 다른 실학서들과는 달리 『규합총서』를 왜 한글로 썼을까. 『지봉유설』, 『산림경제』, 『임원경제지』, 『오주연문장전산고』 등의 실학서들은 공리공담의 성리학을 반성하고 경세치용의 학문을 추구하면서 저술되었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활용할 목적을 갖는 생활경제서였다. 그래서 『산림경제』 목차에서 보았듯이 조리를 비롯한 가정 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을 다수 수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저서들은 모두 한문으로 썼기 때문에 정작 일상생활의 직접 운용자인 여성이 쉽게 접하기 어렵다는 자기모순을 갖고 있었다.

반면 『규합총서』는 서문에서 “무릇 각각 조항을 널리 적기에 힘써 밝고 자세하고 분명케 하고자 하였으므로 한 번 책을 열면 가히 알아보아 행하게 하였다.……마침내 이로써 서문을 삼아 집안의 여자들에게 준다.”고 하여 여자들에게 널리 읽혀 유용하게 쓰이기를 간절히 희망하였다.

즉 빙허각은 경세치용의 실학적 지식을 소화하여 여성의 입장에서 한글로 씌으로써 남성들에 의해 한문으로 쓰여진 방대한 지식을 알기쉽게 여성에게 전달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청규박물지』나 자작시를 한글로 쓴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는 여성의 지적 욕구가 점차 증대해나가는 시기에 여성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수준 높게 전달했다고 평할 수 있다.

4. 『규합총서』에 담긴 살림/살이

1) 주사의

「주사의」는 술과 음식에 대해 논의한다는 의미다. 주요 내용은 술 담그기, 장 담그기, 초(醋) 빚기, 차(茶)에 대한 품평, 김치 담그기, 생선·고기·튀 등을 이용해 반찬 만들기, 온갖 떡과 과자 만들기, 여러 과일과 채소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 기름 짜는 법 등이 담겨있다.

여기에 실린 내용들은 단순히 음식 만들고 술 빚는 내용이 아니다. 빙허각은 다른 사람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책임이 여자의 임무라고 여겼다. 과학성과 미각, 몸의 보호 등 우리가 지금 ‘웰빙’이라 말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 온갖 문헌과 체험을 통해 터득한 지식을 담아냈다.

빙허각은 이 장 앞머리에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대부가 음식 먹을 때 생각해야 할 다섯 가지 사항>을 밝혀 놓았다. 첫째, 음식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헤아리고, 백성의 고혈을 먹는다고 생각할 것, 둘째, 어버이와

임금을 섬기고 나중에 입신하는 것이니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음식맛만 따지지 말 것, 셋째,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맛있고 좋은 음식만 탐내지 말고 배불리 먹을 타령을 하지 말 것, 넷째, 음식을 좋은 약으로 삼을 것, 다섯 째, 공덕을 이루어 놓은 후에 음식을 먹으라고 하였다.

반찬 만들기 중에는 김치 담그기가 나오는데 이름만 들어도 군침이 돌 만큼 다양한 김치가 등장한다. 썬박지, 어육김치, 동과(冬瓜) 썬박지, 동침이, 동가김치, 동지, 용이 오이지법, 산갓김치, 장짬지, 전복김치를 담는 방법과 맛이 좋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특히 용인오이지는 우리나라에서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어육김치의 경우 생선불이를 먹고 남은 머리와 껍질 등을 모아두었다가 달여서 함께 쓰라고 하여 현대인에게 유용한 레시피를 제공해주고 있다.

생선·고기·뽕 등을 이용한 조리법은 오늘날 민간처방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개고기를 즐겨먹는 이유라든가 또 산후 조리 음식으로 가물치를 고아먹는 풍속의 근원을 밝혀준다. 개 삶는 법을 소개하면서 “개고기는 모르는 사람은 깨끗이 씻어야 개 냄새가 없다 하되 『본초강목』에 살찐 것은 피 또한 향기로우니 어찌 피를 버리리오 하였다. 그 피가 사람에게 유익할뿐더러 고기 맛을 도우니 물에 씻어 고으면 개 비린내가 난다.”고 하였다. 또 여성에게 좋은 보혈(補血)하는 식품으로 가물치를 소개하면서 “물 위에 떠 머리 위에 일곱 구멍이 칠성(七星)의 정기를 들이마시는 고로 여자의 보혈에 신기한 약이다.”고 주석을 달았다.

제철에 나는 과일과 야채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도 눈길을 끈다. 배는 항아리에 무우와 한 켠씩 넣어두면 상하지 않는다고 한다. 홍시는 거울에 항아리에 물을 붓고 홍시를 담가 얼거든 그릇을 깨고 빼어 빙고에 두면 여름까지 간다고 한다. 감자와 꿀은 무우와 함께 더운 데 두면 봄에도 썩지 않고 포도는 꿀 속에 담가두면 봄까지 간다고 적어놓았다. 배추는 서린 내린 뒤 움에 넣고 마른 말뚝을 싸두도록 하였다. 또 마늘은 껍질을 벗겨 좋은 초에 담갔다가 오랜 후에 말리면 냄새가 없고 산뜻하고 새롭다고 하였다.

장 담그는 법, 장 담그기 좋은 날과 나쁜 날, 장 담그는 물, 초 빚는 좋은 날과 나쁜 날을 소개하였다. 장으로는 어육장, 청태장, 고추장, 청육장, 좁장, 청국장을 소개하였다. 초에 대해서는 “초는 잘의 다음이니 집에 없어서 안될 것이다.”고 하였다. 초 만드는 법에서 재미있는 것은 중국초를 으뜸으로 치면서, 중국 북경 초를 숨에 묻혀서 병에 넣고 좋은 술을 부어두면 초가 되고, 여기에서 계속 조금씩 술을 불어 초를 길러 만들게 하였다.

「주사의」는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술에 대한 내용이 많다. 눈길을 끄는 내용이 술 마시고 먹어서는 안 될 음식, 술이 깨고 취하지 않는 법, 술 끊는 비법, 술이 깨

고 병 안 들게 하는 약방문 등이 있다. 그러면서 “술은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미친 약이니 인가에 숭상할 것이 아니지만 또 없지 못할 것이요, 아낙네의 할 일이다만 술과 밥을 의론하기에 있으므로 술방문을 첫머리에 두되 사람에게 유익한 것만 기록하였다.”고 하였다.

빙허각은 술이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나쁜 것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생활의 일부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래서 이 책에는 여성들이 되도록 몸에 좋은 술을 빚자는 의도에서 각종 약주 담그는 법을 풍부하게 수록하였다.

빙허각은 여러 나라의 술이름, 예전에 중국 태후나 황후가 만든 술 이름, 음주에 대한 논의, 여러 가지 약주 이야기, 술 빚기 좋은 날과 나쁜 날, 꽃 향내나는 술을 빚는 법, 시어버린 술을 원상회복하는 법, 술을 익히는 법, 술에 좋은 안주, 술 취하지 않는 법, 술 끊는 법, 술병이 들지 않게 하는 약방문, 유황배(硫黃盃) 및 자하배(紫霞杯) 만드는 법 등을 술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수록하였다.

약주로는 구기자술과 오가피술을 소개하였다. 꽃 향내 나는 술로는 복사꽃 술, 연잎술, 진달래술, 소국주, 파하주, 백화주, 감향주, 송절주(松節酒), 송순주(松荀酒), 한산춘(韓山春), 삼일주(三日酒), 일일주(一日酒), 방문주(方文酒), 녹파주(綠波酒)를 소개하였다. 이 밖에 오종주(五種酒)라 하여 후추·계피·생강·대추·잣 다섯가지를 넣어 만든 술 담그는 법도 있다.

이렇듯 「주사의」에는 마치 민속지처럼 당시 생활 양상은 물론 오늘날 음식조리법이나 음식 섭취에 대한 풍속이나 기원을 이해하는 데에 결정적이다. 또 생활경제서이자 생활 지혜의 보물창고로서의 가치도 갖는다. 그래서 「주사의」는 「봉임측」과 함께 따로 편집되어 당대는 물론 이후에도 많은 여성들의 필독서로 자리 잡았다.

2) 봉임측

「봉임측」은 바느질과 길쌈에 관한 내용이다. 옷 만들기, 옷 재단하기 좋은 날과 나쁜 날, 좋은 솜 마련하기, 길쌈, 수놓기,와 그림그리기 염색, 옷 간수, 다듬이 법, 빨래하는 법, 그릇, 향 만들기, 누에치기, 뽕 기르기, 온돌 놓기 등 여성의 일상 노동과 관련한 내용들이다.

그런데 「봉임측」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문방, 돈의 역사, 외국의 신기한 물건, 열녀전, 머리와 얼굴 꾸미기 등 빙허각 이씨의 과감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색다른 항목도 들어있다. 즉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이어지는 주체 의식의 확대 현상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기기목록(器機目錄)>은 외국의 여러 생소한 물건들을 소개하였다. 서양 그림의 원근감이나 온도계, 축음기, 선풍기, 돋보기, 천리경, 현미경, 음악 소리가 나지만 사람의 힘을 들이지 않고 저절로 연주가 되는 자동희(自動戲:전축) 등 새로운 문화 이기(利器)를 알려주고 있다. 이는 빙허각이 가진 서양 문물에 대한 관심과 개방적 태도를 잘 드러내 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수한 우리나라의 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였다. 중국의 흉배와 우리의 것을 비교하면서 수놓은 솜씨[품질]는 우리의 수가 우수하다고 하고, 고려청자의 자색(紫色)은 천하 제일이라고 하였다. 이는 빙허각 이씨가 순한글로 우리의 환경과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산물로 이용하는 방법을 기록한 것으로 자아의 각성과도 연관되어 있다.

<여러가지 물들이는 법>은 오늘날에도 전통적인 천연 염색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방법이다. 진홍, 자주빛, 쪽빛, 옥색, 초록, 두록, 팔유청, 보라, 지치 보라, 목홍, 반물, 번루, 재빛, 약대빛 등 이름도 낯선 다양한 색깔을 꽃이나 나무 또는 나무뿌리 등을 이용해 얻는 방법을 설명해놓았다.

<전보(錢譜)>는 조선후기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경제나 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던 당시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 돈 이름 7개를 거론하면서 “돈 전(錢)자를 보면 두 개의 창이 금을 다툰다[兩戈爭一金]고 하니, 돈이 있으면 위태로운 것을 편안케 할 수 있고 죽을 사람도 살리는 반면 돈이 없으면 귀한 사람도 천하게 되고 산 사람도 죽게 하니 이런고로 분쟁이 돈이 없으면 이기지 못하고 원한이 돈 아니면 풀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돈이 있으면 가히 귀신을 부리리라 하니 하물며 사람이라. 돈이란 날개 없으나 날고, 발이 없으나 달리는 물건이다.”고 논평하였다.

<열녀록>에는 ‘어찌 여성들 가운데 인재가 없는가’라는 항변을 잇는다. 글쓰기 방식은 ‘원씨, 능송도경, 능히 도덕경을 외우다.’처럼 이름과 주요 행적을 사자성어(四字成語)로 적고 이를 다시 우리말로 풀어놓는 간략한 방식으로 쓰여졌지만 그것이 갖는 의미는 자못 크다.

목차를 보면 역대성후 현비(16명) 숙덕(11명) 禮行(16명) 효녀(7명) 효부(9명) 열절(28명) 충의(20명) 모교(母敎:12명) 지식(18명) 의기(10명) 문장(16명) 재예(18명) 여품(女品:36명) 검협(劍俠:8명) 여선(女仙:38명) 마녀(魔女:3명) 여불(女佛:2명) 여승(3명) 글씨잘쓰는 부인(8명) 봉후여자(封侯女子:7명) 집정여자(1명) 남자소임을 한 여자(5명) 여장군(1명) 등이다.

효부나 효녀, 열부 이외에도 역대 성왕(聖王)에 버금가는 성후(聖后), 어진 임금[賢王]에 대비되는 어진 왕비[賢妃], 남자 못지않게 학식이 풍부한 여성, 심지어 검

협(劍俠)이라 하여 칼솜씨가 뛰어난 여성, 여자 신선[女仙], 여장군다. 정치로 당상(堂上)에 오른 여성, 남자의 일을 맡아 잘 처리한 여성들의 이름들이 줄줄이 나열하였다.

여기서 다루는 여자들은 암하처자·논개·사임당·난설현·옥봉·황진이를 제외하고 모두 중국인이다. 그런데 여성인물을 선별하는데 있어 특이한 점은 효부나 열절 이외에도 충의·지식·의기·문장·재예·여품·글씨잘쓰는 부인·남자소임을 한 여자·여장군 등 학문과 재예에 뛰어났던 인물을 비중있게 소개했다는 점이다.

참고로 조선시대 여성의 대표적인 윤리 교육서였던 『삼강행실도』(1432년)의 열녀편에는 중국인 열부 95명, 한국인 열부 15명이 수록되어 있다.³⁹⁾ 『삼강행실도』는 주제별로 인물을 엮지않고 110명의 여성들을 죽 나열해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하나 소개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정절을 지키거나 수절한 여성의 사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의 열녀조에는 167명의 우리나라의 열녀가 수록되었는데 남편이 죽은 후 죽음으로써 수절한 사례가 가장 많다.⁴⁰⁾ 임진왜란 이후인 1617년(광해군 9) 편찬된 『동국신속삼강행실』에도 436명의 우리나라 열녀가 실려있는데 역시 임진왜란때 수절하다 목숨을 잃은 절부의 사례가 가장 많다.⁴¹⁾

한편 여성의 신교육이 이루어졌던 1921년에 나온 『부인언행록』(權純九編, 大昌書院)을 보면 남편섬기기(9명) 시부모섬기기(9명) 시동생과 시누이와 화목함(1명) 동서사이에 화목함(3명) 부모섬기기(9명) 형수섬기기(1명) 투기안함(2명) 가난을 편히 여김(4명) 자식가르침(8명) 자식훈계함(7명) 전처아들을 사랑함(5명) 아래사람을 잘 대해줌(5명) 몸을 공경히함(敬身:3명) 의리를 중히여김(7명) 수절(20명) 원수갚음(4명) 누에와 길쌈(3명) 학문(5명) 등 수절을 비롯하여 전통적인 부덕을 지킨 여자들의 사례가 집약되어 있다.

따라서 『삼강행실도』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신속삼강행실』 『부인언행록』 등의 열녀록과 『규합총서』의 열녀록을 비교해보면 빙허각의 열녀록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측면을 담고있다. 다시말해 빙허각은 열녀록을 통해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에 걸맞는 전통적인 여성만이 아니라 다양한 삶을 꾸려나갔던 여성에게도 눈을 돌리고 이들의 삶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학문을 일삼았던 자신의 입장을 투영하고 있는 동시에 여성관에 있어서 하나의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곧지 찍는 법의 유래로 “중국 송나라 수양공주가 함장전 난간에 누었다가 매화가 날라 이마 위에 떨어졌는데, 마침내 이마에 단사[丹砂]를 찍는 단장(丹妝)을

39) 『삼강행실도』 열녀편, 세종대왕기념사업회편, 1982.

40) 박주, 『조선시대의 정표정책』, 일조각, 1990, 12~14쪽.

41) 박주, 위의 책, 143~144쪽.

만들고 이름 지어 매화장이라 하니 이로부터 곤지 짚는 법이 생겼다.”고 적고 있다.

3) 산가락

「산가락」은 시골살림의 즐거움이라는 의미로, 밭갈기, 수확법, 꽃 기르기, 가축 기르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밭 갈기 좋은날, 과일 따는 법, 꽃 기르기, 꽃 품평, 세시기, 시골에서 날씨 점치기, 말·닭·개·고양이 기르기와 양봉 등이 들어있다. 여기에 실린 농업, 목축, 산업 등은 경제 활동과 관련이 깊은 내용으로서 대부분 남자들이 정리한 지식 분야였다. 여기에는 남편 서유본 집안의 학풍이 농학이나 박물학에 특장을 보인 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장에는 인삼, 고구마, 담배, 무우, 순무, 갓, 배추, 상치, 아욱, 생강, 마늘, 파, 부추, 쪽 등의 야채, 오이, 수박, 참외, 동과, 박, 열박, 조롱박, 호박, 가지, 고추, 곰달래, 승점초, 맨드라미, 양귀비씨, 오미자, 구기자, 적로채, 밤, 대추, 배, 홍시, 은행, 살구, 능금, 복숭아, 오얏, 사과, 앵두, 포도 등 다양한 채소와 과일 심는 법과 수확법을 실어놓았다.

또 모란, 함박꽃, 매화, 서향화, 자미화, 난초, 국화, 연꽃, 해당화, 동배꽃, 치자, 장미, 사계화, 월계, 목련, 왜철쭉, 진달래, 해바라기, 대, 파초, 석창포 등 다양한 꽃을 심는 방법과 재배법, 그리고 꽃에 대한 품평도 자세히 해놓았다.

세시기도 덧붙여 놓아 농사와 명절, 절기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기도 하였다. 설, 보름날, 한식, 삼월삼짇날, 청명, 사월파일, 오월단오, 유두(6.15), 삼복날, 칠월칠석, 칠월보름(백중), 팔월한가위, 구월구일, 시월초하루, 동지, 십이월팔일(납일), 중화절(2.1) 등 명일(名日)의 유래와 풍습을 밝혀놓았다. 이 가운데에는 지금 현재까지 명절로 이어져 오는 날도 있고, 이름만 남아있거나 우리에게 생소한 명일도 눈에 띈다. 이 가운데 백중에 대해서는 “요즘음 시속에 호니 백중이라 하여 불공하기는, 불경에 목련비구가 기도하여 어미 죄를 벗긴 고로 중국도 또 이 풍속이 있다.”고 적었다.

빙허각은 집안의 몰락으로 시골로 내려가자 차밭을 운영하면서 생활하였다. 그래서 농사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날씨가 매우 중요했고 『규합총서』에 이러한 부분이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시골에서 날씨 점치기>라 하여 바람이름, 눈, 우뢰소리, 해무리, 달무리, 안개 등이 일어나는 징조가 무엇인지를 여러 문헌을 이용해서 또는 경험에서 채득한 지식을 담아냈다.

또 개나 고양이 등 집에서 기르는 짐승에 대한 관심도 많다. 「주사의」에서 개고기 조리법을 설명한 빙허각은 이 장에서는 “비록 짐승이나 능히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집에서 기른 것은 잡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하였다.

4) 청낭결

「청낭결」은 병 다스리기로서, 태교, 육아, 구급방, 약물금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태교와 출산, 구급처치, 여러 가지 물린 데 낫게 하는 법, 벌레 없애는 법, 우리나라 팔도 물산, 각종 경험방 등이 있다.

얼핏 태교나 육아법 등이 『규합총서』에만 있는 항목처럼 보이지만 『산림경제』에도 태루(胎漏)·태동(胎動)·난산(難産)·산후병(産後病)·소아급병(小兒急病) 등 육아와 부인과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 이는 출산 과정에서 산모가 죽거나, 어린아이가 갖은 병치레로 죽는 일이 허다했기에 출산, 육아, 구급방 등은 한 집안에서 대를 잘 잇기 위해 남성들에게 중요한 학문적 탐구 대상이자 상식이었다.

빙허각의 외숙모는 『태교신기』를 지은 이사주당이다. 그래서 『규합총서』에는 요긴한 태교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임신 중에 금기해야 할 음식으로 말고기, 개고기, 토끼고기, 오리고기, 찹쌀 넣고 조리한 닭고기, 메기, 산양 고기를 꼽았다. 또 금기해야 할 약물도 31가지나 기록하였다. 아기 기르는 중요한 법으로 등과 배와 발을 따뜻하게, 머리와 가슴을 차게, 껍이한 것을 보이지 말고, 비위를 따뜻하게 하고, 울음 갖 그치면 젖먹이지 말고, 자주 목욕시키지 말도록 조언하고 있다. 또 순산을 위해 산후 목이 탈 때, 복통과 온갖 증상, 난산에 대처하는 방법이 들어있고, 삼 가르는 방법도 자세히 소개하였다.

빙허각의 견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당시 남자아이를 선호하던 사회 분위기에 통렬한 비판을 던지기도 한다. 『동의보감』 이후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이른바 ‘날달 못되어서 여자아이를 사내아들로 만드는 법’이 바로 그것이다. 즉 임신 중에 여자아이를 남자아들로 바꾸는 방법이다. 활시위를 백일동안 허리에 차기, 원추리 꽃을 왼편 머리에 꽂기, 수탉 꼬리를 침상 아래 몰래 두기, 붉은 수탉 고아먹기, 밤중에 남편의 옷과 갓을 쓰고 우물가 돌기 등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였다.

그런 다음에 빙허각은 “어떻게 여자아이를 남자 아기로 바꿀 수 있겠는가? 대개 아기 될 때 좌우가 각각 나뉜다 하니 여태가 바뀌어 남태될 리 있으리오마는 의학책에 자상하게 기록하였고 시속(時俗)에 또한 경험한 바 있다고 하여 쓰긴 쓰지만…이로 인해 죄인이 될까 두렵다.”라고 세속을 비난하였다.

경험방에는 각종 처방이 들어있다. 그 가운데에 아들을 낳으려면 “복숭아, 살구꽃을 따 그늘에 말려 물에 섞어 조금씩 7일 동안 세 번 먹으면 아기 있어 아들 낳는다 하였다.”는 내용을 소개하였다. 또 이갈면서 자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 자

는 자리 밑의 띠꼬를 잘 적에 몰래 입에 조금 넣으면 다시는 이를 갈지 않는다 한다.”고 소개하였다. 아이 황달에는 “엄마 목욕 감은 물로 씻으면 신통하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생활상식에 관한 내용도 있다. 오리알 삶을 때에 굴뿌리를 넣으면 빛이 붉어진다, 칼에 기름을 바르면 녹슬지 않는다, 연근과 줄기를 쥐구멍에 꽂으면 쥐가 없다, 손톱밑 때 낀 데 흰 매화와 조각 달인 물에 씻으면 없어진다, 기름 묻은 손은 소금으로 씻으면 낫는다 등등이다.

얼굴을 트지 않게 하는 방법인 면지법도 주목된다. “거울에는 얼굴이 거칠고 터지는데 달걀 세 개를 술에 담가 김 새지 않게 두껍게 봉하여 네 이레 두었다가 얼굴에 바르면 트지 않을뿐더러 윤지고 옥같이진다. 얼굴과 손이 터 피나거든 돼지발 기름에 괴화(槐花)를 석어 붙이면 낫는다.”고 하였다. 거칠어진 얼굴을 가꾸는 방법이다.

멀리 길차고 검고 윤지게 하는 법도 있다. 기름 두 되에 무르익은 오디 한 되를 병에 함께 넣어 별 안 쪼는 처마에 달아두었다가 석달만에 바르면 검게 칠한 듯하고, 푸른 깻잎과 호도 푸른 껍질을 한데 달여 머리 감으면 길고 검어진다고 소개하였다.

또 주목되는 내용은 전국에 걸쳐 생산되는 다양한 물산들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빙허각 이씨가 밝힌 팔도의 물산은 바로 조선 산업의 현주소였다. 빙허각 이씨의 관심은 집안일이나 농업 경영에서 끝나지 않고 당시 전국에서 유통되는 물건이나 물산에까지 미쳐 있었다. 일상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사회 일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바탕 위에 가능한 일이었다.

먼저 경기의 물산에 대해서는 광주의 사기 그릇, 안산의 개와 감, 교동의 화문석, 양주의 생률(生栗) 및 완산탄, 은구어, 남양(南陽)의 굴, 연평도의 조기, 수원의 약과, 평택의 우황, 용인의 오이김치, 안성의 낫그릇과 우피채, 강화의 불염민어와 세린석어를 꼽았다. 충청도 진위의 닭구이, 공주의 쇠기름으로 만든 초, 한산의 모시와 쉬박지, 보은의 대추, 진안의 모시와 담배, 강원도 정선의 꿩꼬치 산적, 청풍의 자초(紫草), 영춘의 곰취, 철원의 송이, 강릉의 오디, 춘천의 자초나물, 황해도 황주의 숙지황, 연안의 인절미 연근정과, 평안도 평양의 감홍로(甘紅露: 붉은 소주), 강계 인삼, 재령의 철물, 경상도 의성의 앵두와 화문석, 통영 자개 박은 그릇과 나막신, 김제 능금, 부산의 연죽(煙竹), 전라도 전주의 죽력고(竹瀝膏)와 화각기(畫刻器: 그림을 새겨 넣은 그릇), 남원의 종이, 남평의 부채, 능주의 작설차와 허리띠, 나주의 수박 등이 좋은 상품이었다. 여기서 소개한 팔도 물산 중에는 오늘날까지 명성을 유지하는 물품이 많아 오늘날 지역 특산물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5) 술수략

「술수략」은 길흉화복을 다스리는 방책이라는 의미로, 집의 방향에 의해 길하고 흉한 것을 가리는 법, 집을 안전하게 하는 법, 돌림병을 물리치는 법, 입택(入宅)이나 이사·부엌·우물·뒷간·별목 등을 고치거나 만들거나 하는 날을 택하는 법, 부적, 길흉을 점치는 법 등을 담았다.

빙허각은 「술수략」에 대해 서문에서 “집을 진압하고 있는 곳을 정히 하는 법과 음양구기하는 방법을 달아 부적과 귀신 쫓는 일체의 속방에 미쳤으니, 이로써 뜻밖의 환난을 막고 무당, 박수 따위에게 빠짐을 멀리할 것이다.”고 하였다.

빙허각은 조선시대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금기 사항이나 민간에서 처방해온 방법을 여기서 수집, 정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무지로부터 오는 공연한 기우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였다. 천재지변이나 각종 돌림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시절에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난은 천명을 거슬려서, 또는 보이지 않은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믿기 쉽기에 무당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빙허각은 생활 속에서 환난을 미리 예방한다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겼다. 여기에 들어있는 돌림병을 물리치는 법도 그 중 하나이다. 요즘도 옛 어른들은 못 하나 박을 때에도 함부로 박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만큼 생활 속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 큰 재난으로부터 가문을, 집을, 식구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확신했으며 이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있다.

5. 맺음말 : ‘살림문화’에 대한 전망

현재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경제’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곳은 고대 그리스였다고 한다. 영어의 economy의 어원이 되는 그리스어 oekonomia는 ‘가정’을 뜻하는 oikos와 질서나 법률을 뜻하는 nomos가 붙어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한다.⁴²⁾ 곧 경제의 기원은 가정 관리였다는 뜻이다.

앞서 머리말에서 소개했듯이 노동 세계와 가정생활의 극단적인 분리를 전제로 하는 현대의 가정은 19세기의 창조물이다. 가내수공업의 쇠락과 급여 노동의 발달은 가족을 점차 비인격적인 시장 체제에 지배당하는 공적 세계로부터 떨어진 사적인

42) 홍기빈, 앞의 책, 2012, 59~60쪽.

휴식처로 인식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단순히 노동 공간으로부터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외부 영향에서 가정을 분리시키고 말았다. 그리고 그 분리된 가정 안에 여성이 남게 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노동세계와 가정생활의 결합이 여성에서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었다. 여성사를 연구한 연구자들이나 페미니스트들은 가내직공 체계 안에서 부인은 남편에게 무보수로 고용되어 일하는 일꾼 역할을 해야 했다. 가내직공의 아내는 직공이나 방적공으로 제공하는 노동에 그치지 않고 자녀도 낳고 길러야 했다. 여성들은 재생산과 가사노동에다 남편의 일까지 도와야 했다.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노동세계와 가정생활의 분리는 여성을 과도한 노동으로 벗어나게 해 준 셈이다. 그 대신에 가정이라는 고립된 울타리에 있어야 했다.

여성주의 살림/살이는 불가치적으로 가정성을 예찬하지 않는다. 과거에 여성들이 집안에만 갇혀 있었다는 지난 시대의 한결같은 이미지에 도전하려는 문제의식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점차 살림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계급사회의 재생산을 위해 교육이 중시되면서 가정은 계급의 재생산을 위한 장(場)으로 변질되고 있다. 살림문화는 하찮은 것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과 경험이 통합적으로 투여되는 장이다. 화폐경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나 작은 단위의 자율적 경제 공동체이다.

과도한 화폐경제의 구조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살림이 되살아나야 한다. 전통사회에서 살림살이에는 가정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력을 투여해야 했으며, 생존을 위해 요리, 의복, 의사, 간호사, 건축가, 천문가, 기상예측관 등 만능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했다.

오늘날 이 부분은 핵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또 여성이 홀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여성의 역할만을 부각시키는 살림/살이는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옛 방식만을 고집하는 완고한 복고주의와 상당히 닮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대안은 남성도 살림에 함께 참여하고, 지역공동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남성과 지역이 함께 살림에 참여할 때에 비로소 살림공동체로서의 지역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 그래야만 빙허각 이씨와 『규합총서』가 살림공동체로서 지역공동체를 형성, 유지해줄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IV. 여성 노래놀이의 상징성과 놀이전승

김지옥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경기학연구팀 팀장)

1. 머리말
2. 노래놀이의 유형과 사례
3. 여성 노래놀이의 연행과 상징성
4. 맺음말

1. 머리말

놀이는 협의적인 의미에서 질서정연한 어떤 고유의 고정된 법칙에 따라 고유의 고정된 시간과 공간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⁴³⁾ 단순한 게임이나 유희를 의미하지만 민속학에서는 제의를 포함하여 광의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⁴⁴⁾ 따라서 민속놀이란 대단히 복합적인 개념이다.

우선 이 용어에는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전승되어 온 문화의 개념인 ‘민속’과 유희, 오락, 경기, 연회, 예능 등을 포괄하는 놀이에 대한 역사, 사회적 개념이 포괄되어 있다.⁴⁵⁾

민속이란 한 민족의 생활문화이며 한 민족의 생활양식이요 기층문화이다.⁴⁶⁾ 그러므로 한 민족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민족에 전승하고 있는 민속을 파악함으로써 그 문화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민속놀이’는 가장 폭넓은 민속예술이며, 노래와 춤과 연극적인 요소가 짙게 담겨있는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속놀이를 단순한 오락으로만 취급하는 데서 벗어나 민속놀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놀이가 지닌 사회적,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콘텐츠로서의 활용과 전승력 강화에 기능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전통시대의 여성에게 있어서 놀이는

놀이 연행⁴⁷⁾은 구술전승과 마찬가지로 구성되는 것이다. 구성되어 온 것이 작품인 놀이이고 또 이것을 구성해 가는 것이 연행이라고 할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민속적 연행에 반복이란 없다. 연행자와 작품과 구경꾼이 이루는 삼위일체의 연행현장은 그때마다 창조된다. 그런 의미에서 연행이란 구성하는 일이고 엮어가는 일이다.⁴⁸⁾

특히, 향토민속놀이는 오랜 과거부터 그 놀이가 전승되는 구체적인 전승현장⁴⁹⁾

43) Johan Huizinga 저·김윤주 역, 『Homo Ludens』, 일조각, 1981, 3쪽.

44) 예를 들면 바둑, 장기 또는 아이들의 숨바꼭질이 모두 여가를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해지므로 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낫놀이, 탈놀이, 농악놀이 등과 같은 놀이는 단순히 여가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것들은 공동체의 행사나 의례 때에 그 일부로서 행해진다.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놀이로 호칭되고 있으므로 민속학에서는 놀이의 범주에 넣고 있다.

45) 김택규, 『한국농경세시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5, 179쪽.

46) 김택규, 「한국기층문화론 시고」, 『인류학연구』 2,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연구회, 1982, 3-4쪽.

47) 연행(performance)은 문화적인 표현행위이다. 공동으로 조작하는 표현수단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영위하는 행위이다. 민속문화에서는 적어도 이러한 차원에서 연행이 문제되어야 한다(김열규, 『한국신화와 무속연구』, 일조각, 1997, 136쪽).

48) 김열규, 위의 책, 1997, 136쪽.

49) 전승현장은 민속자료가 전승되는 거시적 현장으로서, 이야기, 동제, 민속극, 그리고 민속놀이 등이 전승되는 마을단위 이상의 지역공동체로 개방된 현장을 뜻한다. ‘연행현장’은 연행이 이루어지는 미시적 현장으로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이야기판’, 동제가 올려지는 ‘동제당’, 민속극이 놀이되는 ‘놀이마당’, 등으로 제한된 현장을 뜻한다. 연행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전승은 집단적인 것이다(임재해, 「민속연구의 현장론적 방법」, 『민속문화론』, 문학과 지성사, 1986, 203쪽).

에서 구경꾼과 놀이꾼이 일치하는 연행집단에 의해 놀아지는 놀이이다. 여기에 노래와 춤 등의 다양한 연행양식이 함께 어우러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전승현장과 전승집단, 노래와 춤, 그리고 전설과 놀이기구 등은 모두 놀이를 이루는데 필요한 구성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각기 어울려 하나의 놀이를 이루는 것이다. 그 중 ‘노래가 있어야만 놀이가 진행되는 놀이를 노래놀이’라고 한다. 이 노래놀이의 전승양상을 살펴보면 전통시대에 여성들의 놀이가 어떻게 오늘날 까지 전승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며, 모든 놀이는 그 놀이의 기능과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살필 수 있겠다. 이러한 노래놀이 범주에 속하는 놀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2. 노래놀이의 유형과 사례

1) 노래놀이의 유형

(1) 여성들의 노래놀이

어른들이 하는 노래놀이로는 강강술래, 뚝다리밟기, 월월이청청, 가마둥둥, 고사리꺾자, 덕석몰이, 청어쥘자, 대문놀이, 꼬리따기, 지애밟기, 외따기 등이 있다. 이들 놀이는 주로 정월 보름, 추석, 이월 보름날 달밤에 노는 여성들의 집단향토놀이⁵⁰⁾이다.

또한 이들 놀이는 각각의 놀이로 존재하면서도 강강술래나 뚝다리밟기놀이와 함께 연행되는 여흥놀이들인데, 가마둥둥, 고사리꺾자, 덕석몰이, 외따기, 청어쥘자 등은 강강술래와 함께 노는 놀이이며, 실감기, 둥둥데미, 담넘기 등은 뚝다리밟기와 함께 연행되는 놀이다.⁵¹⁾ 이들 놀이는 명칭만 다를 뿐 같은 놀이인 것이 많다. 그러므로 주 놀이와 함께 놀이하는 여흥놀이 전체를 종합하여 각기 강강술래유형놀이와 뚝다리밟기유형놀이들로 한데 묶을 수 있다.

이러한 원의 여성, 대지, 지모신 또는 여성의 자궁을 상징하는 원무와 남성, 씨앗, 일년생산신, 여름 또는 남성의 상징인 줄뚝다리가 열십자 형태의 대문놀이를 통해서로 결합됨을 형상화하였다.

(2) 여자아이들의 노래놀이

50) 구체적인 전승현장에서 놀이꾼과 구경꾼이 동일한 전승집단에 의해 연행되는 민속놀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51) 기존의 인식과 보고에서는 이들 놀이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보았으나 전남지방에서는 강강술래 원무와 함께 놀이되는 부수적인 놀이들을 모두 포함한 것을 강강술래라고 한다. 뚝다리밟기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이러한 놀이들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본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지춘상은, 『한국의 민속예술』을 참고로 발간한 『중요무형문화재 해설』에서 놀이종류를 모두 한 놀이로 소개하였으며 현재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는 놀이에서도 이들 놀이를 모두 함께 연행하고 있다(지춘상, 『중요무형문화재 해설』, 문화재관리국, 1978).

노래놀이에 속하는 아이놀이로는 손짱치기, 줄넘기, 고무줄놀이⁵²⁾, 다리세기⁵³⁾ 우리집에 왜 왔니, 두껍아 두껍아, 한고개 넘어서, 대문놀이, 꼬리따기 등이 있다.

손짱치기는 두 사람이 마주 대하여 ‘푸른하늘 은하수’ 등의 노래에 맞추어 손뼉을 치면서 하는 놀이다. 고무줄놀이, 줄넘기놀이는 각각 고무줄이나 줄넘기를 가지고 노래에 맞추어 줄을 넘는 놀이다. 다리세기 놀이는 ‘자레야 자레야/쿵 자레야’라는 종류의 수요(數謠)를 부르면서 엇갈려 퍼 놓은 다리를 세어가며 노래가 끝나는 때에 잡힌 다리를 접게하는 놀이로 지역에 따라 다양한 노래가 있다.

흙장난을 하면서 ‘두껍아 두껍아’ 노래를 부르면서 노는 놀이도 있다. ‘우리집에 왜 왔니’ 놀이는 양편으로 편을 갈라 노래를 부르며 일렬 횡대로 서서 전진 후퇴를 하다가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이긴 편에서 상대방의 사람을 데리고 가는 놀이다.

‘한고개 넘어서’ 놀이는 술래인 여우를 상대로 대화체 노래를 주고 받다가 여우가 다른 놀이꾼을 잡아 술래로 만드는 놀이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잠잔다/여우야 여우야 뭐하니/밥 먹는다/무슨 반찬’으로 이어지는 문답식 노래가 있다. 대문놀이는 두 사람이 마주 서서 손을 잡고 문을 만들어 그 밑으로 놀이꾼들을 들여보내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끝날 때 통과하게 되는 사람을 잡는 놀이다.

꼬리따기⁵⁴⁾는 지역에 따라서 수박따기, 동애따기, 또는 호박따기라고도 한다. 놀이꾼을 두 패로 나누어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한 줄로 이어선 다음 서로 상대방의 끝 사람을 따내거나 혹은 한사람의 술래가 줄 이은 놀이꾼들 중 끝 사람을 떼어내는 놀이다. 이 때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 주고받는 문답식 노래가 있는데, 할멈계 신가/어떻게 왔습니까/수박따러 왔지/이제야 겨우 망울이 맺었소/내일모래 오십쇼/라고 하면서 씨를 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얼마만큼이나 큰가 하는 과정을 일일이 말하면서 문답과 동작을 반복한다.⁵⁵⁾

이러한 놀이는 모두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아이들의 노래놀이이다. 전남 도서 해안지역에서는 남생아놀아라, 고사리꺾기, 청어쥬기, 기와밟기 등의 놀이가 지역에 따라 처녀들이나 여아들이 독립된 하나의 놀이로 놀기도 하고 강강술래와 뚝다리밟기의 부수적인 여흥놀이로 놀기도 하였다.

강원도 명주군에서는 남자 초동(草童)들이 여성놀이의 하나인 고사리꺾기를 하고⁵⁶⁾, 익산지역에서도 초동들이 주로 산에 올라가 벌초할 때 묘판 주변에서 지게목 발춤놀이를 하였다.⁵⁷⁾

또한 충남 서산지방에서는 달밤에 소년들이 모여 뚝다리밟기와 유사한 문답식노래가 있는 군사놀이를 하였다. 경남 동래에는 재(기와)밟기(또는 재볼기, 재놀이)라 하여 소녀들이 열을 지어 엮드리고 정해진 아이가 등을 밟고 지나가는 놀이가 있다. “재볼자 재볼자/이재에가 누재에로/나라임금 옥재로다”라는 노래를 부른다.⁵⁸⁾

52) 북한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실, 『조선의 민속놀이』, 푸른숲, 1964, 279-283쪽.

53) 북한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실, 위의 책, 1964, 295-297쪽.

54) 김광언, 『한국의 민속놀이』, 인하대학교출판부, 1982, 82쪽.

55)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실, 앞의 책, 1988, 249-253쪽.

56) 문화재관리국, 『노래춤』, 1988, 36-46쪽.

57) 문화재관리국, 위의 책, 1988, 47-63쪽.

전북, 전남지역에서도 남녀아이들이 ‘기와밟기’를 널리 하였으나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다.⁵⁹⁾ 이러한 놀이는 어른놀이의 한 유형이거나 변형으로 추측되며 전승집단과의 관련성 속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노래놀이의 사례

(1) 여성들의 노래놀이

① 뚝다리밟기

가. 놀이의 개관

뚝다리 밟기는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서 해마다 정월 대보름날 밤에 행하는 여성 집단 놀이다. ‘지애밟기’, ‘기와밟기’, ‘논따리밟기’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뚝다리 밟기라는 대표 명칭 속에는 다양한 놀이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꼬개싸움은 아주 격렬한 편싸움에 속한다. 뚝다리를 뚝쇠처럼 굳은 다리 또는 동교(銅橋) 등으로 풀이하기도 하는데, 안동에서는 정월 한 달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달이란 뜻으로 노달기라 하였으며, 이 말에서 노는 달의 밟기 놀이라 풀이하기도 한다.

나. 놀이의 유래

뚝다리밟기의 유래는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 공민왕 몽진 시 일행이 예천, 풍산을 거쳐 소야천(所夜川)에 이르자 마을의 여성들이 나와 허리를 굽혀 노국공주가 등을 밟고 건너가게 하였다. 그 뒤로 뚝다리밟기를 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다. 놀이방법

뚝다리 밟기는 성밖 웅굴뚝다리와 성안 줄뚝다리로 구분된다. 안동 성밖 뚝다리는 동부와 서부 양쪽에서 행해진 놀이였다. 정월 보름 저녁에 동부의 여성들은 현재 옥정동에 소재했던 ‘초당집’ 마당에 모여 들었고, 서부는 현재 범상동에 소재하는 ‘잣집’ 마당에 모였다. 사람들이 모두 모이면 가문이 좋고 총명한 7~8세의 여아를 대상으로 공주를 선발한다. 공주가 복장을 갖추면 놀이를 시작한다. 처음에 ‘둥둥데미’를 한다. 일행이 각기 손을 잡고 원형을 이루어 앉으면 「둥둥데미 노래」를 합창하면서 처음에 선 여성부터 서로 잡고 있는 손을 타넘으며 원형으로 돈다. 둥둥데미가 끝나면 만들어진 원은 오랜시간이 걸리더라도 빠리 모양으로 겹겹이 감는다. 이어서 「실감기 노래」에 맞추어 빠리를 푸는데, 가장 가운데에 있는 선두가

58) 거창에서는 소년들이 하는데 노래는 부르지 않으며 모두 다 밟는다(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경남편, 1972, 811쪽).

59)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전남편, 1969, 693쪽;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전북편, 1971, 502쪽.

그대로 손을 잡은 채 길을 찾아서 풀어 나온다. 둥둥데미는 공민왕이 포로가 된 형태이고, 실감기는 공민왕이 포로에서 풀려 나오는 형태라고 한다. 「실감기 노래」는 빠리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 반복해서 합창하는데 「둥둥데미 노래」보다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뛰어서 돌게 된다.

빠리를 완전히 풀어 돌아 나오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큰 원이 된다. 이어서 일행은 모두가 원 안쪽을 향하여 허리를 구부리고 치마를 어깨 위까지 뒤집어써서 저고리가 더러워지지 않게 한다. 구부리는 사람들은 주로 남의집살이를 하던 사람들이다. 나머지 처녀·새댁들·중년층·노인층 등은 원형을 둘러싸고 뚝다리 노래를 부른다.

한쪽에서 “어느웁에 뚝다리로”하고 문창하면 다른 쪽에서 “청계산에 뚝다릴세”하며 답창을 하게 된다. 물론 허리를 구부린 여성들은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 구부린 여성의 등 위에서 공주가 떨어지지 않게 좌우에서 부축하는 여자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 나간다. 이렇게 둥글게 구성하여 즐기는 뚝다리가 웁굴(우물)뚝다리이다. 공주가 웁굴뚝다리를 한 바퀴 도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공주가 웁굴뚝다리를 한두 바퀴 돌고 나면, 뚝다리의 선두는 원형에서 벗어나 대로를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한다. 이른바 줄뚝다리가 되는 것이다. 초당집에서 출발한 동부는 대로를 경유하여 ‘서문둑 다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잣집에서 출발한 서부 역시 줄뚝다리를 지어서 대로를 경유하여 서문둑 다리를 향하여 나아간다.

이 행렬의 선두에 노래 잘하는 선창자 두 사람이 서고, 구부리는 여성들은 역시 어깨가 맞닿게 옆으로 서서 허리를 구부린다. 후창자들은 처녀·새댁들·중년층·노인층 등의 순서로 공주 뒤편에서 시작하여 대열 양쪽에 일렬로 늘어서기도 하고, 대열의 뒤에 서서 따라가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이때도 역시 공주와 부축하는 여자, 그리고 구부린 여성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동서부의 뚝다리는 마침내 서문둑 다리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때에는 서로 비켜가기도 하고 사이좋게 합세하여 공주를 하나만 세워 뚝다리를 계속하기도 하였다. 이와 달리 동서부의 놀이패가 마주치면 서로 길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꼬깨싸움을 한 적도 있었다. 특히 성안의 놀이패와 마주치면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뚝다리밟기를 해야 그 해 풍년이 든다고 하여 집안 어른들이 권장하여 처녀들과 새댁들이 모두 다 참가했다. 뚝다리밟기는 1910년 이후 중단되었는데, 그 후에는 가정에서 소규모로 하는 애기뚝다리가 성행하여 1929년경까지 계속되었다.

성안 줄뚝다리는 두패로 나뉘어 연행을 펼쳤다. 그 하나가 삼웃들패의 줄뚝다리다. ‘삼웃들’은 현재의 안동 시내의 조흥은행 부근이며 읍성(邑城) 내에 속한다. 정월 보름날 저녁을 먹은 후에 노래를 잘하는 노인층들이 먼저 나와 골목골목에서 뚝다리 노래를 부르면 여성들이 삼웃들로 모여든다. 삼웃들은 성내에서 가장 넓은 장소로 이곳에서 뚝다리를 구성하여 길이 넓고 걷기 편한 곳에서 뚝다리밟기를 하였다.

놀이는 이른바 줄뚝다리뿐이었다. 올라가서 밟는 소녀는 따로 공주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7~8세 정도로 삼회장 까치저고리에 털토시를 끼고 휘양을 썼다. 새댁들이

허리를 구부려서 뭇다리를 구성했는데, 앞사람의 허리에 매인 명주 수건(은 폭 명주에 노란색 물을 들인 것)을 잡고 머리를 앞사람의 옆구리에 대었다. 이 노란색 수건은 구부리는 사람들이 다 매고 있는 것이다. 대열 좌우에는 머리를 틀어 올린 50세 내지 60세 정도의 여성들이 3명 또는 5명씩 대열과 직각으로 늘어서서 뭇다리 노래를 불렀다.

소녀가 구부린 여성의 등 위를 밟아 지나가면 뒷사람이 앞으로 나아가서 뭇다리가 계속 이어지게 하였으며, 대열 좌우의 창자(唱者)들이 노래를 주고받았다. 대개 우측에서 선창하면 좌측에서 후창을 하나 그 반대일 수도 있었다. 다른 뭇다리패와 마주치면 싸움이 벌어지는데, 싸우지 않고 피해 가는 때도 있었다. 대체로 밤 11시경까지 즐기다가 해산했으며, 1910년경 중단된 듯하다.

다른 하나는 관아앞 패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보름 날 일몰 후 성내의 여성들이 관아 앞 광장으로 뭇다리밟기를 하러 모여든다. 앞놀이는 없고 일렬로 행렬을 구성하면 뒷사람은 앞사람의 허리를 안고 고개를 좌로 돌린다. 선두에 ‘창립’한 50대 이상의 노인들이 서고 그 뒤에 처녀, 새댁들이 허리를 구부려서 뭇다리를 지었다. 창립은 아전풍속인데 나이가 50여 세쯤 되고 친손·외손을 볼 나이가 되면 비녀를 꽂은 머리를 풀어서 앞으로 돌려 여자상투를 만드는 것이다.

놀이는, 소녀가 허리를 구부린 사람들의 등 위로 두 여자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가 고 등을 밟힌 사람은 다시 앞으로 가서 구부려 점차 앞으로 진행해 간다. 창립한 50대 노인들이 대열의 선두에서 선창을 하면 40대 정도의 여성들은 대열 좌우에서 따라가면서 후창을 한다.

행진로의 길이는 기껏해야 100m 정도였다. 동쪽으로는 피문루(북을 쳐서 관청의 집무시간을 알리는 루) 앞까지 갔었고, 서쪽으로는 ‘기다리목’이나 삼웃들까지 행진했다. 원래 남자들은 접근은 물론 구경조차 못했는데, 나중에는 문란해져서 대열 뒤에 따라가는 여성들이 남자들을 쫓기도 했다. 행진해 나가다가 다른 패와 마주치면 서로 길을 뺏앗기지 않으려고 싸움도 하였다.

임하면 금소리 뭇다리밟기의 경우 꼬깨싸움이 더해진다. 금소의 뭇다리밟기는 각기 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놀이들로 이루어진다. 각 놀이들은 개별적으로 다른 시·공간에서 행해질 수 있다. 이들 놀이 가운데 보름 명절의 특정한 밤이라는 시간적 한정성과 ‘텃논’과 ‘구무(구멍)다리’라는 공간적 한정성을 지닌 채 행해지는 놀이는 ‘꼬깨싸움’과 연이어 벌어지는 ‘구무다리뺏기’이다. 대단히 격렬하게 행해지는 이들 놀이만 동채싸움이 행해진 다음날 밤에 행해지고 나머지 지애밟기·콩심기·제달배기 등의 놀이는 명절기간 중의 어느 때나 마당이 넓은 집에서 행해진다.

금소의 꼬깨싸움은, 대보름날 밤에 각 마을의 여성들이 따로 모여 둘씩 짝을 이뤄 어깨를 걸고 동네를 크게 한 바퀴 돌면서 “어-허-르-루-야, 뭇다-래-야-”를 합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때 동선은 붓도랑 옆으로 난 길에서 마을 앞의 도로로 이어지는 타원형의 길이다. 이 길을 따라 동부 여성들은 서부쪽으로, 서부 여성들은 동부쪽으로 돈다. 이 과정에서 양편이 서로 만나게 되면 길을 비키지 않으려고 옥

신각신하며, 더러는 서로 길을 뺏으려고 밀어붙여서 격렬한 몸싸움이 전개되기도 했다.

꼬깨싸움을 하는 당일이 되면 나이든 여성들은 놀이꾼들을 모으러 다닌다. 밤이 이슬해지면 노소를 가리지 않고 동네의 거의 모든 여성들이 텃논으로 모여든다. 이때 특별한 이유 없이 놀이에 참가하지 않으면 여성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다.

꼬깨싸움의 놀이꾼 편성은 동채싸움과 흡사하다. 덩치가 크고 역센 여자들이 머리꾼 역할을 한다. 그 가운데 특히 강한 여성이 재빠르고 총명한 14~15세의 여자아이를 어깨 위에 태우는 꼬깨꾼이 된다. 꼬깨의 좌우와 후방에는 꼬깨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인원이 겹겹이 배치되어 “바람들어갈 틈도 없는” 사람의 장막을 형성한다.

꼬깨싸움의 방식도 금소동채싸움과 흡사하다. 먼저 앞머리의 여성들이 강력하게 대처하여 밀백이를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한다.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발견하면 물밀듯이 밀어붙이는데 이 과정에서 앞머리가 뚫리면 승부가 이내 결정된다. 승부는 꼬깨 위에 탄 아이들이 서로 싸워서 먼저 떨어뜨리는 쪽이 이긴다. 이때 다른 사람들이 꼬깨 위에 탄 아이들에게 손을 대서는 절대 안 된다. 이를 감시하고 또한 변장하고 들어온 남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몇 명의 감시자를 특별히 배치한다.

꼬깨싸움에서 일차로 승부가 결정되면 양편은 급히 전열을 가다듬어 ‘구무다리’로 돌진한다. 구무다리는 붓도랑에 걸쳐진 작은 돌다리이다. 구무다리 뺏기는 꼬깨싸움에서의 승리를 확인 받는 과정이다. 비록 꼬깨싸움에서 이겼어도 이 싸움에서 패하면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 없다. 구무다리 뺏기의 승부는 구무다리를 먼저 많이 건너간 쪽의 승리로 결정된다. 따라서 양편의 여성들은 좁은 구무다리를 먼저 넘어가기 위해 격렬한 몸싸움을 전개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붓도랑에 빠지고 다치는 경우도 많았다. 더러는 서까래만한 나무를 가져와 도랑에 걸쳐놓고 넘어가려고도 했는데 상대방에서 나무를 덜렁 들어버려 도랑에 빠지기도 하였다. 승부가 결정되면 싸움에서 이긴 편은 환호하며 보름명절 동안 줄곧 놀아온 “너른 마당이 있는 집”으로 몰려가서 승리의 기쁨을 나눈다. 이때 또 다시 콩심기·제달배기·지애밧기 등의 놀이가 행해지기도 했다.

② 춘향이점·방망이점

가. 놀이의 개관

춘향이점과 방망이 점은 여성들이 하던 놀이의 하나로 주로 겨울밤에 여럿이 모여서 하던 유사한 놀이다. 보통 춘향이의 경우에는 눈을 감게하고 대잡이로 뽑힌 사람은 방망이를 잡게한다. 무당의 흥내를 내어 모여 앉은 사람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비밀을 알아맞히거나 노래, 춤 등을 시켜 즐겁게 논다.

나. 놀이의 유래

춘향이 놀이는 특히 무언가를 잊어버렸을 때, 또는 이것이나 저것을 선택해야 할 때 많이 했는데, 그 연원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지역에 따라서는 춘향이 점과 방망이점을 동일시하기도 한다. 아이들 혹은 갓 시집은 새댁까지 모여 점을 보는 이유는 찾고자 하는 물건이 있거나, 알고자 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인 사람들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의 도움을 받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내림을 할 몸주가 필요했는데 이는 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신내림을 받는 것의 유사행위라 할 수 있다.

다. 놀이방법

춘향의점의 경우 먼저 춘향이 신을 받을 술래(몸주)를 뽑았는데, 보통 “신이 잘 내리는 아이”가 맡았기 때문에 거의 정해져 있었다. 춘향이놀이를 하는 방법은 술래를 정해 눈을 가리거나 감게 한 다음에 가운데 앉혀 놓고 나머지 아이들이 빙 둘러 앉아서 함께 노래를 부른다. 노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춘향아 춘향아/ 남원 땅 성춘향아/ 나이는 십팔세/ 생일은 사월 초파일/ 용마루에 어깨짚고/ 설설히 내려주세요/ 설설히 내려주세요”

주문을 단순하게 해서 “남원골 춘향아가씨, 나이는 십팔 세요.”라는 말을 반복하기도 했다. 주문을 외우고 있으면 어느새 술래의 손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자신도 모르게 손이 벌어진 술래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때 아이들도 다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술래는 점점 더 신나게 춤추고 노래하다가 어느 순간 신이 나가면 정신을 차렸다. 다른 사람이 신이 내린 술래를 깨우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신이 내린다고 생각해서 말리지 않고 스스로 정신을 차릴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 가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때는 물을 뿌리거나 땀을 때려서 일른 정신이 들도록 했다.

방망이점은 여자아이들이 주로 하던 놀이지만 종종 처녀나 새댁들이 하기도 했다. 이 놀이는 방 안에 둘러앉아 방망이를 갖고 점을 치는 것이다. 먼저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아이가 원 안에 들어가 방망이나 홍두깨를 잡고 주문을 외웠다.

일금태장 한태장
이금무사 기양조
삼금행정 조자룡
사칠강모 한강모
오감천지 가는장
육구맹장 진시황
칠금칠금 재가령
팔남푼지 조패왕
구원칠서 하오리
십년지서 각설이

서울지서 김도령

만익지서 고무재

속속히 내려주십시오(김분옥, 여, 71세).

주문을 반복하다보면 어느 순간 방망이가 흔들렸는데, 아이에게 신이 내렸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이때부터 평소에 궁금해 했던 것들을 질문하면 방망이를 잡고 있는 아이가 대답을 했다. 예컨대 잃어버린 물건이 어디에 있는가, 시집은 언제 가는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있는가, 호강하며 살 수 있는가 등을 질문했다. 질문의 내용은 춘향이를 불렀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아이를 넘어뜨리거나 찬물을 뿌려서 정신을 차리게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신이 아이 몸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해서 탈이 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방망이점은 제법 큰 여자아이들이나 젊은 처녀들, 시집온 지 얼마 안 되는 새댁들도 자주 하던 놀이다. 정해진 방에 모여 방망이를 잡고 놀이를 시작했는데, 주로 찾고자 하는 것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놀이를 했다.

아이들 중에서도 신이 잘 오는 아이와 오지 않는 아이가 따로 있어서, 술래는 항상 정해져 있다시피 했다. 술래를 세워놓고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들고 있던 방망이가 저절로 떨렸다. 방망이가 떨리는 것을 본 사람들은 평소에 궁금하거나 잃어버린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다. 방망이를 들고 있던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 술술 이야기하는데, 신통하게도 맞는 것들이 있었다. 만약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으면 놀이가 끝났다.

놀이가 끝나면 신을 받은 사람을 깨워야 했는데, 왼쪽으로 밀어서 쓰러뜨리거나 얼굴에 찬물을 뿌렸다. 신을 잘못 받은 경우에는 쉽게 깨어나지 않아서 놀라는 아이들도 있었다.

라. 교육적 효과

춘향이점과 방망이 점은 노래를 부르며 신의 좌정을 춘향의 신(神)이 놀이를 하는 아이 몸에 내린다. 가운데 앉은 술래에게 신이 다가와서 그 뒤에 있는 아이의 궁금한 것을 물으면 알려준다. 없어진 물건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 신이 내려 문을 열고 나가 있는 곳을 가리키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신내림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놀이노래라고 할 수 있다.

③ 월월이청청

가. 놀이의 개관

월월이청청은 여성들의 놀이노래춤으로 경상도 지역에 널리 분포한 원무 놀이다. 놀이형식은 원무가 중심이고, 여러 가지 놀이가 함께 연행되기도 하지만 각 마을단위에서 몇 개의 놀이가 개별적으로 연행되기도 했다.

나. 놀이의 유래

이 놀이는 달과 여성의 생식력에 비유하여 풍년을 기원한다거나 마을에 갓 시집 온 새댁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 들이기 위한 공동체의식에서 유래를 찾는 등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다음 두 가지가 대표적인 설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수한 우리말에서 유래되었다는 맥락에서 달이 맑다, 깨끗하다 혹은 밝다 즉 ‘달 달 밝은 달’하며 밝은 달밤에 노래하고 춤추며 논다고 하여 ‘月月而淸靑’이라는 설로서 이는 전래되는 과정에서 한자를 선호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한자화 된 유래라 추정할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임진왜란 때 부녀자들이 바다를 건너오는 왜적의 침략을 경계하기 위해 부르던 노래라는 설로 이는 가사에 있어서 받는 부분이 한자로 넘을 越자와 加騰淸正의 淸正자를 따서 가동청정이 바다를 넘어 쳐들어 온다는 내용으로 ‘越越而淸正’이라고 하나 확실한 근거는 없다. 그러나 이 놀이가 원무에 기초하고 있기에 원무를 중심에 놓고 그 기원을 살펴보면 마한 이전의 상고시대에 발생해서 이후에 역사적 사건과 결부되면서 다양한 설이 생기지 않았는가 싶다.

지역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다른데 포항 지방에서는 ‘월월이청청’이라고 하고 영덕지방에서는 소리나는 데로 ‘월워리청청’이라 하며 구미지방에서는 ‘넬넬이청청’이라고 하며 부르는 사람마다 ‘얼어리 청청, 얼릴리 청청’ 등으로 발음하나 일반적인 명칭은 ‘월월이청청’으로 보인다.

다. 놀이방법

이 놀이를 좁게 보면 원무를 지칭하는데 넓게 보면 원무와 함께 놀아지는 여러 가지 놀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원무인 월월이청청과 함께 놀아지는 여러 가지 놀이를 나누어서 놀이노래와 놀이방법을 소개한다.

다-1. 월월이청청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도 크고 진행되는 시간도 가장 많다. 대형은 원형이고 서로 손을 잡고 등글게 반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경중경중 뛰면서 춤을 추는데 포항의 경우에는 “우리 오늘같이 달 밝은 밤에 이렇게 모였으니 월월이청청 놀이나 한번 해봅시다. 내가 부르는 선소리에 맞춰 월월이청청을 불러주소”는 선창자의 사설로부터 시작한다.

지방에 따라, 가창자의 능력이나 상황에 따라 가사가 만들어지고 또 침삭되어서 다른 노래에 비해 양도 많고 내용도 풍부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2. 달넘세

지역에서는 달람새라고도 하는 달넘세 놀이의 대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원형이고 하나는 대치형이고 다른 하나는 엇갈려 넘는 방법인데 놀이방법이 전혀 다르다.

대형에 따라 노는 방법도 다른데 원형의 경우 모두 둘러앉아 있으면 선창자가 자

기 옆 사람의 팔을 넘고 다시 돌아서 다음 사람을 넘는 식이고, 다른 형태는 앉지 않고 일어서서 하는데 그냥 푸는 방식으로 놓고, 일자형은 마주 보고 한 편이 앉아 있으면 다른 편이 서서 노래에 맞추어 우르루 가서 넘고 다시 돌아와 자기 자리에 앉으면 앉은 편 사람이 일어나서 같은 방식으로 한다. 역시 노래를 부르며 진행된다.

다-3. 동애따기

힘 켜 사람이 기둥을 잡고 나머지 사람은 길게 허리를 잡고 앉는다. 이때 외 따는 사람이 앞에 가서 외 따기 노래를 문답창으로 하면서 노래가 끝나면 외를 따러 간다. 꼬리들은 외 따는 사람을 피해 이리 저리 도망 다닌다. 끝에서부터 한 명씩 따는데 떨어진 사람은 한 쪽에 앉아 있고 다시 놀이가 시작된다.

다른 한 가지는 기둥을 잡지 않고 한다는 점이 다르다. 위의 방법보다 활동 공간이 많고 앞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대체로 덩치가 큰 사람이 대장이 된다. 나머지 방법은 위와 같다.

다-4. 실꾸리 감고 풀기

이 놀이는 원무에서 변화하여 나선형의 형태가 되는데 마치 실을 감는 것과 같이 사람이 하나의 실이 되어 중심을 향해 말려나간다. 그런데 명석 말아 풀기와 다른 점은 가운데서부터 풀어져 나온다는 점이다. 이는 명주를 감았다가 푸는 과정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다.

원형에서 나선형, 나선형에서 다시 직선으로 빠져 나와 원형이 되는 대형의 변화가 많은 놀이이다. 놀이방법은 실꾸리 감자 노래에 맞추어 원형에서 손을 놓고 한 사람이 불박이로 서 있다. 그러면 밖에서부터 감아져 들어와 점차 말려 나중에는 팔을 벌리고 모두 끌어 안는 형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실꾸리가 다 감겨진 것으로 다시 풀자라는 노래에 맞추어 풀어져 나온다. 이때 맨 처음에 서 있던 사람부터 나오는데 나머지 사람은 손을 위로 들어 빠져 나오도록 돕는다. 다 빠져 나오면 다시 원형이 된다. 이 놀이는 인원이 많아야 하고 원무에서 나선형으로 바뀌는 점을 보면 월월이청청과 함께 했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놀이로 부르는 노래다.

다-5. 대문 열기

문열기라고도 하는데 영덕, 포항지역에서 고루 보이고 경주에서는 대문이 아니라 삼작열기라고 했다고 한다. 보통 문을 두 명이 만들기도 하고 혼자서 팔을 들어서 만들기도 한다. 이때 문을 만드는 사람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눈짓으로 알아서 했다고 한다.

1자 대형으로 문을 만드는 사람이 종대형을 이루어 양팔을 벌리고 문을 만드는 형과 2명이 문을 만들고 나머지가 1렬 종대로 문을 통과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또한 원형의 대문열기가 있는데 이때는 문이 여러 개가 된다. 즉 동대문도 있고 남대문도 있고 서대문도 있게 된다. 문을 만드는 사람은 서로 손을 잡지 않는다.

다-6. 재밧기

전라도에서는 기와밧기라고 하는데 재밧기, 재와밧기라고 한다. 놀이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보이는데 옹골 뚝다리 밧기와 같이 앞 사람을 잡지 않고 머리를 한쪽 방향으로 가지런히 하고 했다고 하기도 하고 앞 사람을 붙잡고 서 있었다고 하는데 밧는 것은 공통이다.

놀이방법은 3명을 제외한 모든 놀이꾼은 허리를 굽히고 앞 사람의 허리를 잡고 일렬중대를 만든다. 3명 중 한 사람은 놀이꾼의 등 뒤에 서고 균형을 잡도록 나머지 두 명의 놀이꾼이 부축한다. 이때 손을 잡기도 하고 막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등을 밧은 사람이 다 밧으면 내려서 다시 업드리고 다음 사람이 위와 같이 계속 한다. 따라서 놀이의 인원수에 따라 놀이의 길이는 달라지고 놀이의 시간도 증감된다. 안동에서는 뚝다리밧기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의 놀이가 강화되어 남은 형태로 공민왕의 파천이라는 전설과 맞물리며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뿌리는 재밧기와 같다.

다-7. 절구세

이 놀이는 이열(二列)로 마주보고 전진, 후퇴하는 일종의 군사적 놀이이다. 두 조로 나누어 횡대로 마주보고 선다. 옆 사람과 양을 잡고 한 조는 앞으로 전진하고 다른 조는 후퇴한다. 이때 잡은 손은 손을 어깨의 높이 정도로 올려서 든다. 다음번엔 반대로 하면서 위와 같이 밀리고 밀고를 반복한다.

다-8. 기타

이상의 놀이들은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특히 선창자의 주도에 의해 가변적으로 연행되었다. 따라서 인원이 작으면 간단한 외따기를 하고 점차 사람이 많으면 월월이청청이나 실꾸리 감기 등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파악된다.

그밖에 구룡포 지역에서 콩감추기와 콩 숨기기란 놀이를 했다고 하고 경주에서는 수리수리 마수리라는 놀이를 했는데 콩숨기기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에 콩숨기기가 있지 않았나 싶다.

④ 강강술래

가. 놀이의 개관

전라남도 남해안 일대와 도서지방에 전래되어 오는 부녀자들의 민속놀이. 주로 추석날 밤에 부녀자들이 손과 손을 잡고 <강강술래> 라는 후렴이 있는 노래를 부르면서 원무(元舞)를 추는 놀이다. 강강술래는 노래와 춤, 놀이가 잘 어우러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놀이이다. 원무인 강강술래와 함께 '청어엿기' '문지기놀이' '

고사리끓기' 등의 놀이가 함께 행해진다. 강강술래는 주로 추석날 밤에 행해졌지만, 지방에 따라서는 정월 대보름 밤을 비롯하여 봄·여름·가을 어느 때든지 달 밝은 밤에 수시로 즐겨 왔다. 지금도 해남·진도지방에서 그 맥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찍부터 중요무형문화재 8호로 지정되어 원형이 잘 보존되고 있다.

나. 놀이의 유래

강강술래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많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임진왜란(壬辰倭亂)과의 연관설이고, 다른 하나는 고대의 제사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다. 전자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李舜臣) 장군이 침략해오는 왜적에게 우리 군사가 많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부녀자들을 동원하여 남장시키고 손과 손을 마주잡고 둥그렇게 원을 만들며 춤추게 했더니, 이를 본 왜군들이 질겁하여 달아났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이 설은 학자들에 의해 점차 부정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교과서에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고구려의 동맹(東盟), 부여의 영고(迎鼓), 예(濊)의 무천(舞天) 등에서 행해지는 제사의식에서 비롯되었거나, 만월제의(滿月祭儀)에서 나온 놀이라는 것과, 마한(馬韓) 때부터 내려오는 달맞이와 수확의례의 농경적인 집단가무 등 다양한 설이 있다. 강강술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문헌은, 조선 말기 정만조(鄭萬朝)가 쓴 《은파유필》이 있다.

"높고 낮은 소리를 서로 주고받으며 느릿느릿 돌고 돈다. 한동안 섰다가 이리저리 돌아가네. 젊은 여인들의 마음에는 사내 오길 기다리네. 강강술래를 하니 때맞추어 역시 사내들이 찾아오네. 이날 밤 집집마다 여자들이 두루 모여서 달을 밝으며 노래하는데, 한 여성이 선창을 하면 여러 여성들이 느릿느릿 소리를 받기를 강강술래라 한다."

강강술래의 어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다. 먼저 한자 기원설로, '强羌水越來(강강수월래)' 즉 강한 오랑캐가 물을 건너온다는 뜻으로 풀이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왜적을 경계하라는 뜻의 적개심을 높이려는 구호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억지로 한자를 꿰어 맞췄다는 견해가 많다. 다른 설은 우리말 기원설로, 강강술래의 '강'은 원(圓)을 뜻하고, '술래'는 수레[輪]를 의미하는 말로, 둥글고 둥글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국한문 혼합기원설로, '강강'은 우리말 원(둥근), '술래'는 순유(巡遊)·순라(巡邏)에서 나왔다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전라도 남해안지방의 사투리 '강강'은 둥근 원을 만들고 돈다는 뜻이며, '술래'는 도적을 잡는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기원과 어원에 대하여 뚜렷이 밝혀진 바가 없고, 다만 추측될 따름이다. 다만 강강술래가 먼 옛날부터 집단의 대동적인 축제에서 시작된 것으로, 주로 분포지역이 해안지방인 점에서 주로 남자들은 오랫동안 고기를 잡으러 나가고, 여성들이 마을에 남아 있으면서 달 밝은 밤이면 풍농(豊農)과 만선(滿

船)을 기원하는 공동굿 형식으로 발달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다.

다. 놀이의 방법

건기와 뛰기가 주를 이루지만, 중간 중간에 여흥놀이로 명석말기와 풀기,문지기놀이,남생이놀이,기와밟기,고사리꿇기 등이 있다.

1) 가장 중심이 되는 원무(圓舞)는 주로 오른쪽으로(시계 반대방향) 돈다.

2) 손잡기와 건기: 오른손은 손등이 위로, 왼손은 손바닥이 위로 가게 옆 사람을 잡는다. 건기에서의 발은 뒤꿈치부터 노래에 맞추어 딛는다.

<건기에서 부르는 노래>

달떠온다 달떠온다 / 강강술래 동해동창 달떠온다 / 강강술래
저 - 달이 뉘달인가 / 강강술래 강호방네 달이라고 / 강강술래
강호방은 어디가고 / 강강술래 저달뜯줄 모르는가 / 강강술래

* 강호방은 강씨 성을 가진 호방(戶房; 치안을 담당하는 지방벼슬)임.

3) 뛰기 : 건기보다 빠르게 경중경중 노래에 맞추어 뛴다. 다리를 많이 벌리지 않고 무릎을 올리면서 흥겹게 뛴다.

<뛰기에서 부르는 노래>

뛰어보세 뛰어보세 / 강강술래 옥신옥신 뛰어나 보세 / 강강술래
얕은 마당 깊어지고 / 강강술래 깊은 마당 얕아나지게 / 강강술래

4) 명석 말기와 풀기 : 노래에 맞추어 아래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명석을 말았다 풀다. 돌아나올 때도 처음 말기 시작한 사람이 방향을 달리하면 안되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말았다가 앞사람을 따라 풀어져 나와야 한다.

<명석 말기와 풀기에서 부르는 노래>

물자물자 덕석물자 // 비 온다 덕석물자
풀자풀자 덕석풀자 // 별 난다 덕석풀자

5) 문지기놀이 : 명석말기와 풀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문을 만들어 나가는 문지

기놀이가가 이어진다. 맨 앞사람과 다음 사람이 문을 만들면, 이어져 나오는 사람이 차례로 문을 만들어 나간다.

<문지기놀이에서 부르는 노래>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 주소 / 열쇠 없어 못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 / 동대문으로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 주소 / 열쇠 없어 못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 / 남대문으로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 주소 / 열쇠 없어 못 열겠네
어떤 대문에 들어갈까 — / 서대문으로 들어가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 주소 / 덜커덩덩 열렸네

5) 청어엮기 : 노래에 맞추어 청어를 엮는다. 청어 엮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데, 보통 여섯 명 내지 일곱 명이 한 모듬이 되어 청어를 엮는다.

6) 청어풀기 : 청어를 다 엮은 다음 마찬가지로 노래에 맞추어 청어를 푼다.

<청어엮기와 청어풀기 노래>

청청 청어 엮자 위도 군산 청어 엮자
청청 청어 풀자 위도 군산 청어 풀자

7) 고사리꿇기 : 노래에 맞추어 고사리를 꿇는다. 꿇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8) 기와밟기 : 앞사람의 허리에 허리를 잡고 고개를 숙인 채 길게 늘어선다. 그러면 한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 등을 밟고 올라서고 옆에서 두 명이 양손을 잡아 떨어지지 않도록 보조한다. 이때 노래의 박자에 맞춰 천천히 걷는다.

<기와밟기 노래>

어딴골 기완가 전라도 기왓세 // 몇 닢 냥 쳤는가 스물닷 냥 쳤네

9) 남생이놀이 : 남생이놀이는 모두 원이 된 상태에서 자리에 앉는다. 앞소리가 나와서 놀 사람들을 부르면서 흥겹게 원 안으로 나온다. 이때 점잖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생이처럼 뒤뚱뒤뚱 까불까불 나오고, 나머지는 뒷소리로 "출레출레가 잘 놀다"라고 노래한다.

(2) 여자아이들의 노래놀이

① 고사리 꺾기

가. 놀이의 개관

고사리 꺾기 놀이는 우리가 자주 해먹는 고사리나물의 재료인 고사리를 꺾는 것을 흥내 낸 놀이이다. 서로 양쪽으로 손을 잡고 앉아있으면 한명씩 일어나서 그 손을 넘어간다. 주로 여자 아이들이 많이 한다.

나. 놀이의 유래

『전남의 세시풍속』에서는 이 놀이를 고사리 꺾기의 흥내 낸 춤으로 그 여음(餘音)은 별 소리의 의성어(擬聲語)라며 중중모리 가락으로 부르는 노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고사리 대사리 꺾짜
만부대사리 꺾자
유자콩콩 재미나 보자
아장장장 벌이어

꺾짜꺾짜
고사리를 꺾짜
수양산 고사리 꺾까다가
우리아배 반찬하세

꺾짜꺾짜
고사리를 꺾짜
지리산 고사리 꺾짜
우리 엄매 반찬하세

그리고 광주지역에서는 이 놀이가 서구 덕남동 덕남마을, 북구 일곡동 일곡마을, 광산구 송산동 내동마을, 광산구 동호동 남동마을에서 조사되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서로 손을 잡고 등글게 모여 한 바퀴 돌고 난 다음 “잉”하는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팔을 뻗어 손을 잡고 털썩 주저 앉아 “꺾자 꺾자 고사리 꺾자. 제주 한라산 고사리 꺾자”⁶⁰⁾라고 부른다. 이때 서로 손을 잡은 채로 순서대로 한사람씩 일어나 자기 다리로 팔을 걸쳤다가 제자리로 돌아와 앉는다. 차례대로 넘으면서 제자리로 앉고 마지막 사람끼리 다 넘으면 모두 다리를 쭉 뻗어 눕는다.”

60) 광산구 송산동 내동마을 제보자 : 김애님(女, 76)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용연마을은 노래 가사가 같은 광주임에도 다르게 나타나는 데, “웃데 웃데 넘자. 웃데 넘기도 지지려다, 지지리명당 고명당, 고사리 데사리 꿇자 망치(망태) 망치 꿇자, 고사리 꿇기도 지지려네 지지리 명당 고명당”⁶¹⁾이라고 부르며 논다.

다. 놀이방법

먼저 양쪽으로 서로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앉는다. 어깨를 들썩이며 다 같이 노래를 부르다가 한명이 일어서서 노래에 맞추어 왼쪽으로 돌아 다음 사람과 맞잡고 있는 팔뚝을 넘어간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이 그 잡은 손에 이끌려 일어나 또 옆에 사람의 손 위를 넘어간다. 이와 같이 끝까지 다 넘고 나면 다시 둥근 원이 된다. 마지막 사람까지 다 넘으면 모두 다리를 쭉 뻗어 눕는다.

② 덕석말기

가. 놀이의 개관

덕석말기 놀이는 농촌에서 명석을 말았다 푸는 모양을 흉내 낸 놀이이다. 처녀들이나 여자아이들이 손과 손을 마주 잡고 덕석을 말았다 풀었다 하는 것처럼, 서로 손을 맞잡은 채 한 사람을 중심으로 덕석을 말듯 돌돌 말았다 푸다.

나. 놀이의 유래

명석을 말고 푸는 일은 과거 농촌사회에서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이 놀이는 농촌에서 없어서는 안될 명석말기의 모의놀이라 할 수 있다.

『전라남도지』에서는 이 놀이가 강강술래의 부수놀이 중 하나로 ‘지와 밟기’가 끝난 후 한다고 소개한다. 우선 설소리꾼이 중중모리 가락으로 노래를 부르면 놀이꾼들이 받는 소리를 하며 놀이를 진행시킨다고 하면서 그 노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몰자 몰자 덕석을 몰자 (설소리) 몰자 몰자 덕석을 몰자 (받는 소리)”

“풀자 풀자 덕석을 풀자 (설소리) 풀자 풀자 덕석을 풀자 (받는소리)”

이 놀이를 광주지역에서는 ‘덕석몰이’라고도 하는데 광주 서구 덕남동 덕남마을, 북구 일곡동 일곡마을, 광산구 송산동 내동마을, 광산구 동호동 남동마을에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덕석몰이 노래는 제보자가 기억하지 못하여 기록되지 않았다.

또 이러한 놀이는 『전라남도 세시풍속』을 보면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서 연행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진도군지』와 『장흥군지』에서도 이 놀이의 명칭이 언

61) 제보자 : 박귀례(女, 78)

급되고 있다.

다. 놀이방법

여러 명의 아이들이 양쪽으로 서로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고 있다가 한 명의 아이가 노래를 부르면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며 움직인다. 이때 맨 끝에 있는 아이가 왼쪽으로 원을 그리며 돌면서 중심을 잡고, 나머지 아이들이 차례로 멍석을 말듯 뚫뚫 만다. 이때 모양은 마치 달팽이 진처럼 된다. 다 말아지고 나면 이제 반대로 맨 바깥쪽에 있는 아이가 돌면서 원을 풀어간다.

라. 교육적 효과

다 같이 모여서 손을 잡고 몸을 밀착했다 떨어뜨리는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한 친근감과 협동심을 형성할 수 있고, 노래를 부르며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 흥겨움을 느낄 수 있다.

③ 반지받기

가. 놀이의 개관

‘반지받기’는 실내에서 여자아이들이 즐겨하던 놀이로서 콩숨기기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놀이의 유래

반지받기는 실내에서 하는 여성 아이들이나 청소년 놀이로 노동의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겨울에 많이 했다고 한다. 겨울, 따듯한 방에 가까운 또래들끼리 둘러앉아 이야기판을 벌이다, 놀이판을 벌이다 하며 놀던 놀이다. 숨기는 물건은 반지가 되기도 하고 구슬이 되기도 하고 돌이 되기도 하고 콩이 되기도 했다.

다. 놀이방법

아이들이 모이면 둥글게 둘러 앉아 가위바위보를 해서 술래를 정했다. 술래가 원 안에 앉으면 나머지 아이들은 반지를 주고받는다. 이 때 “내 반지 받게~내 반지 받게~”라고 하면서 치마폭으로 반지를 던지고 받았다. 다 함께 소리를 내기 때문에 술래는 반지의 행방을 쉽게 알아채지 못했다.

술래는 자리에 앉아서 눈으로만 반지의 행방을 쫓아야 했다. 나머지 아이들은 술래의 눈을 피해 반지를 여기저기 던졌다. 술래를 속이기 위해 반지를 던지지 않고 치마폭에 숨기기도 했다. 사전에 정한 횟수만큼 던지기를 하면 술래가 “내 반지 주게.”라고 하며 한 사람을 지목했다. 지목당한 사람이 반지를 가지고 있으면 다음번의 술래가 됐다. 지목한 사람이 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라. 교육적 효과

반지받기는 술래에게는 주의력과 상황판단력이 요구되며, 술래가 아닌 아이들에게는 과장된 연기와 시치미 떼기가 요구된다. 술래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반지가 움직이는 대로 눈을 쫓아야 하며, 놓쳤을 경우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가장 적절한 사람을 골라내야 한다. 술래가 아닌 아이들은 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치미를 떼고 술래를 어떻게 속이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마. 기타

지역에 따라 콩숨기기, 콩심기, 구슬숨기기 등 다양하게 불린다.

④ 닭살이

가. 놀이의 개관

술래잡기의 한 유형으로 약한 닭과 닭을 잡아 먹는 여러 가지 동물을 등장시켜 닭은 도망가고 동물들이 닭을 잡는 것인데 중간에 울타리가 있어 닭을 지켜주면서 놀이가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닭을 잡는다고 해서 닭잡기, 닭살이라고 부르는데 지역에 따라 잡아가는 동물이 소리개면 소리개 놀이라고도 한다. 주로 여자 아이들이 많이 했는데 근래에는 남녀 구분 없이 한다.

나. 놀이의 유래

옛날에 집에서 키우는 닭은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 이었다. 따라서 닭을 잡아 먹는 술개, 너구리, 족제비는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을 놀이로 재연시켜 만든 놀이로 구한말까지의 자료는 없지만 이후 자료는 풍성한 것으로 보아 예전부터 널리 행해지다가 근대에 들어와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다. 놀이방법

가위 바위 보로 1등부터 꼴찌까지 순서를 정한다. 맨 끝에 지는 사람이 너구리, 그 앞에 진 사람이 닭이 된다. 나머지는 손에 손을 잡고 둥그렇게 울타리를 만들고 미리 정한 닭을 원 안에 두고 너구리는 밖에 있게 된다. 놀이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 울타리를 겹으로 만들기도 한다.

놀이 준비가 되면 너구리와 닭이 아래와 같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다.

너구리: 닭아 계란 한개 주게.

닭: 십 년이 지나서 허물어진 울타리 기둥을 일으켜 세워 준다면 한 개 주지.

너구리: 그럼 일으켜 주지.

라고 말하며, 원을 만들고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일으켜 세운다.

너구리: 자, 모두 일으켰어. 계란을 다오. /닭: 냄새 나는데.

너구리: 냄새가 나도 다오.

/닭: 썩은 냄새가 난다니까.

너구리: 썩은 냄새가 나도 다오. /닭: 비린내가 나.
 너구리: 비린내가 나도 줘. /닭: 쓰다구.
 너구리: 쓰더라도 줘. /닭: 없어

너구리는 위와 유사한 문답을 여러번 주고 받으며 틈을 노린다. 매번 물을 때마다 닭이 “못주겠다”고 약을 올리면 화가 난 너구리는 닭을 잡기 위해 함성을 지르며 안으로 들어 가려고 애를 쓰면 동그렇게 울타리를 친 아이들이 못들어 오게 막는다. 막는 방법은 손을 위로 들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며 앞거나 서로 밀착하여 온몸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한다. 그러면 너구리는 들어 가는 곳을 포기하고 주위를 빙빙 돌면서 약한 구석을 찾아야 한다.

만약 약한 울타리를 뚫고 들어오면 울타리들은 재빨리 손을 들어 닭을 내 보낸다.

이와 같이 너구리가 나오면 다시 들어가면서 너구리가 들어오면 다시 안으로 들어가 잡히지 않도록 한다. 이와 같이 계속하다가 닭이 붙잡히면 너구리가 되고 너구리는 울타리가 되며 처음 정한 순서에 의해 다음 사람이 닭이 되어 놀이를 계속한다.

라. 교육적 효과

닭은 너구리를 피해 도망가야 하고 너구리는 울타리를 뚫고 들어가거나 밖으로 나와 닭을 잡아야 한다. 닭은 긴장하고 있으면서 너구리의 동태를 살펴야 하고 너구리도 어떻게하면 울타리를 뚫고 잡을까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울타리의 역할도 중요하다. 너구리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닭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등 시작부터 끝까지 긴장의 연속이다.

이런 과정에서 전체 상황에 대해 파악하는 능력이 길러지고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한 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 일체감과 소속감을 배우게 된다. 또한 서로 쫓고 쫓기는 과정을 통해 체력을 단련시켜 주며 날랜 몸동작을 키워주기도 한다.

⑤ 공튀기 놀이

가. 놀이의 개관

잘 튀기는 고무공으로 여러 가지 노래에 맞춰 튀기는 동작과 함께 그에 따른 규칙화된 울동이 어우러져 하는 놀이로 노래에 따라 동작이 다양하다. 논산 지역에서는 ‘공치기’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주로 여아들이 많이 했다.

나. 놀이의 유래

풀이나 짐승의 털, 가죽, 오줌보 등을 묶어서 동글게 만들어 발로 차고 노는 것은 아주 오래 된 일로 중국의 옛 문헌인 <구당서> 동이전에 “고구려에는 사람들이

축국을 잘한다(人能蹴鞠)”고 기록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삼국시대에 공차기와 같은 공놀이를 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삼국유사>권1 기이편과 삼국사기에 있다. 내용은 김춘추가 김유신의 집 마당에서 공차기를 하다 옷자락을 밟아 옷끈이 떨어졌는데 김유신의 동생이 이를 꿰매게 하여 결국 부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밖에 고려시대 이규보의 시에 “바람이 들어가면 공은 불룩하나/ 발길에 채여 쭈그러드네/ 바람이 빠지면 사람들도 흩어지고/ 공은 어느덧 빈 주머니처럼 되네”라고 읊었던 것을 보면 바람을 넣어 튀기는 형태의 놀이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자연물로 만든 공은 탄력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기에 인공물인 고무공이 나오면서 새로운 양상의 놀이가 전개된다. 바로 노래에 맞춘 공튀기기가 그것이다.

공을 가지고 놀았다고 하는 근대의 기록은 『조선의 향토오락』⁶²⁾이다.

제주에서 조사된 놀이로 수시로 소녀들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과는 다른 형태지만 공을 이용한 놀이로 보여 지고 놀이명도 ‘공놀이’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 세 개를 사용해 노래에 맞춰 던져 올리면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면서 논다.”

그밖에 전라남도 보성지방에서는 여름에 아이들이 풀 공을 만들어 차고 놀았다는 기록도 있는데 이는 공 튀기의 공은 아니다.

위의 기록은 모두 땅에 튀기면서 노는 것이 아니라 전자는 제주의 배공놀이에서 배공 대신의 공, 후자는 발로 차는 형식으로 공튀기기 놀이의 기록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소재가 공이란 측면에서 보면 일제 강점기에 공이 아이들이 놀이도구로 활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밖에 ‘공치기놀이’란 이름으로 민속조사가⁶³⁾ 이뤄졌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녀들이 공을 한손으로 같은 정도로 고정적으로 당에다 친다. 노래에 맞추어 다리 밑으로 뺨치기도 하고 오른손으로 치고 얼른 돌아서 다시 오른손으로 치기도 하며 발로 살짝 눌러 치기도 한다. 이대 노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개 3박자이다.”

이후 기록은 논산문화원에서 발간한 『논산지역의 민속놀이』⁶⁴⁾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 놀이가 행해졌지만 위의 자료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를 기초로 놀이방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62) 무야아마지준 저·박전열 역, 『조선의 향토오락』, 집문당, 1992, 210쪽 및 238쪽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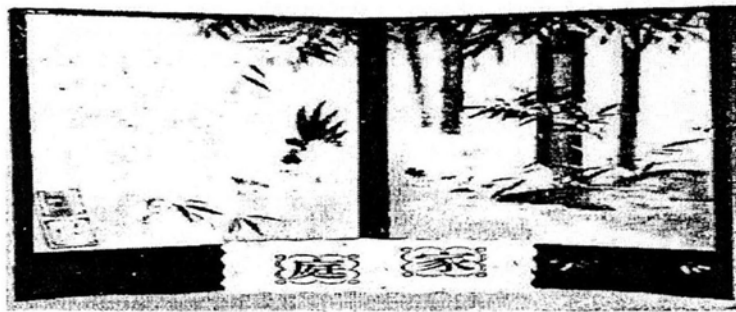
63) 이두현, 「민속놀이」,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충북편, 문화재관리국, 1976, 542쪽.

64) 논산문화원, 『논산지역의 민속놀이』, 논산문화원, 1996, 127~128쪽.

다. 놀이방법

여아들이 둘 또는 셋이면 개인별로 하고, 넷 이상이면 편을 갈라서 한다.

먼저 직경 5-8cm 정도의 주먹 크기의 조그만 고무공을 가지고 3박자 혹은 4박자의 노래에 맞춰 한 손으로 땅에 튀어 오르는 공을 왼손 또는 오른손으로 계속 치거나 한 다리를 들어 그 밑으로 공을 돌리기도 한다. 때에 따라선 공을 튀겨 놓고 한 바퀴 돌아 다시 공을 튀기기도 한다. 이때 부르는 노래는 다음과 같다. 노래는 튀기는 아이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아이들도 함께 불러준다.



<사진 16>

맨 마지막 노래 ‘얼른-감춰라’부분에서 노래에 맞춰 공을 치마폭에 감추어 버리는데 만약 실수하면 차례가 바뀌어 다시 한다.

그밖에 부르는 노래는 ‘1월부터 10월까지’라는 것으로 월마다 동작이 다르다. 이 놀이는 조금 어렵기에 큰 아이들이 한다.

“1월이래요, 1월이래요.//1월에서 6개월 성공하는 날//영희야 공을 받아라.”

1월에서는 공을 튀겨 올려 오른발로 공을 넘기면서 한다.

2월은 왼쪽발로 공을 넘기면서 하고

3월은 왼손을 오른 손목에 올려놓고 두 번 공을 치고 팔목을 한번 돌려 왼손을 오른 손목 아래에 대고 두 번 친다. 노래가 끝날 때까지 이런 행동을 반복하며 <영희야>할 때 공을 손등으로 올렸다가 손바닥으로 치고 <공을 받아라>할 때 공을 양발 사이로 넣고 뒤로 받는다.

4월은 왼손을 오른 손목 밑에 대고 2번, 위에 대고 2번하며,

5월은 왼손을 오른 손목 밑에 댄 채로 공을 돌려 친다.

6월은 오른발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오른 손을 다리 밑에 대고 공을 친다.

7월은 왼발을 들고 왼손으로 다리 밑으로 공을 친다.

8월은 오른발을 앞으로 밀고 공을 다리 밑으로 밀어 넣어 앞으로 친다.

9월은 오른손으로 치면서 한 바퀴 돈다.

10월은 공을 오른손으로 2번치고 오른발 밑으로 한번 튀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돌려 가면 계속 노는데 중간에 잘못하면 차례가 넘어간다.

라. 교육적 효과

노래에 따라 공을 정확하게 튀기기가 쉽지 않다. 단순히 튀기는 것이 아니라 박자에 맞아야 하며 그에 따른 동작도 일치해야 하므로 쉽지 않다. 이를 무난히 해내기 위해서는 리듬감과 유연성, 집중력이 요구된다. 자주 하다보면 공이 손에 딱 들러붙어 원하는 동작을 자연스레 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익숙해지기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3. 여성 노래놀이의 연행과 상징성

이 두 유형의 놀이는 명절 보름날 달 밝은 밤에 여성들이 무리를 지어 노래를 부르면서 원무를 추고 다리밟기를 하면서 다양한 내용의 여흥놀이를 함께 놀았던 것으로 정리된다.

먼저, 명절 보름날 달 밝은 밤이라는 놀이의 연행 시기는 이 놀이가 세시풍속으로서 대부분의 세시놀이가 그렇듯 농경의례와 관련된 제의성이 강한 놀이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여성들이 무리지어 노래 부르며 함께 놀았다는 것은 놀이 연행 집단과 놀이 특징이 ‘여성 집단 노래놀이’로 개인놀이가 아닌 마을공동체 놀이로 풍요다산을 상징하는 여성에 의해 놀아진 마을 곳의 기원의 의미를 지닌 놀이라고 하겠다. 또한 놀이의 내용이 원무를 추고, 다리밟기를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여흥놀이를 함께 놀았는데, 그 놀이 진행구성을 보면, 서로 별개 놀이들을 순서 없이 놀았던 것으로 보이나 놀이형태의 상대적 의미를 새기고 보면 놀이전체의 구성에서 나름대로 일관성과 논리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놀이 형태는 원형과 나선형, 일렬형, 그리고 열십자형이다. 이러한 형태의 놀이가 순서 있게 진행되었는데, 놀이 순서는 엄격한 법칙은 없으나 오랜 세월 전승되면서 자연스럽게 연행자들 사이에서 고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숫다리밟기가 주 놀이인 유형의 놀이에서도 놀이 처음은 원무부터 시작되며 이어 원무형태의 변형으로 보이는 나선형의 놀이가 진행되고, 다음으로 일렬형의 숫다리밟기와 열십자형의 대문놀이를 연결되는 전체적인 줄거리는 각 지역마다 동일하게 놀이되었던 것이다. 그 사이사이에 놀이의 흥을 돋우기 위해 여흥놀이를 행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여흥놀이는 끝에 연행하였다.⁶⁵⁾ 동일한 형태의 놀이를 중복하는 것은 놀이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여러 놀이 중에서 전승현장에 따라 강강술래와 숫다리밟기로 주 놀이가 강조되고 그 주 놀이의 명칭이 놀이 전체의 명칭으로 대표되었던 것이다. 여타의 부수적인 여흥놀이는

65) 놀이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한 놀이가 끝나고 다음 놀이로 바뀔 때에는 제목과 일치하는 노래의 후렴이나 첫 구절을 “후렴선창”으로 먼저 불러 다음 놀이를 지시하고 진행을 도왔다.

지역에 따라 소멸되기도 하고 혹은 변형되기도 하였다.

놀이의 형태가 상징하는 의미를 보면 그 성격을 알 수 있다. 강강술래, 월월이청청, 둥둥데미, 남원선선도재기야, 얼얼이청청은 모두 그 명칭만 다를 뿐 같은 원무 형태의 놀이로서 서로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만들어 원주상을 천천히 노래에 맞추어 걷거나 뛰면서 도는 놀이다. 원은 일반적으로 보름달을 상징한다. 보름에 하는 놀이라는 것과는 어울리는데, 보름은 달이 가장 차오른 때이므로 한껏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그래서 풍농기원의 제의는 대부분 보름에 행해진다. 또한 원은 여성, 대지, 지모신, 또는 여성의 자궁을 상징하는 것이다.⁶⁶⁾

열십자형태 놀이는 권취새끼놀이, 꿀집짓기, 문지기놀이, 대문놀이로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르고 있으나 두 사람이 마주 서서 두 손을 맞잡고 위로 올려 둥글게 원을 만들면 놀이꾼들이 서로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줄을 만들어 그 밑을 통과하는 놀이를 말한다. 주로 대문열기, 대문놀이라고 하며 어린이놀이를 많이 노는 놀이인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기를 상징하는 사물⁶⁷⁾이다. 그 원을 통과한다는 것은 성행위의 상징이며 남, 여의 결합으로 풍요로운 생산을 기대하는 풍요기원의 유감주술에 의한 성행위극이 형성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성행위의 모방주술적 상징성을 가진 놀이⁶⁸⁾로 바늘귀끼기, 남생아 놀아라, 여물썰기, 절구세와 같은 놀이가 함께 놀아지며, 외따기, 콩심기와 같은 연극적인 요소가 강한 놀이도 풍농을 기원하는 농경모의의 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비슷한 행위를 하면 비슷한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하는 원인행위인 유감주술이다. 즉 유사는 유사를 낳는다고 하거나, 또는 결과는 원인과 유사하다고 하는 ‘유사의 법칙’에 근거한 주술이다.⁶⁹⁾ 참외가 많이 열려 풍년이 되고 청어가 많이 잡혀 풍어가 되기를 기원하는 주술적인 놀이인 것이다.

일렬 형태의 뚫다리밟기, 지애밟기, 재밟기는 놀이꾼들이 등을 구부리고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마치 기와를 일렬로 이어 놓은 것처럼 줄다리를 만들면, 그 위를 한 사람이 양쪽에서 부축을 받으면서 밟고 지나가는 놀이다. 이때 만들어진 일렬형의 다리는 남성 또는 남성기를 상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줄뚫다리를 밟아 오는 공주는 일년생산신의 내방⁷⁰⁾을 상징한다.

또한 도굿대당기기, 꼬깨싸움 등은 싸움극 요소를 지닌 겨루기 놀이로 이 승패는 점복성이 있어 미래를 상점(像占)하는 놀이로서 단순한 오락적인 놀이가 아님을 말

66) 최정여 외, 「안동뚫다리밟기 연구」, 『한국민속연구논문선』, 일조각, 1982, 148쪽.

67) “...그래서 여성기를 더러 小門 또는 下門이라 일컫는다.” 아이를 낳을 때도 “문이 열렸다”는 말을 한다(임재해, 「뚫다리밟기의 유형과 풍농기원의 의미」, 『한국문화인류학』 17, 한국문화인류학회, 1986, 55쪽 각주33 참고).

68) ‘바늘귀끼기’는 ‘뽕자뽕자 바른귀 끼자’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원주상 서 있는 한사람씩을 앞뒤로 건너 한바퀴를 돌아 제자리로 오는 놀이로 남녀의 결합을 모의한 것이다. ‘남생아 놀아라’는 전원을 중심으로 앉아 엉덩이를 방아찰듯이 올렸다 내렸다하면서 손뼉을 치면 남생이 역을 하는 한두 명의 곱사춤, 궁둥이 춤 그리고 남생이의 몸짓을 흉내내는 춤을 춘다. 두 사람이 성행위를 묘사한 춤을 추기도 한다. ‘절구세’는 두편이 서로 마주보고 서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절구세 절구세/유지나 장판에 절구세”라는 노래를 부르는 놀이다. 절구를 찰는 모양을 모의하였다.

69) Frazer 저·김상일 역, 『황금의 가지』, 을유문화사, 1975, 42쪽.

70) Frazer 저·김상일 역, 위의 책, 147쪽.

해준다. 이와 같이 이 놀이들은 놀이 전체의 구조를 보아도 성적모의 형태의 놀이임이 드러나고 그 각각의 놀이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강강술래와 뿔다리밟기 유형의 놀이는 다산을 상징하는 여성에 의해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보름달 아래에서 노는 성적모의 형태의 놀이로 풍요기원의 농경 의례적 의미를 지닌 같은 성격의 놀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놀이의 성격은 원시공동체의 제의적인 의례, 고대 제천 행사에서부터 있어온 가무사제 형식의 대동굿에서 부터 비롯된 놀이임을 알게 한다.⁷¹⁾

전통시대 여성들에 대한 기록에서 놀이와 여가에 관한 자료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여성들의 자유가 조심스러웠던 조선시대에 여성들이 모여 놀이를 한다는 것은 세시명절에 명분이 있는 놀이가 아니고서는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놀이의 전승집단은 놀이의 연행시기와 놀이의 종류, 놀이의 구성방법과 관련된다. 특히, 노래놀이의 전승집단은 노래의 주 향유집단으로 노래를 통해 집단의 의식을 표현한다. 이러한 집단세시여성놀이는 향토놀이로서의 대동성, 전통성 그리고 여성놀이로서 여타의 세시 민속놀이보다 강하게 표현된 제의적 주술성과 교훈성, 제한성, 종합성, 예술성, 오락성 등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놀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놀이들은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시간적인 차이를 가지면서 형성되고 변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놀이는 점차 제의적 주술성이 약화되어가고 오락성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의 노동요, 자장가 등의 육아와 관련된 노래 정도가 구비 전승되는 정도이며. 오늘날 전승되고 있는 어린이 놀이에서 단편적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여성들의 노래놀이를 작은 축제를 펼칠 수 있다. 놀이는 축제에서 참가자들이 동참하기에 가장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 전래 노래놀이를 축제장에서 체험하고 나아가 경연대회를 펼칠 수도 있는 요소가 된다.

축제의 내용은 크게 ‘놀이 체험’과 ‘경연대회’로 나눈다. 놀이 체험은 대표 전래 노래놀이를 체험하는 부스를 설치·운영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그리고 노래놀이 경연대회의 경우는 크게 여성부문과 여자아이부문으로 나누고 부문별 예선을 통해 각각 몇 개의 팀을 선정한다. 여기서 선정된 팀이 경연대회장에 나와 겨루는 방식을 지향한다. 노래놀이 경연대회의 우승팀과 준우승팀을 경기 노래놀이 ‘명예전승단원’으로 선발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공연활동을 하는 것도 기획해 볼 수 있다.

71) 심우성, 『한국의 민속놀이』, 을유문화사, 1975, 42쪽.; 이두현, 「한국축제의 향방-역사민속학적 고찰」, 『놀이문화와 축제』,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8, 167-165쪽.

V. 살림의 전문가들: 바느질과 음식

신지영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객원연구원)

1. 들어가며: '살림'을 묻는다
2. 살림 교육으로 길러지는 여성
3. 바느질의 명인들
4. 자수 공예와 한국근현대미술
5. 자수가의 한
6. 자수 공예와 미술
7. 살림의 또다른 명인: 장과 김치의 명인
8. 나가며: 살림과 여성의 역사를 위하여-힐데가르트의 예

1. 들어가며: ‘살림’을 묻다

이 글은 여성의 ‘살림’을 다시 평가하고자 하는 작업이다. ‘집에 가서 아이나 보라’라는 말이 있다. 할 일 없고 무능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듣는 사람에게 모욕적으로 들리는 이 말은 여성의 일, ‘살림’을 비하하는 말이기도 하다. 아이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자들이고 보면 집에서 아이 보는 일이 무능하고 할 일없는 사람이나 하는 하잘 것 없는 일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육아 뿐 아니라 여자의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집안 일’, ‘살림’이라는 이름하에 평가 절하되어 있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The personal is political)’이라는 프레이즈는 70년대 여성주의의 모토였다. 이 반세기 전의 여성주의의 슬로건을 21세기 한국사회는 다시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데, 60, 70년대의 여성주의의 성찰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여성주의 모토에서 ‘개인적인 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등치시키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은 아무런 정치적인 힘의 관계에 지배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⁷²⁾ 사회적 억압이라든지, 정치적 지배는 가정과 반대되든 공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통 생각한다. 모든 부조리한 힘의 관계가 판을 치는 공적사회와 달리 집이라는 개인적, 사적 영역은 순수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낙원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여성의 거의 모든 문제는 이 사적인 영역,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집은 권력 관계가 없는 곳도 억압과 폭력이 없는 낙원도 아니다. 공적영역과 마찬가지로 집이라는 ‘개인적 영역’은 사람 사는 곳이 어디나 그렇듯 노동과 폭력 억압 등 사람살이 꼴을 지니게 된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개인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뿐이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도 않고 법적으로 별로 문제 삼지도 않는다.⁷³⁾ 그런데 여성의 살림은 사적 영역의 일이다. 여성주의가 ‘개인적인 것’이 곧 ‘정치적인 것’이라고, ‘사적인 것’이 또 ‘공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오히려 사회는 이렇게 ‘개인적인 것’, ‘사적인 것’을 ‘정치적인 것’, ‘공적인 것’의 반의어로 이름 지으면서 여성의 문제를 심

72) Carole Pateman, “Feminist Critique of the Public/Private Dichotomy”(1983), *An Introduction to Women's Studies*, 155~160, An Introduction to Women's Studies, Inderpal Grewal and Caren Kaplan, ed., Mc Graw Hill Higher Education, Boston 2006, pp.155~160.

73)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내 폭력은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와도 개인의 문제로 공적 개입하기를 꺼려했다. 2013년 울산에서 일어났던 계모의 아동살인 사건 등에서 보듯 가족 학대 등은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늦게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

각하게 한다. 이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어떤 기여를 해도 보상이 없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드러나지도 않기 때문이다. 사회의 공사 이분법에 대한 여성주의의 거센 저항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공사 이분법은 어느 사회나 상식이 되어 있다. 어느 사회나 여자 남자라는 성별에 의해 역할이 지정되고 거하는 공간도 나뉘어져 있다. 공적인 영역은 남성이, 가정이라는 사적인 영역은 여성이 주로 담당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역할을 달리 하는 성별 분업이 되어 있다는 말이다. 남성은 보통 공적인 일을 담당하고 여성은 집안일을 곧 '살림'을 산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상식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전통 유교 담론에 따른 내외법이 있다. 21세기에 이러한 전통 내외법은 깨어졌다고 하지만 실상 아직도 여성은 이러한 한국판 공사담론, 내외법의 문화적 규범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직장 여성이라도 하더라도 바깥 일에만 전념하는 남자와 달리 여성은 직장일 이외에서 전통적으로 담당하던 가사노동, 육아를 책임지는 것이 보통이다. 살림일은 여성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젊은 여성들은 결혼을 꺼리고 결혼하게 되면 가정과 일 사이에 허덕이다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 우리나라는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56.6%로 OECD 평균 78.4%를 훨씬 못 미치는 꼴찌이다.⁷⁴⁾ 육아를 비롯한 집안일이라면 무조건 여성일이라는 공사분리 문화적 규범 때문에 출산율도 현재 1.22%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다.

70년대 여성주의의 '개인적인 것이 공적인 것'이라는 모토를 한때의 유행으로 지나간 슬로건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 때문에 지금 다시 곱씹어 보아야 한다. 여성의 일, 살림 일을 아직도 '개인적 일'로 치부하고 아무 보상도 평가도 하지 않는 영역에 밀어두지 않는지 다시 보자는 것이다. 여자가 집에서 식구들을 위해 하는 일을 보통 '살림'이라고 부르니 살림을 공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단적으로 살림노동에 대해 공적으로는 임금으로도 커리어로도 가치 평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사 논리로 따지면 이것은 사회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제외된 개인이 알아서 하는 사적인 영역의 일이기 때문이다. 여성주의가 여성에 대한 억압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라 사적 공적 영역으로 나누는 이 이분 담론 자체에 있다고 소리치는 이유이다. 19세기 이래 여성주의의 큰 흐름 중의 하나는 여성의 일, 곧 '살림'을 '사적인 것', '개인적인 것'으로 명명하는 가부장사회의 언어적 문화적 폭력과의 싸움이었다. 육아나 교육 같은 중요한 일도 일단 '집안 일'로 불리면 '집에 가서 아이나 보는 일'로 전락되기 때문이다. 집안을 돌보는 '살림'에는 커리어나 임금 보상도 없다. 무엇이든 '집안일'로 불리면 그때부터 사회적 공식적 보상 체계가 없으니 이러한 문화

74) 『파이낸셜뉴스』 2014년 2월 4일.

규범은 폭력과 진배없다.

공식적인 가치 평가는 없어도 우리 모두 체험으로 여자들의 일, 어머니들의 살림이 어떤 것이라 것을 안다. 살림은 우리를 살리는 일이었다. 생명을 살리고 나와 가족을 키우고 집안을 살리는 일이었다. 살림의 힘으로 우리가 커왔고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실상 공사 담론을 걷어내면 살림과 공적인 영역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살림은 전문적이다. 보통 의식주로 나뉘는 살림은 삶의 전 분야를 망라하는 것이다. 살림은 밥을 짓고 옷을 만들고 식구들이 쉴 수 있는 노동재생산 공간 곧 집을 만든다. 이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을 생산하고 양육시키는 것도, 노년층을 돌보는 것도 여성의 살림의 중요한 몫이다. 여자들의 살림은 의식주, 육아, 교육, 노인 가정 경제 등 사회의 기반을 다지는 일을 한다. 이 중 어느 분야 하나 경험과 지식, 숙련, 노동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없다. 다만 평가 되지 않을 뿐이고 커리어로도 임금으로도 보상되지 않을 뿐이다.

2. 살림 교육으로 길러지는 여성

사람은 누구나 교육받는 대로 재능을 발전시키기 마련이다. 전통적으로 여성교육은 내외, 살림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유교적 내외법이 엄격했던 조선시대는 ‘남녀칠세 부동석’이라는 내외법으로 남녀를 성별에 의해 교육되었다. 여성은 안살림 할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살림의 기술과 부덕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였다. 공자는 ‘논어’에서 여자와 소인을 같이 두어 ‘여자와 소인은 가르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유교를 기반으로 하는 조선에서는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 자체를 부도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간주하였다. 엄격한 내외 분리에 의해 여성들은 남성의 일 공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안일, 곧 ‘살림’ 만 하도록 강요당하였을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거의 집안에 갇혀 살았다.

상식이 되어있는 고전적인 유교 문화와 교육을 다시 들추어 보는 이유는 이 문화적 규범에서 아직도 21세기 한국사회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교육은 집안을 화목하게 하고 살림을 능숙하게 잘 할 수 있는 교육, 즉 살림 기술을 늘리는 일이었다. 15세기조선의 왕, 성종의 어머니 소혜 왕후가 쓴 ‘내훈’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교육서로 대표적인 것인데 여성 교육의 목표를 현모양처의 교육적 인간상에 두고 있다. 이 책은 대체적으로 다섯 가지를 여성에게 강조하는데 그 첫째가 한 남자의 지어미로 수절을 지키는 정절교육이다. 조선시대에는 이를 권장하기 위해 많은 열녀비가 세워졌으며 아직도 여성은 정절을 강조하는 문화에서 자

유롭지 못하다. 둘째 여성의 가부장에 대한 봉사였는데, 한 집안의 여인으로 시부모를 잘 모시고 시가 친척에게 잘 하는 것을 중히 여겼다. 셋째는 봉제사 접빈객으로 시가의 조상을 모시는 제사와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봉제사 접빈객은 여성의 가장 큰 의무였는데 손님과 제사를 위해서 그 절차를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정갈한 음식 솜씨가 강조되었다. 넷째는 어머니로서 의무로 자녀 교육 육아법에 대해 강조했다. 다섯째 여성은 살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음식을 포함한 가사기술과 근검절약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바느질 길쌈 부엌일 등의 가사기술은 사대부에서부터 서민 모든 계층에서 여성이라면 익혀야 할 것으로 바느질 길쌈, 음식 솜씨가 좋은 여성들은 혼인 할 때 더 유리한 조건으로 결혼을 하기도 하였다.⁷⁵⁾

18세기 빙허각 이씨가 쓴 ‘규합총서’도 이 살림의 기술을 연마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규합은 여자가 머무는 거처나 여자 자체를 의미하므로 요즘말로 바꾸면 ‘가정총서’가 된다. 이 살림 총서는 5개의 장으로 나누어져있는데 모두 집안 살림을 꾸리기 위한 것이다. 즉 첫째 장은 음식에 대한 것으로 술과 음식, 장, 김치 반찬 만들기, 기름 짜기 떡 과자 만들기, 과일 채소 보관 등을 가르치고 있다. 두 번째는 입는 것, ‘의’의 장으로 바느질, 길쌈, 염색, 빨래, 다듬이와 누에치기 뽕 기르기, 몸단장 등 집안 식구들의 옷을 마련하는 법에 집중하고 있다. 세 번째는 경제 부분으로 밭갈기, 과일 따는 법, 가축 기르기, 양봉 등의 기술로 집안 경제에 도움 되고 살림을 윤택하게 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네 번째는 건강과 의약으로 육아 구급처방, 벌레 없애기 등등 식구들을 돌보는 것을 또 다섯 번째는 민간 풍습으로 길흉 귀신 쫓는 법등 집을 재난에서 돌보려는 민간 지혜를 기록하고 있다. ⁷⁶⁾ 빙허각 이씨가 단순히 ‘음식과 의복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이 책은 여자들의 살림 일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로 살림이 얼마나 많은 방대한 영역을 다루며 경험과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여성들의 가사 살림 교육은 근대화 이후 이 시대의 공교육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여성의 근대 교육은 1886년 미국 선교사 스크랜턴 부인이 이화학당을 설립하면서 시작하였다. 글을 가르치는 여성 교육이 부덕을 헤친다하여 여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시대 이화학당은 버려진 어린 여자 아이 한명으로 시작하였다.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운 이 시기 조선에서는 구국운동으로서 여학교들이 생겨나는데 이때 선각자들은 엄격한 내외로 여성을 교육시키지 않은 전통을 개탄하였다. 여성인구는 나라의 반인데 남녀차별로 여성인구를 교육시키지 않아 스스로 국가를 약체로 만들었던 것이다.⁷⁷⁾

75)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여성교육’, <http://naver.com>.

76) 정해은, 「조선후기 여성 실학자 빙허각 이씨」, 『여성과 사회』 8, 창작과 비평사, 1997, 8~10쪽.

77) 신용하, 『독립협회와 개화운동』,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82~84쪽.

기독교에 의해 1894년 평양에 정의여학교가 설립되고 1895년 서울에 정신여학교 부산 동래 일신여학교 1898서울 배화여학교 등 많은 여학교들이 설립되었다. 정부에 의한 여학교 설립은 1908년에 이루어지는 데 이때 발표된 ‘고등 여학교령’은 여성에게 공교육을 시키는 목표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교육은 ‘여자에게 필요한 고등보통교육 및 기예를 교수함에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4월 ‘한성 고등여학교’ 설립하였다.

국권 상실 이후 일제는 1911년 일제는 1911년에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여성 중등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여자고등보통학교를 설치하였다. 수업연한은 3년이었으며, ‘여자에게 고등한 보통교육을 하는 곳으로서 부덕을 기르고 국민 된 성격을 도야하며 생활에 유용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친다’ 라고 그 성격을 규정하였다. 또한 본과 외에 3년 이내의 기예과를 두어 재봉 및 수예를 전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여자고등보통학교 본과의 학과목은 국어 및 한문·일어·역사 지리·산술·이과·가사·도화·재봉·음악·체조·수예 등이었다.⁷⁸⁾ 근대화와 더불어 공교육이 실시되었지만 공교육에서도 여성에게는 가사, 살림 교육이 중시되었다.

이러한 살림이 여성의 일로 인식되는 일은 1987년 5차 교육 과정까지 계속되었다. 남녀 평등화를 지향하는 사회의 슬로건과 다르게 1980년대 후반까지 대한민국의 남녀 학생은 성별에 따라 배우는 것을 달리 했는데 남자는 그때까지 과학 기계를 쉽게 다룰 수 있게 ‘기술’과목을, 여자는 살림을 잘 할 수 있게 기술 대신 ‘가정’, ‘가사’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교육 받은 데로 재능을 발전시키게 된다. 여성은 재능을 발전시키더라도 음식 바느질 육아 등 교육에 의해 자신이 친숙한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살림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공사이분법에 의해 이 살림 영역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평가되지도 기억되지도 보상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3. 바느질의 명인들

살림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살림 일에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히 일이다. 자수가들이 대표적인데 바늘과 실, 천을 사용하는 자수가들은 알게 모르게 가정과 학교에서 살림 교육에 충실하였던 사람들이다. 실과 바늘이 가까이 있는 환경에서 자라는 여성들이 자수가가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김현희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보자기 작가이다. 그는 수놓인 보자기, ‘수보’에 집중한다. 전 근대

78)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여성교육’, <http://terms.naver.com>.

시대 우리나라에서 보자기는 일상의 요긴한 물건이었는데 김현희는 전통 보자기에 놓인 도안을 찾아내고 또 재창조해낸다. 전통 자수를 복원하여 현대적 미감으로 보여주는 그의 작품은 정교함에서나 미적 성취에서나 일급으로 1994년 한국전승공예대전에서 국무 총리상을 받아 대한민국 자수 명장의 반열에 올랐다.

그가 자수를 하게 된 것은 그러나 여성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길이었다. 본래 손으로 하는 일에 능했던 그는 어머니가 수를 배우는 바람에 전문인의 눈에 들게 되었다. 학교 자수 시간 이미 빛을 발했던 그는 어머니 따라 19살에 자수에 입문하게 되었던 것이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바늘과 실은 이 작가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었던 것이다.

1980년 이화여대 자수과를 졸업하고 현재 이화여대 섬유예술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차영순도 마찬가지이다. 자수를 입문하게 된 계기를 차영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처음에는 자수과를 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철학이나 간호학을 해서 독일가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 자수부를 특활활동으로 하고 있었고 내가 원래 손으로 하는 것은 잘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자수 대회에서 일등을 했어요. 배추와 고추 양파 등의 채소를 수로 놓은 것 이었는데 일등을 하고 덕수궁에 전시가 되었어요. 당시 이 작품을 몹시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어 작품을 매매하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품금을 샀어요. 고등학교 자수 담당 선생님이 저보고 자수과를 가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자수과를 가게 된 거지. 그 때는 학교에서는 늘 수를 가르쳤어요. 고등학교 때 가사 시간이 있었고 수를 놓았고 항상 수는 내가 제일이었어. 지금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중학교 때도 가사에서 에이프런 같은 것을 만들고 장식을 하고 수를 놓아 손으로 하는 것이라면 자신이 있었지.”

1936년 포항에서 태어나 슬하에 자식 둘을 두고 평생 주부로 살아온 78세의 이병옥씨는 여성의 바느질 살림 교육과 연관하여 자신의 시대를 이렇게 회고 한다. 60년대까지만 해도 한복을 많이 입었고 또 웃은 사 입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만들어 입는 것이 많았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여자들은 늘 바늘을 들고 살았지. 나보다 두어 살 더 먹은 고모, 고모 같은 사람은 늘 아미모노 손으로 짜는 것 그런 거 했잖아. 뜨개질 배우고, 개실 있으면 양말 짜고 했지. 그것도 개실이 있어야 되지만. 수도 놓았는데 옛날에는 수는 배개 모서리도 놓고 액자에 넣어서 그림도 만들고 병풍도 만들고 했지. 시집갈 때 가지고 가기도 하고 했지. 바느질이야 집에서 딸들에게 가르치지. 옛날에는 한복을 주로 입고

살았고 우리 처녀 때도 몽당저고리 입고 살았으니까. 양장도 입었지만 그래도 한복도 많이 입었으니까. 한복은 짓기도 그다지 어렵지 않고 치마는 주름 살살 잡아서 조개 해서 바느질 하면 되니까.”

20세기 전반기 까지만 해도 한복 생활이 일상이었고 한복은 수시로 뜯어 빨아 늘침선이 필요했다. 한번 빨 때 마다 뜯어서 세탁하고 다시 기우는 것이 일이었으므로 20세기 전반기만 해도 바느질은 살림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우린 한복 입고 살았는데 그때 한복 입을 때 옷은 다 집에서 만들어 입는 것 인줄 알았지 사 입지 않았으니까. 또 빨래하면 옷을 뜯어 하니까 여자들이 바느질은 다 할 줄 알지. 딸애들은 집에서 가르치지. 그래야 시집가서 시아버지 바지저고리도 꾸미고 하지. 옛날에야 바느질은 기본이지, 적삼, 여름옷 광목, 안동포 같은 거야 틀로 박아서 입었지만 옛날에 솜옷 같은 거는 다 따서 빨았잖아. 어릴 때 아직도 생각하는데 나도 우리 엄마가 노란 솜 저고리를 해 주는데 그건 거는 다 솜이 들어 있었잖아. 그러면 다 따서 빨고 다시 꾸미지. 바느질을 다시 하지. 그 때는 또 여유가 되는 집은 틀이 있었는데 재봉틀, 싱거틀이 제일 좋은 거였지, 그거는 사르르 박으면 다 바느질이 되니까 그런 것도 많이 했지. 요새야 수선집 양재사들이 남자들도 많더라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지. 남자들이 무슨 바느질을 해.”

78세의 할머니는 자신이 젊을 때 만 해도 여자들이 직업을 가지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이라고 한다. 일자리도 없고 일을 해도 또 시집가면 다 그만두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여자는 시집가야 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한다.

“그 때는 취직 할 때도 없었고 여자는 시집간다고 생각했지 바깥에서 일한다고 생각 안했으니까. 그 때 우리 고등학교 나올 때 은행에 취직하고 그런 아이들도 있었지만 다 시집가면 사표 받잖아. 여자들이 직업을 가질 생각도 안했고 또 할 수 도 없었지. 학교 선생 그런거 좀 할 수 있었는데 초등학교는 가르칠 수 있었지만 중학교도 남자 중학교 남녀 공학 이런 데는 여선생들이 가르치지도 못했어. 여학교 조금 가고 그랬지. 그러니까 별로 일한다고 생각도 안했고. 옛날에는 대학도 가사과 같은 게 좋았지. 요새 같으면 어려운 의대, 법대 이런 것은 또 인기가 없었다고. 생각이 그때는 많이 달랐지.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했지 뭐. 일한다고 생각 안했는데. 일하기도 어려웠던 것 같아.”

결혼해서 안살림 맡는 것이 여자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었고 그만큼 여성들의 살림 교육이 중시되었다. 바느질 기술은 공적영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교육

을 따로 받지 못한 여자들이 그나마 가정 경제를 떠맡을 때 밥벌이 수단이기도 하였다. 살림의 일부로 옷 만들기 바느질에 단련된 여자들은 집이 기울어 공적 영역에서 경제 활동을 하여야 할 경우도 평소 훈련되었던 살림의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시집가서 못살면 샅바느질 하고 그랬지. 그때는 바느질감이 많으니까. 명숙이 엄마는 아이들 키우는데 전부 바느질로 키웠지. 우리 할머니 옷은 그 명숙이 엄마가 매번 바느질 해다 주었지. 바느질로 먹고 살았는데 빨래 할 때 마다 옷을 뜯어 다시 꾸몄으니까 바느질이 많았지. 잘 사는 집에는 빨래를 하면 늘 뜯어서 다시 꾸며야 되는 것이 많으니 침모 같은 사람들이 있어 바느질을 주면 해 오고 그랬으니까. 여자들은 바느질은 그래서 모두 할 줄 알았지. 밥하는 것처럼 옷 입고 살았어야 되니까. 자수는 고급이라는 인상이 있지. 배개 잇도 수놓고, 수놓아 벽에 걸어도기도 하고 병풍도 만들고 이것 너무 하는 사람 꼴추가 되었다고 하기도 하던데. 그렇게 해서 시집갈 때 가져가기도 하고.”

집에서 옷을 만들어 입고 빨래 할 때마다 옷을 뜯어야 하는 경우 바느질은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일감이었다, 지금 60대 이상의 사람들이라면 어머니를 회고할 때 바느질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집안 식구를 위해서 늘 바늘을 쥐고 있던 어머니가 살림이 궁해지면 샅바느질 감을 얻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머님의 희생을 생각할 때 고단한 저녁에 밤늦도록 희미한 호롱불 밑에 바느질 하는 모습을 생각하게 된다.

사람은 교육받은 데로 재능을 발전시키기 마련이다. 어려서부터 성별분업 공사분업에 의해 살림을 책임지도록 길러지는 여성들은 요리, 바느질, 육아 등 살림의 여러 분야에 더 친숙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재능을 발전시키는 분야도 그래서 이 여성적인 살림 영역일 수밖에 없다. 여성들이 바늘과 실과 가깝게 바라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바늘과 실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살림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그 어떠한 성취도 공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자수공예와 한국근현대미술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로이지만 한국 미술사에서 여성 미술가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조선시대에 시·서·화에 일가를 이뤘던 신사임당을 꼽고 나면 나혜석, 박래현, 천경자가 고작 우리가 기억하는 근대기의 여성 미술가이다. 여성은 예술적 재능이 없었

던 것일까? 그러나 역사가 기억하는 것과 달리 당시의 여성 예술 인구는 이보다 훨씬 지평이 넓다. 1920년에서 40년까지 나혜석, 천경자, 박래현이 다녔던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를 다녔던 한국 여성이 133명에 달하기 때문이다.⁷⁹⁾ 한국 현대 미술사는 20세기 초 근대 교육의 수입과 함께 일본 유학을 통해 시작되었다. 흔히 알려진 데로 나혜석, 박래현, 천경자도 이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라는 근대적 교육을 통해서 미술가가 되었다. 실상 근대 교육은 한국 미술사에서 여성의 미술가 탄생의 교두보이다. ‘내외법’이라는 조선의 엄격한 공사 분리제도 안에 묶여 있던 여성은 교육에서도 소외되었고 더불어 미술 교육에서도 제외되었다.

한국 전통에서 여성 미술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전통 미술 교육제도의 영향도 크다. 전통적인 미술교육은 도제식 장인제도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미술가가 되고 싶으면 그 방면에 뛰어난 사람을 찾아가 선생의 집에서 함께 기거하고 집안 살림도 도우며 그림을 배우는 것이 보통이었다. ‘무릎제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 방에서 무릎이 닿을 정도의 친밀한 거리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곤 하였다. 당연히 내외가 엄연하였던 전통 사회에서 여성이 이러한 도제식 교육을 통해 미술가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었다. 이 때문에 여성 미술가는 유교적 색취율러티 담론이 다소 힘을 잃고 미술에 대한 제도 변화가 있는 근대기에 출현하게 된다. 근대기의 여성 남성 작가들이 큰 학력의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제교육으로 작가가 될 수 있었던 남성들은 유명 작가라고 해도 학력이 시원치 않았는데 알려진 바대로 여성 미술가들은 모두 일본 유학 출신이다.⁸⁰⁾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 미술가는 모두 ‘미술’로 분류되는 ‘회화’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다. 나혜석은 양화, 천경자, 박래현은 동양화를 전공하였다. 실상 이 여성들이 알려진 것은 동양화 서양화라는 ‘미술’을 전공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역사가 있다. 이 시기 더 많은 여성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하였는데 여성들의 유학은 서양화, 동양화 등 ‘미술’ 부분이 아니라 자수라는 ‘공예’부분이었다. 많은 여성들이 동경 여자 미술전문대학 ‘자수과’로 유학을 하였던 것이다. 한국 현대 자수공예의 산 증인이라고 할 만한 박을복이 1935년 동경 미전 자수과로 유학하였다. 그전에 이미 알려진 것만 해도 1915년 장선복, 1930년 전명자, 김연임, 1932년 김소판례, 박여옥, 심재순, 1934년 최복녀가 유학하였고 같은해 1935년 조정호, 나사균, 박순경, 김태숙, 석춘봉이 수학했으며, 1936년에는 박유분, 이장봉 윤봉숙, 1937년 원예례 등이 동경미전 자수과에서 공부하였다.⁸¹⁾

79) 김철효, 「구술사를 통해서 본 20세기 한국의 자수 미술사들」, 『여성의 눈으로 보는 근대기의 여성자수』,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2011.

80) 신지영, 「여성의 역사쓰기: 자수 공예와 한국현대미술사」, 『여성의 눈으로 보는 근대기의 여성자수』,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2011. 하나의 예로 김기창과 박래현은 유명한 부부 미술가인데 김기창이 거의 무학에 가깝다면 박래현은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 출신이다.

여성 유학생이라면 일본 가서 대학교육 받는 신여성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장안에 화젯거리가 되었을 것이 분명한 이 여성들이 역사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은 순전히 이들은 ‘미술’이 아니라 여성적인 ‘자수’를 했기 때문이다. 하잖은 ‘살림’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내외법으로 여성들의 활동이 살림에 집중되어있었던 시기 실과 바늘은 여성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미적 공간이었다.

전통 사회에서 권장되던 자수는 신식 교육의 거센 바람이 몰아쳤을 때 여성이 신문화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과목이었다. 여성이 바깥 세상에 나가 교육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던 전통 사회를 넘어 여성이 교육을 받는 것은 분명 근대기 신문화의 혜택이다. 그러나 아직 여성 교육에 대해 저항이 거센 사회에서 여성은 전통문화와 접점을 찾지 않을 수 없다. 자수는 전통적으로 부덕의 상징이었다. 내훈이나 규합 총서에서 보듯 집에서 실을 짓고 의복을 만들어야 했던 여성들에게 바늘과 실은 살림의 상징이었다. 자수는 여성교육에서 여성의 도덕적 수련의 도구이기도 하였는데 땀을 기워나가는 침선 작업은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고 따라서 부덕 수련의 수단으로 여겨졌다.⁸²⁾ 근대화가 시작된 20세기 초에도 자수는 여성들의 생활의 중심이었는데 양가집 규수라면 베개, 수젓집, 방석 등의 혼수품을 스스로 만드는 관습이 있었다. 자수를 비롯한 침선 작업은 20세기 초까지 엄연히 여성들의 생활의 필수품으로 또 규방 예술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1935년 같은 학교에 자수과로 유학한 나사균이 그 대표적 예이다. 1913년 경기도 수원 나씨 집안에서 출생한 나사균은 나혜석과 육촌지간이다. 1934년 동덕여고를 졸업하고 도일하여 1937년 동경 여미전 사범과 자수부를 졸업하였다. 그 뒤 호수돈여고 교사로 재직하다 1938년, 1939년 조선 미전에 입선하였다. 나사균은 나혜석 때문에 어려웠던 자신의 일본 유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학교 졸업한 나혜석이 나와 육촌 지간인데 다들 알다시피 그녀의 삶이 다른 여자들에 비해 많이 앞서가 집안 어른들이 내가 일본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심하게 반대하셨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가서 공부하는 게 좋겠다 싶어 친구 몇 명과 사흘 동안 배를 타고 거의 도망치다시피 일본으로 건너갔다.⁸³⁾

‘나혜석 콤플렉스’라는 말이 종종 쓰인다. 나혜석같이 재주 있고 교육받은 여성은 오히려 불행해 질 수 있다는 말이다. 1896에 수원의 갑부 집 나씨 집안에 태어난 총명하고 아름다운 나혜석은 장안의 화제였다. 1913년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

81) 김순애, 「근대 한국 자수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75, 10쪽.

82) 허동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규방 문화』, 현암사, 1997, 43쪽.

83) 심철웅, 「동경여자미술학교와 한국근대미술」, 『월간미술』, 2003년 4월.

업할 때는 최우등이었다. 선각자 집안으로 당시 여자로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일본 유학도 하였다. 서양 그림을 본적도 없고 유화 물감을 ‘고약’이나 ‘쥐똥’ 줌으로 알았던 시대 동경 가서 ‘양화’를 전공할 만큼 선진적이었다. 그녀의 모든 행보는 부덕과 살림을 중시하는 전통 여성과 반대였다. 교육받은 신여성답게 자신의 애정 표현도 자유로웠는데 그러나 이 자신만만한 삶으로 나혜석은 집안에서 내쳐지고 거리의 행려병자로 죽게 된다. 나혜석의 조카 나영균은 고모인 나혜석을 이렇게 기억한다.

내가 고모를 처음 본 것은 우리가 서울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1941년의 일이었다. 어느 날 학교를 파하고 집 앞 비탈길을 올라가는데 동네 아이들이 떼를 지어 어떤 남루한 할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보였다. 회색 승복을 입은 그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지척거리며 비탈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아래턱이 내려앉아 입은 벌어진 채 덜덜 떨리고 안경 렌즈 뒤에서 유난히 커 보이는 눈동자는 초점 없이 멍청해보였다. 아이들의 무리와 함께 걸어가던 나는 그 할머니가 우리 집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녀가 나의 고모라는 것을 알고는 다시 한번 놀랐다. 어머니는 고모를 건넌방에 숨겼다...고모를 보면 아버지의 벼락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머니는 고모를 숨겨야 했다. 84)

여기에서 아버지란 나혜석의 오빠 나경석을 말한다. 이 오빠의 지지로 나혜석은 여자의 교육이 금기시 되는 시기 일본 유학까지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바깥교육을 받아 당당했던 나혜석은 여필종부와 정절이 목숨보다 중한 당시 연애 사건으로 장안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곧 사랑했던 오빠와 친정에서도 버림받고 1946년 52세의 젊은 나이로 거리를 떠돌다 죽음을 맞았다. 그 시대 보통의 집안이라면 딸들이 재주 있어도 바깥 교육이 딸을 망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행려병자로 죽음을 맞았으니 나혜석은 여자가 여필종부 안살림에 충실하지 않고 바깥바람 들 때 얼마나 비참해 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인이었다.

130여명 동경여자미술학교에 유학한 한국 여학생들이 자수를 전공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서이다. 집안에 충실하고 부덕을 갖춘 순종적인 여자가 되는 길만이 여자의 살길이었던 시대, 전통 부덕의 상징이었던 자수는 신교육을 갈망하던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다. 1915년 경기도 개성에 태어나 1935년 같은 학교 자수과에 유학하였던 박을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자수에는 취미가 있었으나 이것을 내 평생의 업으로 삼으리라고는 당시 생각하지 못했었다. ...문학소녀로서 넓은 세계에 대한 꿈과 호기심을 키웠다...여고를 졸업

84) 나영균, 『일제시대, 우리 가족은』, 황소자리, 2003, 195~196쪽.

하며 서울로 올라와 이화여전 영문과 예과에 입학했다. 서울의 생활이 개성에 비해 낯설고 폭이 넓게 느껴졌지만 나는 웬지 무언가 다른 더 넓고 큰 세상으로 가야할 것 같은 공상에 잠기곤 했다. 마침 이종사촌언니가 일본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방학 때 고향을 찾은 언니에게 동경유학에 대해 이것저것 물으며 도움을 청했다. 집안에서는 어린 딸을 멀리 떠나보낸다는 것이 불안하여 동경 유학을 반대하셨으나 한번 마음먹으며 꼭 해내야 하는 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미술대학을 선택한 것도 사범과 자수부를 선택한 것도 언니의 조언에 따라서였다.⁸⁵⁾

여성 살림, 부덕의 상징이었던 자수는 새로운 세상과 신교육에 열망이 가득한 여성들이 그마나 신교육을 가능하게 하였던 과목이었다. 박을복은 1933년 호수돈 여고를 졸업하고 1937년 동경 여자미술전문학교 사범과 자수부를 졸업하였다. 호수돈 고등여학교 교사로 재직하였고 1938년 조선미전 입선, 1961년, 1962년, 1963년 국전 입선, 1962부터 97년까지 개인전 총 6회를 가진 대표적인 자수가이지만 자수라는 여성적인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박을복은 평생 작업에 매진해 현재 서울 우이동에 자신이 살던 살림집을 개조해 만든 박을복 자수 박물관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교육받은 데로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키기 쉽다. 여성들이 바느질과 살림을 가까이 하기를 바라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바느질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다만 그 일이 공사 이분법의 '사적영역'의 '살림'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사회는 아무런 공식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5. 자수가의 한

한상수는 대한민국 자타가 공인하는 자수 일인자이다. '자수패불'로 제 6회 전승 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고 198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80호로 지정되었다. 올해 80인 그는 20살 때부터 60 평생을 자수에 바쳐온 셈인데 어린 시절 동네 칭찬을 한 몸에 받을 정도로 자수라면 어릴 때부터 자신 있었다고 한다. 그가 본격적으로 이 길에 들어선 것은 한국 전쟁 막바지인 1953년, 동경여미전 출신의 자수계의 대모 조정호 선생을 만나면서이다. 그 후 그는 전통 자수를 공부하기 위해서 옛 자수 품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고 수집도 했다.⁸⁶⁾ 1963년 수립원 자수 연구소를 열어 후학을 가르치고 60여 가지 한국 자수기법을 복원한 책도 출간하였다. 1971년

85) 박을복 자수 박물관 웹사이트, www.embromuseum.com

86) 『아시아경제』 2013년 9월 6일, 『농민신문』 2010년 6월 16일.

기본 자수, 1974년 이조자수, 1979년 흉배, 1983년 불교자수를 출간하면서 한국 자수를 정립하였다.

여든의 나이를 맞아 한상수는 2014년 봄 ‘한상수 60년 전’을 계획하고 있다. 스무 살 때부터 육십 평생을 자수에 받쳐 대한민국 자수명장에 오른 한상수는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러나 의외의 답을 한다. 수공과 품이 많이 들기로 자수만한 것이 없다. 한 땀 한 땀 시간과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 자수인데 60여년 그가 쏟아 부었을 시간에 숙연해진다. 그러나 정작 그는 그 더디고 힘든 노동이 힘들었다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 오히려 수를 놓을 때는 ‘신이 나고,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은데’ 정작 힘든 일은 자수를 여자들이 집에서 하는 ‘소일거리’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동안 학교를 세워보고도 싶었고, 학자가 나와 주기를 기대했지만 이제껏 제대로 연구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자수가 예술품으로도 고급 상품으로도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⁸⁷⁾

고 하소연한다. 우리 전통 자수가 가진 우수한 기술과 세련된 아름다움, 오랜 역사에도 제대로 입지를 갖추지 못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무관심’이 가장 문제라고 한다. 평생 실과 바늘과 싸워야 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그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자수를 예술로 보지 않고 자수가를 ‘쟁이’쯤으로 보는 인식이 더 그를 아프게 했다.

한상수가 돈 없고 해서 자수 하는 줄 알아요. 자수는 쟁이로 불려요. 수는 이론이 있어야 해요. 지금 명지대학인데 그때 나는 서울 물리 사범대학 출신이었고 당시에는 2년제 이지만 그 후에 국립 자미원 수예과 양재과에서 가르치고 경기고녀에서 가르치고 정수 직업 훈련소에서 가르쳤어요. 74년 ‘이조의 자수’ 책을 내고 83년 ‘불교 자수’ 책을 내었어요. 내가 항상 새로운 것을 좋아해요.

그는 자수가 기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는 과거의 한국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복원하는 일을 하는데 일본식 서양식 중국식 자수에 밀리던 한국 자수를 복원하기 위해 수기법이 다른 한국 자수법을 복원하여 책으로 정리하였다. 60여가지 한국 수를 정리 복원하였을 뿐 아니라 사라져 가던 ‘안주수’ 기법을 전수받았다. 평안남도 안주는 예부터 명주가 유명하고 자수를 배우는 남자들이 양성돼 있었던 것이다.

87) 『아시아경제』 2013년 9월 6일.

수 뿐 아니라 자수품들, 왕가의 자수품이나 관가나 민간에서 쓰던 복식류, 쓰게 같은 여성 장신구나 신발, 혼인 제사 민속품 등 자수가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수집하였다. 자수는 의복, 장신구를 넘어서는 데 주거 장식용 병풍이나 종교적 목적으로 불사에도 이용되었다. 그래서 한상수의 작품은 고고학적인 복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분에 따라 용 기린, 사자 공작 해태 등이 각 흉배보자기 한복, 노리개 등에 어떻게 나타나는 지 추적하였다. 삼국시대 천수국수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제자들과 함께 20년을 소요했으며 조선시대 순조임금의 딸 복원공주(1818-1832)가 혼인할 때 입었던 대례복을 복원하였다. 화려하기 그지없는 이 활옷은 길복을 의미하는 각종 화훼, 과일이 수놓아져있고 보문과 색실 수무늬에 테두리가 금실로 둘러져 있어 궁궐의 공예양식을 아낌없이 보여준다. 자수 대례복은 공주의 6대손 김귀년씨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를 제자 대여섯 명과 다섯 달에 걸쳐서 복원한 것이다.⁸⁸⁾

한상수는 자수를 ‘바늘과 실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이야기한다. 60평생 자수에 몸바친 그는 자수를 ‘미술과 공예가 혼합된 종합예술’이라고 평한다. ‘미적 감각과 기능성을 실과 바늘을 통해 잘 담아내야 한다는 것’⁸⁹⁾이다. 그는 자수가 미적 극치라고 이야기 한다.

자수는 아름다움의 극치예요. 문학도 아름답지만 제일 아름다운 것이 자수라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세상은 자수가 마치 규방여성의 인내와 성품을 위한 가사쫄음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라며 오래 쌓인 섭섭함을 털어놓는다.

김현희도 마찬가지로 슬픔을 토로한다. ‘보자기’를 한다고 하면 백이면 백 ‘도자기냐’라는 질문을 한다.⁹⁰⁾ 그만큼 보자기 같은 수보에는 인식이 없다는 뜻이다. 조선 궁중 자수의 맥을 이어오는 김현희는 1994년 한국전승공예대전에서 국무총리상 수상하였고 이어 97년에 문화재청에서 ‘자수명장’으로 인정받았다. 허동화 자수박물관장이 ‘신이 내린 솜씨’로 극찬하는 그는 수에 있어서 최고의 장인이다. 어렸을 때부터 손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나 잘 했다고 한다. 중학교 때 그림을 그리면 스승이 ‘고등학생보다 낫다’고 했고 붓글씨를 쓰면 ‘22년동안 가르쳤지만 이런 아이는 처음’이라고 했다.

어머니가 수를 좋아해서 수를 배우기 시작했다. 윤정식 장인은 조선 궁중의 수방나인에게 직접 자수를 배운 수예가인데 당시 주위 부녀자들을 상대로 자수를 가르

88) 한상수 박물관 웹사이트(www.hansangsoo.com); 『아시아경제』 2013년 9월 6일.

89) 『농민신문』 2010년 6월 16일.

90) 『매종(Maison)』 2010년 2월.

쳐 주고 있었다. 이곳에 어머니가 다니기 시작했는데 김현희는 어머니가 가져온 수본을 보고 수를 따라 놓았다고 한다. 어머니 편에 전해진 김현희의 자수를 본 윤정식은 ‘이 아이는 내가 끼고서 가르쳐야겠다’ 했다고 한다. 이때가 64년이었고 그때부터 김현희는 스승이 정릉으로 이사 간 68년까지 매일 그의 집으로 가서 수를 배웠다. 처음에는 베갯모를 배우고 그 다음 한문 전서를 놓았다. 자수만이 아니라 활옷 흉배 같은 바느질의 모든 것을 익혔다. 윤정식 선생은 김현희에게 수본까지 물려줄 정도로 제자를 아꼈다.

김현희의 하루는 구도의 길을 가듯 수에 집중되어 있다.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바느질 하는 그는 저녁 먹은 뒤 두세시간 잠들었다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바느질을 할 정도로 수에 대한 치열한 열정을 지녔다. 당시만 해도 여자가 바느질을 잘하면 샅바느질로 연결되던 시대였다. 그러나 스승은 ‘네 바느질은 샅 받고 팔개 아니다. 작품을 하라’고 일깨워주었다. 먹고 살려고 꽃꽂이도 해보고 꽃집 쓰는 리본을 맡아주는 부업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밖에 볼일 있어 나가면 주머니에 리본 천을 잔뜩 넣고 가 걸어가면서도 리본을 접을 지라도 자수로 돈 벌 생각을 안했다고 할 만큼 예술로서의 자수에 자부심이 강하다.⁹¹⁾

초창기에는 이불보, 베게보 등 일상의 다양한 형태를 하다가 1986년부터 수가 놓인 보자기 곧 수보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조선 궁중자수 도안을 사용한다. 수보의 문양이 해학적이고 아름다워 옷과 그릇에 디자인해도 손색없다고 고한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고 순박하면서 해학적인 수보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훌륭한 도안을 남겨준 선조에게 감사한다고 한다. 그는 이 수보에 40년의 예술가적인 열정을 지켜왔다.

머릿 속에 남아있는 그림을 내 보자기에 다 담으려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 어찌 될 수 있겠어요.. 난 이제 전시를 해도 내 작품을 안 팔아요, 내 자료로 모아놔야지....⁹²⁾

그가 하는 보자기 작업도 예술이자 고고학에 버금가는데 보자기는 사용계층, 제작 방법, 구조, 문양의 유무, 종류, 용도 색상 재료 등을 기준으로 매우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궁궐에서 사용하는 것은 궁보, 민간에서 상용하는 것은 민보,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던 특수 의식용 보가 있고 제작 방법에 따라 수보, 식지보 등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물건을 포장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밥상보 이불보 옷 보 등 일상생활에 구석구석 쓰였고 복을 비는 종교적 주술적 의미도

91) 『한국일보』 2004년 4월 20일.

92) 『매종(Maison)』 2010 년 2월.

있다. 자수와 천이 어우러진 그의 보자기 작업은 또 하나의 고고학이며 창작이라고 할 수 있다. 박물관에 가서 옛 자수도안을 찾아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재창조하기도 한다. 비슷한 도안이라도 해도 그는 색의 배합과 형태로 네, 다섯 개로 다시 바꾸어 놓는다. 조각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색의 조합이다. 꽃을 잘 기르는 김씨는 ‘자연에서 많이 배운다’고 했다. 단풍 든 오대산을 보고 온 다음에는 붉은 계통 천을 모아 ‘낙엽진 오대산’을 만들기도 했다.⁹³⁾

인천 무형문화재 13호 김계순도 마찬가지이다. 1923년 함경남도 4남 1녀 외동딸로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예술 재능이 많아 자수시간 자수 밑그림을 그릴 때면 예술 표현이 풍부했다고 한다. 숙명여대 기예과를 졸업하였고 미술에 대한 꿈으로 중국 대련 미술학교에 유학하였다. 1953년 국방부에 정훈 문관으로 근무하던 중 프랑스 기관의 요청으로 자수 도안과 수를 맡을 기회가 생겼다. 생각지도 않게 맡은 자수품이 완성되자 상대방에서 ‘너무 좋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고부터 본격적인 자수의 길에 들어섰다고 한다. 김계순은 원래 회화적 소질이 풍부해 밑그림도 복사를 하기보다 직접 붓으로 천에 그려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김계순의 수는 자연 염색으로 시작하는데 숨겨진 색을 자연에서 찾는에서 시작한다. 전통 자수를 현대화하여 현대 미술과 마찬가지로 추상으로 수작업을 할 뿐 아니라 실험적으로 실을 대신하여 머리카락으로 초상화 자수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고고학에 버금갈 만큼 지적이고 현대 미술에 못지 않는 창의성에 변덕이며 미적으로도 일급인 자수 작업은 한땀 한땀 공들여 만들어지고 나면 규방 공예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이 수보는 일급의 미적 성취를 보여도 고가의 현대 미술 작품 같은 인식이 없다. 김현희 말대로 ‘보자기를 한다’면 ‘도자기냐’는 질문으로 돌아온다.

6. 자수공예와 미술

그러나 실상 자수를 질적으로 보면 ‘예술’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현대 미술은 재료의 한계를 넘어선 지가 오래다. 캔버스를 칼로 찢기도 하고 물감을 통째로 쏟아 붓거나 던지는 것도 모자라, 캔버스에 담배꽂초나 오줌을 뿌리기도 한다.⁹⁴⁾ 쓰레기를 주어서 작품을 하고 폐차를 기계로 우그러 뜨려 조각품을 만들기도 한다. 이 작품들은 예술적인 성취가 엄청난 걸작들로 여겨진다. 그런데 한 땀 한 땀 품이 들

93) 『한국일보』 2004년 4월 20일.

94) 대표적인 예가 앤디 워홀이다.

고 미적 성취가 일급인 우리네 자수는 왜 예술이 되지 않을까? 쓰레기도 담배꽂초도 현대 미술이 되는데 왜 유독 실과 바늘은 되지 않는 것일까? 공사담론은 재주 있는 여자가 하늘로 비상하지 못하고 한없이 땅으로 끌어내는 뜻이다. 한상수는 ‘수에 대해 인식’이 나쁘다고 단적으로 말한다.

수에 대한 인식이 나빠요 학생들도 가르치면 좋은데 유치원에서 만들기로 해보았더니 손 찌른다고 하면서 안 가르쳐요. 손 찌르는 것 한 본도 본적이 없는데 수에 대한 인식이 나쁘니 안 가르치려 해요

결국 해결책은 그의 말대로 수를 ‘예술화’시켜야 된다. 실상 자수를 현대 미술처럼 보이게 하는 일은 아주 쉽다. 한상수는 자수 현대화에 따라 추상화에 영향을 받은 자수도 작업한다. 한상수도 김계순도 자신들이 추상 자수를 했더니 미술 하는 화가들이 놀란다고 입을 모은다.

내가 추상화로 수를 났더니 깜짝 놀라고 화가들이 수도 이런 것을 하냐고 해요

현대 미술처럼 추상 자수를 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실과 바늘이 들어가는 자수는 아무리 해도 ‘집에서 여자들이 인고로 하는 규방예술’ 인식이 있다는 것이다. 식구들 옷과 이불 같은 것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 천 조각을 모아두었다 수를 놓았던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쓰레기도 폐차도 현대 미술이 되지만 여자들이 집에서 옷 만들어 주다 남은 천 조각 실타래로 작품을 하면 현대 미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집에서 여자들이 하는 ‘살림’이지 ‘미술’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작 해보아 ‘공예’이지 ‘미술’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상수, 김현희 같은 사람들도 ‘장인’, ‘명장’으로 불리지 ‘예술가(artist)’가 되지 않는다. 한상수 말대로 ‘쟁이’라는 것이다.

1957년 이화여대 자수과를 나와 유럽에 유학, 벨기에의 루뱅 시립 아카데미 장식 미술과와 라 캉브르 국립시각예술학교 연조각과(軟彫刻科)에서 수학한 차영순은 젊은 예술인답게 실과 바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준다. 그는 자수 공예와 현대미술을 잇는 교두보이다. 차영순은 현재 이화여대 섬유예술과 교수로 재직중인데 2004년 서울에서 열린 개인전은 섬유를 사용하였지만 섬유와 실의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회색 바탕에 노란 천이 놓여진 그의 작품은 몬드리안 같은 기하 추상을 연상시킨다. 2011년의 전시에서는 닥종이를 꼬아 실처럼 씨실과 날실로 만들었다. 일렬로 늘어선 실이 튀어나와 부조 같은 느낌이다. 차영순은 실과 바늘 섬유가 단순히 살림의 도구가 아니라 현대 미술의 완벽한 미디어임을 보여준다.

차영순에서 보듯 자수가들의 한이 쌓이는 공예와 미술의 경계가 따지고 보면 식연치 않다. 겉보기에 미술과 공예를 분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고가의 미술 작품을 능가하는 미적 완성도와 정서적 깊이를 지닌 공예품이 얼마든지 있기 많다. 실상 공예(craft)와 동떨어져 ‘미술(fine arts)’이라는 장르가 생겨난 것은 그리 오래지 않은 일이다. ‘공예(craft)’라는 말은 원래 창의적이고 새로운 작품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의미상 ‘미술(art)’과 동의였다.⁹⁵⁾ 라틴어 ‘ars’는 현재의 우리가 사용하는 ‘미술(art)’의 어원이 되었는데 로마시대 이 말은 ‘공예(craft)’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두 낱말 모두 ‘기술’을 의미하였다.⁹⁶⁾ 실지로 미술과 공예가 분리되기 시작한 것은 근자의 일이다. 공예와 독립된 미술이라는 장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부터이지만 오늘날에 가까운 의미의 미술이라는 분야가 생긴 것은 18세기였다. 같은 세기 미술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미학도 이때 처음으로 출현하였다. 우리가 흔히 쓰는 영어단어 ‘미술(fine arts)’이 생겨난 것은 그보다 늦어 18세기 후반의 일이었다.⁹⁷⁾

공예와 미술을 가르는 결정적인 경계는 ‘유용성’이다. 현대 미학을 확립시킨 칸트의 영향으로 칸트 이후 미는 ‘무목적성’, ‘무용성’과 결합되었고 칸트 미학이 기반이 되어 ‘무용성’이라는 것이 현대미술과 그 이외 것 곧 ‘공예’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다. 아무리 그 미적 특성이 뛰어나다고 해도 실생활에서 쓸 용도로 제작되었다면 이는 ‘미술’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⁹⁸⁾

그러나 공예는 여성 미술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쟁이다.⁹⁹⁾ 여성주의관점에서 공예가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여성의 작품들이 ‘미술’이 아니라 ‘공예’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공사규범에 저촉되어 있는 여성들의 미적 작업은 대부분 집안에서 식구들을 위해 실용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공예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자수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미술사는 ‘미술(fine arts)’에 대한 역사이다. ‘공예’로 분류된 여성들의 작품이, 그것도 살림에 요긴한 물건들이 무용성을 주장하는 ‘미술’의 역사에 남을 리가 없다.

이 때문에 70년대 여성주의 운동이 거세지자 서구에서는 켈트 논쟁이 촉발되었다. 1960, 70년대의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여성들이 하던 켈트가 하나의 예술 장르가

95) Kenneth R. Trapp, *A Theory of Craft :Function and Aesthetic Express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7, p.13; 신지영, 「여성의 역사쓰기: 자수 공예와 한국현대미술사」, 『여성의 눈으로 보는 근대기의 여성자수』,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2011.

96) Trapp, p.210.

97) Trapp, pp.71~73.

98) Trapp, pp.215~217.

99) 미술사에서 공예와 미술에 대한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1980년, Griselda Pollock 1983, Rozsika Parker 같은 미술사가에서 었다. 이들은 서구에서의 자수와 그림의 변화하는 위상을 역사적으로 리서치 하면서 순수미술의 위상을 탈신비화하였다.

되었는데 현재 ‘퀼트 아트(quilt art)’ 혹은 ‘아트 퀼팅(art quilting)’은 공예라기보다 미술품(fine arts)로 분류된다. 1971년 휘트니 뮤지엄의 전시, ‘미국 퀼트의 추상 디자인(Abstract Design in America Quilts)’은 퀼트가 예술품으로 인정받는 이정표적 전시였다. 이 전시에서 퀼트는 마치 예술 작품처럼 하얀 벽에 한 작품 씩 독립적으로 전시되었다. 퀼트는 보통 시장의 매대에 아무렇게 쌓여 있기가 보통인데 갤러리의 흰 벽에 하나씩 독립적으로 전시되자 미술품과 진배없었다. 마침 퀼트는 당시 유행하던 넓은 색면과 기하학적인 패턴을 사용하던 색면 추상, 마크 로드코, 바넷 뉴먼의 작품과 별 차이가 없어 보였다.

휘트니 전시는 여러 나라를 순항하였고 이 후에도 1986년 로스앤젤레스에스부터 시작한 국제 순회전인 ‘퀼트전 (The Art Quilt)’ 전, 1976 뉴욕 컨템포러리 공예 미술관에 열린 ‘새로운 미국 퀼트(The New American Quilt)’ 등에 의해 여성의 실과 바늘은 새로운 위상을 보여주었다. 이 즈음 순수 미술 장르에서도 여성주의에 공감하여 실과 바늘로 작업하는 Jean Ray Laury, Radka Donnell 같은 여성 미술가들이 나타나므로 실과 바늘의 다른 위상을 보여주었다.

마침 1980년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지 밴드 퀼트(The quilts of Gee’s Bend)’는 기성 현대 미술에 대한 의문과 여성 예술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확장 하였다. ‘지 밴드는 퀼트’는 알라바마 주의 지 밴드(Gee Bend)라는 곳에 거주하는 흑인여성들이 집단으로 만든 퀼트이다. 이들이 여기에 살게 된 것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미국 흑인의 역사가 그렇듯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온 이들은 이 곳 목화 농장에서 일하였다. 그 백인 주인의 이름이 조셉 지(Joseph Gee)였다. 여성 노예들은 짬이 나면 모여서 고된 나날 속에서 짜투리 천을 가지고 퀼트를 만들었다. 이 퀼트는 물론 험한 시절 아이들을 덮어주고 식구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밴드 퀼트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그 독특함과 아름다움 때문이다. 대담한 아프리카 패턴의 영향을 보이고 있는 그들의 퀼트는 독특한 색채 배합과 패턴을 보이고 있다. 공동체를 지탱해왔던 힘과 그 예술적 아름다움 때문에 1969년부터 지밴드는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1983년 브링검 도서관에서 구술사와 함께 전시가 시작되었다. 이어 2002년 휴스턴 미술관에서 이 퀼트에 대한 미술적인 조명이 벌어졌다. 그 때까지만 해도 고상한 미술작품만을 주로 취급하던 휴스턴 미술관 관장, 피터 마리조(Peter Marizo)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미술관이 이러한 작품을 전시하면서 더 나은 장소가 된다는 것이다”라는 말로 여성 미술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곧 지 밴드 퀼트는 현대미술의 중심지, 뉴욕의 휘트니 뮤지엄에서 전시되고 더불어 “미국이 이때까지 생산했던 예술작품 중 가장 기적적인 예술”이라는 것으로 평가받음으로써 위상을 달리 하였다. 지밴드의 퀼트는 그 후에도 전국적

으로 투어 전시를 하였는데 스미소니언 미술관, 필라델피아 미술관 등 미국 대표적인 미술관을 순회하였다. 100)

여성의 실과 바느질은 현대 미술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한다. 독립성과 일회성, 개인의 영감, 천재를 주장하고 또 어떤 목적에도 종속되지 않는 자유로움, 곧 무용성을 주장하는 현대 미술을 새삼 반문하게 한다. 험한 세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가족의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아니면 무너져 내리는 공동체를 이어가기 위해 여자들이 묵묵히 만들었던 이 아름다운 천조각들은 왜 미술이 되지 않는단 말인가? 70년대 80년대 여성주의의 논의와 더불어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이 나타났고 예술로서의 퀼트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졌다. 공적 영역에서 개인적으로 오만하게 제작되는 현대미술과 집이라는 공간에서 살림의 형태로 만들어 지는 여성들의 미적 작업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짜투리천으로 이름 없이 그것도 집단으로 만들어 지는 이런 미적 작업들은 어느 모로 보나 현대 미술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옆에 있는 누군가를 보살피려는 이 한땀 한땀의 예술 작업들은 그 바깥의 정의야 어찌됐던 진정한 예술의 무게가 실려 있다. 현재 휴스턴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는 여성 예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퀼트 축제가 열리고 있다.

7. 살림의 또 다른 명인: 장과 김치의 명인

바느질과 더불어 음식 또한 살림의 커다란 축이다. 내훈에 따르면 여성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봉제사 접빈객’으로 ‘음식을 정갈히 하여’ 조상과 집안어른을 모시는 것이었다. 딸들은 가사 일을 도우면서 가정교육으로 음식을 배웠다. 음식 솜씨 좋은 집안의 딸들이 더 좋은 색시감이 되곤 하였다. 나주 나씨 반계공파 25대 종부 강순의는 ‘손맛 좋기로 유명했던 친정 어머니 덕에 얼굴 한 번 안보고’ 나주 나씨의 종부가 되었다. 종갓집 며느리로 일 년에 제사만 14번인 시집에서 그는 봉제사 접빈객을 위해 시어머니로부터 고된 음식 수련을 받았다.

덕분에 200여 가지의 김치와 130여 가지의 장아찌를 포함해 1000가지의 전통음식을 만드는 명인이 됐다. 총 5대가사는 충충시하에서 익힌 음식솜씨이다. 떡 솜씨만 하여도 식구들이 방앗간 떡을 싫어해서 집에서 만들었는데 제철에 재료로 만들어 제철 맛을 낼 뿐 아니라 자연색으로 물들여 모양도 좋게 해 냈어야 했다고 한다. 그래도 음식 만드는 것을 싫어하지 않아 살림 사는 주부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말한다.

100) <http://www.smithsonianmag.com>, <http://en.wikipedia.org/wiki/Boykyn>

힘들지만 식구들 건강 지켜 주려면 주부들이 항상 구정물에 손을 담가야 돼. 그러지 않고는 안돼, 나도 손 예뻐지고 싶고 몸매도 예뻐지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식구들 건강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어떨 때 김장철에는 두, 세 시까지 김치를 절이고 하지 ...우리가 죽으면 전통음식은 끝나잖아. 지금 가르치는 것은 선생도 퓨전이잖아.

이 혹독한 종가 집 살림 때문에 '전통음식'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강순의의 경우 '사방 80리가 종가 소유였던 땅을 다 팔 정도로 하는 사업마다 잘 안된 종손' 때문에 자신이 '명성'을 얻었다고 한다. 강순의는 김치 명인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는데 벌이는 사업마다 실패하는 남편 때문 이라고 한다. 다 팔아먹고 가진 것이라고는 친정과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살림, 음식 솜씨뿐이었다. 남편이 승승장구 하였다면 주부의 '살림'으로 끝나고 말 음식 솜씨가 거리에 나왔게 되었을 때 공적 영역으로 나왔다. 폐백 음식으로 시작했는데 한 사람 해주면 그 사람이 두어명 데려다 주었다고 한다. 현재 강순의는 김치 장인으로서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강순의 경우는 여성의 가사 일이 얼마나 전문적인가를 보여준다.

경기도 안성 일죽면에 자리 잡은 서일농원 서분례 원장은 살림을 기업화한 사람이다. 가족에게 좋은 장을 먹이기 위해 시작한 콩 농사와 장 담그기가 입소문을 타 지금은 2천500여 개의 장독에 된장과 간장, 고추장과 장아찌가 그득하다. 거무스름한 장독이 줄을 서 장관을 이루는 그의 농원은 이제 사람들이 밀려오는 관광지로도 유명하데 처음 시작은 보잘 것 없었다.

1년 농사를 지으니까 콩 5가마가 나오더라고. 그걸로 메주를 만들어 간장, 된장을 담그니까 꽤 많이 나와.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돌렸지. 반응이 좋아 다음 해엔 콩을 10가마로 늘렸어. ...우리 것을 지켜 가면 그것이 가장 좋은 먹거리야. 요즘 보니까 웰빙이다, 슬로우푸드다 찾고 있던데 그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야. 우리가 옛날부터 먹어 온 게 바로 최고의 건강식이야. 101)

현재 농원은 3만 평으로 늘어났다. 11월 12월부터 장 담그는 일이 시작된다. 콩을 가마솥에 삶아 초겨울에 메주를 띄운다. 메주는 지붕이 있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말려야 한다. 이 때문에 잘 정돈된 농원 한편엔 콩을 삶는 데 쓰는 13개의 무쇠가마솥이 장작불을 때는 부뚜막마다 걸려 있고 원두막 지붕 밑엔 건조된 메주들이 한가득 달려 있다. 재래 방식으로 장을 담그는데, '어머니의 그리운 손맛'이라는 살

101) 『연합뉴스』 2007년 5월 16일.

림의 우수성을 일찌감치 여자들의 사적 영역에만 두지 않고 공적 영역으로 끌고 나와 상업화한 셈이다.

그의 살림 사업은 상업화, 전문화에 그치지 않고 관광분야까지 폭을 넓혔다. 25000개의 독이 늘어져 있는 농원은 장관을 이루는데 ‘식객’ 같은 영화 촬영 장소로 쓰여 이미 경기도의 관광 명소가 되었다. 농원 앞에는 수많은 소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데 댐건설로 수몰위기에 있는 소나무들을 옮겨 심었다고 한다. 휘고 구부러진 제각각의 형태가 예전 우리네 마을을 생각하게 한다. 줄을 지어 늘어선 장독대, 무쇠 솥이 걸려 있는 부뚜막, 누런 메주덩어리가 열을 지어 걸려 있는 원두막, 이 모든 풍경들은 기억 저편에 묻어 두었던 옛 살림집을 끌어내고 있다. 나지막한 기와 돌담에 소나무와 장독대가 있는 풍경은 조선 살림집의 미감을 이 농원에 적용한 것인데 그 방향이 맞아 관광객이 줄을 잇는다. 이 농원은 장이라는 음식 살림 뿐 아니라 살림집의 공간구성, 그 미감까지 공적 영역으로 끌어내어 상업화 전문화 한 데 성공하였다.

무시되고 하찮게 여겨졌던 여성들의 일, 음식도 전지구화 시대 서구에서 새로운 문화운동으로 주목 받고 있다. 슬로우 푸드는 1986년 이태리에서 만들어졌다. 슬로우 푸드는 말 그대로 ‘느린 음식’이다. 맥도날드와 버거킹 같은 ‘빠른 음식, 패스트푸드’에 대항한 사회 문화운동으로 시작되었다. 몇 개의 회사가 쏟아내는 빠르고 거친 음식은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지역의 음식 문화는 사라지고 있다. 지역 식당 및 지역 경제가 고사할 뿐 아니라 세계인의 입맛도 변하고 있다. 각 지방마다 발전시켜오던 조리법이 사라지자 음식의 문제는 이제 단순히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문화 정체성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느린 음식’은 오랜 시간 지역의 자연에서 나는 재료로 발전해온 조리법으로 만들어지는 음식이다. 말 그대로 느리고 오래된 음식이다. 바다가 가까운 지방이면 바다와 갯벌에서, 고산지면 고산지대로 그 자라나는 먹거리가 다르다. 이들은 세월에 숙성한 조리법을 가지게 되는 데 이 지역 음식은 오랜 여성들의 살림이었다. 이 살림이 전지구화 시대 지역의 문화 정체성으로 중시된다. 그래서 느린 음식운동은 오래된 전통 조리법을 찾아내고 이를 기록화 문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느린 음식의 이러한 음식, 문화 운동은 세계인의 공감을 얻어 현재 500여개국 각기 다른 나라에서 1000개의 지역 전통 음식을 모으는 카탈로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먹는 것은 살림, 여성의 일을 넘어 지역의 가장 독특한 문화인데 이 때문에 느린 음식의 음식 페스티벌은 음식과 여성을 넘어 지역의 문화 페스티벌이 되었다. 격년제마다 열리는 느린 음식 페스티벌에서는 요리사가 조리법을 공개하기도 하고 시연하기도 한다. 티벳 승려가 가져온 염소 치즈와 슬로바키아의 소세지, 알래스카 추운

날씨에서 말리는데 만 6개월이 소요된 연어 껍질 등 기후와 지역 특색에 맞는 특이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이 ‘느린 음식’ 축제에서이다. 감자튀김과 거칠게 만든 햄버그로 잊어버렸던 맛을 다시 기억하게 된다. 102)

느린 음식 운동은 ‘테라 마드레(대지의 어머니)’라는 지역 소농업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했고 현재 ‘테라 마드레’는 생산자 직매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전지구적 경제는 먹거리마저 일원화하고 있다. 음식은 매일 먹는 것이고 여자의 살림을 넘어 건강과 지역 경제, 문화 정체성에서 모두 중요하다. 그 먹거리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오고 어떠한 방법으로 조리되는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음식들이 마구 소비되고 있다. 일원화된 지구 경제에 지역의 땅이 생산해내는 농산물로 지은 오래 숙성된 조리법이 지역이 지켜야 할 정체성이다. 여성의 살림은 이제 지구화 시대 문화정체성의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8. 나가며: 살림과 여성의 역사를 위하여 - 힐테가르트의 예

남성중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는 여성의 일을 평가하지 않고 여성이 살아온 발자취,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여성, 남성이라는 성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는 공사이분법은 여성을 가정, 사적영역과 동일시하면서 무엇이든지 이 사적 영역의 일이라면 가볍게 평가한다. 아이를 키우고 음식과 옷을 만들고 나이트 사람을 보살피고 식구와 집안을 살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공적인 보상이나 기록도 없다. 여자의 살림이기 때문이다. 사회는 정치 경제 같은 공적인 영역만 중시하는데 많은 여자들이 집과 살림에 묶여 있었으므로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리 지 않을 수밖에 없다.

미셸 푸코가 이야기 하듯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이다. 즉 그 누구도 지나간 과거를 그대로 복원할 수는 없으므로 과거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역사는 과거의 모든 사실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건’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선택 과정이 힘의 관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 사회가 회고하는 과거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의 권력관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남성 중심으로 과거를 회상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공사 영역은 여기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역사는 남자들의 영역 즉, 정치 경제등 공적인 영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관례였다. 여자들의 살림이 아무리 식구들을 살리고 마을을 살린다고 해도 아무도 기록해 주지도 기억해 주지 않는

102) www.slowfood.com

다는 것이다.

여자들이 자존감이 낮다면 이는 살림의 역사를 하찮게 여기는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여성의 일을 평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하는 살림이 아무렇지도 않게 평가 받고 그 ‘하찮은 일’만큼 여자들이 존중되지 못한다면 여성들은 자신의 살림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해서도 자존감을 가질 수 없다. 주부들은 흔히 집안일을 다 하면서도 무슨 일을 하나고 물으면 ‘집에서 논다’라고 대답한다. 집안 살림은 ‘일’이 아니라 ‘노는 것’이라는 남성 중심사회의 일반적 시각, 곧 여성의 일을 무시하고 하찮게 보는 시각을 여성 자신도 알게 모르게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살림을 하고 집안을 살리면서도 주부들이 자존감이 낮고 우울증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여성주의 의식이 일찍 발달한 서구는 그래서 여성의 역사, 살림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작업을 21세기 민주사회의 큰 소명으로 삼고 있다. 여성은 계급, 피부색과 함께 분명 억압받는 또 다른 집단이기 때문이다.

2009년 독일의 여감독 마가레타 폰 트로타(Margarethe Von Trotta)는 ‘비전(Vision)’이라는 영화를 출시했다. 독일의 12세기 수녀 힐데가르트 폰 빙엔(Hildegard von Bingen)에 대한 영화이다. 마가레타 트로타라는 여 감독은 여성들의 지워진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잊혀진 위대한 여성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하였다. 그러던 중 이 12세기의 이 위대한 여성을 발견하고 20여년 준비했다고 한다. 지워지고 무시되는 여성의 위대한 자취를 찾으려는 여성주의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녀는 영화로도 역사로도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았을 것이다.

힐데가르트는 빙허각 이씨 같이 재능이 넘치는 여성이었다. 중세에 여성들이 책을 남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녀는 신학적 비전을 담은 3권의 책과 2권의 자연과학과 치료법에 대한 책, 3권의 성인들 전기, 77곡의 노래와 1개의 음악극과 300여권 이상의 서신을 남겼다. 관심도 방대해 신학에서부터 자연과학, 식물학, 의학 음악, 연극을 넘나들었다.

힐데가르트는 1098년 라인란트의 빙엔 마을의 귀족 가문의 10번째 자녀로 태어났다. 당시에는 흔히 그렇듯 독실한 그녀의 부모는 10번째 아이인 그녀를 하느님께 받쳐 10살 때 베네딕트 수도원으로 보내졌다. 중세의 수도원은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는데 수녀들은 사목의 목적으로 라틴어를 배우고 성경의 구절을 암송하는 교육을 받았다. 또 수녀들은 성경 필사본에 참여하여 글씨와 그림을 그리기도하였다. 힐데가르트는 수도원에서 지적 훈련을 받은 셈인데 어려서부터 하느님의 비전을 보는 신비한 능력을 지녔다. 그러나 그는 여성의 능력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사회에서 박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능력을 오래 숨겨야 했다. 42살 다시 비전을 보고 힐데가르트는 자신이 본 것을 남기는 작업을 한다. 그녀의 모든

저술과 작곡, 일은 모두 이 비전을 받아 적은 것이다.

힐데가르트 1151년 첫 번째 저서, Scivias(know the way of God)는 10년 간의 노고로 이루어진 저술로 1151년 완성되었다. 힐데가르트 학자 바바라 뉴먼은 이 책이 12세기라는 이른 시기에 포괄적인 기독교 신학의 형성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평가한다. 책은 성서의 중요한 주제를 모두 다루고 있는데 하느님의 권위, 삼위일체, 루시퍼와 아담의 타락과 구원의 역사, 마지막 심판 새로운 세상의 도래 곧 창조주와 창조의 원리를 다루고 있다. 그 뿐 아니라 하느님과 세상의 관계 성직자, 성체, 성령 묵시록 등 기독교의 방대한 주제를 보여주고 있다.

성서적인 작업뿐 아니라 힐데가르트는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베네딕트 수도원의 영성에 따라 식물과 약초, 치유에 대한 방대한 책을 남겼다. ‘창조된 다양한 자연의 차이 Subtilitates Diversarum Naturarum Creaturarum, (The Subtleties of the Diverse Nature of Created Things, 1151-1158)’는 두권으로 되어있는데 과학 의학 서적인 ‘자연역사, The Physica(Natural History)’라는 책과 ‘원인과 치료 Causae et Curae(Cause and Cures)’라는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자연의 역사(Physica)는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긴 장에는 200개가 넘는 식물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이 책은 땅, 물, 강, 공기, 나무 돌, 물고기, 새 고래, 파충류, 금속 등의 장도 있어 자연, 식물에 대한 세밀한 과학적 관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그는 병에 대한 책 ‘원인과 치유’(Cause and Cures)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는 다섯 개의 장으로 우주와 인간의 구성요소들 음식 조리법이 들어 있다.

힐데가르트의 비전은 신학, 과학에 그치지 않는데 그는 뛰어난 음악가였고 희곡 작가였다. 수녀들을 위해 77곡의 의례곡을 작곡했으며 선과 악의 영원한 싸움을 그린 최초의 도덕극을 쓰기도 했다. 힐데가르트는 교회음악의 창시자일뿐 아니라 도덕극이라는 희곡 장르의 창시자 극작가이기도 하였다.

힐데가르트는 교회 개혁가이기도 하였는데 남성만이 신의 비전을 보는 예언자 사제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사회에서 그녀는 예언자로 인정받았고 그 권위로 여성들만이 함께 하는 수도원을 열었다. 교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떨어져 나와 아이빙헨에 최초의 수녀원을 창설하였고 이때부터 그녀는 빙헨의 힐데가르트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녀는 고립된 수도원 생활을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 사회의 각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써 시간을 남겼으며 십자군 원정을 강행하는 당시의 교회에 반대하였다. 1179년 죽기까지 그녀는 네 차례나 예언자로서 설교자로서 설교 여행을 다녔다. 103)

103) <http://www.hildegard.org>.

오늘날이라고 해도 놀라운 헨데가르트의 업적이 알려진 것은 근자의 일이다. 지난 25년간 헨데가르트의 역사가 조금씩 세상에 빛을 보기 시작했고 2009년 그녀의 영화까지 만들어졌다. 역사를 ‘남자들의 이야기(his story)’, 히스토리(History)라고 하는 이유이다. 여자들이 하는 일이면 그 무엇이든지 ‘여성적’이라거나 ‘살림’으로 명명하여 하찮게 보는 뿌리 깊은 남성주의적인 시각이 빙허각 이씨나 헨데가르트 같은 위대한 여성을 오랜 망각의 무덤 속에 묻어 두고 있었던 것이다.

참고 도판



<사진 17> 박을복, [국화와 원앙], 1938년 비단 자수 60x128



1 국화(菊花)와 원앙(鸳鸯) Chrysanthemums and Mandarin Ducks

'조선미술전' 입선 작품으로, 6.25 전쟁 중 휴대기에 묻혀 버린 것을 다시 찾아서 본 모습에 기겁해 복원했다. 원앙 한 쌍을 주제로 한 이 작품은 대각선 구도로 위에 꽃과 한 쌍의 원앙이 배치되어 있는 작품이다. 왼쪽 공간은 시원하게 여백을 남기고 오른쪽 공간은 국화꽃으로 가득 채웠다. 기법은 두꺼운 필러프 감각이 느껴지게 실을 겹쳐 수를 놓았다.

2 사슴 Deers

이 작품은 산인들이 즐기며 애용했던 장생도(長生圖)의 여러 상징물 중 사슴을 주제로 수를 놓았다.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날 걷고 있는 한 무리의 사슴을 표현한 작품이다.

3 정(靜) Tranquility

경복궁에 있는 행원정의 면포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서양자수법인 아름답게 기법을 써서 큰 면은 천으로 처리한 뒤 굵고 거칠게 실을 꼬아 대담하게 수를 놓은 것이 특징이다. 1961년 구미 각국의 미술계를 돌아본 직후라 한국자수의 현대적인 방향을 모색해 본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사진 18> 박을복 2010년 박을복 자수관 전시 팸플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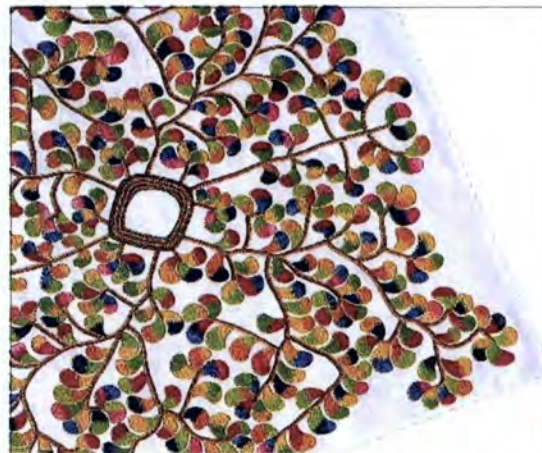
<사진 19>



<사진 20> 김계순, 2010년 인천무형문화재전시



<사진 21> 김현희, 자수 수보자기 EmbroiderePojaki,
명주 silk 48x48



제5회 김현희 자수보자기연구회전
5th Exhibition of Kim Hyun Hoo Embroidery & Boyagi Institute

2010. 7. 7(수) - 7.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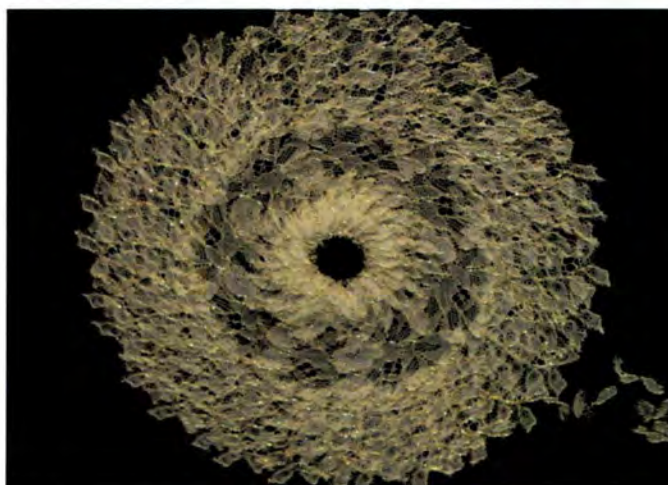
인사아트센터 4층

INSA ART CENTER

<사진 22> 김현희 자수 보자기 전시회 포스터 2010



<사진 23> 북촌 한상수 자수 박물관 내부, 가운데가 복원공주 활옷



<사진 24> 차영순, 2013 [바람에 날리는 꽃씨를], 캔버스, 비단, 레이스, 자수



<사진 25> 지 밴드 퀼트, 휴스턴 뮤지움



<사진 26> 퀼트 제작 중인 지밴드 여성들, 1937년

VI. 빙허각의 딸들이 만들어 가는 살림 공공화: 현실과 전망

김정희 (사단법인 가배울 대표)

1. 들어가는 말: 살림 공공화(公共化)=마을살림의 배경
2. 육아·교육의 공공화
3. 먹을거리 살림의 공공화
4. 옷·거주 살림의 공공화
5. 생태마을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마을살림
6. 살림 공공화의 심화·확산을 위하여: 거버넌스

1. 들어가는 말: 살림 공공화=마을살림의 배경

‘발전=개발=근대화’의 과정은 일상 삶을 규제하는 권력이 자본과 국가에 집중되면서 그 권력이 철저하게 근대 이전의 다양한 공동체를 해체하면서 형성되었다. 서구에서는 삼 세기 동안, 한국은 지난 ‘60년대 이후 이루어진 근대화는 지역 사회와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 시민, 다중(多衆) 등으로 명명되었고 과정에서 풀뿌리 자치는 상당히 훼손되었다. 예를 들면 아파두라이(Appadurai)에 의하면 근대 민족주의 견지에서 보면, 주민성은 순응적인 국가 시민을 배양하고 재생산하기 위해 존재한다. 근대 국가를 위한 현장성은 주민들이 역동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협동적으로 영위해가는 현장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유되는 향수, 찬양거리들, 기념거리들의 장이거나 국가적인 것들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성은 경제로서 거의 철저하게 감시된다¹⁰⁴⁾.

이러한 상황은 근대화와 더불어 남성우위의 노동구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꾸준히 진행해온 유럽과 달리 한국의 여성들에게는 취업 여성과 전업주부 여성 모두에게 억압적이다. 취업 여성에게 장시간 노동구조는 가정 밖의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게 함으로써 가임 여성 한 가구당 출산율 1.22명이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결과하고 있다. 2000년 대 들어와 민간과 국공립 보육시설이 늘어났고 전업주부 여성들은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고 오전에 여가를 보내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재취업을 위한 자기 계발에 시간을 보내지만,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이 미혼 시기의 경력을 인정받으며 전일제 노동으로 복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35세 이상 연령에서 비빈곤 상용직 평균 비율이 여성 40.3%, 남성 73%, 빈곤 상용직 평균 비율이 여성 9.5%, 남성 16.4%로 두 계층 모두에서 여성 상용직은 남성 상용직의 55~58%에 불과하다는 데서 알 수 있다¹⁰⁵⁾.

또한 전세계적으로 ‘근대화=산업화’는 자연을 한없이 파괴시키는 과정이기도 하였고, 서구에서 수 백년 동안, 한국에서는 반 세기 동안 진행되어온 산업화는 오늘날에는 지구 온난화로 압축되는 심각한 생태계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1970년 대에 이미, 산성비로 인한 생태계 파괴, 탄산가스 증가에 따른 기후 온난화, 대기 오염으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 화학물질의 과용으로 인한 부작용들, 사막화,

104) Appadurai, Arjun, *Modernity at Large-Cultural Dimension of Globaliz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8, 190~191쪽; 김정희, 『생명여성 정치의 현재와 전망』, 2005, 32쪽에서 재인용).

105) 조은, 「시장사회와 여성학 : 왜 여성주의인가?」, 『시장사회 : 감정의 정치경제학과 여성주의 대안으로서의 노동윤리학』(2013년 한국여성학회 제 29차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여성학회, 2013, 27쪽.

열대우림의 감소, 물의 오염, 핵 문제 등, 환경문제의 심각함이 드러나면서, 지구 멸망의 위기감이 대두되었다¹⁰⁶⁾. 최근에는 각종 암, 아토피, 천식 등과 같은 환경병(Environmental Illness), 광우병으로 압축되는 먹을거리 오염의 문제 등이 더해지면서, 이제 지속가능성의 위기는 암초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타이타닉호의 위기에 비유될 정도이다. 특히 오늘날 지구 온난화는 연이은 쓰나미 재앙이 보여주듯이, 인류와 지구상의 생명들에게 파국적인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정부 간협의체(IPCC) 제 4차 보고서는 21세기말 지구의 평균 기온은 최대 6.4°C 상승하고 해수면이 59cm 상승할 것으로 예견하면서 기후변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 최대의 과제임을 천명하였다¹⁰⁷⁾.

이같은 생태적 재앙도 여성, 살림과 무관하지 않다. 여성은 자기 자신 환경병의 피해자로서 또한 아토피, 천식, 자폐 등과 같은 환경병을 앓는 아이를 둔 어머니로서 생태계 파괴의 피해자이다. 다른 한편 환경파괴를 가져오는 의식주 생활재에 대한 무분별한 (과)소비의 주체로서 지구 생태 위기의 가해자이기도 하다.

이같이 기업과 국가는 ‘돈벌이 경제’에 몰입하여 이러한 경제 구조에 종속당한 생활인으로서의 여성과 남성, 아동이 삶에서 겪게 되는 온갖 역경과 자연의 황폐화와 생태계 파괴를 아랑곳 하지 않고 근대화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여성들은 기업과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듯이 치부하나 엄연히 존재하는 살림과 그 살림의 위기에 다양하게 대응해 왔다. 일부 중산층 주부들은 자녀교육 전문 매니저로서의 헬리콥터맘, 재테크로 취업한 것 이상으로 가족의 부를 늘리는 신종 주부처럼 기존 체제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또 다른 여성들은 이 체제에 완벽하게 떨어져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이 체제와 다른 논리를 갖고 상대적으로 거리를 갖는 공공살림의 영역을 다른 여성들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일구는 전략을 취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 두 전략 중, 후자의 전략, 요컨대 우리의 생존이 사방으로 찢겨 나갈 거 같은, 어찌 보면 캄캄하기만 한 신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신자본주의가 삼켜 버리지 못하는 ‘살아있는 삶, 살림의 공간’을 연출하고 있는 살림 공공화의 시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공공화되고 있는 살림 공간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온 생명을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살림’이라는 살림의 지고지순한 가치를 바탕으로 지속되어 온 살림이 더 이상 개별 가구안의 살림만으로는 이 본연의 가치를 지속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산업화 이전까지 살림의 주 단위였던 가정은 오늘날 가정과 작업장, 복지시설 및 기타 사회적 경제 부문으로 분화해가고 있는 것들이 모두 한

106) 러브릭, 홍옥희 옮김, 『가이아의 시대-살아 있는 우리 지구의 전기』, 범양사출판부, 1993, 27쪽.

107) 오일영, 「기후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 『우리와 다음』 46호, 환경정의 시민연대, 2007, 8쪽.

데 이루어지던 삶의 기본 단위이자 포괄적 단위였다. 그러나 과거 가정 살림의 이러한 통합적 기능이 분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가정 살림에 여전히 과거의 통합적 기능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다고 과거 살림이 가정 밖으로 분화·확대되어 가는 방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심심하면 터지는 식품 안전에 위배되는 먹을거리 오염, 맛벌이 부부가 흡족할만한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지 못해 육아기 여성이 육아를 기점으로 경력 단절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현실, 가족이 편히 발뺌고 자기 위한 자기 집 마련을 위해 십 수년 이상 때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값 감당에 혁혁대는 주거 현실 등, 현대 사회의 위기는 분화되고 있는 살림의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개별 당사자들과 지역 공동체, 모두 만족할만한 혹은 만족할만한 잠재력을 지닌 ‘살림 공공화’의 앞선 실천들을 살펴보고 여기서 민관 모두 지혜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살림 공공화’의 실천들은 각 삶의 영역에서 신자본주의와는 다른 사고, 다른 비전으로 어떻게 새로운 길을 열었고, 어떻게 살림을 공공화하고 있으며, 이들의 성과나 어려움, 전망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살림의 공공화(公共化)’는 ‘돌봄의 사회화’, ‘복지’와 같은 개념들과 중첩되거나 유사하지만, 연구자는 이를 연구자가 이전(2005)에 생명여성주의로 표현한 살림여성주의의 원칙을 준수하는 실천과 이 실천을 뒷받침해주는 제도의 총화로 정의한다. 살림여성주의는 첫째로 초록정치의 조건들을 원만하게 체화해 가고자 하는 노력을 전제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만하게 체화해 가고자 하는 노력’이다¹⁰⁸⁾. 초록정치는 일반적으로 생태주의 세계관¹⁰⁹⁾, 자치, 마음(영성)을 바탕으로 하는 감수성과 소통의 정치, 사회적 고통에 대한 책임감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문제는 초록정치가 이러한 조건들을 일반적으로 전제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생태주의 담론과 실천은 종종 성차별적이고 남성중심적이다. 즉 남성의 초록정치 혹은 생태 담론은 자신이 명료화한 자신의 전제조건을 지키지 못하고, 즉 체화하지 못하고 분열을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살림여성주의는 초록정치와 다른 별개의 담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담론, 혹은 그 전제조건을 ‘원만하게 체화해 가고자 하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요청한다. 두 번째로 살림여성주의는 성찰적인 살림감수성에 기초하거나 살림 감수성의 회복을 수반한다¹¹⁰⁾. 이상의 논의를 요약해 보면 살림의 공공화는 1) 생태주의 세계관, 자치, 마음(영성)을 바탕으로 하는 감수성과 소통의 정치, 사회적 고통에 대

108) 김정희, 『생명여성정치의 현재와 전망』, 푸른사상, 2005, 41쪽.

109) 생태주의 세계관은 인간중심주의가 생태계 파괴를 결과했다고 보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삶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다고 보는 세계관과 만물생명론으로 요약된다(김정희, 앞글, 26~31쪽).

110) 김정희, 앞글, 41~47쪽.

한 책임감이라는 초록정치의 조건을 원만하게 체화해가고자 하는 노력과 2) 성찰적인 살림 감수성에 기초하거나 살림 감수성의 회복을 수반하는 공동체적 실천과 제도의 총화라고 정의된다. 여기서 공동체란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개인들의 결속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아래는 본 연구를 위해 심층면접을 한 구술자들과 참여 관찰 행사 목록이다. 본 연구는 심층면접 외에도 문헌 연구와 인터넷 자료 조사를 주된 연구방법으로 하였다.

<표 7> 구술자 면접표

사례 번호	이름(나이)	단체(직위)	공공살림 시작연도	면접일 (2013 년)
1	김은령(54)	푸른내일을여는여성들(운영위원)	1996	1.10
2	김정란(55)	푸른내일을여는여성들(공동대표)	1996	1.10
3	변희종(53)	광명YMCA동네학교지역아동센터	2001	1.13
4	박흥섭(52)	소통이있어행복한주택만들기(주식회사)	1994	1.13
5	한옥자(58)	(사)수원가족지원센터	2000년대 초반	1.14
6	강현숙(45)	새날복지회 운영위원	1997	1.14
7	김소희(46)	어린이도서관 책임는엄마 책임는아이 관장	2001	1.15
8	김주옥(51)	녹색마을사람들 이사장	1995	1.17
10	이정수	초록상상 운영위원	2001	1.17
11	조은영(39)	구리여성회대표	2008	1.20

살림의 공공화를 열어가고 있는 여성들을 살림살이 알음알이를 실학의 반열에 당당하게 올려놓은 ‘빙허각 이씨의 딸들’로 호칭하고자 한다. 근대 여성주의 운동은 국가로부터 여성의 참정권, 교육권을 얻어내는 운동에 이어 직업에서의 성평등한 기회, 직장에서의 성평등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한국에서는 사반세기, 서구에서는 한 세기 동안 이 운동에 주력하다 보니 이리가라이(Irigaray, 1990)의 비판처럼 공적 영역에 진출해 성공한 여성일수록 ‘명에 남성화’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고립된 가족 살림이 힘들고 재미없을 수 있지만, 전념할 가치가 없고 적게 할수록, 안할수록 좋다는 태도와 살림의 수행 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살림살이 시간 자체를 박탈해버리는 과도한 직장 노동, 일중독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태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화학 조미료로 범벅된 공장 생산의 장맛에 길들여져 전통 장 담그기의 가치와 그렇게 만들어진 장의 가치를 굳이 구별할 필요를 못 느끼는 여성들이 적지 않

다. 한편 자신은 장을 담그지 못하더라도 전통 장 담기의 가치를 알고, 그 맛을 찾으려 어떤 방식으로든 전통 장 담기를 계승·보존되어야 할 살림 문화유산으로 보는 여성들도 있다. 이 거리가 명예화된 남성과 빙허각 이씨의 딸들간의 차이이다. 이 딸들은 이제 살림을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밖으로 끄집어내어 ‘마을 살림’ ‘시군 살림’, ‘나라살림’으로 살림의 가치와 내용을 공적으로 실현시키고자 하고 있다. ‘공공 살림꾼’으로 부를 수 있는 빙허각 이씨의 딸들이 한국 근대에 들어와 집단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95년에 유엔 북경여성대회 참가를 준비하기 위해 모인 ‘여성과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한국 NGO 네트워크’ 이다¹¹¹⁾. 이 네트워크를 구성한 여성들은 여성이 중심이 되되, 남성도 함께 하는 공공 살림을 제안하였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공공 살림 활동을 이끌어 오는 정신적 가치이자 동력으로 공유되고 있다.

2. 육아·교육의 공공화

한국의 근대화가 한참 활발하게 진행되던 1980년 대 한 여성잡지의 ‘성공하는 남편, 사랑받는 아내’라는 슬로건은 아파트 단지의 기둥이나 빌딩 옥상의 옥외 광고로 도처에서 볼 수 있었다. 이것은 화이어스톤에 의하면 여성을 거짓 숭배의 대상으로 격상(?)시키는 낭만주의적 사랑화¹¹²⁾의 한국화의 진행이었고 다른 한편은 집 살림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남성 근로자를 표준 근로자 모델로 하는 지독히 남성 중심적인 한국 근대화의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근대화는 전업주부나 집밖의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자 하는 여성 모두에게 억압적이었다. 이 모델은 인류 역사와 오늘날의 여성의 생애 주기를 통해 볼 때 결코 보편적이지 않은 ‘돈벌어 오는 남편과 살림과 육아에만 전념하는 부인과 그 자녀로 구성된 자본주의적 핵가족을 보편적인 가족 모델로 상정한다. 이 모델은 ‘살림과 육아’라는 과중한 노동의 장인 가족을 비노동 영역인 ‘이성애와 가족애’라는 사랑의 영역으로 재현함으로써 회사나 공장 노동시간을 최대한 연장하는 효과를 결과하고 이는 집밖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선택하는 여성에게는 극단적으로 억압적인 효과를 결과한다.

2009년 조사에서 한국 맞벌이 가구의 여성은 일 평균 가사노동 시간이 227분이었지만, 남성은 45분에 그쳤다(OECD 평균 남성 일일 무급 노동시간은 131분)¹¹³⁾ 집

111) ‘여성과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한국 NGO 네트워크’, 『여성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1995. 1.

112) 화이어스톤, 김예숙 역, 『성의 변증법』, 풀빛, 1983, 131~160쪽.

113) OECD, *Closing the Gender Gap: Act Now*, 2012.

밖에서 10시간 이상 노동하고 집에서 3~4시간을 노동하고 출퇴근으로 두 시간 이상을 소모하면 15~16 시간이 된다. 7시간의 수면 시간을 제하면 한, 두 시간 밖에 남지 않거나 이마저 야근을 하게 되면 남는 시간은 없다. 한국의 노동구조는 전일제 직장 여성에게는 수면 외 시간은 노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많은 경우 수면마저 충분히 취하지 못하고 생존해내야 하는 구조이다. 반세기 이상 관행으로 굳어진 이러한 노동구조는 가임 여성 1인당 세계 최저의 출산율인 1.22명(세계 평균은 2.56명, 2010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 살림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남성 근로자가 표준 근로자 모델이 되는 한국의 근대화는 전업주부에게도 사상 유례없는 억압을 결과한다. '80년 대 이후 핵가족 연구들은 한없이 무력한 유아를 고립된 핵가족 하에 아이와 덩그렇게 홀로 집에 남겨진 전업주부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는 핵가족 육아가 아이와 전업모, 그 누구에게도 행복하지 않음은 물론 양자 모두에게 매우 억압적임을 한결같이 지적한다¹¹⁴⁾이런 현실 속에서 '90년 대 이후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민간 놀이방, 어린이집의 증대와 함께 국가도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기존 어린이집은 운영시간이나 보육의 질에서 취업모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면 2005년 조사에서도 보육시설이나 보육 관련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취업모가 28.9%나 되며 20.3%(혈연·비혈연 보육 49.2%-28.9%)는 보육시설·기관 보육과 혈연·비혈연 보육을 함께 이용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보육시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희외(2004)'¹¹⁵⁾의 연구에서는 간호사, 철도종사자, 생산직, 언론, 방송, 사회복지사, 은행원, 공무원 등에 종사하는 취업 여성들은 최소한 주 2회 이상의 연장근무 혹은 업무상 요구되는 비공식적 활동으로 인해 정규보육 시간(오전 7:30-오후 7:30) 이외의 시간에 대한 보육 요구-시간제 보육 27.9%, 24시간 보육 25.8%, 야간보육18.4%-를 가지고 있었다.

114) 김정희, 「핵가족 어머니 육아와 품앗이공동육아 : 중간계층 어머니와 아이의 체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Vol.16 No.1, 한국여성학회, 2000 ; 이경아, 『엄마는 괴로워』, 동녘, 2011.

115) 김정희, 이경아, 서화숙, 최현진, 『특수(시간연장형)보육 수요조사 및 정책 대안연구』, 여성부, 2004.

〈표 8〉 모취업별 아동구분별 양육 지원서비스 이용률¹⁾

(단위: %, 명)

구분	영유아		
	취업	미취업	모부재
기관	71.1	48.9	77.4
보육시설	42.8	20.1	37.0
보육시설 외 기관(유치원, 선교원, 반일제 이상 학원, 일반 학원, 공부방, 기타)	40.9	31.6	52.6
혈연(동거 혹은 비동거의 조부모, 친인척)	44.5	6.9	79.6
비혈연(동거비혈연, 이웃탁아모, 베이비시터, 파출부)	4.7	0.2	3.7
개인교육(개별방문지도, 그룹지도, 학습지)	27.6	31.2	11.3
수	984	1,917	53

주: 1)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서문희 외(2005)의 〈표 3-3-17〉 (117쪽)을 간략히 작성함.

이런 현실에서 부모들이나 지역 활동가들로부터 자조적인 보육 공공화의 노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운동은 공동육아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공동육아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부모참여형이다. 현재의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에 속해 있는 50여개의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은 부모 참여형이다. 부모 참여형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이 몇 백 만원씩 출자를 하여 어린이집을 전세로 얻거나 소유한다. 공동육아의 두 번째 유형인 지역사회 참여형 공동육아의 대표적인 예로 인천의 ‘작은 세상 어린이집’과 ‘희망 세상 어린이집’을 들 수 있다. 이곳은 출자가 원칙이되 출자금을 내기 힘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자금 면제 제도인 ‘장학 아동’, ‘지역아동’ 제도를 통해 정원의 총 20%를 출자금 없는 장학 아동과 지역아동으로 충원하고 있고 자기 아이가 없는 지역 주민들도 출자를 한다. 이 두 유형 모두 부모들이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부모 참여형이나 후자의 경우는 교사도 출자를 하여 전자보다는 훨씬 더 교사 중심적 운영 체제를 갖고 있다. 아래에서 살펴볼 새날복지회가 처음 운영한 ‘새날아기회’도 이 유형에 속한다.

세 번째는 품앗이 공동육아이다. 품앗이 공동육아는 구심 센터의 부재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1997년 외환위기 모습을 드러내어 개별 품앗이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부침 과정을 거치면서도 자연발생적으로 생겨 운영되고 있다¹¹⁶⁾. 특별한 출자 없이 마음에 맞는 엄마들이 모여 자유롭게 아이들이 놀게 하면서 요리, 동요, 그림 그리기, 산행 등과 같이 자기가 좋아하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116) 김정희, 『풀뿌리 여성정치와 초록리더십의 가능성』, 대화문화아카데미, 2007, 19쪽, 38~76쪽, .

있는 프로그램을 날자 별로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맡아 운영한다. 돈은 가장 적게 들이면서 최고 양질의 보육을 할 수 있는 것이 품앗이 공동육아다. 외환 위기 당시 품앗이 공동육아는 자녀를 아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전일제 형태들도 있었다¹¹⁷⁾. 그러나 보육시설, 유치원이 많이 보급되었고 사교육도 번창한 요즘 전일제 품앗이 공동육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주 1, 2회 1, 2시간 진행되는 형태로만 존재한다. 아래에서 살펴볼 ‘구리여성회’의 장난감 도서관 활동과 ‘어린이도서관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의 18개 소모임 활동도 품앗이 공동육아로 분류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공동육아의 세 유형 모두, 교육면에서는 자연친화 교육, 놀이와 교육이 통합된 생활 교육, 전통 놀이의 중시와 같은 공통점을 갖는다. 이 세 유형 모두에서 자연과 지역 사회를 체험하는 놀이는 아이의 생명력 자체이며 삶이고 교육으로 이해된다.

1) ‘구리여성회’

구리여성회와 바로 뒤에서 살펴볼 ‘어린이도서관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의 품앗이 육아에는 공통적으로 엄마가 아이와 홀로 던져진 핵가족 육아로 인한 힘겨운 경험이 놓여 있다. 구리여성회는 아동센터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논술강사, 전업주부 이렇게 책 읽기 모임에 관심이 있는 4명이 모여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을 하다가 여성들도 연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08년 9월에 구리여성회를 창립하였다. 2009년에 한 살림 전 이사장인 서형숙씨가 강의를 했는데 이틀만 홍보했는데도 하루에 70~80명이 왔다. 이때 엄마들이 뭔가 하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다. 당시 현 대표도 애가 어려서 어디 가고 싶어도 못하고 모임도 작은 도서관에서 겨우 하곤 했다. 돌 지난 아기를 둔 엄마,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엄마들이 모여서, 사람이면 사회적 존재인데 여성은 엄마가 되면 왜 다 미뤄야 하나, 우리가 엄마가 되도 하고 싶은 일을 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자고 해서 4명이 대출을 받아 5500만원을 마련했다. 이 돈으로 2010년 ‘구리여성회’ 사무실 겸 부설 ‘꿈가득 장난감 도서관’을 개관했다. 문을 열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백 명이 몰려왔다. 그 때만 해도 엄마들이 갈 데가 없었고, 여기 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 이 동네는 결혼해서 새로 이주한 사람이 많은데 엄마들 활동이 별로 없었고 이때부터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 외에도 책 놀이터, 엄마

117) 김정희, 「핵가족 어머니 육아와 품앗이공동육아 : 중간계층 어머니와 아이의 체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Vol.16 No.1, 한국여성학회, 2000.

학교, 장애아동 엄마모임 “대기만성”, 교과서 인문학, 친환경생활모임 “자기야” 등 6개 동아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또한 문학치료 엄마선생님 양성, 여성리더십 강좌 등 여성 교육, 지역문화예술 배움터 “상상학교”와 월례 생활문화 강좌,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학교”, 성평등강사 양성과정 참여와 성평등 세미나 진행, 경기자주여성연대와 경기북부여성연대와 월 1회 워크숍 등 연대사업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문화재단, 한국여성재단, 경기도여성발전기금 프로젝트 사업 등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프로젝트 1년에 한 개 정도 해오다가, 작년에는 여성재단의 안전안심 프로젝트, 경기여성발전기금 사업인 ‘마을 여성이 만드는 친정네트워크’, 10회기로 진행된 동네 힐링 캠프의 3개 사업을 힘들게 수행하였다. 힐링 캠프는 아파트 주변 청소 아줌마들을 찾아가서 마사지를 해드리는 거였는데 결과는 좋았다. 오라고 해서 진행했으면 참여자가 적었을 것인데, 사업 참여 여성들은 일하는 여성은 찾아가야 한다는 걸 절감한 기회였다.

운영은 장난감 도서관 100명 정도가 월 18000원씩 내는 회비가 주 수입원이다. 이외에 20명 정도가 구리여성회 회비를 15명이 후원비를 내주고 있다. 그러나 월 임대료가 130만원이고 관리비 부담이 있어 살림이 빠듯하여 재정사업도 하고 운영위원들의 기부도 받는다. 2011~12년은 구리시 마을기업에 선정이 되어 거기서 운영비를 충당하였다. 관리비 중 큰 비중이 도서관 일을 하루 2교대로 5시간씩 보는 두 분 인건비이다. 나머지 사업 참여자들은 모두 자원봉사인데, 프로젝트 사업일 경우는 일인당 몇 십만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애 키우고 살림살면서 일을 하니까 빠르게 일을 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아이들이 방학하면 여기서 공동육아를 한다. 혼자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엄마들이 겪었던 힘듦, 답답한, 소외감과는 다르게 같이 산다는 느낌이 들고 재미있기도 하다. 이 느낌을 회원들에게 확대하는 것이 구리여성회의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광명YMCA동네학교지역아동센터’

2006년부터 YMCA전국연맹은 지부 회원들과 함께 시간제 주변 사각지대 아이들을 대상으로 열린육아센터인 ‘아가야’ 사업을 시작하였다. 광명YMCA도 2007~2008년 철산 4동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이 종료되면서 참여했던 선생님들이 무슨 일을 하면 좋을지 의논하였다. 동네 언덕 맨 위쪽에 2003년 시작된 넝쿨어린이 도서관이 있다. 이것도 YMCA 회원들과 10명의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 밑에 있는 아이들은 이 도서관까지 올라가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래서 방치되고 있는 아래 동네 아

이들을 위한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자고 해서 2009년도에 어린이도서관 ‘동네한바퀴’를 만들어 안은 도서관, 밖은 상설 나눔장터로 1년 운영을 하였다. 1년 운영 후 지역 아동을 더 잘 보살피기 위해서는 어린이도서관 갖고는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자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2010년 9월 준비팀이 만들어지고 2개월 동안의 준비 작업을 통해 11월 5일 ‘광명YMCA동네학교지역아동센터’를 개원하였고 현재 19명의 초등학생들을 돌보고 있다. 2005년부터 ‘챙이와 팽이’(올챙이 어린이집과 달팽이 방과후 교실) 놀이방을 ‘광명 YMCA’ 회원 동료들과 설립해 운영해 온 대표가 준비팀에 합류한 것은 센터가 신속히 문을 열 수 있게 되는데 큰 힘이 되었다.

법정 교사는 2명이지만, 4명의 교사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교사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지 얼마를 받느냐는 이차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두 명은 ‘아가야’ 사업에 참여했던 회원이고 두 명은 법정 교사이다.

현재 운영팀의 목표는 주민들이 ‘우리 동네 아이들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보살핀다’는 의식을 갖고 센터를 직접 운영하게 하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들도 철산동 주민이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철산동 어르신들이 오전팀은 청소를 해주시고 오후팀은 안전 귀가를 책임져 주신다. 급식 도우미는 자활센터에서 파견해주신 아주머니다.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이 교사 자격증을 따서 스스로 운영하게 되면 현재 팀은 나올 생각이다.

선생님 몰래 동생들을 괴롭히던 6학년을 상담해왔다. 이 아이들이 졸업할 즈음 교사 회의를 통해, 여기서 관계를 끊으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가해 여학생들도 중학교에 가도 센터에 계속 나오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가해 누나와 피해 학생, 양쪽 부모를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 가해 여학생들이 중학교에 가서도 계속 센터에 나오게 하였다. 몇 개월은 말투가 금방 변하지 못해 피해 동생들이 계속 무서워했다. 놀이상담, 미술 치료, 집단상담 등을 계속해가니 똥한 성격이던 이 친구 표정, 말투도 예쁘게 바뀌고 동생들하고도 잘 지내게 되었다. 특히 피해 동생에게 댄스를 가르쳐 줄 정도로 관계가 향상되었다.

올해(2014년 2월) 졸업하는 애들이 중학교 가서도 계속 다니게 해달라고 해서 고민이다. 아이들은 “집보다 더 편안한 곳이에요. 집에 있으면 외롭고 무서워요. 계속 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한다. 여기가 초등아이들을 위한 곳이라 중등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어 힘들다니까, 자기들이 동생들 공부를 가르쳐 주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이 아이들이 계속 다니면 이 아이들을 위해 자원 연계라도 해서 뭐라도 해줘야 하니까 힘이 들겠지만, 오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내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다.

여기 오는 아이들은 공부가 많이 부족하다. 학습지도를 해보면 집중력이 십 분 이상을 못 간다. 국어 읽는 거, 수학을 아주 싫어한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학습지도는 공부 잘 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십 분 지속하는 습관을 놓고 가지 않고 더 뒤통지지 않게 하는 거다. 여기 오면서 아이들이 자기중심성이 생겨 싫고 좋고는 분명하게 말하고 놀이 할 때는 아이디어가 넘치는데 수업 후 관련된 다른 작업을 하려면 이런 거 하는 걸 싫어한다. 예를 들면 ‘동네한바퀴’ 수업의 경우 나가서 동네 어른들을 만나고, 동네를 새롭게 바라보게 된 것을 돌아와서 정리해야 하는데 이걸 너무 싫어한다. 아이들 스스로 학습 동기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중학생이 되어 자신이 하고 싶은 꿈이 생기고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면 공부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50점 미만을 받던 학생이 동물에 관심이 있어 해서 수의사, 애견센터 그런 데서 일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할 수 없다고 해 주었더니 처음에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몰라 답답해 하였다. 몇 달을 밤새서 공부를 하더니 스스로 공부 요령을 터득하였다. 연말에 80점 후반대로 올랐다. 오후에 국영수를 지도해주는 대학생 공부방 지원 동아리, 다솜아띠도 도움이 된다. ‘다솜아띠’는 대학생 1, 2학년이 공부방 봉사를 하는 동아리로 5년 이상 된 동아리인데 멤버는 바뀌지만, 매년 신입생 봉사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봉사는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3) 어린이도서관 ‘책 읽는 엄마 책 읽는 아이’

육아와 살림을 공공화하는 여성 리더들의 공통된 특징 중의 하나는 자기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이를 공동체 속에서 충족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도서관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이하에서 ‘책엄책아’로 칭함)를 설립한 김소희 관장의 리더십도 바로 이런 특성을 보인다. 그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핵가족 하의 육아가 주는 고립감을 뼈저리게 경험한다. 아이와 함께 하루 종일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아이를 봐 줄테니 살림도 좋지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라하는 시어머니의 자매에 덕분에 글 쓸 토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성공회대 엔지오 대학원에도 진학하고 대학로에 작업실을 마련한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고립된 작업실 생활에도 힘겨움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 개인 작업실을 접고 결혼 전의 환경운동 참여와 엔지오 대학원을 다니면서 꾸게 된 ‘생활 속의 엔지오’를 실현해보고 싶다는 시민 리더로서의 꿈과 아이를 데려가기 힘든 기존의 도서관과 달리 아이와 엄마들이 함께 있을 수 있고, 아이가

옆에 있으면서 글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소망을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 작업실을 정리한 자금을 종잣돈 삼아 작은 도서관 ‘책엄책아’를 2001년 열게 된다.

2003년 비영리 단체 등록을 하였고 지금은 약 300가정이 월 5천원에서 2만원씩 내주는 후원비로 운영되고 연 1억 정도의 프로젝트를 받아 프로젝트 사업을 한다. 구로부터는 연 2백만원 지원받는 것이 전부인데 이것은 대부분 도서구입비로 사용된다. 하는 가족이 300가정이 도서관에는 18개의 소모임이 운영된다. 책을 노래로 만드는 ‘노래소풍’, 그림책 주인공을 인형으로, 그림 속 한 장면을 생활소품으로 만드는 ‘햇빛공방’, 5,6학년 아이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토론하며 글을 완성해 신문을 만드는 ‘최고의 이야기꾼’, 4개의 유아엄마 모임(<엄마랑 놀자> <가온누리> <레인보우> <두루두루>), 주제별·학년별 6개의 초등엄마 모임(<색깔아이> <마더구스> <땅강아지> <피노키오> <햇살아이> <어깨동무> <무한조사>), 3개의 청소년 엄마모임(<크레파스> <마녀스프> <딱정벌레>), 성동구에 있는 10개 초등학교의 교육복지 대상 아이들을 찾아가 ‘교과서 속 책놀이 프로그램’을 하는 엄마 선생님 모임인 ‘아이두레’, 성동종합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의 중증 장애 아이들을 찾아가 책을 읽어주는 ‘다하미’가 그것이다. 보통 소모임은 주 2회 모임을 갖는다. 18개 소모임이 주 2회 굴러가고 엄마들이 강좌를 들으러 오고 하니, 66평 도서관은 늘 사람들로 붐빈다.

‘책엄책아’는 지역의 작은 도서관과 같이 품앗이 공동육아와 교육의 거점이 있을 때 품앗이 공동육아·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가며 거기서 여성의 자기발전, 이 자기 발전을 지역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작은 민간 도서관이 수익 예산의 공공 도서관이 하지 못하는 주민자치적 보육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습은 살림의 공공화는 주민자치와 결합될 때 그 빛을 발하게 됨을 보여준다. ‘책엄책아’의 가장 큰 성과는 평범한 엄마들의 성장과 변화이다. 그냥 애를 키우던 엄마들이 강사료를 받으며 초중고등 학교, 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청소년 단체의 책놀이 강사로 나가게 되었다. 강사를 하는 엄마들은 7명인데 이들은 강사 활동을 통해 월 20~30만원의 강사비를 번다.

한편, 창작 의욕이 많은 ‘햇빛 공방’ 엄마들은 돈을 모아서 18평 공간을 임대해 작업실을 만들었다. 그 엄마들이 공동출자하여 ‘햇빛공방 생산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서울시의 마을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제 3년이 된 ‘노래소풍’ 엄마들은 책을 노래로 만드는 작업을 한다. 2013년까지 19곡을 만들었고 작년에 8곡을 만들어 저작권 있는 시디를 만들어 보급하였다.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고 아이들과 엄마가 함

게 노래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 수동적인 문화소비자였던 엄마와 아이들이 노래를 만드는 생산자가 되는 그런 성장의 공간이 되고 있다.

‘책엄책아’는 당연히 아이들의 성장 공간이다. 도서관을 거쳐 간 아이들에게 이곳은 추억의 공간이 되고 청소년이 되면 공부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이곳으로 자원봉사를 온다. 올해(2014년)에는 도서관에 처음 왔던 아이들이 대학에 입학했다. 이전에는 인근의 한양대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왔는데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자원봉사하고 자신들이 갔던 캠프에 이제는 교사로 함께 참여한다.

한편 ‘책엄책아’ 활동의 주체는 엄마들이지만, 육아·교육에 아빠를 참여시키려는 노력도 또한 병행한다. 장시간 노동 체제 속에서 아빠들의 일상 활동은 어렵다. 그러나 저녁에 교육 강좌를 잡으면 아빠들도 많이 참여하고 주말에 ‘나랑 같이 놀자’ 마을 축제 할 때, 또는 소모임별 가족 체험 활동 때도 거의 오신다.

‘책엄책아’가 마을에 확고히 뿌리박았다는 것은 도서관 엄마들이 일체를 준비하는 마을축제 ‘나랑 같이 놀자’가 2013년에 12회째 지속되고 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지자체들에서 하는 축제들은 기획사가 주관하는데, 참가자는 이보다 못하면서도 비용은 수천만원이 든다. 반면 ‘나랑 같이 놀자’ 축제에는 약 천명의 주민들이 참가하는데 진행비는 2백만원에 불과하다. 소모임 엄마들이 ‘우리 축제’라는 의식을 갖고 준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3. 먹을거리 살림의 공공화

식사 준비, 요리 등으로 불리는 먹을거리 살림은 보육이나 노인 수발과 같은 돌봄 노동에 비하면, 지자체나 국가 주도의 사회화가 뒤떨어진 분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산업화되어 있다. 2011년 국민총생산 1235조 1605억원 중¹¹⁸⁾, 식품산업은 143조 7151억 7900만원(음식품 제조업 70조 2081억원 51조, 음식점업 73조 5070억 2800만원)으로 국민총생산의 11.6%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서 식료품·비주류음료 구입비는 373,338원, 식사비 323,742원을 차지하고 있다¹¹⁹⁾. 식료품·비주류음료 구입비는 373,338원 중 반 정도는 완제품 형태를 구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우리의 먹을거리의 약 75% 이상이 구입한 먹

118) 국민총생산(명목),

http://kosis.kr/nsportalStats/nsportalStats_0102Body.jsp?jsessionid=ErX5wUw8hWylLqx9MtRx4wHszfGMFLLcb1kJX7RxMRBhxdDI20AyCjOLyVVPpRsdO.STAT_WAS2_servlet_engine1?menuId=3&NUM=168, 2013년 2월 1일 다운)

119)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2013」, 농림축산식품부, 423쪽.

을거리 상품이나 외식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집에서 조리해먹는 비중이 다소 높을 것을 추정해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먹을거리가 이같이 시장이나 식당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두 끼 이상 때로는 세끼 모두를 집밖에서 해결하게 하는 장시간 노동체제는 이같이 먹을거리의 시장·식당 의존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22%라는 낮은 식량 자급율, 역시 낮은 10%대의 친환경농산물 시장¹²⁰⁾과 더불어 식품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으로 축약)은 식품 안전에 대한 주부들의 고조되던 불안감,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의 자연 파괴에 대한 문제의식, 당시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출현 등이 맞물리면서 1980년대 말에 민우회생협, 한 살림이 출현하였다. 지금과 같은 매장이 없이 생협운동의 초기 멤버였던 주부들이 자기 아파트의 라인 이웃들을 공동구매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일주일에 한번 공동구매로 소박하게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생협운동은 약 35년 만에 생협 6개 연합회의 총공급액이 2012년 현재 6천5백억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였다¹²¹⁾. 친환경 시장 매출액이 2011년 3조 2602억 원에 달하니, 이는 친환경 시장의 약 20%를 차지한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이윤이 아니라 가치, 즉 국제적으로 합의된 7가지 원칙에 의해 움직인다. 그 7원칙은 1)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2)민주적 관리 3)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자율과 독립 5)교육, 훈련 및 정보의 제공 6)협동조합간의 협동 7)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말한다¹²²⁾. 생협은 이 협동조합의 7원칙을 생협의 원칙으로 수용한다. 또한 생협은 제초제와 농약을 대량 살포하며 자연을 파괴해 온 자본주의적 상품농업에 대한 비판에서 도시 소비자가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민을 직거래 방식으로 지원하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생협의 협동조합 7원칙의 수용과 친환경 농법 농민을 지원하는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생협을 먹을거리 살림을 공공화한 살림 경제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25 여년 생협 발전의 현 시점에서 생협은 조합원 여성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많은 상근 직원과 주로

120)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

http://krei.re.kr/kor/issue/quick_view.php?reportid=PRN014&rclass=j

121) 채성훈, 「국내 생협의 사업특징과 시사점」, 『CEO FOCUS』319호, 농협경제연구소, 2013, 5쪽.

122) <http://ica.coop/en/what-co-op/co-operative-identity-values-principles>(2014. 11. 다운).

여성인 조합원 활동가의 성별 구분은 생협 밖 주류 사회의 남성 정규직, 여성 비정규직이라는 성별 계급 구조를 내부에 복사하고 있다¹²³⁾. 이는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 (이는 부불의 봉사와 구분되지 않는다)를 강조하는 여성 중심의 단위 생협과 회사 체제로 운영되는 남성 중심의 연합회라는 성별 이원 구조로 확대 재생산된다. 이 구조 속에서 단위 생협에서 여성 이사장 비율은 약 50%에 이르고 있으나 이것을 생협의 성평등 지표로 보기는 어렵다. 여성 이사장이 직업을 갖지 않는 주부일 경우, 그녀는 상근 이상으로 과하게 조합과 매장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은 몇 십만원 받는 활동가에 그친다. 한국은 대졸 주부들이 혼인,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겪은 후 그 능력에 걸맞는 대접을 받으며 복귀할 수 있는 직장이 많지 않다. 이런 여성들 중 일부가 엔지오나 생협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런 여성들에게 보수와 상관없이 생협 이사장은 자신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직위이다. 따라서 이사장 직위에 오른 많은 여성들은 활동비와 상관없이 생협 활동에 헌신한다. 생협이 흑자를 내고 상근 직원의 연봉이 5천만원에 이르고 자신이 상근자 이상의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생협이 안고 있는 ‘시한 폭탄’이라는 인식¹²⁴⁾이 생겨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십만원 활동비를 받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정규 직원과 활동가 (여성)조합원의 분리를 생협의 성차별성이라고 인식하는 여성들도 있다. 또한 생협의 의사소통, 의사결정 구조가 남성중심적이고 여성 조합원들은 그 둘러리나 단순 소비자에 불과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¹²⁵⁾. 지난 십년간 생협의 수익이 배송센터 설립이나 매장을 새로 여는 데 투자되는 매장 신설의 생협간 경쟁 속에서 조합원 활동에 대한 충분한 배려나 마을 살림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온 것도 여성 리더십을 배양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었다. 생협 지부나 마을 모임이 없어졌고, 그러다보니, 지역에서 스스로 예산도 세워 써보고, 경영해보고 하는 경험들이 사라졌고, 대의원 제도도 실하게 운영되지 않고 조합원 간 소통 라인이 상당히 축소되고 조합원들은 단순한 소비자로 전락하는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다. 조합원은 배가 되었어도 활동가는 제자리 걸음이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기 이사장을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도 전개되고 있다¹²⁶⁾. 이것을 문제로 인식할 즈음 여성 생협 이사장들은 생협 이사장의 경력을 바탕으로 생협을 떠나 지역 사회의 또 다른 엔지오 활동이나 지자체 준공무원으

123) 김정희, 「생협의 생태사회적 경제로서의 가능성과 여성」, 『사회적 경제 리뷰』 Vol.2., 2013, 65-67쪽.

124) '[우석훈의 시민운동 몇 어찌](6) 왕당파와 재벌식 경영', 『경향신문』 2011. 4. 12.

125) 진휘향, 「주민자치와 여성 환경인의 정치적 주제 형성」, 『여성이 새로 짜는 세상』, 여성환경연대 편저, 박영출출판사, 2001; 박주희, 「주부의 생협운동과 가치 지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논문, 2007; 백은미, 「생협운동 경험을 통한 여성들의 살림 가치에 대한 의미 고찰」, 『여성학연구』제 22권 제 2호, 2012.

126) 김정희, 「생협의 생태사회적 경제로서의 가능성과 여성」, 『사회적 경제 리뷰』 Vol.2., 2013, 65-67쪽.

로 옮겨가거나 아예 봉사단체로 들어가기도 한다.

먹을거리 살림의 비자본주의적 사회화를 지향한 생협의 발전이 위와 같이 여성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면서 대중들에게 친환경 판매조직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속에서 먹을거리 살림의 공공화는 운을 떼기도 어려울 만큼 척박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수원가족지원센터’의 된장 담기 사업은 눈여겨볼만하다.

2) ‘(사)수원가족지원센터’의 된장 담기 사업

‘(사)수원가족지원센터’는 현 대표가 십여년 전에 가족이 겪는 문제가 너무 아파서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면서 세워졌다.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였고 가족 상담, 가족 서비스를 해오면서 먹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정작 자신은 생협에서 사먹는 않지만, 아이들이 건강하지 못한 먹을거리를 먹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던 중 경기도 교수님들과 ‘인문학 도시만들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음식 인문학이었다. 2012년 음식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였다. 이제까지 음식에 대해 환경적, 요리학적 접근을 해온 것과 달리 음식을 현재 그 사람의 모습으로 문화로 접근하면서, 우리 음식의 우수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특히 상업화된 장문화 보존의 필요성과 장을 공동으로 담가먹는 방법에 대해 토론이 일었다. 아파트에서도 된장을 담가 먹었는데, 왜 요즘 주부들은 안 된다고 하는지 토론이 되었고 수원시가 건강 도시를 표방하니까 사업 계획서를 내보자고 이야기가 되어 시의 지원이 결정되었다.

도시 일상생활 속에서 장을 담그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여 수원 시청 옥상에 향아리를 놓고 담기로 하였다. 2013년 2월부터 11월까지 음식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알게 하는 강좌를 진행하면서 한 구좌에 10만원씩 200구좌를 모아 매주 20가마 분을 만들었다. 햇빛을 충분히 받기 위해 향아리는 두 말 정도 들어가는 크기가 적당하다고 하는데, 크고 작은 향아리 93개를 시청 옥상에 놓았다. 처음에는 냄새 난다고 시청 공무원들 중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 거의 냄새가 나지 않았다.

경기음식연구원장인 박종숙 전통장전문가가 콩 선별, 메주 담그는 법, 향아리 소독, 염도 측정 등을 지도해주었다. 우선 GMO가 아닌 콩을 선정하여 계약 재배를 하여 메주를 잘 띄웠다. 된장에서는 염도가 중요한데 춘장은 달걀 띄워서 500원 동전 크기로 가을장은 100원 동전 크기로 계란이 보이면 된다. 겨울 장이 덜 짜도 된다. 보통 소금 농도는 17~21%인데 우리는 3% 줄여 14.4%로 했고 수원에서는 이렇게 담근 저염 된장이 성공을 하였다. 짜게 하는 건 곰팡이가 생기지 말라고 하는

건데, 곰팡이 방지를 위해서는 항아리 소독, 위생이 이 못지 않게 중요하다. 옛날에는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곰팡이가 어떻게 생긴다는 것을 몰랐던 건데 항아리에 새빨갭게 달군 숯을 넣고 거기에 꿀을 부으면 연기가 나면서 항아리 안의 잡균이 죽는다. 저염 된장을 만들기 위해서 된장은 봄에 장 가르기를 할 때, 된장을 다 꺼내서 큰 다라이에 넣고 버무려서 그때 메주가루, 삶은 콩을 추가한다. 이때 발효를 돕기 위해 김장 김치국물을 넣기도 하고 지역마다 넣는 게 다 다른데, 여기서는 액젓을 넣었다. 보통 된장 위에 비닐을 깔고 그 위에 소금을 뿌리는데, 농민들이 쓰는 이 방식은 소금이 밑으로 들어갈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고추씨가 소독력이 있어서 된장을 다진 그 위에 뿌리고 뚜껑 덮어놓으면 된다.

일본의 야마또마찌라는 마을은 노인들만 사는데 혈압이 엄청 높았다고 한다. 저염 식사 개선 운동을 벌여서 일본 전체에서 요양보험 이용율이 낮은 지역이 되었다. 그만큼 저염이 건강에 좋다는 것이므로, 여기도 저염 된장을 만들기 위해 신경을 쓴다.

한편 일주일에 한 번씩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항아리를 닦아주었다. 이게 힘이 든다. 항아리 닦다가 오식견이 온 경우도 있다. 이렇게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니 결과는 좋았다. 곰팡이가 하나도 안 생겼고 된장 냄새가 너무 좋았고 맛이 있게 익었다.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이 장이 1등을 하였다. 한 구좌당 된장 5키로, 간장 1.5리터를 가져갔고 어려운 가정 100가정에 된장 1키로 간장 500cc씩을 나누어줄 수 있었다.

이 사업은 항아리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작년 사업 반향이 좋았다. 수원을 가족친화도시로 만드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매년 3, 4천만원씩만 지원받으면 아파트로 들어가서 할 수도 있다. 옥상에 항아리를 두는 것과 아파트에서 담글 경우 염도가 같은지도 실험 해봐야 한다. 올해(2014년)도 이 사업을 할 예정이고 시 지원비가 줄어드니까 1구좌를 12만원으로 해서 300구좌로 늘리고 초중고 5개교에도 장을 담그는 사업을 벌여볼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한 마을에서 다섯 집 이상이 장을 담그겠다면 지원해주고자 한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장 담그기 사업도 시작할 계획이다.

이 일을 하면서 단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합쳐 100곳의 7세 어린이 4천명에게 건강한 먹을거리 교육을 시켰다. 단맛, 비만, 고열량 음식이 얼마나 위험하며 색소는 얼마나 위험한지 등과 손 씻기 등 위생의 중요성을 가르쳐 아이들이 유해 식품여부는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단체의 된장 담기는 이제 첫 해를 한 데 불과하지만 먹을거리 살림의 공공화로 발전할 수 있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실천이다. 다만 하나의 의문은 한 구좌 비용을 내고 장을 받아먹기만 하는 사람과 이 사업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간의

관계의 성격에 대한 것이다. 수 백명의 장을 몇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이 일을 하고 나서 오식견이 왔다고 할 정도로 항아리, 항아리 뚜껑, 큰 다라이를 닦는 일은 소수가 감당하기에는 힘에 부친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항아리를 닦아주어야만 한다. 폭우나 태풍이 올 때는 한걸음에 달려가 장독대 뚜껑을 제대로 덮어놔야 한다. 이런 일들을 현재는 모두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수혜자들은 된장 구좌를 산 개인들이다. 된장 담는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은 봉사하고 된장 구좌를 산 사람들은 이들의 노동을 전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 사업이 이런 구조로 계속 지속가능할까? 무엇보다도 장담기의 과정이 먹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정상 그것이 어렵다면, 자신의 당을 담가주는 분들에 대한 노고는 장값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은 관이 장 담그기 문화를 장려할 의지가 있다면, 장 관리사를 두고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분들의 노고에 대한 사례는 지자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이는 '장 관리사'라는 직종, 더 나아가 공식적인 살림 경제의 창출로 나아가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옷 · 거주 살림의 공공화

1) 과천 녹색가게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이르러 한국 사회는 국민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가구에서부터 소소한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멸절된 것들을 버리고 새 것을 구입하는 과소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런 가운데 생협 등의 출현과 함께 조합 내 조합원 교육과 소모임 학습 활동을 거치며 성찰적 살림 감수성을 갖는 소비자군도 형성되었다. 과천 녹색가게도 이러한 생협조합원 활동의 결과로 탄생되었다. 1991년 6월부터 시작된 생협에 참여한 조합원들 중 두 명이 1996년 3월 '과천녹색가게'를 개장하였다(남미정, 2005). 1997년 서울YMCA는 과천알뜰매장 모델링을 검토하여 자원재사용을 전국 "녹색가게 운동"으로 기획하게 된다.

전국 최초의 녹색가게인 '푸른 내일을 여는 여성들'은 가능한 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이웃과 물건을 나누고 바꾸어 쓰는 재사용운동인 녹색가게운동을 1996년 3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천을 중심으로 지속해오고 있다. 녹색가게운동은 지역 사회 주민들 간의 생활용품을 다시 쓰고 바꿔 쓰는 생활문화운동이다. 녹색지역사회는 이를 가능케 하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반시설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만들어

가려는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이 결합될 때 실현될 수 있다. 녹색가게운동은 바로 후자의 시민들의 자발적 실천을 지역화시키는 지역 공동체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녹색가게는 그 운동의 센터라고 할 수 있다.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에 가입한 녹색가게는 2013년 현재 서울 8곳, 경기 13곳(가톨릭대 포함), 강원 1곳, 충청 3곳, 영남 5곳 해서 모두 30개이다¹²⁷⁾.

이 단체의 첫 활동은 1992년 11월 시작한 “1단지아파트 자원재활용 캠페인”이었다. 당시는 분리수거 개념이 없던 때였고 과천 주민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방법과 자원의 소중함을 교육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지금도 봉사자 3명이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에 나가 90분 동안 진행한다. 시보조금이 줄어들면서 4키로 당 비누 한 장을 드리던 것이 8키로당 비누 하나 드리는 걸로 바뀌면서 주민 참여가 약간 저조해졌지만, 지속되고 있고 1단지 아파트 재건축이 예정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1994년 6월부터는 재사용 운동의 장인 “알뜰시장”(flea market)을 개최해 오고 있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중앙공원 비둘기 광장에서 연다. 약 30 가족이 단골 판매자로 참여하고 있고 고객은 약 400~600여명에 달한다. 알뜰시장의 운영이 환경부의 폐기물관련 정책인 ‘나눔장터’ 모델의 하나로 소개되었고 2003년 6월에는 환경부 한명숙 장관이 직접 참여하여 과천시와 함께 대규모로 장을 펼쳤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이제는 알뜰나눔장터가 전국 각 지역에서 다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 이 운동의 성과이다. 과천도 이제는 주민센터, 복지관 등이 참여하고 아이들에게 봉사활동을 주게 되면서 각 단체가 주관하는 알뜰장이 중앙공원에서 매주 열리고 있다. 점점 더 남의 물건을 쓰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고 누구든 중앙공원에 가면 좌판을 벌일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면서 최근 5년 사이에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장사 목적인 사람은 참여를 못하게 하고 아나바다로 관리되고 있다. 단체 회원 4, 5명이 조를 짜서 아이들이 물건 값을 터무니없이 싸게 매긴 거 없는지 봐주고, 천막도 쳐주는 정도로만 관리한다.

단체 상설 활동은 녹색가게 운영이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다른 물건과 교환해 가는 방식이다. 단 가져온 물건 가격의 60%만큼 교환해 갈 수 있고 거래 내용이 적힌 ‘녹색카드’를 만들어 이용한다. 본인의 물건은 가져오지 않고 현금구매를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구매 물품 수를 제한한다. 하루 현금 수입은 5-6만원, 교환 판매는 20만원, 연 후원금은 3-4백만원 정도이다. 교환 물건 가격의 40%와 후원금은 매장 관리비 지역사회 장학금 등, 월드비전 아동돕기 등으로 환원한다. ‘녹색카드’는 9000번을 넘었고 중복 발급도 있고 사장된 것도 있을 거고 이 중 6, 7000명은 살아

127) http://www.greenshop.or.kr/sub01_1.html (2014년 11월 20일 다운).

있는 회원이다. 서울 방배동, 안산, 안양, 평촌 등 인근 지역에서도 많이 온다.

녹색가게는 과천시 지원으로 1998년 4월, 시민회관 2층에 25평의 새 공간으로 이전해서 현재는 50명의 주부 자원봉사 회원과 1명의 실무자가 함께 운영해 오고 있다. 시의 공간 지원이 감사하지만 지금은 가게 매장이 비좁아져 회원들은 더 큰 공간 지원을 기대한다. 가게에 나와서 노력 봉사하는 회원은 35명이다. 가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는데 오전, 오후 각 3시간씩 각 두 세분 봉사자, 하루 최소 5, 6명 봉사자가 가게를 운영한다. 봉사자들은 거의 십년 이상씩 봉사해 오신 분들이고 이렇게 하니 큰 불협화음 없이 운영된다. 헌신적으로 일하는 회원들과 그렇지 못한 회원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난 적도 있지만, 초창기 멤버들의 지혜로운 조정과 “자원봉사자 수칙”이 강화됨으로써 극복되었다.

녹색가게 행사 중 ‘교복물려입기 행사’는 가장 성공적인 행사 중 하나이다. 작년(2013년)에는 교복 1618점을 접수하여 1200점을 자켓 7천원, 바지 5천원, 블라우스 4천원에 판매하였다. 판매액 약 1,137,000원에 500여명이상이 참가하였다. 이틀 접수 받고 하루 판매한 성과다. 남은 것은 한 달 정도 무인 판매하는데 거의 다 팔린다. 안 팔리고 남은 것은 상시 걸어두면, 전학 온 아이들이 사간다. 학교에서도 전학 오면 아이들을 이곳으로 보낸다. 그래서 학생이 전화를 주면 가게는 4시에 문을 닫아도 학교 끝나고 오는 학생을 기다려준다. 교복의 경우는 판매가의 90%를 교복을 내놓은 학생에게 되돌려준다.

봉사자 조직으로 7개의 분과(교육, 후원회, 마을, 홍보출판, 재활용연구, 알뜰장, 녹색가게)가 활발히 분과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후원회 분과는 후원받을 곳을 찾고 봉사하러도 간다. 여름철 장마나면 피해 지역에 지원나가거나 후원 물품 보내고 연중 행사로 길상사 김장 봉사 나가고 지역사회 후원을 관리한다.

이외에 ‘천연화장품 팀’, ‘행복한 바느질 세상 팀’, ‘1단지재활용 팀’, ‘푸른산 사랑운동팀’, ‘소식지팀’ 등이 활동 중이다. ‘천연화장품 팀’은 처음에는 교육을 받고 비누를 만들어서 쓰고 선물하는 것으로 만족하다, 이제는 만들어서 녹색가게서 판다. 화장품은 제조 허가가 있어야 해서 판매 못하고 탈취제, 모기퇴치제 리팜, 릿크로스 정도를 만든다.

‘바느질 팀은’ 이전 1998년에 ‘장바구니 페스티벌’로 전국서 처음으로 현수막으로 장바구니를 만들었고 재활용 전시회, 패션쇼를 한 이후 꾸준히 활동해왔다, 이 회원들이 지금은 ‘바느질 팀’이 되어 3년째 시로부터 연 260만원의 지원비를 받아 재활용 강좌를 열고, 땅가진 우산의 우산천이나 현수막으로 가방이나 선풍기 커버 등, 생활 소품을 만드는 되살림 강좌를 5명의 강사가 진행한다. 손으로 만들다가 재봉틀을 가르쳐 드려 재봉틀로 하고 있다. 강사들은 회원들인데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서로 사전에 만들어보고 연구하면서 한다. 상반기 15명, 하반기 15명이 참가하는데, 대기자도 있고 인기가 높지만 재봉틀 수량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하기 어렵다. 장소도 마땅치 않다. 지금은 가게 앞 복도에서 하는데, 여름에는 시민회관 근처 시원하게 바람부는 곳 찾아다니면서 하기도 한다. 고정 장소가 필요해서 시에 지원 요청을 했지만 장소 제공은 어렵다고 한다.

‘푸른산 사랑운동’ 팀은 매월 첫째주 수요일 청계산. 휴지를 줍고 관리한다. 이전에는 야생화 심기, 나무 이름표 달아주기 했었다. ‘소식지팀’은 년 3회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여러번 회의를 거쳐서 소식지 내용을 정하고 인터뷰하고 글을 받고 소식지 편집을 하는 일을 한다. 회원 20명이 교육을 받고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의 친환경 상품을 써보고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일도 하고 있다.

이외에 연 1회 주민을 대상으로 ‘여성생명학교’를 연다. 그때그때 이슈를 중심으로, 유방암, 핵 반대, 노후생활 등 다양한 관심사에 따라 호응도도 다 다르다. 어떤 주제는 지역의 다른 활동 팀들이 단체로 오기도 하고 보통은 30명 정도 참여한다.

청소년봉사활동도 지도한다. 3-4년까지만 해도 과천에 있는 학교에 자원봉사 교육을 들어갔는데 일이 너무 많아 학교는 안 들어가게 되었다. 학교 자체에서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 교육 의뢰가 오면 학생들을 받아 가게에서 봉사하게 한다. 작년에는 과천여구 학생들 두 팀이 봄, 가을로 와서 현수막을 이용해서 녹색가게 플랭카드를 만드는 자원봉사를 하였다. 주제를 주면 아이들 머리가 반짝반짝 돌아, 멋진 작품을 만들어낸다. 자원봉사인증센터라 방학에는 오전 1명 오후 1명 학생이 봉사를 온다. 연 2회 우산 고치시는 80살 넘는 할아버지를 모셔와서 우산살 하나에 천원을 받고 주민들 우산을 고쳐주는 행사도 한다. 작년에는 389개의 우산을 고쳐주었다.

운영위원회는 7개 분과장과 부회장, 회장으로 구성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이외에 봉사회원 회의가 월 1회 있다. 봉사회원 회의에는 20-25명이 참여하는데 여기서 운영위원 회의를 보고하고 회원들이 문의하고 결정할 것은 결정한다. 회원간 친교를 위해 1년에 1박 2일로 수련회를 가고 연말에는 송년회를 한다.

이같이 분과 활동, 팀 활동, 녹색가게 봉사, 행사 참여 등 여러 활동이 있다 보니 봉사자 한 사람 당 기본으로 두 세가지는 한다. 운영위원들은 주 2~3회 나오고 회장님은 매일 상근하다시피 한다. 문제는 새로운 회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데 있다. 지난 5년 동안 새로 들어온 봉사자는 두 세분이다. 젊은 엄마는 애들과 프로그램 원하고 녹색가게가 먼지가 있는 편이라 알려지가 있어 못한다 하고 옷 정리 등 노동을 하니까 허리가 아파 못한다 하고, 이런

게 걸림돌이다.

녹색가게의 활동은 그 활동 내용이나 활동 방식에서 공공살림 경제의 단초를 보여주는 범례이다. 녹색가게 활동은 기본적으로 ‘아나바다’ 활동이기 때문에 그 성과를 회계 장부상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예를 들면 2013년 교복 1618점을 접수해 500여명이 참가해 ‘교복물려입기 행사’의 현금 수입은 1,137,000원에 불과하였다. 새 교복이 한 벌에 2 3십 만원 하는 걸 감안하면 벌달 25만원으로 계산하면, 이 행사는 약 4억 이상의 가게 지출을 절감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녹색가게의 하루 현금 수입 5만원, 교환 수익 20만원도 이렇게 계산하면 하루 수 백만원에서 천만원 이상 소비를 절약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녹색가게 류의 활동의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판매 화폐 수입 중심의 회계 계정과는 다른 생태적 회계 계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녹색가게 활동은 그 방식에서도 철저하게 회원들의 참여와 자치, 민주적 소통과 의사결정 원칙이 준수되고 있다. 이 또한 녹색가게 활동을 살림 공공화의 우수 범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2) 성미산 마을의 ‘소행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거공간)

성미산 마을은 행정구역은 아니지만,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모델이 되고 있다. 1994년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모여 첫 공동육아협동조합인 ‘우리어린이집’을 만든 후 계속 젊은 부부들이 어린이집을 찾아 들어왔고, 어린이집을 나온 부모들은 동네를 떠나지 않고 19년 동안 ‘성미산마을공동체’를 만들어왔다. 주민들은 따로, 또 함께 방과후교실, 성미산 대안학교, 마포두레생협, 반찬가게 ‘동네부엌’, 카페 ‘작은나무’, 마을극장 등을 계속 만들어왔다. 또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 동아리들이 활동 중이다. 사진 동아리 ‘동네사진관’, ‘성미산어린이합창단’, 성미산 극단 ‘무말랭이’, 주민 노래패 ‘진동’, ‘성미산 풍물패’, ‘울림두레생협 합창단’, 주민 밴드인 ‘아마(아빠·엄마의 준말)밴드’와 ‘7013B’,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한 아빠들이 만든 독서 모임 ‘이런저런’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마을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전세로 살던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의 공동육아어린이집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을 공유하게 되었다. 동네에 살기 위해서는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래서 주거문제를 공부하는 모임이 형성되었고 공부모임의 결론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주식회사 ‘소행주’가 만들어졌다. ‘소행주’는 주식회사라 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성미산 사람들이고 하는 역할도 입주자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의견 수렴을 돕는 마을 활동가와 유사하다. 건축은 ‘자담’이라는 별도의 건축회사가

말한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했고 공용공간을 만듦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삶의 질은 높이는 접근을 하게 되었다. 코하우징, 공유주택은 이렇게 해서 선택되었다. 이외에도 ‘집에 대한 과도한 투자 때문에 집에 저당잡힌 인생이 되기 싫다’, ‘부모와 아이, 더불어 사는 이웃 모두가 즐거운 집이면 좋겠다’와 같은 참가자들의 욕구도 수용되어야 했다. 이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서 ‘입주자 참여, 공용 공간, 커뮤니티 형성 후 입주’라는 ‘소행주’의 핵심 컨셉이 정해졌고 이 컨셉에 따라 소행주 내부가 설계되었다.

입주자 참여의 컨셉에 따라 가정마다 내부 구조와 면적도 11평에서 40평까지 다양하다. 공용현관, 공동창고, 손님맞이와 게스트 하우스, 저녁식사, 아이들 놀이방 공간으로 활용되는 ‘씨실’을 공용공간으로 두어 공간 부족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1층부터 신을 벗고 들어가면 옆 집과 공유하게 되는 엘리베이터 입구에서부터 각자 집문까지의 공간이 활용가능한 공유 공간, 내집 공간으로 되살아나게 된다. ‘씨실’에서는 가끔 각자 찬을 들고와 저녁을 함께 하기도 한다. 9가정으로 구성된 1호 ‘소행주’에서는 입주 가정 몇 집과 동네 주민 몇 집이 합한 열 가정이 ‘저해모(저녁해방 모임)’ 모임을 만들어 동네 도우미 아주머니를 써서 맛벌이 부부의 저녁 식사 준비 부담을 없앴고 주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 공간에서 기타 동아리 수업을 함께 듣고 공연도 했고, 송년회 등의 각종 행사도 함께 한다. 일반 주거에서는 아이 재우고 기타 교습소에 가서 기타를 배운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행주’에서는 이게 가능하고 그만큼 삶의 질이 높아진다. 좋은 이웃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입주할 사람을 정해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입주하도록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옆집, 위 아랫집의 가족원들을 알고 이해하게 한다. 공유 관련 아이디어가 점점 더 진화해 3호 ‘소행주’에서는 1층에 신발장을 두기로 하였다.

공동체를 형성하고 ‘소행주’ 건축을 완료하기까지는 10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린다. 땅이나 빈집을 매입하고 입주 예정자들이 서로 만나고 워크숍을 통해 더불어 살 때의 갈등 해소 방법 등을 공유한다. ‘소행주’를 어떻게 꾸려갈지 의논하고 공사 중간 중간에 입주자들이 참여하도록 하며, 공사시 떡 돌리기와 오픈 하우스 등을 통해 입주자가 주변 주민들과도 잘 융화될 수 있도록 돕는다.

‘소행주’는 아이들에게는 입주자 가정 모두가 확대 가정과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된다. 또한 도시에서는 고독사 문제 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시니어 부부들이 ‘소행주’에서 살게 되면 이런 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소행주’는 도시에서 자녀를 둔 가정이나 고령화된 노부부들에게 공동체적 기능을 해주고 치안 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게 해주는 주거의 사회적 대안이다.

최근에는 삼각산 밑의 재미난 마을에서도 9가구가 ‘소행주’를 준비하고 있고 주식회사 ‘소행주’는 이러한 코하우징이 점점 더 확산되기를 희망한다.

다양한 협동조합과 주민운동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공동주택운동이라는 점에서 성미산 마을의 ‘소행주’는 독보적이다. 공동육아에서 시작된 주민들의 공동체적 욕구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마을을 공동체적으로 변화시켜왔다. 이제 축적된 역량이, 주민들이 스스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를 만들어 공동주택 운동을 벌이는 경지까지 도달하였다. ‘소행주’는 주식회사 형태를 띄지만, 하는 역할은 공동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공동체적으로 충족시켜주기 위한 일련의 일들을 수행한다. ‘소행주’ 직원들은 일종의 마을활동가이다. 이런 점에서 살림의 공공화가 그 제도적 형식에서 협동조합과 같은 틀에만 매일 필요는 없음을 ‘소행주’ 사례는 보여준다. 오히려 ‘소행주’는 공동체 운동이 직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살림의 공공화는 주식회사나 협동조합이냐는 제도적 형식보다는 업무의 내용, 업무 수행 방식이 타자와의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생태주의적 정신, 자치, 소통과 같은 초록정치의 지향을 잘 구현해가고 있는가라는 실천의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소행주’는 보여준다.

5. 생태마을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마을살림

생태마을 만들기의 이론과 실천은 급진 생태주의의 한 부류인 생명지역주의(Bioregionalism)와 그 실천 양상인 생태마을 운동에서 집약적으로 강조된다. 생물지역주의자들은 지배적 개발을 비판하면서 자연을 사랑하거나 가이아와 조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우리의 자연 세계와의 관계는 특정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 장소에 대한 정보와 경험에 근거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장소를 이미 정해져 있는 우리의 기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특정의 장소에 적응시키는 것, 토박이가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Snyder, 1990: 17-18).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의한 지역경계 정하기, 권력의 탈중심화, 인간과 자연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사회조직을 자치형태로 변화시키는 것 등이 생명지역주의 사상의 핵심 내용이다¹²⁸⁾. 생명지역주의 사상은 풀뿌리 운동에서

128) 로지 브라이도티, 에바 차르키에비츠, 자비네 호이슬러, 자스키아 비에링가, 『여성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도서출판 나라사랑, 1995, 225, 249, 271 쪽; 김정희, 『남도 여성과 살림예술』, 모시는 사람들, 2013, 25쪽에서 재인용.

는 생태마을 운동(ecovillage movement)으로 나타난다. 생태마을은 자연에 영향력을 적게 미쳐,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생활방식을 유지하고자 애쓰는 도시나 농촌의 인간 공동체이다. ‘의제 21’에서 생태마을은 “우리의 사회적, 생태적, 영적 환경의 퇴보에 맞서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하게 맞서는 방식을 대변”하는 21세기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천의 예로 제시된다. 이후 유엔이 1998년에 정한 ‘지속가능한 삶의 최고 우수한 100개의 실천 모델’ 목록 중 생태마을은 공식적으로 맨 첫 번에 거명되었다.¹²⁹⁾

한국의 경우는 계획적인 생태마을 만들기는 “자연과 인위, 즉 천(天) 지(地) 人(人)의 조화를 도모하여, 풍부한 물자와 건강과, 친애의 정으로 가득 찬, 안정되고 쾌적한 사회를, 인류에 가져오는 것”을 취지로 하는 일본의 행복회야마기사회(1953년 창립하였고 공동체는 1958년 세워짐)의 한국 실현지가 1984년 화성에서 세워진 것을 그 시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유기농 생산자 중심의 공동체(전북 부안의 변산 공동체, 충북 괴산의 풀무평화공동체 등), 치유 중심의 공동체(지역 의료생협들과 경기 평택의 한마음치유 공동체), 대안학교 중심의 마을 공동체(충북 제천의 간디 청소년 학교, 충남 홍성 풀무학교, 과천 무지개 학교 등), 종교 중심의 생태 공동체(경북 문경의 정토 수련원, 경기도 포천의 디아코니아, 충북 보은 예수살이), 민관협력의 생태마을(‘박원순, 2009’의 책에 소개된 지역들), 어린이집, 생협, 신협 등 15개 단체가 결합해 있는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와 같은 복합적인 시도 등 다양한 형태의 생태지역 만들기가 시도되고 있다. 또한 접근 방법에서는 진안 지역에서의 같이 기존의 지역을 생태마을로 만들어가려는 유형과 기존 지역과의 연계성은 약하거나 거의 없이 계획적인 생태마을을 만들어가려는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¹³⁰⁾.

그런데 이 모든 시도들은 농촌이나 도농 복합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생태마을 운동이다. 도시에서는 근대화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주거가 재편되고 이사 주기가 짧아지면서 토박이 주민들이 상당히 사라지거나 위축되었고 이는 마을 공동체의 해체내지 약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1980년 대 말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생협운동이 시작되었고 민주화 운동의 주체들이 결혼과 더불어 지역에 안착하면서 보육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한 풀뿌리 지역운동도 시작되었다. 1994년 첫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 설립 이후 현재 50여개에 이르는 공동육아운동은 부모자치 보육운동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성미산 마을’ 공동체 운동과 같이 마을공동체 운동으로도 이어졌다. 이 일련의 흐름은 도시에서의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볼 수

129) 김정희, 『남도 여성과 살림예술』, 모시는 사람들, 2013, 25~26쪽.

130) 김정희, 앞 글, 27쪽

있는데, 여기서는 특히 도시에서의 생태마을 공동체를 지향하는 마을살림의 두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의 앞선 사례로 ‘성미산 마을’ 만들기가 주목되는데, 이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민자치적이거나 생태적인 지역 만들기로서의 의미는 충분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성남시의 ‘(사)새날복지회’와 중랑구의 ‘초록상상’ 수유리의 생태마을 만들기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새날복지회’- 열 두명의 여성이 시작한 보육·교육 공동화에서 성남시 살림의 중심으로

1990년대 성남 지역에는 상대원동에 공장단지가 크게 조성되어 일자리는 있는데 아이들을 편하게 맡길 어린이집이 매우 적었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들이 일자리에 참여하기 위하여 ‘새날아기마을’이라는 탁아소(당시는 어린이집을 탁아소로 부름. 이 명칭이 아이를 맡겨지는 물건으로 대상화한다는 문제의식이 형성되면서 영유아 보육법이 생기면서 ‘어린이집’으로 불리게 됨)를 문을 열어 선생님과 부모들이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이후 ‘새날어린이집’으로 자리 잡는다.

1996년 11월 학생운동하다 노동운동하러 들어온 4명, 노동자 4명, 지역어린이집 교사 4명이 초동 모임을 갖고 자신들과 주민들의 보육 필요를 충족하고자 의기투합하여 아동복지사업을 위한 모임을 발족하고, 새날아동상담소를 각자 500만원씩 출자해서 계돈을 만들어 설립하였다. ‘새날어린이집’의 보육료는 평균 월 20만원에 30명 정도 어린이를 돌보았다. 그러면서 여기 저기 어린이집이 생겨났고 초동 회원들이 결혼하고 자식 낳아 키우면서 보니까, 주변에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남에도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논의되기 시작해서 가칭 ‘새날아동상담소’(1998.10)를 만들었던 것이다.

초기 회원들은 1998년 ‘신나는 전화’에 가서 교육받고 아이들과 부모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을 받기 시작하였다. 당시 지역 신문에 홍보도 했지만 상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던 때라서 상담 건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부모교육 참여도는 높았다. 당시는 부모, 선생님이 아이 때리는 건 당연하게 여겨졌었고 상담소는 이런 아동문화가 잘못된 거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아동인권을 일깨우는 내용을 담은 소식지를 만들었고, 어린이집 아이와 부모 대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강의를 하였다. 부모들은 퇴근 후 밤에 오시라고 하면 거의 다 왔다. 어린이집과 상담소를 만들 멤버들도 모두 일을 하고 있으니까 회의는 늘 밤 열시 경에 시작해 열 두시, 새벽 한시까지도 잤다.

상담소는 2001년 4월 ‘새날아동상담교육센터’로 개칭하여 비영리단체등록을 하였고, 현재도 다양한 사업을 위탁받거나 프로젝트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는 핸드폰도 없고 방과후에 아이들 동선을 확인할 수 없어, 일하는 엄마들이 불안해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의 전세 방 3개짜리 얻어서 ‘즐거운 학교 지역아동센터’를 1997년 7월에 개설하였다. 하나는 사무실 하고 하나는 저학년 방, 하나는 고학년 방으로 나누어서 10~15명 내외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음식을 조리해서 먹이고 프로그램을 하며 보살폈다.

아이들이 많아지고 공간이 좁아져 옮겨야 할 때, 큰 공사가 필요할 때, 이런 때는 일일주점을 통해서 도와줄만한 분들에게 티켓을 일인당 50만원, 100만원씩 강매하 다시피 했다. 그때만 해도 토요일에 일일 주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해서 2000년도에 600만원의 이사 비용을 마련하였다. 일일주점은 목요일 저녁으로 옮겨져 지금도 지속되는데 500~600명의 후원자들이 참가한다. 이런 일은 멤버들이 강한 애정이 있으니까 가능했다. 지금은 새날복지회가 지역 복지 위탁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직원들 후원이 생겼고 운영위원, 이사님들께 티켓을 강매(?)하는 것은 여전하다. 이사님들은 경기도내 대학의 전/현직 교수님들, 사업가, 시의원 등과 같은 지역의 ‘시민 유지’들이다. 초기에는 후원받고 자원 봉사자 중심으로 운영하다, 2005년 지역아동센터로 신고하면서 처음에는 급식비, 나중에는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커서 중학생이 되니,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었다. 마침 동네에 있던 청소년 공부방을 위탁받아 2004년 1월부터 ‘상대원3동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게 되었다. 1년 후 동네주민들과 시에서 공부방을 공영주차장 만든다고 해서 계약이 더 안 돼서, 한동안 청소년 돌봄 사업을 하기 어려웠는데 2005년 6월 ‘상대원1동복지회관’을 수탁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초등생, 청소년사업, 노인 대상으로 무료경로식당, 수발보호사 파견사업, 교복과 장학금 수여 사업, 뇌졸중 환자 주간보호센터 운영 등 다양한 지역 복지 사업을 할 수 있었다. 2008년도에 성남시지역청소년센터가 상대원동에 만들어지면서 이를 현재까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2013년 12월에는 산성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받았다.

이렇게 발전해온 새날복지회는 2004년 12월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고 이제는 그 산하에 ‘새날아동상담교육센터’, ‘상대원1동복지회관’, ‘새날노인복지센터’, ‘즐거운 학교 지역아동센터’, ‘성남시지역청소년센터’, ‘국공립성남어린이집’, ‘산성종합사회복지관’ 7개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고 이 7개 기관에는 114명의 상근자들이 근무를 한다. 산하기관의 사업을 모두 합하면 연 41억여원의 지역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의 후원회원들로부터 월 6~7백만원의 후원비가 들어온다. 1년에 한 번 새날

가족대회 여행을 가는데, 각지에 있는 회원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한다. 2013년에는 버스 4대로 가족대회 여행을 갔다. 회원들의 새날복지회에 대한 믿음이 있어 가능한 일이고 이는 ‘새날복지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새날복지회’가 풀뿌리에서 출발한 자치 역량으로 40억대의 지역 사회복지를 위탁 받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곳을 살림 공공화의 예로 단언할 수 없다. 왜냐하면 관의 위탁은 관변 엔지오들도 받아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날복지회’가 중심이 되는 성남시 사회복지의 살림공공화의 원칙들이 잘 수행되고 있는 것일까? 복지사들의 지위, 참여와 소통을 중심으로 볼 때 분명한 차별성이 관찰된다.

성남시의 사회복지사는 1200명이고 복지사의 약 2/3가 여성이다. 이중 400여명이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이다. 이 협회는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클라이언트도 행복하다는 이념 하에 복지사의 권익증진을 목표로 하는데 이 협회를 이끌어가는 회장과 사무국장이 모두 ‘새날복지회’ 기관장들이다. 협회의 노력으로 성남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할만하다. 협회의 노력으로 개선된 복지사들의 처우를 열거해보면, 성남시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들에게는 시에서 복리후생비가 월 5만원 지급된다. 급여가 가장 열악한 지역아동센터는 최대 25만원까지 지급된다. 올해(2014년)부터는 보수교육비를 시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공무원 복지카드를 복지사들에게도 지급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연 2500만원 지원해주어 협회가 사회복지사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복지사 프로그램 경진대회에 천만원을 지원해 매년 복지사 12명에게 포상하고 있다. 이런 제도는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제도다. 복지사들의 시간외 수당 지급도 추진 중이다(장애인 업무 복지사들에게는 이미 지급되고 있다). 직원 3명의 인건비도 지원한다. 2015년까지 복지사 처우를 공무원 수준의 90%까지 향상시키기로 시와 협의된 상태다. 사회복지사협회 사무실도 시가 무상 임대해주고 관리비도 지원한다. 성남시는 시 예산 중 30%를 복지예산에 쓰고 있는데, 이는 다른 지자체보다 2% 정도 높은 수준이다. 처우개선 조례도 작년(2013년)에 만들었고 경기도내 사회복지사협회 평가에서 성남시가 1등을 하였다. 2014-16년 협의회 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새날복지회’ 소속 후보자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지원, 요양시설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사 멘토 지원, 소규모 생활시설(청소년, 장애인 등)의 근무환경 개선 추진, 처우개선수당 지속 증액, 시간외 수당 지급, 해외연수 공평 참가를 위한 노력, 휴일근로수당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포함 노력, 해외연수 공모전을 위한 선진지 견학, 성남시와 기업 후원을 통한 안식휴가제 도입, 사회복지사 내집 마련 저리 전세자금 지원, 사회복지사 복지카드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정부 시책으로 2006년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모든 지자체에 있다. 협의체는 4년마다 지자체 복지계획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 협의체 직원이 한 두명에 불과하고 서울시의 경우는 공무원이 협의체 직원을 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와 달리 5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복지계획은 11개 분과위원이 만들어서 올리는 데 분과위원 참가자는 분과마다 다른데 대체로 기관장, 실무자, 중간관리자가 참여한다. 성남시처럼 상근 직원이 많은 것은 그만큼 분과위원회 활동이 실하게 가동될 수 있고, 분과위의 정책안이 시 정책으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준다. 요컨대 협의체는 민관 거버넌스 역할, 복지사의 지역 복지 정책 수립에의 참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통로인데 성남시는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복지기관 수준에서 복지사가 얼마나 사업을 자율적으로 하는가는 기관장 마인드와 법인의 경제력에 달려 있다. 사회복지도 법인의 경제력 여하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고 출퇴근 시관과 같은 복지시설 내 복지사 처우와 사업 자율성은 이같은 복지기관의 기관장 마인드와 법인의 경제력과 상당히 관계가 깊다.

‘새날복지회’의 사례는 지역에서 살림 공공화를 이루어가고 할 때, 귀감이 되는 앞선 지점들을 보여준다. ‘새날복지회’가 귀감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특성에 기인한다.

첫째로 참여민주주의의 정신을 분명히 하는 초기 여성 리더들은 노동자, 어린이집 교사와 같이 평범한 주민이었고, 이들은 참여민주주의를 자신과 주민들이 당면한 생활의 문제, ‘보육’과 ‘교육’의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해가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이들은 노동운동, 학생운동, 지역운동 참여의 경험에서 출발하였지만, 이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이들의 참여민주주의적 성향은 자신들과 주민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육아, 교육과 그 외 노인 수발 등과 같은 문제를 공공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였고 이는 곧 살림을 공공화 하는 것, 마을살림의 터를 닦는 일이기도 했다. 둘째로 초기 리더들의 공동체성을 들 수 있다. 노동자, 어린이집 교사와 같은 12명의 여성 회원들이 자기 자식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자식까지 돌보기 위해 500만원을 출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성남시 사회복지의 대모로 불려도 좋을 이 여성들은 기꺼이 땀땀했을 살림에서 500만원씩 출자해 지역사회 참여형 공동육아를 시작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새날복지회’에 그대로 적용된다. 초기 출자금은 감자되어 출자자들은 돌려받지 못했지만 귀중한 종잣돈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이후에도 ‘새날복지회’가 다양한 세대에 걸친 마을살림 사업을 시작하는 종잣돈이 필요하면 그때 마다 마련되었다. 셋째로 ‘새날복지회’의 사례는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초기 회원들은 복지회 사

업이 확대되면서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필요성을 느껴 방통대를 다니거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의 전공을 살리기 위한 석사를 취득한다. 이런 자기 성장의 노력을 병행해 당시 어린이집 교사였던 분들이 지금은 원장이 되었고(4명) 이외에도 사회적 기업 전문가, 보육정보센터 센터장, 지역사회 기관 기관장 등으로 성남시의 사회적 경제 부문을 이끌어가는 중견 리더들로 성장하였다. 넷째로 ‘새날복지회’의 리더들은 성남시 사회복지사협의회,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이끄는 지도력이 되어 3D 직종 수준이었던 복지사의 처우를 공무원에 가깝게 향상시켜 가고 있다. 또한 협의체 분과활동을 실하게 운영함으로써 복지사가 복지기관의 단순 피고용자, 복지 전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역복지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다만 성남시 사회복지체계가 얼마나 공동체 경영에 부합하는가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지만, 사회복지사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국한해 볼 때, 시 살림의 공공화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2) 초록상상

중랑구의 생태마을 만들기를 지향하는 ‘(사) 초록상상’은 ‘(사)여성환경연대’의 지부이다. ‘여성환경연대’는 1994년 12월 제4차 세계여성대회였던 북경여성대회에 ‘여성과 환경분과’를 조직하여 참여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1999년 설립되었다. 여성환경연대는 살림 감수성(혹은 에코 젠더 감수성)으로 자연과 인간, 여성과 남성,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건강하고 평등한 세상,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자연의 속도에 맞는 느리고 단순한 삶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 연구, 정책 제안을 해왔다. 설립 이후 십 여 년을 여성 살림운동가들의 연대체로 지속해오다 2004년 12월 ‘여성환경연대 희망TF 워크숍’을 하였고 워크숍의 결정에 따라 이때부터 지부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구상에 따라 ‘여성환경연대’(이하 ‘연대’로 약칭)는 2005년에 녹색위 사업비를 기반으로 중랑구에서 ‘동화읽는 어른모임 중랑지회’(현 ‘어린이책 시민연대 중랑지회’)와 ‘한살림동대문중랑지부’(현 ‘한살림북동지부’)와 연대해서 주부들을 위한 교육 강좌와 중랑천 마을한마당을 연다. 중랑구가 선택된 것은 ‘초록상상’의 첫 사무국장을 한, 당시 ‘연대’ 지역 사업 담당자가 중랑구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 강좌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아이, 마을에서 행복한 아이’라는 제목으로 생태교육과 전래놀이, 건강한 먹거리 교육과 사교육을 줄이자는 취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4회 진행되었다. 약 3천 장 정도 되는 홍보지를 한살림 조합원들이 인근의 어린이집과

학교, 전철역 등에 뿌렸고 강좌는 매회 100여 명이 넘는 여성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후속 모임으로 한살림 주관의 교과모임과 ‘연대’ 주관의 생태모임이 만들어졌다. 이 생태모임 참여자 20여명이 현재 ‘초록상상’의 모태가 되었다. 이 소모임은 2006년도부터 1년 간 주1회 모임을 가졌다. 책읽기, 봉화산 산책, 대안생활용품 만들어 보기 등으로 진행하였다. 주부 모임이 그렇듯이 처음부터 모임이 잘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두 서너명, 심지어 한 명이 올 때도 있었다. 그러나 세 명이 올 때도 있고, 두 명 또는 한 명이 올 때도 있었다. 그러나 온전히 24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쓸 수 없는 주부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던 사무국장은 이 악전고투를 낙천적으로 넘어간다.

사무국장은 소모임의 임의성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연말부터 참여자 한 명 한 명을 만나 설득하였다. 운영비를 걱정하는 회원들에게 천연화장품을 만들어 팔고, 그것도 안 되면 사비라도 털어서 운영하겠다고 설득하여 2007년도 3월에 사무실을 마련하게 된다. 보증금 1,000만원에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내는 곳이었다. 이 중 500만원 보증금은 ‘연대’에서 빌려오고, 나머지 500만원은 10명 핵심 회원들이 이익이 나면 되돌려 받는다는 조건으로 50만원씩 출자하여 충당하였다. 실제 ‘연대’ 프로젝트를 ‘초록상상’으로 가져오고, 비누 팔고 강좌 참가비 받고, 회원이 늘어나 2년만에 보증금을 다 갚고 월세도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2014년) 공간은 카페를 할 목적이 있었기에 이전 공간보다 더 넓고, 보증금 이천만원에 월세가 138만원이다. 이사올 때 인테리어비도 2천만원이 들고 복비도 들었다. 다시 20명이 백만원씩 출자하고 개인이 천만원 넘게 출자해서 비용을 감당하였다. 카페는 해보니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영업용 카페에 맞추려면 그만큼 누군가 집중해야 하고, 그래봤자 그 한 사람 인건비 밖에 안 남는다. 그래서 편안하게 카페는 회원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단체 살림은 월세 138만원, 활동가 급여 120만원, 사무국장 활동비 70만원, 대표 활동비 50만원, 그리고 사무실 관리비 해서 월 4백만원 이상이 든다. 현재 250명 회원이 내는 회비는 월 160만원이고 이 중 20%는 본부에 회비로 낸다. 나머지 모자라는 운영비는 천연비누나 아토피 로션, 천연 스킨, 모기 퇴치제 등을 짬짬이 팔아 들어오는 수입과 10%의 강사 후원비로 메꾼다. 이렇게 운영하여도 2013년에는 단체 월세, 관리비 다 쓰고도 천만원 흑자를 냈다.

한편 ‘초록상상’의 회원은 후원회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 회원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18개의 팀이 활동 중이다. 이렇게 다양한 팀과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이고 이 팀들이 팀 자체 모임과 외부 사업을 모두 감당한다. 이중 성교육팀, 건강팀, 에코맘, 생태팀, 에너지팀은

단체의 목표를 수행하는 핵심 팀이고 나머지는 6, 7명 회원으로 구성되는 자율적인 소모임이다. 성교육팀은 3년 준비해서 만든 팀으로 서울시 안전마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에코맘은 한 팀당 열명 내외인데 6개 팀에 50~60명이 있고 학교에 나가 프로젝트나 환경 수업을 진행한다. 팀은 일년 하다 없어지기도 하고, 해별로 한 두 개가 새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4개 학교에서 에코맘이 운영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생태팀은 생태안내자 교육을 받은 회원들로 생태교육과 캠프를 맡고 있다. 에너지팀은 학교에 에너지 교육을 나가고 에너지 기후변화 강사 등으로 활동하는데, 팀장이 서울시 드림센터로 취직해서 팀장 충원이 필요한 상태다. 건강팀은 천연화장품과 천연세제 등을 만드는 연습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활동을 한다. 주로 외부로 강의를 나가는 팀이다.

이 핵심 팀 외에 문화팀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철학공부를 한다. 청소년팀은 청소년 문제에 관심 있는 엄마들의 모임이다. 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한 공부를 하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를 주재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역사공부모임은 여성강좌 후 한살림을 중심으로 조직된 후속모임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모임을 유지·발전시켜 온 것으로, 방학 때 이외에는 주 1회 이웃의 역사전공자를 모시고 역사공부를 깊이 있게 한다. 이 모임은 처음에 장소만 사용하도록 권했을 뿐 내부 모임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모든 참여자가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장인 모임이 있는데, 참여자들은 대부분 ‘초록상상’이 함께 참여한 중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모임에서 만난 지역 내 복지기관의 복지사들이다. 이 모임에서는 지역사회와 관련한 공부를 한다.

이 외에도 지역의 환경교육 전문단체로서 다양한 환경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학교나 청소년 수련관에서 요청이 오면 헌신적으로 일했고, 그 결과 지역의 신뢰를 받고 중랑 지역이 교육복지우선투자기역으로 선정되는 데도 한 몫을 담당하였다.

전업주부만이 시민단체 활동을 하리라는 것도 고정관념이다. 기타 소모임에는 인쇄소 사장님이 참여한다. 밤에 연습하고 공연을 한다.

월1회 각 팀 및 모임의 팀장들이 모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핵심 다섯 팀의 팀장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에 참가한다. 다른 팀들은 각 팀의 프로그램을 운영위원회에서 공지하고 교류하고 ‘아빠요리대회’와 같은 단체 행사 준비를 함께 한다. 이외에 전현직 사무국장, 대표, 실무자가 참여하는 사무국 회의가 있다. ‘초록상상’의 대표는 지역 명망가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주민들과 소통의 의지와 노력을 하는 평범한 주민이고 한 명의 실무자 몫을 해낸다. 현 대표는 카페지기로 주 2일 바리스타를 하고 장보고 주문하고 청소하는 일을 한다. 일반 회원보다 좀 더 회원과 소통하고 회원들의 불편한 점을 귀 기울여 들으려 애쓸 뿐이다.

운영위원회는 특별히 어떤 안건을 결정하는 것보다, 팀 간의 긴밀한 소통, 지역사회 현황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더욱 중요시 한다. 이런 목적에서 팀장이 아닌 일반 회원들의 운영위원회 참여도 권장된다. 팀장이나 사무국장이 운영위원회에 나오다가 회원을 만나면 손을 잡고 운영위원회에 같이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 팀의 팀원들이 모두 참여하기도 한다. 이렇게 운영되는 운영위원회는 자신이 속한 팀이나 소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초록상상’과 지역사회를 인지하는 중요한 만남의 자리가 되고 있다.

2007년에는 참여자들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매달 1회씩 여성리더십 특강을 진행했다. 이 특강에서는 강의를 듣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여성조직들을 방문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다. 이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의 참여와 지도력이 성장되었고, 개인의 리더십이 집단화 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런 과정을 통한 회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내가 ’초록상상‘에 참여하면서 이 지역에 사는 게 너무나 행복해 졌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면서 서로 배우는 게 많다’는 이야기들이 회원들 입에서 나온다.

‘초록상상’이 거버넌스를 이루어내는 방식도 배울만하다. 초대 사무국장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주민자치센터 담당자에게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구청 여성정책과에도 제출하였다. 귀찮아하는 담당자도 있지만, 반가워하는 담당자도 만나, 2개 동 주민자치센터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주체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표기하게 함으로써 미묘한 갈등의 소재를 없애고 협력을 공고히 하였다. ‘초록상상’은 주민자치센터 강좌를 진행하면서 회원을 확보하였고 이후 프로젝트 사업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할 수 있었으며 중랑구 여성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는 늘 초대되게 되었다. 이 과정은 단체 주체 역량으로 지자체와의 긴밀한 파트너십, 거버넌스를 이루면서 다시 이 과정이 단체 역량을 강화하는 선순환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이곳은 주민들이 돈을 벌면 이사 나가고 싶어 하는 곳이다. ‘초록상상’은 여성들이 노력해서 이곳을 지역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도록 만들고 싶고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 지역의 2-3세대를 키워내고 싶다는 전망을 갖고 있다. 금요일 6, 7명의 청소년 모임에는 이 팀을 맡은 담당자가 저녁밥을 해 준다.

‘초록상상’의 터를 닦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초대 사무국장은 8년 만에 청소년 팀 밥 봉사 외에는 뒤에서 돕는 일만 하고 중요한 단체 일에서 손을 떼고 2014년 ‘중랑마을넷’ 대표를 맡았다. 지역 여성들이 그 사회의 환경, 먹거리, 교육, 방산정책, 안전, 폭력 등을 공부하고 학습하면서 엄청난 시민교육의 장이 열리기 때문에 여성들의 풀뿌리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고 믿으며 마을살림 운동을 해온 중간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중랑마을넷’을 중심으로 그녀는 여성 목소리가 지자체, 정부에 반

영되는 활동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관변 단체, 오륙십대 남성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버넌스에 여성이 참여예산제, 성평등·안전·주민자치 등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서 명실상부한 풀뿌리 마을살림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이 지역사회 혹은 자체적인 시민사회의 다양한 역할에 참여하여 훈련받아 변화될수록 다양한 마을 정책 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하고 주민이 예산을 알고 민관이 함께 예산과 정책을 수립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넷’은 서울 25개 구에 다 있고 구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마을살림을 공공화시키는 데 지대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그녀는 본다.

그 바깥 와중에 그녀는 대학원을 졸업했고 본부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회원의 세대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초록상상’ 운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역 엔지오 볼모 지역이었던 중랑구에서 다부지고 지혜로운 한 살림꾼 여성이 마을 살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8년간의 서사가 감동적이고 아름답다.

6. 살림 공공화의 심화·확산을 위하여: 거버넌스

살림 공공화 영역을 처음으로 개척한 사람들은 시대적으로는 ‘70~’80년대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시민운동에 참여하였고 이 참여의 연장선상에서 지역운동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공통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살림 공공화라는 새로운 흐름이 한국 사회의 진보적 사회운동의 맥락에서만 이해되는 것은 거시적 견지에서 보는 표피적 이해로 그칠 수 있다. 살림 공공화는 우선 ‘어린이도서관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구리여성회’,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만들기’, ‘새날복지회’ 등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국가나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한 당면한 살림 사는 여성 개인으로서의 당면한 절박한 필요와 맞물려서 우리 사회에 출현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즉, 어머니, 주부로서의 당면한 필요가 살림 공공화 실천의 핵심 동기가 되고 있다. 살림 공공화는 출발에서 이데올로기적인 운동이 아니라 당면한 여성 개인으로서의 절박한 필요를 공동체적으로 해결해가고자 하는 지향과 역량을 갖는 리더 개인들이나 집단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리더의 학생운동, 시민운동, 학습의 참여와 경험은 리더가 살림 공공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한편, ‘푸른 내일을 여는 여성들’, ‘광명YMCA동네학교지역아동센터’, ‘(사)수원가족지원센터’ ‘녹색마을사람들’, ‘초록상상’과 같이 단체가 살림 공공화를 추동하는 경

우라도 그것이 유지되어 오는 데에는 일반 주민들의 살림살이에서의 욕구와 필요를 단체의 ‘살림 공공화’ 실천이 충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주민들이 스스로의 필요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실천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에서 주민의 필요를 단체가 제대로 읽어내어 주민들의 필요와 만난 단체의 추동력이 주민들과 함께 살림 공공화의 영역을 개척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닌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리더십의 재생산에서의 문제다. ‘푸른내일을여는여성들’의 경우 새로운 자원봉사자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초동 회원들이 20년째 계속 봉사를 하고 있다. 또한 ‘녹색마을사람들’도 ‘초록상상’과 비슷한 다양한 마을 살림을 봉사로 해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단체를 창립한 대표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회원 수는 십년 전과 마찬가지로 백 여명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새날복지회’나 ‘초록상상’처럼 지역에서 마을살림의 새로운 중심점이 될 다른 민간 공공 조직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있다. 이는 마을살림이 자원봉사로 운영될 때와 리더십 재생산에 실패할 때 겪는 정체의 문제를 보여준다. 마을 리더십 재생산은 초기 리더들이 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2세대 양성에 힘쓰느냐는 문제와 아울러 마을 살림의 공공화 영역에서 일하는 리더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필요한 인프라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새날복지회’가 발전해 오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한편 보론에 소개하고 있는 ‘새날복지회’는 살림공공화의 과정에서 성찰할 거리를 던져준다. 이 단체는 지금도 그렇지만, 지자체나 국가가 일하는 여성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보육시설을 공급하지 못할 때, 결국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던 열 두 명의 여성들이 당시로는(1996년) 적지 않은 자금이었던 500만원을 출자하여 성남시 상대원 공단 지역의 다른 어려운 여성들의 자녀들을 함께 보살피는 어린이집을 설립한다. 이러한 출발에서 현재는 산하에 7개의 위탁기관을 두고 연간 사업비가 40억에 이르는 어린이·청소년·노인 복지를 아우르는 지역 복지의 센터로 우뚝 섰다.

어린이집, 청소년 센터 운영 등을 중심으로 한, 살림 공공화의 역량이 지자체 복지 사업을 위탁받게 되는 것, 사회복지사협의회를 통한 복지사 처우개선, 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복지사의 시 복지정책 참여에 이르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살림 공공화의 핵심 원칙인 자치와 소통이 ‘새날복지회’가 중심이 되는 성남시 복지체계 속에서 비교적 잘 작동되고 있다고 보인다. 다만 성남시 복지기관들이 얼마나 공동체적으로 경영되고 있는가는 별도의 연구과제로 남는다.

다음으로 앞에서 살펴본 단체들이 ‘살림의 공공화’를 확대, 심화시키기 위해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필요하다고 언급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관의 공공 지원의 기준이 규모 중심 일변도에서 내용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 내용의 공공성이 담보된 경우에 관이 공간 등 하드웨어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한국은 부동산 임대료가 전 세계적으로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의 비영리단체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구리여성회’처럼 공공 기능을 하는 단체의 회비 수입의 상당 부분이 임대료로 지출된다. ‘초록상상’은 다양한 회원 판매 사업, 강사비 후원 등으로 회비 수입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을 해결해가고 흑자까지 내고 있지만, 이 경우도 단체역량과 더불어 이 지역이 서울에서 임대료가 가장 싼 지역 중 한 곳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단체가 임대료가 두 배가 되는 다른 곳에 있었다면 이 단체도 적자를 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공간의 협소함은 과천의 ‘푸른내일을여는여성들’도 하소연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재활용 생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운영되는 ‘바느질팀’은 공간이 없어 가게 앞 복도에서 재봉틀을 두고 재활용 강좌 실습을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강좌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상반기 15명, 하반기 15명으로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현재는 법정 공간 기준이 아동 1인당 3.3㎡이다. 이 면적이 2018년부터는 6.6㎡로 확장된다. 이 면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는 그 동안의 보육의 질, 성실성 여부와 관계없이 운영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지역아동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민간단체들은 대체로 회원들이 월 5000원, 10000원 후원을 해주어 운영되는 단체로 빠듯한 살림살이이다. 현재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운영 위원이나 이사들, 뜻을 모은 회원들이 자금을 모으고 바자회나 일일찻집을 하는 등 해서 어렵게 마련하였다. 방과 후에 저소득층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는 백퍼센트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전세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 확대의 부담을 백퍼센트 민간 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지자체와 국가의 국민 복지 향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의 수 년간 운영이 부정이 없이 성실하게 운영되었고, 위탁 기관 법인의 살림이 넉넉지 않다면 공간 확대 부담은 지자체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민관 거버넌스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재산과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종교법인 산하 지역아동센터와 가난한 민간 법인간의 공간 지원비를 차등화 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국 사회는 아파트 단지마다, 동네마다 노인정은 없는 곳이 없다. 또한 이른바 관변 단체들은 주민들과 함께 하는 활동의 활발함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민자치센터나 구민회관에 공간을 갖고 있다. 이같이 지자체나 국가 차원에서의 공간 배분은 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공공 공간의 수요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거나 합리적인 공간 배분 원칙도 없고 고려 대상으로 삼고 있지도 않다. 노인정뿐 아니라 엄마들의 자치적인 품앗이 육아나 보육 관련 활동을 위한 공간, 공동식당, 공방 등이 아파트

나 지역의 공유 공간으로 필요하다는 정책 마인드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풀뿌리 단체들이 연대하여 한 목소리로 지자체, 국가를 상대로 조례나 법 제정과 같은 정책 언어로 요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규모 중심의 복지 마인드는 작은 도서관에 대한 행정 개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성동구도 17개 새마을문고를 작은 도서관으로 범주화하고 구는 주체 변화 없이 운영은 자원봉사자가 하면 된다고 보고 리모델링 예산만 지원하였다. 작은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관심 비전이 있는 운영 인력 지원 없이 어떻게 작은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냐, 세 네곳만 변화시키고 천천히 가자는 ‘책읽는엄마책읽는아이’ 관장의 컨설팅은 무시되었다. 1년 뒤에는 공간만 알록달록 한 채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고 문은 닫혀 있는 상태가 되었다. 공공성 마인드 부족하니까 봉사자가 없으면, 공무원이 대신 지키고 있기도 하였다. 작은 도서관을 규모 중심으로 이해한 데서 비롯된 문제이다. 교회도서관의 작은 도서관들도 마찬가지로의 문제에 봉착해 있다.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와 같은 제대로 된 작은 도서관은 내용 면에서 구립 도서관보다도 훨씬 더 풍부하고 역동적이다. 마포구립도서관의 일년 도서비가 연 2백오십만원일 때 이곳의 연간 도서비는 자체 6백만원, 지원금 2백만원 해서 8백만원에 달했다. 서울문화재단이 ‘한도서관 한 책읽기 프로그램’을 하면서 구립도서관에는 연 500만원을 차등지원하는데 내용과 운영이 실한 민간 작은 도서관에도 이런 지원금을 지급하면 구립 도서관 몇 배의 일을 해낼 수 있다. 규모를 기준으로 구립에만 이런 프로그램비가 지원되는 것은 문제이다.

두 번째로 관이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 기관을 규제 일변도로 보는 데서 벗어나서 현장에 대한 파악을 기반으로 부실한 민간 기관에 대한 엄중한 평가와 처벌, 성실한 민간 기관에 대한 지원이라는 두 잣대를 조화롭게 가져가야 한다. 지역 아동센터의 경우 2015년부터는 전 아동을 사례관리하게 되어 있다. 아동 한 명 한 명에 대한 모든 돌봄과 상담 내용 등을 매일 매일 기록으로, 문서로 남겨야 한다. 현재 10~30명 기준 법정 교사는 2명이다. 현재도 이 두 명이 보육과 회계 정리 및 관보고 관련 일체 행정 업무를 다 해야 하는 것이 벅차다. 그래서 아이를 돌보겠다는 정신이 투철한 지역아동센터 경우는 두 명의 교사가 자기 인건비 중 일부를 다시 기부해서 보조 교사를 한 둘, 더 쓰기도 한다. 교사들은 부모가 가출한 아동의 경우는 아이 옷 빨래까지 해주어야 한다. 박봉에 격무이기 때문에 이직도 잦다. 이런 형편에 ‘사례관리’라는 명목으로 일이 더 증가되는 것은 보육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취지와는 상관없이 교사 격무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는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면, 상담 교사를 지자체와 국가가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보육의 질을 향상시

키는 효과를 낳는다. 관이 해야 할 복지 기능을 민에 가중시키는 것은 그나마 일구어온 민관 협력의 '살림 공공화' 질을 떨어뜨릴 뿐이다.

규제 일변도나 관 기능을 민에 떠넘기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민관 모두 만족하는 '살림 공공화' 혹은 복지는 궁극적으로 복지 예산의 증액과도 맞물려 있다. 2012년 한국의 복지 규모는 GDP의 9.3%로 OECD가입국 중 최저이다. 반면 OECD 평균은 21.7%이다. 우리가 이 OECD 평균(21.7%)에 도달하려면 무려 복지 예산을 연 160조 원 늘려야 하는데 2014년 한국의 복지 예산은 1.7조 원 증액된 데 불과하다(오건호, 2013, '박근혜표 복지 예산, 자랑인가 수치인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_print.html?no=40267, 2013. 1.7). 아동가족복지지출 또한 최저이다. 2009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인데 반해 한국은 0.8%로 OECD 34개 회원국 중 32위를 차지한다(이주연·김미숙, 2013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 예산의 증액 없이 제대로 된 '살림의 공공화'도 예측하기 어렵다.

세 번째로 공공성이 있는 주민자치적인 마을 사업에 저리 용자와 같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소행주' 운동에서의 어려움은 전세비가 전 재산인 참여자들이 전세금을 빼지 못하는 건축 과정에서 목돈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코하우징'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주민들 스스로 좀 더 저렴하게 주택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치안, 안전, 보육, 복지 등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해주는 복지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공공성을 인정해 저리 용자와 같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소행주' 운동은 좀 더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일식씨, 이식군, 삼식새끼'라는 회자하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노년이 돼서 퇴직한 남편의 삼시 세끼 밥을 해주는 것이 가정마다 문제상황이 될 수 있거나 되고 있음을 암시해준다. '코하우징'을 통해 이런 개별 가구 식사의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음을 본다. 수 억을 투자하고 월 몇 백만원을 내야 하는 실버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노년층은 그리 많지 않다. '코하우징'은 현재는 어린이를 둔 참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지만 저렴하게 노인 주거, 복지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가능성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런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코하우징'의 공공적 잠재력은 무척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정책 지원이 들어갈 때 이 운동은 다양한 세대에 걸쳐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넷째로 프로젝트 사업에서 운영이 가능한 예산과 민간 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점점 더 공모 사업이 사업비 위주로 되어 가고 있고 현장을 모르는 심사자들의 평가에 따라 사업예산이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깎이기도 한다. '구리여성회'나 '어린이도서관 책읽는엄마책읽는아이'와 같은 단체들은 회원들이 자원봉사로 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 사례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

하는데 눈에 띄는 불만이 없다. 그러나 이 단체의 기능이 공공성을 띤다고 할 때, 프로젝트에서 일정 부분 인건비를 인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인다. 모든 법인이 프로젝트 진행할 인력 인건비를 충당할 만큼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목 지출을 조작하는 예산 집행을 유도하게 되어, 알면서도 눈감는 예산 변용을 일상화하게 된다.

엄마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어린이도서관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의 관장도 다음 관장은 급여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여기고 있다. 후원 회원을 좀 더 많이 확보해 그런 구조를 만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는 쉽지 않다. 공공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보다 더 많은 지자체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도서관보다 더 많은 공공 기능을 해내는 이런 민간 작은 도서관에 대한 인력 지원은 정책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는 살림공공화가 심화·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어야 함을 주장하는 성실하게 살림 공공화를 진척시켜온 단체들의 소리를 들어보았다. 단체들은 관의 공공 지원의 기준의 규모 중심 일변도에서 내용 중심으로의 변화, 규제 일변도에서 성실한 민간 기관에 대한 지원, 공공성이 있는 주민자치적인 마을 사업에 저리 용자와 같은 자금 지원, 프로젝트 사업에서 운영이 가능한 예산과 민간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은 오랜 경험 속에서 나오는 소리인 만큼 경청되어야 하지만, 개별 단체의 의견으로는 경청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풀뿌리 단체들이 연대하여 한 목소리로 지자체, 국가를 상대로 조례나 법 제정과 같은 정책 언어로 요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연이나 참여연대와 같은 연합 단체나 정책 변화를 목표로 하는 단체들이 풀뿌리 단체들의 이런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아니면 성남시의 ‘새날복지회’가 중심이 된 ‘사회복지사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회’의 사례와 같이 사안별 지자체·국가 수준의 연대체들의 결성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날복지회’와 성남시가 지난 삼십여년 동안 이룩한 이러한 거버넌스는 전국적으로 가장 앞선 거버넌스 모델로 보인다. 살림공공화가 지자체에 어떻게 긍정적인 정책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거버넌스 모델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VII. 살림문화 사업 추진방안

이혜경·김정희·신지영·정해은

1. 살림문화 사업을 제안하면서
2. 살림문화의 개념과 범주
3. 살림문화 사업의 단계(2014~2015)
4. 사업의 필요성
5. 살림문화 사업의 계획과 추진

1. 살림문화 사업을 제안하면서

이 연구는 새로운 살림문화를 꿈꾸며 출발한 사업으로 일상으로부터 새롭게 사유하고 실천하기 위한 연구이다. 새 판 짜기를 도모하는 이 살림문화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다. 최고 이익 창출이 최고선으로 군림해온 지난 3백년간의 서구 문명은 한국 사회에서는 지난 오십여 년 동안 한국식 압축적 근대화로 진행되어 왔다. 한국은 이 반세기 동안 전쟁의 폐허, 세계 최하의 극빈국에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월은 한 사회의 지속가능 삶을 보장하는 자연과 생존적 필요를 충족하면서도 인간으로의 품위를 유지하게 하는 삶, 마을 공동체, 오랫동안 공유해온 공동체적 혼이 깃들인 문화를 파괴시키면서 이것들을 시장에 종속시키는 과정이었다.

제레미 리프킨, 반다나 쉬바, 제레드 다이아몬드 등과 같은 인류 문명을 진단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는 인류는 반세기, 한세기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경고가 근거 없는 오폭용 진단만은 아님을 우리 자신과 이웃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확인하고 있다. 살림문화 사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지구촌 살림 문명을 열어가는 작업을 지금, 여기서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림문화를 새롭게 열어가고자 할 때 두 세기 전 ‘빙허각 이씨’라는 대모(大母)가 집대성해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규합총서』라는 살림문화 유산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 빙허각 이씨라는 ‘흔 어머니’의 유산에 의지하여 우리가 맥을 놓치거나 슬럼화해 온 살림 문화를 온전히 복원하여 현대적으로 계승해가는 것이 21세기 살림 문명을 열어가는 든든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새로운 차원의 살림문화 형성과 공유, 그리고 온전한 하나의 살림마을이 두 곳, 세 곳, 네 곳으로 계속 번져가면서 이 변화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 한반도 곳곳과 한반도 넘어서까지 확산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후속 사업을 제안한다. 따라서 이 살림문화 사업은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서 장기적 전망을 갖고 최고 수준의 민관 거버넌스로서 체계적으로 수행해 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진은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가 이러한 연구진의 살림문화 사업 전망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을 때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공감대 위에서 경기도를 21세기 한국 사회 더 나아가 지구촌 살림 문명을 열어가기 위한 중심 살

럼터로 자리매김 해가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살림문화 사업을 전개해 갈 것을 제안한다.

2. 살림문화의 개념과 범주

원래 살림은 예로부터 주로 여성들의 일로써, 가정을 중심으로 해온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일, 의·식·주 생활관리, 간호 등 생명을 살려내고 유지시키는 일체의 활동을 지칭한다. 그러나 ‘마을 살림’, ‘지역 살림’, ‘나라 살림’, ‘지구 살림’과 같은 용어가 통용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살림은 가정 내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지역, 국가, 더 나아가 지구사회 경영까지도 포괄하는 매우 폭넓은 외연을 지닌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다양한 어법에 담긴 살림의 개념 혹은 살림정신은 살림이 애초에 사적일 수만은 없는 공공적인 것 까지도 포괄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살림의 외연을 집 밖의 예술 활동으로, 공공적 활동으로 확산해 가는 사례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살림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인 살림문화란 ‘생명을 살리고 돌보며 지속시키고자 하는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인 가정의 일상 살림뿐 아니라 개인과 사회, 지역과 지구 전체를 살리고자 하는 가치체계, 신념, 세계관 등을 포함한 삶의 방식의 총체’라 할 수 있다. 즉 ‘상생의 가치관에 기반하여 가정 안팎에서 생명을 살리고 지속시키는 활동, 삶의 방식의 총체’를 이른다.

그러므로 현재 상태의 가사노동은 서로가 서로를 도구화시키는 관계, 서로가 소외된 관계 속의 노동 및 관계라는 측면에서 그 즉자적(an sich) 상태, 그 자체는 진정한 살림문화라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연구에서 살림문화라 할 때 그것은 원래 살림의 의미를 되찾고자 모색하는 실천적 행위의 총체로서 대자적(für sich)성격을 갖는다. 즉 의식적으로 살림을 지향하는, 살림을 되찾고자하는 성격을 갖는다. 현재 가정의 영역까지 포함하여 우리의 일상이 거대한 전지구적 경제체제에 의해 식민화 되어있다는 시각에서 이 연구는 출발하였으므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율적인 삶의 공간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들을 일컫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볼 때 살림문화의 외연은 당연히 삶의 전 영역으로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와 후속사업이 이 모든 살림문화에 주목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앞서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첫째, 이 연구는 살림문화형성을 위한 새로운 실천을 위한 것으로서 새롭고도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만들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오랫동안 여성들의 일이었고 지금도 여성들의 일인 살림살이 노동이 사회적으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획득하고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미 생산, 새로운 언어, 새로운 가치, 새로운 실천을 널리 공감하고 공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아카데미한 연구는 학자들만이 공유하는 연구지에만 수록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실천, 특히 여성 시민들과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움직임으로 확산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언어의 창출과 공감, 공유와 확산의 장으로 ‘축제’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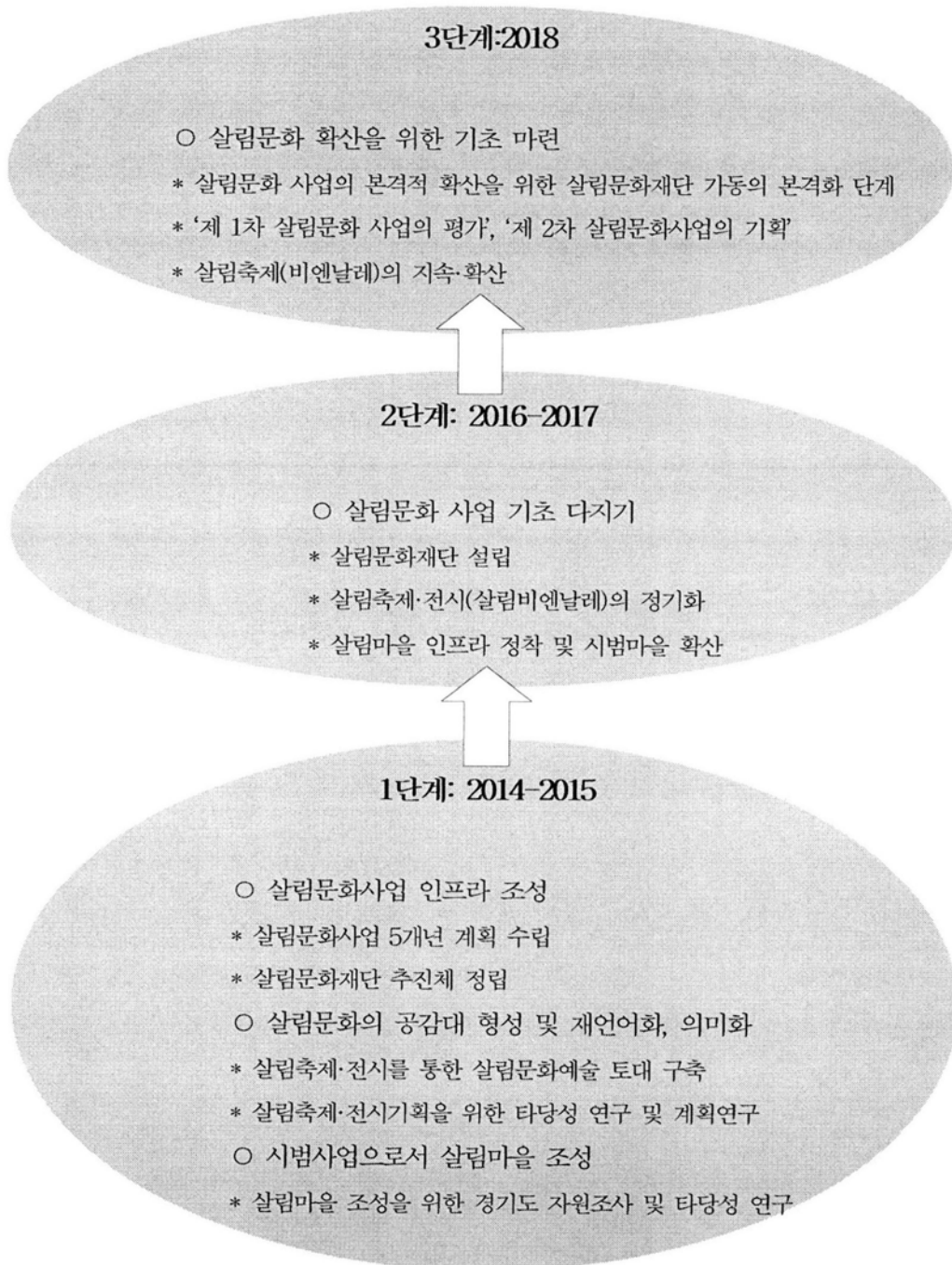
둘째, 새로운 살림의 공간의 형성과 그 주체의 형성을 언급하였다. 새로운 살림문화의 실천은 구체적인 삶의 공간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새로운 윤리적 삶의 공간, 상생의 문화공간 말이다. 다양한 개인과 집단, 주체들은 생계와 더 나은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방식, 상호 의존성의 문제를 서로 논의하며,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바로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장소에서 감각하고 느끼며 생각하면서 우리의 몸뚱이를 통해 새로운 역사,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살림마을’을 제안한다.

셋째, 크게 이 두 가지로 범주화된 살림문화 사업은 당연히 우리가 연구를 시작하면서 밝혔던 세 번째 지향, ‘함께 만들어가기’를 충족시켜야 한다. 살림문화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공동체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 때 그것이 축제공간이든 살림마을 공간이든, 함께하기 혹은 공동체(community)의 개념은 반드시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을, 지역, 공동체라는 용어를 맥락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 있는데 아주 폭넓고 분산된 형태의 집단행동, 혹은 함께하기도 포함된다. 반드시 고정된 공간, 제한된 장소 안에서의 함께하기만을 의미한다면 이는 너무 평면적이다. ‘살림마을’을 말할 때 당연히 물리적이고 지역적 공간에 기반할 것이지만 ‘함께하기’, ‘공동체’의 개념은 일시적인 공동체, 축제적 공동체, 헤쳐모여를 반복한다든가 따로 또 같이 하기 등 다양한 방식의 상호연계와 열린 가능성들을 복돋우기 위한 매우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의 함께하기를 포함한다.

이로써 살림문화 사업의 실천적 범주으로써 ‘축제’와 ‘살림마을’, 크게 이 두 가지 범주 안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3. 제 1차 살림문화 사업의 단계(2014~2018)

<표 8>



1) 살림문화사업의 단계적 추진

살림문화 사업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가치, 새로운 주제, 새로운 실천, 새로운 조직 등 이를 잘 담아내고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사고의 틀 뿐 아니라 독자적 조직의 틀을 갖추어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첫째, ‘살림’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새로운 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독자적 조직 ‘살림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4년 하반기부터 살림문화재단 추진체를 준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제 1차(2014~2018) 살림문화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함으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살림문화사업의 인프라를 형성하기 위한 첫 준비로서 요구되는 일이다.

둘째, 살림문화의 재언어화, 재의미화 작업과 이를 널리 공감하게 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살림문화축제를 제안한다. 이 틀 안에서는 전시, 공연, 심포지움, 워크숍, 장터, 카페 등 다양한 층위에서의 소통과 살림문화 확산이 가능할 것이다. 이성적이면서도 감성적인, 감각적, 혹은 무의식 수준으로까지 대중화시키는 토대로 필요한 일이다. 2015년에 이를 실시 할 수 있게끔 2014년에는 살림문화축제, 전시계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축제의 장에서는 살림문화사업의 원천으로서 ‘빙허각이씨에 대한 전시’를 기본으로 하며 특히 일상의 실용적인 목적으로 출발한 자수를 예술적 차원으로 인정받게끔 새로운 차원의 전시와 심포지움을 한다. 빙허각의 정신을 오늘날 이어받는 각종 살림꾼들을 칭찬하는 기회를 갖고(예: 일상생활을 세밀히 기록하는 사람들, 살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들, 알뜰함과 나눔의 살림을 하는 사람들) 상도 주며, 각종 의식주의 지혜를 뽐내는 행사를 함으로서 일상문화를 한층 고양시키기 위한 일상적 살림의 축제화를 도모한다. 뿐만 아니라 대안적 삶, 대안적 문화의 방향을 도모하고(건강하고 자연친화적 삶의 방식, 다양한 생활공동체, 아름다움이 있는 노동, 느낌의 미학, 상생과 나눔의 협동체 등) 다양한 방식(놀이로, 공연으로, 장터로)으로 재현하고 나누게 될 것이다.

축제가 보다 특별한 공간 안에서의 고양된 시간, 자극을 주고받는 시간, 살림을 다시 생각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일상적 삶의 공간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림’을 새롭게 구성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범사업으로서 ‘살림마을’을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살림마을을 통하여 자율적이고도 자급적인 경제공동체, 나눔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육아와 교육을 위한 새로운 협동뿐 아니라 새로운 생산, 새로운 유통, 새로운 교환체계를 도모한다. 그 위에 자신들

의 생각을 표현하고 나누는 훈련의 장, 실현의 장으로서 마을미디어 사업, 치유와 협동의 공동체 정원, 텃밭가꾸기, 공동체놀이, 공동체예술 등 총체적으로 일상의 재구성을 차례차례 도모하는 새로운 삶의 공간, 살림마을을 하나씩 돌씩 실현시킨다.

이렇게 1단계가 지나면 이를 정기화하고 정착시키면서 2단계(2016~2017) 다지기 단계가 될 것이다. 지난 사업의 성과들을 평가하면서 동시에 ‘살림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보다 본격적으로 살림문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단계가 될 것이다.

2018년은 3단계로서 그동안 진행해 온 ‘제 1차 살림문화 사업의 평가’와 ‘제 2차 살림문화 사업의 계획’이 진행되는 해로서 1차 사업의 마무리와 2차 사업이 교차되는 동시에 살림문화재단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4. 사업의 필요성

1) 살림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

첫째, 오늘날 여성들은 억압적 삶의 방식을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혼을 한다는 것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이 아니라면, 비주체적인 것이라면 기꺼이 싱글을 선택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자신의 주체적인 삶,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고 돈을 벌고 독립성을 갖는 데 장애가 된다면 아이 갖기는 포기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1.22명으로 세계 최하위이다. 국가는 노동력이 재생산되지 않고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 앞에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는 획기적이거나 여성들이 만족할 만한 정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여성들은 스스로 자신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나라도 살릴 수 있는 실천의 주체, 당사자로서 나서야 할 것이고 지자체나 정부는 여기에 체계적으로 응답(response)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지점, 여성들 스스로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지자체나 정부가 응답할 수 있는 지점, 이것이 바로 체계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정책을 이제까지와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살림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이다.

둘째, 살림문화축제의 필요성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약 1000여개의 축제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축제에 대한 친근성이나 우호적인 인식은 매우 약하다. 이는 60, 70년대의 군사주의 문화 속에서 관주도하여 만들어진 천편일률적이고 박제화된 축제, 90년대 이후 지나치게 경제적 목적이 앞선 축제, 지역홍보수준

의 지역 축제가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농촌공동체 시절의 세시풍속으로서의 설날, 추석, 단오, 대보름만큼도 사람들에게 충일감, 설렘, 내일은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공유하게 하는 축제로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십만여 개의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프랑스 국민들은 그것을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대조적이다. 이중 약 2만여 개는 관광객이 찾고 있는 볼만한 축제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주민들 스스로가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기념하거나 통과의례적 축제로 즐기고 있는 것들이다. 흔히 축제는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거리는 것으로 인식되며 너무 비생산적이지 않은가 하고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 확실히 축제는 비생산적이고 비일상적이다. 그러나 축제는 일상의 생산적 삶을 위해 아주 중요한, 필수불가결의 것이다. 축제는 일상의 삶을 멈추고 잠시 다시 생각하는 기회이다. 축제는 일상의 불만과 갈등을 온통 뒤흔드는 광기와 재미를 체험하면서 다시 일상의 활력을 넣어준다. 일상과 다른, 전도된, 이것저것 섞여있는, 다층적인 것을 체험하며 더불어 재미있는 가운데 재주를 칭송받기도 하고 새로운 규칙을 습득하기도 하는 높은 수준의 문화 활동이기도 하다. 때로는 엄밀함과 정확함, 때로는 대담성, 능숙한 솜씨, 영리한 두뇌활동을 필요로 한다. 충분한 자유 속에서 창의력은 고양되고 지적발달과 정신교육의 장이 되기도 한다. 삶이 불안하고 사회가 위기에 빠져있을수록 사회는 갈등의 해소와 새로운 모색을 필요로 하며 축제는 모의적 방식으로 덜 갈등적 방식으로 새로운 질서를 꿈꾸며 모색하고 체험하는 장이다. 삶은 관념도 아니고 구호도 아니다. 몇 마디 말로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의 일상사만큼이나 복잡적이고 다층적인 것의 재배치를 통한 색다른 경험을 통해 축제는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는 가능성을 열게 한다. 바로 이러한 축제의 성격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고, 새로운 실천, 새로운 질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살림문화’는 축제를 통한 공감대 형성의 첫 단계로서 아주 중요하다 하겠다. 즉 살림문화축제는,

- 빙허각 이씨의 삶과 「규합총서」의 내용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첫사업으로서 살림문화 정신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 축제는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넘어가는 통과 의례로서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데 매우 적절하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사회문화운동의 방법으로 매우 적절하다.

셋째, 시범사업으로서 ‘살림마을’의 필요성이다. 본 연구의 앞머리에서 밝혔듯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전지구적 경제체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자율적인 경제·

문화 공동체로서 여성주도적인 살림문화를 위해 살림마을의 구체적 실현이 이 첫 사업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살림마을, 살림공동체의 형성은 이 프로젝트의 출발이자 끝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것이다.

더구나 빙허각 이씨가 집대성한 살림문화가 2013년 ‘김치와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듯이 인류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온전하게 삶의 맥락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는 없다. 현재 농촌마을의 여성노인들은 이러한 문화를 체득한 마지막 세대라 할 수 있다. 이들 생전에 이분들의 살림문화를 청장년 여성들이 물려받아 사는 농촌형 살림마을은 문화보존 차원에서도 매우 시급한 현실이다.

그러한 살림문화의 보존과 전수는 중장기적 생태·공정·책임 여행의 자원이 될 것이다. 21세기 새로운 여행의 추세로 등장하는 생태여행, 공정여행, 책임여행에서는 현지민의 삶을 가능한 한 현지민처럼 경험하는 것이다. 관광지를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문화의 체험과 공유가 중요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방식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빙허각의 살림문화를 온전하게 계승하는 농촌마을은 이러한 대안여행의 적소가 될 수 있다. 국내의 십여 개에 지나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공정여행사들은 한국인들을 외국에 데리고 나가는 여행만을 진행하며 외국인을 국내로 데리고 들어오는 공정여행은 진행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대안적 농촌공동체로의 ‘살림마을’ 공정여행·생태여행 프로그램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살림문화사업의 계획과 추진

1) 2014년에 추진해야 할 사업

□ 연구사업

- ① 살림마을 조성을 위한 경기도 살림문화 자원조사 및 타당성 연구(2014년 5월~8월)
- ② 2015년 살림문화축제와 전시계획연구(2014년 6월~12월)
- ③ 제 1차 살림문화사업 5개년 계획 연구(2014년 6월~12월)

* 제 1회 살림문화 심포지움 및 살림문화선언: 2014년 4월(이 연구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시행)

□ 시범사업

- 방법: 연구사업 중 첫번째 항목의 연구를 바탕으로 살림마을을 시연한다(이것은 마을을 선정하여 부분적으로는 실제로 조직하여 실행하며 부분적으로는 재현의 방식을 취한다).
- 기간: 2014년 5월~10월
- 발표: 2014년 10월
- 내용:

○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 도서관과 놀이터 기능을 기본으로 하며 거실, 카페 등 다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운영 프로그램. 개인적인 영역이었던 육아와 교육분야의 살림부담을 공동으로 나누어진다.
- 이는 여성들의 살림정보 교류 및 여성들의 네트워크의 장으로 살림공동체 형성의 한 형태이다.
- 장난감과 책이 같이 있는 넓은 거실과도 같은 공간: 한두살의 유아부터 초등학교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 바닥에 앉아 책도 읽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
- 엄마들의 카페: 엄마들과 함께 운영하며 과자를 굽고 간식을 만들기도 하고 차도 마실 수 있는 카페기능도 한다(아이들과 놀아주는 사이사이 쉬기도 하며 수다를 통해 정보교환도 하고 회의를 하기도 한다).
- 북카페: 초, 중학교 아이들을 위한 컴퓨터, 책, 책상이 있는 아늑하고 편안한 도서관
- 함께 가꿀 수 있는 텃밭과 정원
- 함께 조리할 수 있는 부엌

※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공동으로 놀며 공부하며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 하는 공간이다.

외국의 유사 사례: Family Place Libraries, Communal Garden, Mother's Center 등을 동영상으로 보여준다.

▲Family Place Libraries (www.familyplacelibraries.org)

1996년 미국 롱아일랜드에서 처음 생겨남, 관장이었던 Sandy Feinberg가 자신의 육아 경험을 통해 도서관을 변형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됨, 도서관을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장소가 아니라 양육을 같이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로 만들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어울려 프로그램 개발

- 책과 장난감이 같이 있는 커뮤니티 룸을 만듦
- 책과 놀이를 통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 유아기, 아동기의 놀이, 책 읽기, 사회성이 평생을 좌우함
- Family Place Library Training Institute 설치: 이를 통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 직원들을 훈련시킴, 현재 미국 전체로 퍼져나감

▲ Mother's Center (MINE, Mother's Center International Network 참조)

대표적 풀뿌리 여성 커뮤니티 운동, 독일에서 처음 시작,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태리 영국 미국 등 전 세계로 번져나감

- 살림 친화적으로 아이, 엄마가 함께 모이는 장소를 제공.
- 여성들을 고립된 가정의 영역에서 끌어내 공동체를 형성하게 함, 육아, 양육, 살림의 질을 높임
- 다문화 가정의 여성, 아이들이 공동체에 융합될 수 있게 함
- 역할: 아이들의 놀이 그룹 형성, 놀이방, 육아지원, 장난감 책방, 벼룩시장, 쇼핑 서비스, 페스티벌, 언어, 컴퓨터 교육, 수선, 바느질, 퀼트, 노인 돌봄, 식사, 세탁 등 살림의 전 영역을 도움 받을 수 있고 함께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

▲공동정원(Communal Garden, Community Garden), 공동텃밭

도시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가꾸는 공동의 정원 텃밭, 공동으로 정원, 텃밭을 소유, 같이 경작. 유럽에서는,

- 신선한 먹거리를 같이 경작해서 먹음, 공동체 형성
- 영국, 독일 등 유럽에서는 역사가 오래됨, allotment garden, 세계 대전시에는 'Victory Garden'이라고 불림, 영국 독일의 경우, 산업혁명으로 도시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 자연 경작에 대한 깊은 향수가 있음, 공동이 함께 공유하는 텃밭 운동이 일어남, 1, 2차 대전 시에 식량 공급의 원천이 되어 Victory Garden이라고 불림.
- 미국의 경우 Community Garden은 'American Community Gardening Association(1979)'이 대표적 케이스 : 같이 정원, 혹은 텃밭을 가꾸면서 커뮤니티 형성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 함께 경작하면서 사람들이 모인다. 축제, 벼룩시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문화행사 주민들이 진행, 생태교육, 아이들 교육효과도 좋음.

○ 벼룩시장

- 안 쓰는 물건 가져와 팔기

○ 물물교환 장터

- 서로 안쓰는 물건을 가져와 교환하는 장터(미리 비슷한 가치를 갖는다 생각 되는 물건에 맞는 색깔 별 스티커를 붙여 교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살림마을 매뉴얼 전시

- 살림마을이 필요 갖추어야 할 요소들-프로그램, 인테리어의 적정성, 봉사자 훈련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림마을 매뉴얼로 만들어 참고하게 한다.

○ 서클댄스 공연

- 평화와 치유의 춤, 상생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공동체 예술 프로그램으로 유럽과 미국 등에서 행해지는 서클댄스를 함께 배우고 공연한다.

○ 음식 나누기 파티

- 규합총서에 있는 음식 중 몇 개의 레시피를 시연하고 함께 음식을 만들어 와 나눈다.

2) 2015년에 추진해야 할 사업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경기도가 해야 할 전시프로그램을 「빙허각 이씨와 살림문화」로 한다. 동시에 경기도에서 일정한 장소(예: 경기미술관)를 정하여 살림축제를 동시에 진행한다.

□ 전시·교육·축제 사업

① 프로그램 1: 빙허각 이씨와 살림문화

○ 전시 프로그램

- 빙허각의 삶과 규합총서 소개(총론적 소개)
- 그림연극으로 보는 빙허각 이씨의 삶(이동하면서 볼 수 있도록 전시 벽면에 길게 펼쳐진 형태로 한다)
- 규합총서의 실물 전시 및 주식의, 봉임촉, 청량결, 산가락, 술수략 중 일부를

오늘날의 한글로 읽을 수 있게 다시 써서 전시한다.

- 규합총서 주사의(술과 음식)편에 수록된 음식을 재연하여 전시한다.
- 미니어처로 규합총서의 내용들을 재현한다.
- 영상으로 보는 규합총서(약 7분 정도의 소개와 해설로 비교적 자세히 오늘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을 소개한다)

○ 참여 프로그램

- 게임으로 이해하는 규합총서: 컴퓨터 게임으로 하는 퀴즈놀이
- 바닥에 연판어를 찾아 뛰어 다니는 오랜말 놀이같은 컴퓨터 게임 놀이
- 빙허각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쓰기

○ 공연 프로그램

- 구연동화로 듣는 빙허각 이씨의 삶과 자유 토론
- 빙허각에 대한 노래 공연(작사·작곡을 의뢰한다)
- 빙허각에 대한 연극 공연(전시장을 함께 돌며 한다)

② 프로그램 2: 살림 속에서 피어난 자수예술 (5개 섹션)

○ 제 1 섹션: 근대 자수와 여성

자수를 미술대신 선택하였던 근대기의 신여성 자수가 많이 있다. 수원에서 태어난 나사균 같은 이들이 대표적인데 동경 여미전에 유학하였던 나사균, 박을복 같은 이들을 추적하고 잊힌 여성의 역사를 다시 복원하는 근대 자수전을 열수 있다. 여성의 역사 쓰기라는 맥락에서도 무척 의미 있는 일이다.

예: 나혜석, 나사균, 박을복, 이장봉의 작품 전시, 인터뷰, 문헌 연구 등으로 구성

○ 제 2 섹션: 자수와 현대미술

자수는 그 노고나 미적인 아름다움에 비해 일반인의 평가가 부족한 부분이다. 잘 알려지지 않는 작품이나 훌륭한 자수가 많다. 본 논문에서 조사 한 이상으로 더 많은 자수를 찾을 수 있고 작품을 모을 수 있다. 예술작품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자수는 전시를 하면 시각적으로도 볼거리가 많고 흥미로운 이벤트가 될 수 있다.

또한 현대미술 작가 중에는 현재 여성주의에 공감하여 자투리 천이나 실과 바늘을 미술의 재료로 쓰는 여성작가들도 있다. 김수자, 신경희 같은 작가들이 대표적인데 이들과 자수가 들의 작품을 함께 전시하는 것도 여성의 일을 다시 평가 하는 살림 담론을 이끌어 가는데 좋은 디딤돌이 되리라고 본다.

○ 제 3 섹션: 바느질하는 여자들, 자수 명장

자수 명장, 전통 자수 작가들, 그 미적 품격이 예술로 평가되어야 할 작품들을 전시한다.

예: 한상수, 김계순, 김현희, 손인숙, 윤희순의 작품 전시와 이력, 인터뷰로 구성한다.

○ 제 4 섹션: 세계 퀼트 자수 페어와 축제

여성들이 집에서 남은 천조각과 실, 바늘로 하는 퀼트는 한국의 자수와 비슷한 것으로 여성주의가 부상하면서 재조명되었다. 현재 퀼트 축제, 전시, 페어는 뉴욕, 휴스턴, 영국, 일본 등 세계 각 도시에서 열리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열리고 있는 이 퀼트 축제들과 연계하여 국제 퀼트 축제, 페어를 한다. 시상식도 한다. 영상물로 소개한다.

○ 제 5 섹션: 나도 자수 예술가입니다.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의 작품을 공모하여 이름 있는 공예가로, 예술가로 등극케 하는 참여 공모 전시.

③ 참여 프로그램

- ‘나도 바느질 잘해요’ : 흔히 쓰는 필통이나 생활가방을 어린이들이 간단히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
- 수다 떨며 조각보 만들기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친구들과끼리 삼삼오오 모여 공동의 작품을 만들거나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배깅보에서부터 이부자리, 식탁보, 행주 등을 직접 만들어 보는 워크샵.

○ 강연

- 전통 자수의 도안이 상징적 의미를 강의로 듣는 프로그램

※ 위의 프로그램까지는 전시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고 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살림 문화 전반을 다양한 형태로 풀어낸다.

○ 토론

- ‘토크 쇼’ : 나에게 살림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방송사 아나운서나 전문 MC, 여성학자, 일반 여성들이 함께 수다 떠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토론 프로그램

⑤ 학술 프로그램

- 21세기와 살림문화 : 학술 프로그램으로서 관련학자, 공무원, 실천하는 NGO 들이 모여 진행하는 살림문화사업의 의의를 공유한다.

⑥ 공연 프로그램

- 연극 “살리고 살리고!” : 살림의 정신을 웃으면서 공유하는 연극. 노래와 춤, 대사가 함께하는 연극.
- 서클댄스 : 치유와 명상이 있는 평화의 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하나임을 몸으로 체현하는 춤. 춤 전문가와 일반인이 함께하는 춤
- 노래하는 여자들 : 한영애, 이상은, 말로, 안혜경, 지현 등 여성적 감성과 메시지가 함께하는 여성 디바들의 공연.

⑦ 참여 프로그램

- 어머! 변태했어요! : 잘 입지 않는 옷, 커튼, 테이블보 등의 변신. 의상학과 학생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옷, 아이템으로 변신시켜보자. 새로운 액세서리와 함께 코디한다.
- 알콩달콩 궁합 맞추자 : 궁합이 맞는 음식들, 친구와 연인, 부부와 가족들이 참여하여 궁합 맞는 요리도 만들고 상도 받고 공부도 하고 재미도 있고!
- 내가 꿈꾸는 우리 마을, 살림마을! : 글쓰기, 그림그리기 등으로 참여, 꿈도 꾸고 상도 받고! * 혼자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 진다!
- 나도 정크아트 예술가 : 버리는 폐품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어보자. 우리집, 우리마을을 꾸미는 설치미술도 우리가 한다.
- 살림장터 : 서로 좋은 시장
- 물물교환장터 : 안 쓰는 물건을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교환하는 장터
 - 벼룩시장 : 내가 안 쓰는 물건들 다른 사람에겐 유용하다.
 - 공예장터 : 내가 만든 물건들, 공예품들을 팔아본다.
 - 북카페 : 집에 있는 책들, 가지고 나와 주고, 팔고, 읽고!
 - 음식장터 : NGO들, 작은 모임들에서 각종 음식을 장만해와 솜씨도 뽐내고 입도 즐겁고!
- 단체 부스 : 대안문화, 살림문화의 공동체들, 자신들의 활동을 알리고 홍보하며 새로이 회원들도 모은다.
- 기업홍보 부스 : 친환경, 살림문화와 관련한 기업들에 기꺼이 부스를 내 주어 프로모션할 기회를 준다.

□ 일상적 삶의 공간에서의 교육사업

살림문화사업은 축제기간 이외에도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서 시행하는 것도 물론 매우 필요한 일이다. 특히 많은 교육프로그램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정

해은 연구자가 제안한 ‘규합총서 읽기’나 ‘전통요리교실’이 그러하다.

① 고전의 향기 : 『규합총서』 읽기

· 취지

- 여성이 쓴 생활대백과서 『규합총서』에 대한 원전 강독을 통해서 전통시대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지역 인물에 대한 고취를 통해 지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높인다.
- 최근 사회 각계에서 인문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강의를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수강생들이 직접 원전(原典)을 접하는 프로그램들이 호응을 받는 추세다. 현재 『논어』나 『맹자』, 『주역』 같은 고전(古典)이 인기가 높은 편이다. 아직까지 해당 지역의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한 강독회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경기 여성 인물과 관련하여 강독회를 연다면 인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동시에 다른 지역의 인문학 운동을 선도할 수 있다.

· 목표

- 빙허각이씨와 『규합총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지역 인물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서 지역민으로서 참여의식을 이끌어 낸다.
- 원전을 직접 접해봄으로써 자아에 대한 존중감을 고취한다.
- 원전 읽기를 통해서 다른 인접 분야에 대한 자발적 관심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내용

- 『규합총서』은 총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글로 쓰여 있다.
- 한글로 쓰였지만 옛 한글인데다가 한자어가 많다.
- 전체 내용을 강독하기에는 분량이 많으므로 앞의 두 장(음식/의복)만 집중적으로 강독한다.

· 방법

- 기간 : 2개월 코스/탐방여행 1회
- 강사 : 전통시대 음식과 의복 전문가나 역사학자
- 인원 : 20명 이상
- 강의교재 : 수강생들에게 배포할 강의교재를 미리 제작한다.

② 전통요리교실 : 『규합총서』 음식만들기 교실

· 취지

- 『규합총서』의 조리법을 익혀 우리 민족 고유의 맛과 멋을 체험한다.
- 『규합총서』에 나오는 조리법을 통해 양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 청주에서는 이 지역 요리서인 『반찬등속』(1913년)을 연구하는 (사)청주반찬등속보존회나 반찬등속연구회 등이 조직되어 있음

· 목표

- 『규합총서』에 나오는 주요 조리법을 소개하여 전통시대 맛에 대해 즐거운 체험을 유도한다.
- 『규합총서』요리 보존회나 연구회가 결성될 수 있게 한다.

· 내용

- 『규합총서』의 조리법은 서울 지역 음식으로 추정됨
- 이 가운데 경기도와 관련하여 ‘용인 오이지법’이 주목
“오이 백개를 꼭지 없이 하고, 혹 상한 것 가리어 항아리에 넣고 맑은 뜨물과 냉수를 섞어 소금을 싱겁게 타, 오이 넣은 항아리에 붓고, 이 이튿날 내어 아래 위로 바꾸어 넣고, 또 그 이튿날 또 이렇게 하여 날마다 여섯 일곱 번 하여 익히니 용인 외지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
- 장, 김치, 밥과 죽(오곡밥, 양박, 타락죽, 우분죽, 구선왕도고 의이, 삼합미음, 개암죽, 울무의이죽, 호도죽, 갈분 의이죽), 차, 각종 반찬(완자탕, 복어탕, 열구자탕(신선로), 송이찜, 붕어찜, 계찜, 생치구이, 동아선, 전복다식, 전유화, 생선계장전유화, 화채, 죽순채, 월과채, 떡볶이, 족편, 쇠고기순대, 제피수정, 뚝뚝이좌반, 편포, 청어젓, 게젓, 연안식해법, 용인외지법, 명월생치채, 전복침채, 동치미), 냉면, 생선, 육류, 과자, 음료, 술(구기주, 도화주, 연엽주, 와송주, 국화주, 매화주, 연엽주, 굴주, 두견주, 소국주, 과하주, 감향주, 일일주, 삼일주, 송절주, 소주), 별식 등 각종 음식 조리법이 다양하게 수록

· 방법

- 정례반과 일일체험반을 운영한다.
- 정례반의 경우 2개월 코스로 운영한다.
- 최소 15명에서 최대 30명으로 제한

- 정례반의 경험을 다듬어서 향후 경기도 문화 관광 콘텐츠로서 일일체험반을 운영할 수 있게 발전시킨다.

이 밖에도 연극·연극·영화·춤·미술·사진 등의 예술 프로그램도 일상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커뮤니티 아트’나 ‘마을 미디어 사업’도 살림문화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따로 다른 살림문화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 일상적 삶의 공간에서 새로운 주체, 여성으로부터 새로운 살림 문화가 출발하기를 소망하는 이 살림문화 연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세계속의 경기도’를 표방하고 있는 경기도는 ‘새로운 문명을 이끌어 내는 세계속의 경기도’가 되길 바라며 한 알의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이 작은 연구를 마친다.

VIII. 참고문헌

1. 자료

- 『고려사(高麗史)』
- 김정희·이경아·서화숙·최현진, 『특수(시간연장형)보육 수요조사 및 정책 대안연구』 여성부, 2004.
- 김지용, 『여류한시문선, 대양서적』, 1975.
-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2013』, 농림축산식품부, 2013.
- 『대동야승(大東野乘)』.
- 이덕무, 『사소절(四小節)』.
-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 서문화·조애저·김유경·최은영·박지혜,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2005.
- 徐有渠, 「嫂氏端人李氏墓誌銘」, 「伯氏左蘇山人墓誌銘」, 『知非集』 卷7 : 영인본 『楓石全集』에 수록.
- 『승정원일기』.
- 『여성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여성과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한국 NGO 네트워크, 1995.
- 유향 지음, 이숙인 옮김, 『열녀전』, 예문서원, 1996.
- 이궁익,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이능화, 김상억 옮김, 『조선여속고(朝鮮女俗考)』, 동문선, 1990.
- 이능화, 이재곤 옮김, 『조선해어화사(朝鮮解語花史)』 동문선, 1992.
- 李德懋, 『士小節』, 婦儀 事物, 金鍾權 譯. 『士小節』, 양현각, 1983.
- 『조선역대여류문집(朝鮮歷代女流文集)』 을유문화사, 1950.
- 조선왕조실록.
- 『패림(稗林)』.
- 『한살림 선언』 한살림창립총회, 1989.
- 허미자, 『조선조여류시문전집』 태학사, 1998.
- OECD, Closing the Gender Gap: Act Now, 2012.

2. 저서

- 거다 러너, 강세영 옮김, 『가부장제의 창조』, 당대, 2004.
- _____, 강정하 옮김, 『왜 여성사인가』, 푸른역사, 2006.
- 경기도사편찬위원회, 『내 고장 경기도의 인물』, 경기도사편찬위원회, 2005·2006.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역사와 문화 백문백답』, 경기문화재단, 2009.
- 경기인물지편찬위원회, 『경기인물지』, 경기도, 1991.
- 김광언, 『한국의 민속놀이』, 인하대학교출판부, 1982.
- 김미란, 『총명이 무딘 붓끝만 못하니』, 평민사, 1992.
- 김열규, 『한국신화와 무속연구』, 일조각, 1997.
- 김정희, 『남도 여성과 살림예술』, 모시는 사람들, 2013.
- _____, 『생명여성정치의 현재와 전망』, 푸른사상, 2005.
- _____, 『풀뿌리 여성정치와 초록리더십의 가능성』, 대화문화아카데미, 2007.
- 김택규, 『한국농경세시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5.
- 나영균, 『일제시대, 우리 가족은』, 황소자리, 2003.
- 논산문화원, 『논산지역의 민속놀이』, 논산문화원, 1996.
- 러브릭, 『가이아의 시대-살아 있는 우리 지구의 전기』, 홍옥희 옮김, 범양사출판부, 1993.
- 로지 브라이도티, 에바 차르키에비츠, 자비네 호이슬러, 자스키아 비에링가,
『여성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도서출판 나라사랑, 1995.
- 마르티나 도이힐러, 이훈상 옮김, 『한국 사회의 유교적 변환』, 아카넷, 2003.
- 마리아 미즈·베로니카 벤홀트-툼젠 저, 꿈지모 역. 『힐러리에게 암소를:자급의 삶은 가능한가』, 동연, 2013.
- 무야아마지준 저·박전열 역, 『조선의 향토오락』, 집문당, 1992.
-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전남편, 1969.
- _____,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전북편, 1971.
- _____,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경남편, 1972.
- _____, 『노래춤』, 1988.
- 박무영·김경미·조혜란, 『조선의 여성들,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돌베개, 2004.
- 박석무 편역 해설, 『나의 어머니 조선의 어머니』, 현대실학사, 1998.
- 박용옥, 『李朝 女性史』, 춘추문고, 1976.
- 박원순, 『마을에서 회망을 만나다』, 서울: 점등소. 2009.
- 북한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실, 『조선의 민속놀이』, 푸른숲, 1964.
- 신용하, 『독립협회와 개화운동』,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1974.
- 알프 뢰트케 외, 나종석 외 옮김, 『일상사란 무엇인가』, 청년사, 2002.
- 울리히 벡·엘리자베트 벡 저. 한상진·심영희 역, 『위험한 세계와 가족의 미래』, 새물결, 2010.
- 위르겐 슐룸봄, 백승중·장현숙 공편역, 『미시사의 즐거움-17~18세기 유럽의

- 일상 세계』, 돌베개, 2003.
- 이경아, 『엄마는 피로워』, 동녘, 2011.
- 李盛雨, 『韓國食經大典』, 鄉文社, 1981.
- 이성우, 『조선시대 調理書의 분석적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 이숙인, 『동아시아 고대의 여성사상』, 여이연, 2005.
- 이혜순, 『조선후기 여성 지성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여성사』(전3권), 이화여대 출판부, 1972.
-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 陳東原, 송정화·최수경 옮김, 『중국, 여성 그리고 역사』, 박이정, 2005.
- 지춘상, 『중요무형문화재 해설』, 문화재관리국, 1978.
- 책임편집 조르주 뒤비·미셸 페로, 『여성의 역사』(3, 4), 새물결, 1999.
- 한국사연구회,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청년사, 1996.
- ,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청년사, 1997.
- 한국사학회 편, 『한국사 연구방법의 새로운 모색』, 경인문화사, 2003
- 한국여성개발원편, 『한국 역사 속의 여성인물』(상,하), 한국여성개발원, 1998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지음,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 허동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규방 문화』, 서울:현암사, 1997.
- 화이어스톤, 『성의 변증법』, 김예숙 역, 풀빛, 1983.
- Irigaray Luce, *Je, Tu, Nous*, Paris: Editions Grasset & Fasquelle, 1990(뤼스 이리가라이, 박정오역, 『나, 너, 우리: 성차의 문화를 위하여』, 서울: 동문선, 1996).
- Appadurai, Arjun, *Modernity at Large-Cultural Dimension of Globalization*,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1998.
- Frazer 저·김상일 역, 『황금의 가지』, 을유문화사, 1975
- Johan Huizinga 저·김윤주 역, 『Homo Ludens』, 일조각, 1981.

3. 논문

- 김미란, 「조선후기 여류문학의 실학적 특질 - 특히 18세기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84, 1994.
- 김순애, 「근대 한국 자수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75.
- 김정희, 「생협의 생태사회적 경제로서의 가능성과 여성」, 『사회적 경제 리뷰』 Vol.2., 2013.
- , 「핵가족 어머니 육아와 품앗이공동육아 : 중간계층 어머니와 아이의 체

- 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Vol.16 No.1, 한국여성학회, 2000.
- 김지옥, 「노래놀이의 연구 - 강강술래와 뺑다리밟기 유형의 놀이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 「노래놀이 연구 : 강강술래와 뺑다리밟기 유형의 놀이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4, 한국역사민속학회, 1994.
- 김철호, 「여성의 눈으로 보는 근대기의 여성자수」, 『구술사를 통해서 본 20세기 한국의 자수 미술사들』, 이화여대 아시아 여성학 센터, 2011.
- 金春蓮, 「『閨閣叢書』의 家政學叢書의 性格」, 『전통문화연구』 1,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83.
- 김택규, 「한국기층문화론 시고」, 『인류학연구』 2,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연구회, 1982.
- 남미정(2005), 「‘푸른내일을 여는 여성들’의 지속가능한 소비 운동-재사용운동 내용 소개」, 『아시아 태평양 여성환경회의-지속가능한 소비와 환경친화적 경제를 위한 여성리더십』, 여성환경연대·이화리더십개발원 주최, 장소: 이화여대국제교육원LG 켄벤션홀(B1), 2005. 3. 25.
- 박용만, 「청주 출신 여성지식인 사주당 이씨」, 『2013 충북의 역사문화인물』, 충북학연구소, 2013.
- 박주희, 「주부의 생협운동과 가치 지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논문, 2007.
- 백은미, 「생협운동 경험을 통한 여성들의 살림 가치에 대한 의미 고찰」, 『여성학연구』 제22권 제 2호, 2012.
- 신지영, 『여성의 역사쓰기: 자수 공예와 한국현대미술사』, 이화여대 아시아 여성학 센터, 2011.
- 심우성, 『한국의 민속놀이』, 을유문화사, 1975.
- 심화진, 「규합총서에 나타난 봉임측 내용분석」, 『생활문화연구』 8, 성신여자대학교, 1994.
- 이두현, 「한국축제의 향방-역사민속학적 고찰」, 『놀이문화와 축제』,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8.
- , 「민속놀이」,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충북편, 문화재관리국, 1976.
- 이효지, 「閨閣叢書 酒食儀의 조리학적 고찰」, 『師大論文集』 1, 한양대학교, 1981.
- 임재해, 「뺑다리밟기의 유형과 풍농기원의 의미」, 『한국문화인류학』 17, 한국문화인류학회, 1986.
- , 「민속연구의 현장론적 방법」, 『민속문화론』, 문학과 지성사, 1986.
- 정양완, 「閨範類를 통해서 본 韓國女性の 傳統像에 대하여」, 『韓國女性の 傳統像』, 민음사, 1985.
- , 「조선조 여인의 실용적 슬기 - 閨閣叢書를 중심으로 한 소고」, 『민족문화』 1, 1975.
- 정해은, 「조선후기 여성실학자 병허각 이씨」, 『여성과 사회』 8, 창작과비평사, 1997.
- 조은, 「시장사회와 여성학 : 왜 여성주의인가?」, 『시장사회 : 감정의 정치경제학과 여성주의 대안으로서의 노동윤리학』 ((2013년 한국여성학회 제 29차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여성학회, 2013.

- 진희향, 「주민자치와 여성 환경인의 정치적 주체 형성」, 『여성이 새로 짜는 세상』, 여성환경연대 편저, 박영출판사, 2001.
- 채성훈, 「국내 생협의 사업특징과 시사점」, 『CEO FOCUS』 319호, 농협경제연구소, 2013.
- 최정여 외, 「안동늪다리밟기 연구」, 『한국민속연구논문선』, 일조각, 1982.
- 캐더린 김슨, 「경제를 반환하라: 공동체 구성을 위한 윤리와 방법들」, 『시장사회를 넘어: 공동체 경제와 젠더』, 이화여자대학교(김옥길 기념강좌운영위원회). 2013, 27p.
- Carole Pateman, “Feminist Critique of the Public/Private Dichotomy”, [An Introduction to Women’s Studies, 155-160, An Introduction to Women’s Studies, Inderpal Grewal and Caren Kaplan,] ed., Mc Graw Hill Higher Education, Boston 2006, pp.155-160
- Kenneth R. Trapp, “A Theory of Craft :Function and Aesthetic Express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7, p. 13, 71-73, 210, 215-217.
- Snyder, Gary, “Bioregional Perspectives, *Home!*” *A Bioregional Reader*, Van Andrus, Christopher Plant, Judith Plant and Eleanor Wright eds., Philadelphia: New Society Publishers, 1990.

4. 정기간행물

- 『농민신문』, 2010년 6월 16일.
- 『동아일보(東亞日報)』 1928년 12월 12일.
- 『매종』, 2010년 2월.
- 심철웅, ‘동경여자미술학교와 한국근대미술’, 『월간미술』, 2003년 4월.
- 『아시아경제』, 2013년 9월 6일.
- 『연합뉴스』, 2007년 5월 16일.
- 오일영, ‘기후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 『우리과 다음』 46호, 환경정의 시민연대, 2007.
- 우석훈, 「[우석훈의 시민운동 몇 어찌] (6)왕당파와 재벌식 경영」, 『경향신문』, 2011. 4. 12.
- 『파이낸셜 뉴스』, 2014년 2월 4일.
- 『한겨레』, “한겨레가 만난 사람: 정년퇴임하는 조한혜정 연세대 교수”, 2014년 2월 25일.
- 『한국일보』, 2004년 4월 20일.

5. 웹사이트

오건호, ‘박근혜표 복지 예산, 자랑인가 수치인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_print.html?no=40267 (2013. 1.7 다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여성교육 <http://terms.naver.com>

한상수 박물관 웹사이트 [www, hansangsoo.com](http://www.hansangsoo.com)

박을복 자수 박물관 웹사이트 www.embromuseum.com

<http://www.smithonianmag.com>

<http://en.wikipedia.org/wiki/Boykin>

www.slowfood.com

<http://www.hildegard.org>

<http://ica.coop/en/what-co-op/co-operative-identity-values-principles>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전국,2인 이상)’,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
d=A](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A)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

http://krei.re.kr/kor/issue/quick_view.php?reportid=PRN014&rclass=j

O 자문 내역

자문위원: 장필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아시아여성학센터 소장)

내용: <살림문화프로젝트 기본연구: 빙허각 이씨로부터 불러내는 희망> 연구의 내용과 개요, 취지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해경, 신지영, 김정희, 정해은의 원고에 대하여 자문을 구함.

자문 의견:

성문화, 지역문화, 여성사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이해경, 김정희, 신지영, 정해은 연구자들의 연구는 경기도 빙허각 이씨의 생애사와 스토리를 비롯하여 마을 공동체, 살림, 화폐, 경제, 유통 등 매우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이런 연구는 이제까지 기록되지 않은 지역의 토착문화와 지식의 생산자이자 전달자인 여성의 역할들을 드러내는 의미 심장한 시도이다. 각 연구자들이 서로의 연구에 대해 더 많은 cross-referencing가 이루어진다면 아주 훌륭한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정해은 박사의 보고서 중,

“빙허각은 우리나라 돈 이름 7개를 거론하면서 “돈 전(錢)자를 보면 두 개의 창이 금을 다투다[兩戈爭一金]고 하니, 돈이 있으면 위태로운 것을 편안케 할 수 있고 죽을 사람도 살리는 반면 돈이 없으면 귀한 사람도 천하게 되고 산 사람도 죽게 하니 이런고로 분쟁이 돈이 없으면 이기지 못하고 원한이 돈 아니면 풀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돈이 있으면 가히 귀신을 부리리라 하니 하물며 사람이라. 돈이란 날개 없으나 날고, 발이 없으나 달리는 물건이다.”고 논평하였다“

라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우 흥미로운, 중요한 자료가 제시되고 있다. 이 구절은 이해경교수가 문제 제기하는 오늘 날 금융, 화폐의 현실과 연결하여 조금 더 깊은 논의로 발전시킴으로써 당면한 문제와 연결이 가능하리라 본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과제가 제공하는 풍부한 자료와 문제제기가 잘 종합되어, 앞으로 더 많은 경험 연구 자료의 축적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도출되는 이론과 가설을 흥미진진하게 기대한다.

연구수행기관 :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경기학연구팀

연구책임 : 이해경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공동연구 : 김명우 (경기학연구팀 책임연구원)
김정희 (사단법인 가배울 대표)
김지옥 (경기학연구팀 수석연구관/팀장)
신지영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객원연구원)
정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자문 : 이광희 (서울시립대학교 겸임교수/경기문화재단 사무처장)
장필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아시아여성학센터 소장)

연구보조 : 양하영 (홍익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

총괄진행 : 조유진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원장)
실무진행 : 김지옥 (경기학연구팀 수석연구관/팀장)
정춘옥 (경기학연구팀 선임연구원)
김진형 (경기학연구팀 전문연구원)
이은솔 (경기학연구팀 연구원)



※ 이 연구는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경기학연구팀이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